

पालि Pālī

예불과 의례집

태국 담마웃 전통에 따름

붓다의 고귀한 제자들

팔리어(Pālī) 예불(Chanting)의 공덕

예불은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에 예경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명상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즉 수행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예불의 공덕은 엄청납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예불을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접하고, 팔리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가르침의 본질을 전혀 왜곡하지 않고 스스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팔리어 예불을 통해 여러분의 수행이 한결 탄탄해지시고 열반에 이르는 기반을 닦으시길 합장하여 기원드립니다.

서 문

빨리어 예불은 쉽지 않다. 발음도 쉽지 않고,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았으며, 사원마다 예불문 구성하는 계송들 순서 및 계송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표준 예불문을 설정하기가 난감했었다. 다행히 한국의 태국 사찰 ‘왓 붓타랑시’의 예불문을 근간으로 삼고, 일부 빨리어 계송들을 첨삭하여, 태국 숲속의 전통인 담마웃 종단의 예불문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본 예불집의 한글 번역문은 기존의 여러 번역문들(특히 테라와다 불교의범)과 직접 번역을 통해 편저형태로 제작하였다. 인용되어진 번역문들의 출처 모두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들을 용서해주시길 바란다. 이러한 부족함으로 인해, 아직까지 번역어 및 문체들이 통일성을 완벽하게 갖추질 못하였다. 부처님의 원음과 높은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출간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전의 영문 번역문이 포함된 예불집(19년 출간)은 학습용으로는 적합하였지만, 예불할 때,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 출판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한글 번역 문구들은 앞으로 여러 눈 밝은 불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가다듬어, 차후의 법보시는 보다 완벽한 형태로 가다듬어지길 발원한다.

본 예불집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행하면서 해야 할 것들로 구성된 일종의 수행지침서이다. 예를 들어 ‘삼보 예경’은 ‘삼보 회상’을 위한 수행의 기본이 되고, 자애명상, 신체명상, 물질에 대한 명상, 법에 대한 명상 등등 명상의 주제들이며, 경전 또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전들이다. 매일 정성껏 마음을 모아, 빨리어 예불과 수행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공덕은 무한히 증대될 것이다.

이번 ‘21년도 빨리어 예불, 의식집’ 개정판의 법보시는 서화진 불자님이 주관하였다. 삼보의 위신력을 빌려, 금년에 망자가 되신 서화진 불자의 어머니(남궁여)과 주변의 모든 존재들, 그리고 빨리어 동영상 제작해주신 선한 마음님과 동영상 교정에 동참해주신 여러 법우님들의 공덕이 널리 회향되어지길 간절히 기원드린다.

2021년 8월 빅쿠 까따담모

팔리어 한글표기 및 운율

모 음		자 음							
단, 장① 모 음	복모음	연구개음	경구개음	권설음	치 음	순 음	반모음	치찰음	
a,ā 아	e 에	ka 까	ca 짜	ṭa 따	ta 따	pa 빠	ya 야③	śa 샤	
i,ī 이	ai 아이	kha 카	cha 차	ṭha 타	tha 타	pha 파	ra 라	ṣa 샤	
u,ū 우	o 오	ga 가	ja 자	ḍa 다	da 다	ba 바	la ㄹ+라④	sa 사	
r,ṛ 르	au 아우	gha 가	jha 자	ḍha 다	dha 다	bha 바	va 바	ha 하	
l,ḷ 르		ṇ ᆞ	ṇa 나②	ṇa 나	na 나	ma 마	ḥ ᆞ	ṃ ᆞ	

- ① 장모음(ā, ī, ū)은 장음기호 ‘˘’로 표기함. (예 : āyata → 아˘야따)
- ② ṇa(냐) 이외의 경우에는 ‘ㄴ’로 표기, ṇa나 na의 경우는 동일하게 사용.
- ③ 자음 + ya일 때도 ‘자음 + 야’로 표기. (예: sūrya → 수라야)
 yu는 ‘유’, ye는 ‘예’, yo는 ‘요’로 표기.
- ④ l(ㄹ)은 앞의 모음에 ‘ㄹ’을 첨가함. r(ㄹ)은 첨가하지 않음.
 (예) apara → 아빠라, apala → 아빨라, tamir → 따미르, tamil → 따밀.

1) 기타 표기

동일계통의 자음이 중복될 경우엔 앞의 자음을 받침으로 사용한다. 단, 받침으로 사용하는 앞의 자음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예) buddha → 분다(×) 붓다(○), sakka → 삭까(×) 삭까(○)
 <‘테라와다 불교의범’ 준용>

2) 담마웃의 전통적인 운율

(보기)

Van-da-ma-ham ta-ma-ra-naṃ si-ra-sa-ji-nen-dam.
 완 다 마 항 따 마 라 냥 시 라 사 지 넌 당
 1 1 ½ 1 ½ ½ ½ 1 ½ ½ 1 ½ 1 1

3) []기호 설명

[Arahāṃ sammā sambuddho...]의 []기호 안은 인도자가 선창하는 부분임.

4) ꎿ ꎿ 기호 설명

(보기) ꎿ 표시 안의 구간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됨을 표기함.

ꎿ Uju, 『 Ṇāya, Sāmaici 』 ~ 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ꎿ

“(1) 우주 빠띠빠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2) 나˘야 빠띠빠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3) 사˘미˘찌 빠띠빠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의 반복형을 축약 표기한 형태임

5) 희미한 글자들은 인도자(큰 스님)부재시, 또는 간략하게 예불할 때에는 생략되는 부분임.

6) 팔리어 표기는 이탤릭체로 통일하였음.



목 차

서 문	i
팔리어 한글표기 및 운율	ii
제1장 아침 예불(Morning Chanting)	1
1. 삼보 예경(<i>Ratanattaya Vandana</i>)	1
2. 인도자의 삼보 초청	2
3. 첫번째 예경(<i>Pubba-bhāga-nama-kāra-pāṭha</i>)	3
4. 부처님 예찬(<i>Buddhābhiṭṭhuti</i>)	3
5. 담마 예찬(<i>Dhammābhiṭṭhuti</i>)	4
6. 상가 예찬(<i>Saṅghābhiṭṭhuti</i>)	5
7. 삼보 예찬과 오온을 다스리는 계송(<i>Ratanattayappaṇāma-Gāthā</i>)	6
8. 4종 필수품 사용중 숙고(<i>Taṇ-khaṇika paccavekkhaṇa Pāṭha</i>)	10
9. 4종 필수품을 염오로 숙고(<i>Dhātu paṭikūla paccavekkhaṇa Pāṭha</i>)	11
10. 4종 필수품 사용후 숙고(<i>Atīta-paccavekkhaṇa Pāṭha</i>)	13
11. 항상 숙고해야 하는 5가지 대상(<i>Abhiṇha-paccavekkhaṇa Pāṭha</i>)	14
12. 몸 사띠 수행(<i>Kāyagatā-sati-bhāvana-pāṭha</i>)	16
13. 부처님의 발자취를 기리며(<i>Pāda-valaṇjana-pāṭha</i>)	18
14. 숭고한 삶(<i>Brahmavihāra Pharana pāṭha</i>)	21
15. 공덕의 회향(<i>Patti-Dāna-Gāthā : Puñṇassidāni-katassa</i>)	24
16. 공덕회향 계송-2(<i>Paṭṭi-dāna-Gāthā</i>)	26
17.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i>Udadissanādhiṭṭhāna-Gāthā</i>)	27
제2장 저녁 예불(Evening Chanting)	29
1. 삼보 예경(<i>Ratanattaya Vandana</i>)	29
2. 첫번째 예경(<i>Pubba-bhāga-nama-kāra-pāṭha</i>)	30
3. 부처님 회상(<i>Buddhānussati-nayaṃ</i>)	31
4. 부처님 찬탄(<i>Buddhābhigīta</i>)	31
5. 담마 회상(<i>Dhammānussati-nayaṃ</i>)	33
6. 담마 찬탄(<i>Dhammābhigīta</i>)	33
7. 상가 회상(<i>Saṅghānussati-nayaṃ</i>)	35
8. 상가 찬탄(<i>Saṅghābhigīta</i>)	36



제3장 길상 계송(AUSPICIOUS CHANTS) 39

1. 신들의 초청(*Ārādhanā Devatā*) 39
2. 첫 번째 예경(*Pubba-bhāga-namakāra Pāṭha*) 40
3. 삼보에 귀의(*Saraṇagamana Pāṭha*) 40
4. 삼보는 유일한 의지처(*Saccakiriya Gāthā*) 41
5. 부처님의 대자비(*Mahā-kāruṇiko nātho...*) 41
6. 진정한 피안처(*Khemākhema-saraṇa-gamana-paridīpikā Gāthā*) 42
7. 삼보에 귀의하여 얻는 승리(*Nama-Kāra-Siddhi Gāthā*) 43
8. 수 많은 부처님(*SamBuddhe aṭṭhavīsañcadikā Gāthā*) 44
9. 8번의 경배(*Namo-Kāra-Aṭṭhaka Gāthā*) 45
10. 길상경(*Maṅgala Sutta*) 46
11. 보배경(*Ratana Sutta*) 49
12. 자애경(*Karaṇīya-Metta Sutta*) 53
13. 자비를 통한 보호주(*Khandha-Paritta*) 55
14. 공작새 보호주(*Mora-Paritta*) 56
15. 어린 메추라기 보호주(*Vaṭṭaka-paritta*) 57
16. 앙굴리말라 보호주(*Aṅguli-māla Paritta*) 58
17. 깨달음 7가지 요소(*Bojjhaṅga Paritta*) 59
18. 과거불 보호경(*Āṭānāṭiya Paritta*) 61
19. 안전 기원 보호주(*Abhaya-Paritta*) 64
20. 보호주(*Nakkhatta yakkha*) 64
21. 신들의 귀환(*Devatā Uyyojana Gāthā*) 65

제4장 담마의 숙고 67

1. 법의 속성 경(*Dhammaniyāma Sutta*) 67
2. 삼법인에 대한 계송(*Ti-lakkhaṇ'ādī Gāthā*) 69
3. 위뵈사나 토대의 계송(*Vipassanā-bhūmi Pāṭha*) 71
4. 부처님의 오도송(*Buddha-Udāna Gāthā*) 74
5. 담마 분류(*Dhammasaṅgaṇī mātikā Pāṭha*) 75
6. 논장(*Phra Abhidhamma 7 gambhī*) 78
7. 빵수꿀라 계송(*Paṃsu-kula Gāthā*) 83



제5장 경전(Various Suttas)	85
1. 초전법륜경(<i>Dhamma-cakkappavattana Sutta</i>)	85
2. 무아경(<i>Anatta-lakkhaṇa Sutta</i>)	96
3. 불의 경(<i>Āditta-pariyāya Sutta</i>)	105
4. 기억해야 함 경(<i>Sārāṇīya-dhamma Sutta</i>)	109
5. (7가지 불퇴전)의 비구경(<i>Bhikkhu aparihāniya dhamma sutta</i>)	113
6. 깃발 보호경(<i>Dhaj'agga Sutta</i>)	117
7. 대회경-신들의 회합(<i>Mahāsamaya Sutta</i>)	123
8. 사띠(알아차림)의 확립 계송(<i>Satipaṭṭhana-Pāṭha</i>)	138
9. 재보(財寶)의 축적(<i>Nidhikaṇḍa-sutta-Gāthā</i>)	144
10. 권고하는 계목(<i>Ovāda paṭimokkhādipāṭha</i>)	147
11. 계목 암송후 독송 계송(<i>Siluddesa-Pāṭha</i>)	154
12. 따야따나 계송(<i>Tāyatana-Gāthā</i>)	155
13. 보호주(<i>Parittakaraṇa-Pāṭha</i>)	156

제6장 공덕 회향 감사(<i>Anumodana</i>)	159
1. 감사 계송(<i>Anumodanā-Gāthā</i>)	159
2. 삼보 회향(<i>Anussaraṇa Pāṭha</i>)	160
3. 부처님 길상 승리 계송(<i>Buddha-Jayamaṅgala-Gāthā</i>)	161
4. 승리의 계송(<i>Jaya Paritta</i>)	163
5. 모든 부처님의 위력으로(<i>Culla-Maṅgala-cakka-vāḷa Pāṭha</i>)	164
6. 대 승리의 길상 계송(<i>Mahā jaya maṅgala Gāthā</i>)	165
7. 정사(亭舍) 보시(<i>Vihāra-dāna-Gāthā</i>)	168
8. 30 바라밀(<i>Tiṃsa Pāramī</i>)	169
9. 최상의 믿음(<i>Aggappasāda-sutta-Gāthā</i>)	171
10. 때맞은 보시 공덕의 경(<i>Kāla-dānā-sutta-Gāthā</i>)	172
11. 음식의 경(<i>Bhojana-dānanumodana-Gāthā</i>)	172
12. 보시하는 이익(<i>So atthaladdho</i>)	173
13. 돌아가신 분을 위한 보시(<i>Tirokuddakanda Sutta</i>)	174
14. 보시의 으뜸은 상가(<i>Keṇīyanumodanā Gāthā</i>)	175
15. 삼보의 위신력(<i>Ratanattayā'nubhāv'ādi-Gāthā</i>)	175
16. 모든 축복이 함께 하길..(<i>Sumaṅgala-Gāthā</i>)	176



17. 삼보 예찬(Venerating the Triple Gem)	176
18. 승리자의 보금자리(<i>Jina-pañjara Gāthā</i>)	178
19. 10 방위 보호 계송(<i>Atthanga Disani Sutta</i>)	181

제7장 의식 (Formal Requests) 185

1. 임시 수계 요청(<i>Nekkhamma</i>)	185
2. 환속(Relinquishing the Precepts)	185
3. 5계 수계 요청(Requesting the 5 Precepts)	186
4. 8계 수계 요청(Requesting the 8 Precepts)	188
5. 청법 계송(<i>Ārāghanā Dhammadesanā</i>)	191
6. 보호주 또는 축원을 요청(<i>Ārāghanā Paritta</i>)	191
7. 상가용품 헌공 요청(General <i>saṅgha dānā</i> offering)	192
8. 음식 공양 요청(Food offering)	192
9.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음식 공양(<i>Matakabhatta Pūjā</i>)	193
10. 목욕가사 보시(<i>Vāsikacīvara Pūjā</i>)	193
11. 목욕가사와 가사보시(<i>Vassikasāṭika–Ticīvarāṇi</i> Offreing)	194
12. 까티나 데이 가사 공양(<i>Kaṭhina cīvara Pūjā</i>)	194
13. 헌 옷 공양(Forest Cloth offering)	195
14. 초 공양(Rain Retreat Candles offering)	195
15. 초, 향, 꽃 공양(Candle–Incense and Flowers offering)	196
16. 거처 헌공(Lodging offering)	196
17. 책 보시(Books offering)	197
18. 의약품 보시(Medicine(<i>bhesajja</i>) –offering)	197
19. 쌀 헌공(Rice offering)	198
20. 부처님께 헌공하면서(Offering <i>Buddha -dana</i>)	198
21. 공덕의 회향(Transference of Merits)	199
22. 용서를 구함(Requesting Forgiveness)	200
23. 상가의 날 법회의식(<i>Māgha Pūjā</i>)	201
24. 부처님의 날 법회의식(<i>Visākha Pūjā</i>)	203
25. 담마의 날 법회의식(<i>Āsāḥa Pūjā</i>)	206



제1장 아침 예불(Morning Chanting)

1. 삼보 예경(Ratanattaya Vandana)

Yo so Bhagavā araham sammā-sambuddho;

요 소 바가와~ 아라함 삼마~ 삼붓도.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Svākkhāto yena Bhagavatā dhammo;

사왁~카~또 예나 바가와따~ 담모.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위없는 담마.

Supatipanno yassa Bhagavato sāvaka-saṅgho;

수빠띠뻬노 얏사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훌륭하게 수행해온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Tam-mayaṃ Bhagavantam sadhammaṃ sasaṅghaṃ;

탐 마얏 바가완탐 사담망 사상강,

이러한 우리들의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에

Imehi sakkārehi yathārahaṃ āropitehi abhipūjayāma;

이메히 삭까~레히 야타~라함 아~로삐떼히 아비뿌~자야~마.

우리들은 진정한 존경심으로 최상의 예경 올립니다.

Sādhū no bhante Bhagavā sucīra-parinibbutopi;

사~두 노 반떼 바가와~ 수찌라 빠리닙부또삐,

비록 존경하는 부처님께서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셨지만,

Pacchimājanatānukampamānasā;

빳치마~자나따~누감빠마~나사~,

후손들을 여전히 연민하여 주시니,

Ime sakkāre duggatapaṇṇākārabhūte patiggaṇhātu;

이메 삭까~레 독가따뻬나~까~라부~떼 빠딕간하~뚜.

우리들의 공손한 예를 받아 주소서.

Amhākā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우리들의 이익과 행복이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Arahaṃ sammā sambuddho*] *Bhagavā. Buddhāṃ Bhagavantāṃ abhivādemī.*
[아라함 삼마~삼붓도] 바가와~. 붓당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절하며 최상의 예경을 올립니다. (큰 절)

[*Svākkhāto*] *Bhagavatā dhammo. Dhammaṃ namassāmi.*
[사왓~카~또] 바가와따~ 담모. 담망 나맛사~미.

부처님께 의해 잘 설해진 담마, 그 담마에 경의를 표합니다. (큰 절)

[*Su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Saṅghaṃ namāmi.*
[수빠띠판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상강 나마~미.

훌륭하게 수행해온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그 상가에 존경을 표합니다. (큰 절)

2. 인도자의 삼보 초청

<인도자>

Yam-amha kho mayaṃ Bhagavantāṃ saraṇaṃ gatā,
야 맘하 코 마양 바가완땅 사라낭 가따~,
 우리 모두는 세존께 의지했습니다.

(**uddissa pabbajitā*) *yo no Bhagavā satthā,*
(*웃딛사 뵘바지따~) 요 노 바가와~ 샛타~
 (*출가 수행자들인) 우리의 스승님은 세존이십니다.

Yassa ca mayaṃ Bhagavato dhammaṃ rocema.
얏사 짜 마이양 바가와또 담망 로쩌마.
 세존의 담마에 우리는 환희롭습니다.

Imeḥi sakkārehi taṃ Bhagavantāṃ sasaddhammaṃ sasāvaka-saṅghaṃ abhipūjayāma.
이메히 삭까~레히 땅 바가완땅 사삿담망 사사~와까 상강 아비부~자야~마.
 그분 세존, 그분의 진실한 담마, 그분의 제자들인 상가를 높이 받들며 이러한 예를 올립니다.



3. 첫번째 예경(Pubba-bhāga-nama-kāra-pāṭha)

<인도자>

[Handa dāni mayantaṃ Bhagavantaṃ vācāya abhitthutūṃ ~

[한다 다~니 마얀땅 바가완땅 와~짜~야 아빃투똥,

pubba-bhāga-nama-kārañceva buddhānussati-nayañca karoma se.]

뽕바 바~가 나마 까~란제와 뽏다~눗사띠 나얀짜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회상’에 앞서 존귀하신 부처님께 먼저 존경의 예불을 올립시다.

또는

[Handa mayaṃ buddhassa Bhagavato pubba-bhāga-nama-kāraṃ karoma se.]

[한다 마양 뽏닷사 바가와또 뽕바 바~가 나마 까~랑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존귀하신 부처님께 먼저 존경의 예불을 올립시다.

<모두>

¶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뽏닷사. (3번 반복)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4. 부처님 예찬(Buddhābhitthuti)

<인도자>

[Handa mayaṃ buddhābhitthutīm karoma se.]

[한다 마양 뽏다~빃투땃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 예찬’을 다함께 예불을 올립시다.

<모두>

[Yo so Tathāgato] araham sammā-sambuddho,

[요 소 따타~가또] 아라함 삼마~ 삼뽏도,

그분은 세존,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Vijjā-carāṇa-sampanno sugato loka-vidū,

윗자~ 짜라나 삼판노 수가또 로까위두~,

지혜와 덕행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을 가신 분,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아시는 분,



Anuttaro purisa-damma-sārathi satthā deva-manussānaṃ Buddho Bhagavā.
아nut타로 부리사 담마 사~라티 샣타~ 데와 마nut사~낭 붓도 바가와~.

여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Yo Imāṃ lokāṃ sadevakaṃ samāraṃ sabrahmakāṃ,
요 이망 로깡 사데와깡 사마~라깡 사브라마깡,

이 세상과 천상세계, 마군들과 범천세계,

Sassamaṇa-brāhmaṇiṃ pajāṃ sadeva-manussaṃ sayāṃ abhiññā sacchikatvā pavedesi.
삿사마나 브라~마닝 빠장 사데와 마nut상 사양 아빈냐~ 샣치까따와~ 빠웨데시.

사문과 성직자, 자손, 천인과 인간에게,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깨달아 널리 가르치신 분.

Yo dhammaṃ desesi ādi-kalyāṇaṃ majjhe-kalyāṇaṃ pariyosāna-kalyāṇaṃ,
요 담망 데세시 아~디 갈라야~낭 맛제 갈라야~낭 빠리요사~나 갈라야~낭,

이 진리를 시작도 훌륭하며, 중간도 훌륭하며, 끝맺음도 훌륭하게 설하시어,

Sātthaṃ sabyañjanaṃ kevala-paripunnāṃ parisuddhaṃ brahma-cariyaṃ pakāsesi.
삿~탕 사바얀자낭 깨왈라빠리뿐낭 빠리삿당 브라마짜리양 빠까~세시.

자세하고 핵심적인 의미들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뛰어난 청정범행을 알게 하셨습니다.

Tam-ahaṃ Bhagavantāṃ abhipūjayāmi, Tam-ahaṃ Bhagavantāṃ sirasā namāmi.
따 마함 바가완탕 아비뿌~자야~미, 따 마함 바가완탕 시라사~ 나마~미.

나는 그 부처님께 최상의 예경 올리며, 그분 부처님께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큰 절>

5. 담마 예찬(*Dhammābhitthutī*)

<인도자>

[*Handa mayaṃ dhammābhitthutīm karoma se.*]
[한다 마양 담마~빗투땡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담마 예찬’을 다함께 예불을 올립니다.

<모두>

[*Yo so Svākkhāto*] *Bhagavatā dhammo. Sandiṭṭhiko akāliko ehi-passiko,*
[요 소 사왓~카~또] 바가와따~ 담모. 산딤티꼬 아갈~리꼬 에히 뵈시꼬,

그분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 즉시 볼 수 있고, 시간과 관계없이, 와서 보라 청하며,

Opanayiko 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
오빠나이꼬 뵈뵈땡 웨디뵈보 윈뉴~히~.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볼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Tam-ahaṃ dhammaṃ abhipūjayāmi, Tam-ahaṃ dhammaṃ sirasā namāmi.
따 마함 담망 아비뿌~자야~미, 따 마함 담망 시라사~ 나마~미.

나는 그 뛰어난 담마에 최상의 예경 올리며, 그 담마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큰 절>



6. 상가 예찬(*Sanghābhitthutī*)

<인도자>

[*Handa mayam saṅghābhitthutim karoma se.*]
[한다 마양 상가~빋투팅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상가 예찬’을 다함께 예불을 올립시다.

<모두>

[*Yo so su 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요 소 수 빠띠반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훌륭하게 수행해온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Uju, 『 *Nāya,* *Sāmīci* 』 ~ *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
우주, 『 나~야, 사~미~찌 』 빠띠반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올바르게 『 체계적으로, 노련하게 』 수행해온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Yad-idam cattāri purisa-yugāni aṭṭha purisa-puggalā.
야 디담 찢따~리 뿌리사 유가~니 앗타 뿌리사 뽅갈라~.
이분들은 네 쌍과 여덟 유형의 성자(聖子)들이며.

Esa Bhagavato sāvaka-saṅgho.
에사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이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Ahuneyyo pāhuneyyo dakkhineyyo añjali-karaṇīyo,
아~후네이요 빠~후네이요 닥키네이요 안잘리 까라니~요,
공경 받을 가치 있는, 환대할 가치 있는, 보시 받을 가치 있는, 합장 받을만한 분들이며;

Anuttaram puññakkhettaṃ lokassa.
아nut타람 뽀ṇṇackettaṃ 로갓사.
이 세상에서 위없는 복을 심는 밭(田)입니다.

Tam-aḥam saṅgham abhipūjayāmi,
따 마함 상강 아비뿌~자야~미,
나는 그 훌륭한 상가에 최상의 예경 올리며,

Tam-aḥam saṅgham sirasā namāmi.
따 마함 상강 시라사~ 나마~미.
그 상가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큰 절>



7. 삼보 예찬과 오온을 다스리는 계송(Ratanattayappaṇāma-Gāthā)

<인도자>

[*Handa mayaṃ ratanattayappaṇāma-gāthāyo ceva saṃvega vaṭṭhu paridīpaka-pāṭhañca ~ bhaṇāma se.*]

[한다 마양 라따낏따압빠나·마 가·타·요 께와 상웨가 왓투 빠리디~빠까 빠·탄짜 ~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삼보를 예찬하며, 욕망을 다스리는 계송을 독송합시다.

<모두>

[*Buddho susuddho*] *karuṇā-mahannavo, Yo'ccanta-suddhabbara-ñāṇa-locano.*
[붓도 수숫도] 까루나~ 마한나오, 옥짤따 숫답바라 나·나 로짜노.

청정하신 부처님의 대자비는 큰 바다와 같으시고, 구족하신 지혜의 눈 완전하게 맑으시며,

Lokassa pāpūpakilesa-ghātaḥ, Vandāmi buddhaṃ aham-ādarena taṃ.
로갓사 빠·뿌·빠길레사 가·따고, 완다·미 붓당 아하마·다레나 땅.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번뇌를 잘 파괴하신 분이시니, 나는 진실하게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Dhammo padīpo viya tassa satthuno, Yo magga-pākāmata-bheda-bhinnako,
담모 빠디·보 위야 땃사 샷투노, 요 막가 빠·까·마따 베다빈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찬란한 햇불과 같아, 도, 과, 불사(不死)로 나누시어

Lokuttaro yo ca tad-attha-dīpano, Vandāmi dhammaṃ aham-ādarena taṃ.
로꾸따로 요 짜 따 닛타 디·빠노, 완다·미 담망 아하마·다레나 땅.

초월적이며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보이시고 밝혀주셨으니, 나는 진실하게 담마를 존경합니다.

Saṅgho sukhettabhyatikhetta-saṇṇito, Yo diṭṭha-santo sugatānubodhako,
상고 수켓따·바야띠켓따 산니또, 요 디ṭṭ하 산토 수가따·누보다고,

상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의 밭으로,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깨달음을 향하면서,

Lolappahīno ariyo sumedhaso, Vandāmi saṅghaṃ aham-ādarena taṃ.
롤랍빠히·노 아리요 수메다소, 완다·미 상강 아하마·다레나 땅.

부주의함을 여윈 현명한 성자들이시니, 나는 진실하게 상가를 존경합니다.

Icevā-ekant'abhipūjaneyyakam, Vatthuttayaṃ vandayatābhisaṅkhatam,
잇째와 메간따비부·자네이야강, 왓투따양 완다야따·비상카땅,

삼보는 진실로 존경할 가치가 있어, 우리들이 최상의 예경 올리나니,

Puññaṃ mayā yaṃ mama sabb'upaddavā,
뽤냐ṃ 마야·양 마마 삽부빳다와,

이 같은 예경 공덕으로 나의 모든 장애 제거되고,

Mā hontu ve tassa pabbhāva-siddhiyā.
마·혼투 웨 땃사 빠바·와 싯디아.

이 같은 믿음의 힘으로 장애 없어지길..

* * *

(* 이후 가능하면 이어서)



Idha Tathāgato loke uppanno araham sammā-sambuddho.
이다 따타~가또 로께 읍판노 아라함 삼마~삼뵈도.

여기, 진리에 이르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이 세상에 오셨고,

Dhammo ca desīto niyyāniko upasamiko parinibbāniko sambodha-gāmī sugatappavedito.
담모 짜 데시또 니이야~니꼬 우빠사미꼬 빠리닙바~니꼬 삼보다가~미~ 수가땡빠웨디또.

이미 잘 가신 부처님께서 잘 설해주신 이 담마는 윤회고를 벗어나 고요함과 완전한
 님바나로 인도되는 진리.

Mayan-taṃ dhammaṃ sutvā evaṃ jānāma,
마얀 땅 담망 수따와~ 에왕 자~나~마,

우리들은 그 담마를 듣고서 이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Jātipi- dukkhā jarā-pi dukkhā maraṇam-pi dukkhaṃ,
자~띠삐 독카~ 자라~삐 독카~ 마라남삐 독강,

태어남이 괴로움이요, 늙음이 괴로움이요, 죽음 또한 괴로움이요,

Soka- parideva- dukkha- domanass- upāyāsā pi dukkhā,
소까 빠리데와 독카 도마낫수빠~야~사~ 삐 독카~,

슬픔과 비탄, 고통, 근심, 절망 또한 괴로움이요,

Appiyeḥi sampayogo dukkho piyeḥi vippayogo dukkho yamp'icchaṃ na labhati tampi dukkhaṃ,
압삐예히 삼빠요고 독코 삐예히 윽빠요고 독코 얌뵈창 나 라바띠 땡삐 독강,

싫은 사람과 관련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괴로움이다.

Saṅkhittena pañc'upādānakkhandhā dukkhā,
상키테나 반쭈빠~다~낙칸다~ 독카~,

짧게 말해, 오온(五蘊)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Seyyathīdam;
세이야티~당;

이들을 말하면;

Rūpūpādānakkhandho,
루~부~빠~다~낙칸도,

집착의 모임으로 된 색(色)이요,

Saññūpādānakkhandho,
산뉴~빠~다~낙칸도,

집착의 모임으로 된 상(想)이요,

Viññāṇūpādānakkhandho,
윈냐~누~빠~다~낙칸도,

집착의 모임으로 된 식(識)임을,

Vedanūpādānakkhandho,
웨다누~빠~다~낙칸도,

집착의 모임으로 된 수(受)요,

Saṅkhārūpādānakkhandho,
상카~루~빠~다~낙칸도,

집착의 모임으로 된 행(行)이요,

Yesaṃ pariññāya.
예상 빠린냐~야.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Dharamāno so Bhagavā,
다라마~노 소 바가와~,
세존께서 살아 계실 때,

Evam bahulam sāvake vineti,
에왕 바홀랑 사~와께 워네띠,
이런 방식으로 자주 일깨워 주기 위해,

Evam bhāgā ca pan'assa Bhagavato sāvakesu anusāsani,
에왕 바~가~ 짜 빠낏사 바가와또 사~와께수 아누사~사니~,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가르침이

Bahulām pavattati;
바홀랑~ 빠왓따띠;
자주 행하여졌습니다;

Rūpaṃ aniccaṃ,
루~팡 아닛짱,
색(色)은 변하는 것이요,

Vedanā aniccā,
웨다나~ 아닛짜~,
수(受)도 변하는 것이요,

Saññā aniccā,
산나~ 아닛짜~,
상(想)도 변하며,

Saṅkhārā aniccā,
상카~라~ 아닛짜~,
행(行)도 변하는 것이요,

Viññāṇaṃ aniccaṃ.
원나~낭 아닛짱.
식(識)도 변하는 것이니.

Rūpaṃ anattā,
루~팡 아닛따~,
색(色)은 자아가 아니며,

Vedanā anattā,
웨다나~ 아닛따~,
수(受)도 자아가 아니며,

Saññā anattā,
산나~ 아닛따~,
상(想)도 자아가 아니며,

Saṅkhārā anattā,
상카~라~ 아닛따~,
행(行)도 자아가 아니며,

Viññāṇaṃ anattā,
원나~낭 아닛따~,
식(識)도 자아가 아니니,

Sabbe saṅkhārā aniccā,
삽베 상카~라~ 아닛짜~,
모든 진행과정들은 변하는 것이요,

Sabbe dhammā anattā'ti.
삽베 담마~ 아닛따~띠.
모든 현상들이 자아가 아니네.

*Te[*Tā] mayaṃ,*
떼[*여:따~] 마양,
우리 모두는

Otiṇṇāmaha jātiyā jarā-maraṇena,
오티나~마하 자~띠야~ 자라~ 마라네나,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시달리며,

Sokehi paridevehi dukkhehi domanassehi upāyāsehi,
소께히 빠리데웨히 독케히 도마닛세히 우빠~야~세히,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또한 생겨나니,

Dukkh'otiṇṇā dukkha-paretā,
독코핀나~ 독카 빠레따~,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고, 괴로움이 항상 존재함을 알아,

App-eva nāṃ'im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anta-kiriya paññāyethā'ti.
압베와 나~미맛사 깨알랏사 독각칸닷사 안따끼리야~ 판나~예타~띠.
이 괴로움과 근심의 모임들이 항상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네.



<이하 출가자(비구 등)들이 하는 계송>

Cira-parinibbutam-pi taṃ Bhagavantam uddissa arahantaṃ sammā-sambuddhaṃ,
찌라 빠리닙부탐삐 땅 바가완땅 옷딧사 아라한땅 삼마~ 삼뵇당,

모든 번뇌를 벗어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지만,

Saddhā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itā,
삿다~ 아가~라사마~ 아나가~리양 뵍바지따~,

우리들은 확신하며 출가수행의 길로 나아가니,

Tasmim Bhagavati brahma-cariyaṃ carāma,
따사밍 바가와띠 브라마 짜리양 짜라~마,

세존의 청정범행을 닦음으로,

Bhikkhūnaṃ sikkhā-sājīva-samāpannā. Taṃ no brahma-cariyaṃ,
빅꾸~낭 식카~ 사~지~와 사마~ 뵍나~. 땅 노 브라마 짜리양,

비구의 삶과 계율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청정범행의 힘으로,

Im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antakiriyaṃ samvattatu.
이맛사 깨왈랏사 득각칸닷사 안따끼리야~야 상왓따뚜.

모든 괴로움과 근심의 모임들이 끝나는 곳으로 인도하길..

* 이하 재가자들이 하는 계송

*Cira-parinibbutam-pi taṃ Bhagavantam saraṇaṃ gato*1),*
찌라 빠리닙부탐삐 땅 바가완땅 사라낭 가또,

비록 세존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지만,

Dhammañ-ca saṅghañ-ca, Tassa Bhagavato sāsaṇaṃ.
담만짜 상간짜, 따사 바가와또 사~사낭

우리들은 세존의 가르침에 따라 담마와 상가를 귀의처로 삼아,

Yathā-sati yathā-balaṃ manasikaroma, anupaṭipajjāma,
야타~ 사띠 야타~ 발랑 마나시까로마, 아누빠띠뵍자~마.

삼보를 항상 사띠하고, 삼보의 위신력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ā sā no paṭipatti, im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antakiriyaṃ samvattatu.
사~ 사~ 노 빠띠뵍띠, 이맛사 깨왈랏사 득각칸닷사 안따끼리야~야 상왓따뚜.

우리들의 이와 같은 수행의 힘으로, 모든 괴로움과 근심의 모임들이 끝나는 곳으로
 인도하길..

1) 여성(Female) : *gata(가따~)



8. 4종 필수품 사용중 숙고(*Taṇ-khaṇika paccavekkhaṇa Pāṭha*)

[*Handa mayam taṇ-khaṇika-paccavekkhaṇa-pāṭham bhanāma se.*]
[한다 마양 땅카니까 뽳짜웁카나 빠~탕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4종 필수품 사용중 숙고’ 계송을 독송합시다.

[*Paṭisaṅkhā yoniso*] *cīvaram paṭisevāmi*,
[빠띠상카~ 요니소] 찌~와랑 빠띠세와~미

현명하게 숙고하면서, 나는 가사를 착용합니다.

Yāvad-eva sītassa paṭighātāya, *Uṇhassa paṭighātāya,*
야~와데와 시~땃사 빠띠가~따~야 운햇사 빠띠가~따~야,
단지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Daṃsa-makasa-vātātapa-siriṃsapa-samphassānam paṭighātāya,
당사 마까사 와~따~따빠 시링사빠 삼팃사~낭 빠띠가~따~야,
파리와 모기, 비바람과 태양열, 여러 곤충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Yāvad-eva hiri-kopina paṭicchādan'attham.
야~와데와 히리꼬삐나 빠땃차~다낫탕.
단지 수치심을 야기하는 몸을 가리기 위함일 뿐입니다.

Paṭisaṅkhā yoniso piṇḍapātam paṭisevāmi
빠띠상카~ 요니소 뽳다빠~땅 빠띠세와~미
현명하게 숙고하면서, 나는 공양합니다.

N'eva davāya na madāya na maṇḍanāya na vibhūsanāya,
네와 다와~야 나 마다~야 나 만다나~야 나 위부~사나~야,
맛을 즐기기 위함도, 배부르게 먹기 위함도, 몸을 불리기 위함도, 몸을 꾸미기 위함도 아니며,

Yāvad-eva imassa kāyassa tṭhiyā yāpanāya vihiṃsuparatiyā brahma-cariyānuggahāya,
야~와데와 이맛사 까~얏사 티피야~ 야~빠나~야 위힝수빠라피야~ 브라마 짜리아~눅가하~야,
단지 몸을 지탱하고, 고통을 멈추고, 청정범행을 돕기 위함일 뿐입니다.

Iti purāṇañ-ca vedanam paṭihaṅkhāmi navañ-ca vedanam na uppādessāmi,
이띠 뿌라~난짜 웨다낭 빠띠항카~미 나완짜 웨다낭 나 움빠~뎃사~미,
그저 배고픔의 오래된 느낌만 제거하고, 어떤 새로운 느낌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Yātrā ca me bhavissati anavajjatā ca phāsu-vihāro cāti.
야~따라~ 짜 메 바윗사띠 아나왓자따~ 짜 파~수 위하~로 짜~띠.
내 자신을 유지하며, 비난받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살 것입니다.

Paṭisaṅkhā yoniso senāsanam paṭisevāmi.
빠띠상카~ 요니소 세나~사낭 빠띠세와~미.



현명하게 숙고하면서, 나는 거처에서 앉고 머뭙니다.

Yāvad-eva sītassa paṭighātāya, Uṇhassa paṭighātāya,
 야~와데와 시~땃사 빠띠가~따~야, 운합사 빠띠가~따~야,
 단지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Daṃsa-makasa-vātātapa-sirimsapa-samphassānaṃ paṭighātāya,
 당사 마까사 와~따~따빠 시링사빠 삼팻사~낭 빠띠가~따~야,
 파리와 모기, 비바람과 태양열, 여러 곤충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Yāvad-eva utu-parissaya-vinodanaṃ paṭisallān'ārām'atthaṃ.
 야~와데와 우뚜빠릿사야 위노다낭 빠띠살라~나~라~맛탕.
 단지 기후의 변화로부터 보호하고,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Paṭisaṅkhā yoniso gilāna-paccaya-bhesajja-parikkhāraṃ paṭisevāmi.
 빠띠상카~ 요니소 길라~나 뽏짜야 베삿자 빠릭카~랑 빠띠세와~미.
 현명하게 숙고하면서, 나는 의약품과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Yāvad-eva uppannānaṃ veyyābādhikānaṃ vedanānaṃ paṭighātāya,
 야~와데와 움빠나~낭 웨이야~바~디까~낭 웨다나~낭 빠띠가~따~야,
 단지 병으로부터 생겨난 고통스런 느낌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으니,

Abyāpajjha-paramatāyā'ti.
 아바야~뽏자 바라마따~야~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최상의 자유로 나아가기 위함일 뿐입니다.

9. 4종 필수품을 염오로 숙고(*Dhātu paṭikūla paccavekkhaṇa Pāṭha*)

[*Handa mayam dhātu-paṭikūla-paccavekkhaṇa-pāṭhaṃ bhaṇāma se.*]
 [한다 마양 다~뚜 빠띠쿨~라 뽏짜웍카나 빠~탕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4종 필수품 염오로 숙고' 계송을 독송합시다.

[*Yathā paccayam*] *pavattamānaṃ, dhātu-mattam-ev'etaṃ yadidaṃ cīvaram.*
 [야타~ 뽏짜양] 빠왓따마~낭, 다~뚜 맛따 메웨땅 야디당 꺾~와랑.
 여기 있는 생필품으로, 이 가사들은 단지 물질이기에,

Tad-upabhuñjako ca puṇṇalo dhātu-mattako nissatto nījjīvo suñño.
 따 두빠분자꼬 짜 뽏갈로 다~뚜 맛따꼬 닛삿또 닛지~오 순뇨.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단순한 물질로, 자아도, 영혼도 아니며, 그저 비어있으니

Sabbāni pana imāni cīvarāni ajigucchaniyāni,
 삽바~니 빠나 이마~니 꺾~와라~니 아지굿차니~야~니,
 입고 있는 동안만 험오스럽지 아니할 뿐,

imaṃ pūti-kāyaṃ patvā ativiya jigucchaniyāni jāyanti.
 이망 뿌~띠까~양 빠따와~ 아띠위야 지굿차니~야~니 자~얀띠.



종국에는 아주 혐오스럽게 변합니다.

Yathā paccayaṃ pavattamānaṃ, dhātu-mattam-ev'etaṃ yadidaṃ piṇḍapāto.
야타~ 뽕짜양 빠왓따마~냥, 다~뚜 맛따 메웨땅 야디당 빈다빠~또.

여기 있는 생필품으로, 공양하는 이 탁발 음식들은 단지 물질이기에,

Tad-upabhuñjako ca puṇḍalo dhātu-mattako nissatto nijjīvo suñño;
따 두빠분자꼬 짜 뽕갈로 다~뚜 맛따꼬 닛삿또 닛지~오 순뇨,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단순한 물질로, 자아도, 영혼도 아니며, 그저 비어있으니

Sabbo panāyaṃ piṇḍapāto ajigucchaniyo,
삽보 빠나~양 빈다빠~또 아지굿차니~요,

먹고 있는 동안만 혐오스럽지 아니할 뿐,

imaṃ pūtikāyaṃ patvā ativiya jigucchaniyo jāyati.
이망 뿌~띠까~양 빠따와~ 아띠위야 지굿차니~요 자~야띠.

종국에는 아주 혐오스럽게 변합니다.

Yathāpaccayaṃ pavattamānaṃ, dhātu-mattam-evetaṃ yadidaṃ senāsaṇaṃ.
야타~ 뽕짜양 빠왓따마~냥, 다~뚜 맛따 메웨땅 야디당 세나~사냥

여기 있는 생필품으로, 사용 중인 처소는 단지 물질이기에,

Tad-upabhuñjako ca puṇḍalo dhātu-mattako nissatto nijjīvo suñño.
따 두빠분자꼬 짜 뽕갈로 다~뚜 맛따꼬 닛삿또 닛지~오 순뇨.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단순한 물질로, 자아도, 영혼도 아니며, 그저 비어있으니

Sabbāni pana imāni senāsaṇāni ajigucchaniyāni,
삽바~니 빠나 이마~니 세나~사나~니 아지굿차니~야~니,

거주하는 동안만 혐오스럽지 아니할 뿐,

imaṃ pūti-kāyaṃ patvā ativiya jigucchaniyāni jāyanti.
이망 뿌~띠까~양 빠따와~ 아띠위야 지굿차니~야~니 자~얀띠.

종국에는 아주 혐오스럽게 변합니다.

Yathāpaccayaṃ pavattamānaṃ, dhātu-mattam-ev'etaṃ yadidaṃ gilāna-paccaya-bhesajja-parikkhāro.
야타~ 뽕짜양 빠왓따마~냥, 다~뚜 맛따 메웨땅 야디당 길라~나 뽕짜야 베삿자 빠릭카~로.

여기 있는 생필품으로, 사용 중인 의약품들은 단지 물질이기에,

Tad-upabhuñjako ca puṇḍalo dhātu-mattako nissatto nijjīvo suñño.
따 두빠분자꼬 짜 뽕갈로 다~뚜 맛따꼬 닛삿또 닛지~오 순뇨.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단순한 물질로, 자아도, 영혼도 아니며, 그저 비어있으니

Sabbo panāyaṃ gilāna-paccaya-bhesajja-parikkhāro ajigucchaniyo,
삽보 빠나~양 길라~나 뽕짜야 베삿자 빠릭카~로 아지굿차니~요

사용하는 동안만 혐오스럽지 아니할 뿐,

imaṃ pūti-kāyaṃ patvā ativiya jigucchaniyo jāyati.
이망 뿌~띠까~양 빠따와~ 아띠위야 지굿차니~요 자~야띠

종국에는 아주 혐오스럽게 변합니다.



10. 4종 필수품 사용 후 숙고(*Atīta-paccavekkhaṇa Pāṭha*)

[*Handa mayam atīta-paccavekkhaṇa Pāṭham bhaṇāma se.*]

[한다 마얌 아띠~따 뽳짜웁카나 빠~탕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4종 필수품을 사용 후 숙고’하는 계송을 독송합시다.

[*Ajja mayā apaccavekkhitvā yaṃ cīvaram paribhuttaṃ.*]

[앗자 마야~] 아뽳짜웁키따와~ 양 꺾~와랑 빠리뽳땅.

오늘 내가 미처 숙고하지 못한 채 입은 가사(승복)들은,

Taṃ yāvad-eva sītassa paṭighātāya, Uṇhassa paṭighātāya,
땅 야~와데와 시~뽳사 빠띠가~따야, 운합사 빠띠가~따야,

그것은 단지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Daṃsa-makasa-vātātapa-sirīṃsapa-samphassānaṃ paṭighātāya,
당사 마까사 와~따~따빠 시링사빠 삼팍사~낭 빠띠가~따야,

파리와 모기, 비바람과 태양열, 여러 곤충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Yāvad-eva hiri-kopina paṭicchādan'atthaṃ.

야~와데와 히리꼬삐나 빠뽳차~다낫탕.

단지 수치심을 야기하는 몸을 가리기 위함일 뿐이었습니다.

Ajja mayā apaccavekkhitvā yo piṇḍapāto paribhutto.

앗자 마야~ 아뽳짜웁키따와~ 요 뽳다빠~또 빠리뽳또.

오늘 내가 탁발 음식을 숙고하지 않고 먹은 것이 어떤 음식이라도.

So n'eva davāya na madāya na maṇḍanāya na vibhūsanāya,
소 네와 다와~야 나 마다~야 나 만다나~야 나 위부~사나~야,

맛을 즐기기 위함도, 배부르게 먹기 위함도, 몸을 불리기 위함도, 몸을 꾸미기 위함도 아니며,

Yāvad-eva imassa kāyassa ṭhitiyā yāpanāya vihiṃsuparatiyā brahma-cariyānuggahāya,
야~와데와 이맛사 까~얏사 티띠야 야~빠나~야 위힉수빠라띠야 브라마 짜리야~눅가하야,

단지 몸을 지탱하고, 고통을 멈추고, 청정범행을 돕기 위함일 뿐이었습니다.

Iti purāṇaṇ-ca vedanaṃ paṭihaṅkhāmi navaṇ-ca vedanaṃ na uppādessāmi,
이띠 뿌라~난짜 웨다낭 빠띠항카~미 나완짜 웨다낭 나 옴빠~뎡사~미,

그저 배고픈 오래된 느낌만 제거하고, 어떤 새로운 느낌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Yātrā ca me bhavissati anavajjatā ca phāsu-vihāro cā-ti.

야~따라~짜 메 바윗사띠 아나왓자따~ 짜 파~수 위하~로 짜~띠.

내 자신을 유지하며, 비난받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살 것입니다.



Ajja mayā apaccavekkhitvā yaṃ senāsanam paribhuttam.
앗자 마야~ 아빻짜웁키타와~ 양 세나~사낭 빠리뵓땅.

오늘 내가 사용하는 거주처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무엇이든지,

Taṃ yāvad-eva sītassa paṭighātāya, Uṇhassa paṭighātāya,
땅 야~와데와 시~팻사 빠띠가~따~야, 운합사 빠띠가~따~야,

그것은 단지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Daṃsa-makasa-vātātapa-sirīṃsapa-samphassānam paṭighātāya,
당사 마까사 와~따~따빠 시링사빠 삼팻사~낭 빠띠가~따~야,

파리와 모기, 비바람과 태양열, 여러 곤충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Yāvad-eva utu-parissaya-vinodanam paṭisallān'ārām'attham.
야~와데와 우뚜빠릿사야 위노다낭 빠띠살라~나~라~맛탕.

단지 기후의 변화로부터 보호하고,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Ajja mayā apaccavekkhitvā yo gilāna-paccaya-bhesajja-parikkhāro paribhutto.
앗자 마야~ 아빻짜웁키타와~ 요 길라~나 뽳짜야 배삿자 빠릭카~로 빠리뵓또.

오늘 내가 의약품과 의료도구들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무엇이든지,

So yāvad-eva uppannānam veyyābādhikānam vedanānam paṭighātāya,
소 야~와데와 읍판나~낭 웨이야~바~디까~낭 웨다나~낭 빠띠가~따~야,

단지 병으로부터 생겨난 고통스런 느낌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으니,

Abyāpajjha-paramatāyāti.
아바야~뽳자 빠라마따~야~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최상의 자유로 나아가기 위함일 뿐입니다.

11. 항상 숙고해야 하는 5가지 대상(*Abhiñha-paccavekkhaṇa Pāṭha*) (*Jarā-dhammo'mhi*)

<인도자>

[*Handa mayam abhiñha-paccavekkhaṇa-pāṭham bhaṇāma se.*]
[한다 마양 아빈하 뽳짜웁카나빠~탕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항상 숙고해야 하는 5가지 대상’ 계송을 독송합시다.

[*Jarā-dhammo'mhi*] *jaram anatīto.*
[자라~ 담뽁히] 자랑 아나띠~또.

나는 늙게 되어있고, 이 늙음을 피할 길 없네.

[*Byādhi-dhammo'mhi*] *byāधिṃ anatīto.*
바야~디 담뽁히 바야~딩 아나띠~또.

나는 병들게 되어있고, 이 질병들을 피할 길 없네.



Marāṇa-dhammo'mhi maraṇaṃ anatīto.

마라나 담뭍히 마라낭 아나띠~또.

나는 죽게 되어있고, 이 죽음을 피할 길 없네.

Sabbhehi me piyehi manāpehi nānā-bhāvo vinā-bhāvo.

삽베히 메 뵤예히 마나~뵤히 나~나~ 바~오 워나~ 바~오.

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모든 소유물을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하네.

Kammassako'mhi kamma-dāyādo kamma-yoni kamma-bandhu kamma-paṭisaraṇo.

깜맛사꼴히 깜마 다~야~도 깜마 요니 깜마 반두 깜마 빠띠사라노.

자신의 행위의 주체이고, 자신의 행위의 상속자이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태어나서, 자신의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여 살아가네.

Yaṃ kammaṃ karissāmi kalyāṇaṃ vā pāpakaṃ vā tassa dāyādo bhavissāmi.

양 깜망 까릿사~미 깔라야~낭 와~ 빠~빠강 와~ 땃사 다~야~도 바윗사~미.

내 자신의 행위가 착하든 악하든 간에,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받아야만 하네.

Evam amhehi abhinhaṃ paccavekkhitabbaṃ.

에왕 암헤히 아빈항 뵤짜웁키패방.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5가지를 항상 숙고해야만 하네.



12. 몸 사띠 수행(*Kāyagatā-sati-bhāvanā-pāṭha*)

<인도자>

[*Handa mayaṃ kāyagatā-sati-bhāvanā-pāṭhaṃ bhaṇāma se.*]

[한다 마양 까야가따 사띠 바와나 빠탕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몸 사띠 수행’ 계송을 독송합시다.

[*Ayaṃ kho me*] *kāyo,*
[아양 코 메] 까요

/ *kāi khong rao nī lear,*
카이 쿵 라우 니 레

이것이 나의 몸이네

Uddhaṃ pāda-talā,
웃당 빠다 딸라

/ *buang bon tare phern thao khern mā,*
뵤엥 본 태 페른 태우 큰 마

발바닥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Adho kesa-matthakā,
아도 게사 맛타까

/ *buang tam tare plāi phom long pai,*
뵤엥 탐 태 플라이 폼 롱 파이

머리부터 발로 내려가면서

Taca-pariyanto,
따짜 빠리안토

/ *mī nang hum yū pen thī sut rorp,*
미 nang 흙 유 펜 티 슛 롱

피부로 감싸져 있으며

Pūro nānappakārassa asucino, / *tem pai duay khong mai sā-art, mī prakān tāng tāng*
뿌로 나납빠까랏사 아수찌노 템 바이 두아이 쿵 마이 사아트, 미 프라칸 탕 탕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네

Atthi imasmim kāye:
앗티 이마사밧 까예

/ *mī yū nai kāi nī:*
미 유 나이 카이 니

나의 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

Kesā / *kheu phom thang-lāi,*
게사 켄어 폼 탕라이

Lomā / *kheu khon thang-lāi,*
로마 켄어 콘 탕라이

머리카락

몸에 난 털

Nakhā / *kheu lep thang-lāi,*
나카 켄어 렵 탕라이

Dantā / *kheu fan thang-lāi.*
단타 켄어 판 탕라이

손발톱

치아

Taco / *kheu nang,*
따쨌 켄어 nang

Mamsam / *kheu nua,*
망상 켄어 누아

Nhārū / *kheu en thang-lāi,*
나하루 켄어 엔 탕라이

피부

살

힘줄

Atthi / *kheu kradūk thang-lāi,*
앗티 켄어 크라두크 탕라이

Atthimiñjam / *yuer nai kradūk,*
앗티민장 예어 나이 크라두크

뼈

골수

Vakkaṃ / *mām,*
왓강 맘

Hadayam / *hua-jai,*
하다양 후아 짜이

Yakanam / *tap,*
야가낭 탐

신장

심장

간



Kilomakam / phang phert,
길로마강 팡 프,
 황경막

Pihakam / tai,
비하강 타이,
 비장

Papphasam / pod,
뵤파상 뵤,
 폐

Antam / sai-yai,
안땅 사이 야이,
 소장

Antagunam / sai-noy,
안따구낭 사이 노이,
 대장

Udariyam / ahān mai,
우다리양 아한 마이,
 소화 안 된 음식

Karīsam / ahān kao,
가리상 아한 까오,
 툽, 대변

Matthake Mattha-luṅgam / yuer nai samong si sa.
맛타께 맛타 룡강 예어 나이 사몽 시 싸.
 뇌

Pittam / nam dī,
빋땅 남 디,
 담즙

Semham / nam salaet,
셈함 남 살레,
 가래, 담,

Pubbo / nam lerng,
뵤보 남 령,
 고름, 진물

Lohitam / nam luat,
로히땅 남 룡,
 피(혈액)

Sedo / am nger,
세도 남 응아,
 땀

Medo / nam man-khon,
메도 남 만 쿤,
 지방

Assu / nam tā,
앗수 남 따,
 눈물

Vasā / nam man laaw,
와사 남 만 래오,
 기름기

Kheḷo / nam lāi,
켈로 남 라이,
 침, 타액

Sīghāṇikā / nam mūk,
싱가니까 남 뭉,
 콧물

Lasikā / nam khai khor,
라시까 남 카이 커어,
 임파액

Muttam / nam mūt.
뭇땅 남 뭇,
 오줌

Evam-ayaṃ me kāyo;
에와 마양 메 까요,
 내 몸은 이와 같으니,

/ Kāi khong rao nī yang nī;
카이 킵 라오 니 양 니,

Uddham pāda-talā,
웃당 빠다탈라,
 발바닥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 buang bon tare phern thao khern mā,
뵤앙 본 태 폰 타오 쿤 마,

Adho kesa-matthakā,
아도 켜사 맛타까,
 머리부터 발로 내려가면서,

/ buang tam tare plāi phom long pai,
뵤앙 땀 태 뵤라이 폼 룡 바이

Taca-pariyanto,
따짜 빠리안토,
 피부로 감싸져 있으며,

/ mī nang hum yū pen thī sut rorp,
미 nang 흙 유 펜 티 슛 럽

Pūro nānappakārassa asucino.
뿌로 나남빠까랏사 아수찌노.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있네.

/ tem pai duay khong mai sā-art, mī prakān tāng tāng yang ni lae.
땀 바이 두 아이 킵 마이 싸아, 미 뿌라칸 탕 탕 양 니 래.



13. 부처님의 발자취를 기리며(*Pāda-valaṅjana-pāṭha*)

<인도자>

[*Handa mayam Pāda-valaṅjana-pāṭham bhanāma se.*]

[한다 마양 빠~다 왈란자나 빠~탕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의 발자취를 기리며’ 계송을 독송합니다.

Vandāmi buddham bhava-pāra-tiṇṇam,

완다~미 붓당 바와 빠~라 띤낭

나는 존재계를 초월하신 부처님께 경배드립니다.

[태국어] Khāphajao khor namasarn Phra Buddha-jao Phū kam phon fang teng phop.

카~파짜오 켄어 나마싸가ᄃ 프라 붓다 짜오 푸~ 캄 폰 팡 텡 퓌

Ti-loka-ketum ti-bhaveka-nātham

띠 로까 깨툼 띤 바웨까나~탕

삼계의 깃발이시며, 삼계의 유일한 수호자이십니다.

[태국어] Phū pen tong chai kong trai-loke, Phū pen nātha ek kong trai-phop.

푸~ 뎀 퉁 차이 킵 트라이록, 푸~ 뎀 나~타 엑 킵 트라이퓌

Yo loka-settho sakalam kilesam,

요 로까 셋토 사갈랑 길레상,

Chetvāna bodhesi janam anantam.

체따와~나 보데시 자낭 아난땅.

번뇌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수 많은 분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시니 세상에서 최상이십니다.

[태국어] Phū prasert nai loke, tud kilet tang sin dai laew,

푸~ 프라써어 나이 록, 투트 킬레 탕 싸 다이 래우,

choo-ay plook chon hā tī-soot mi dai, hai tratsrū mak pon le nippān

추웨이 플룩 쉰 하~ 티~ 수트 미 다이, 하이 트라트수루~ 막 폰 레 님판

Yam nammadāya nadiyā puline ca tīre.

양 남마다~야 나디아~ 뽀리네 짜 띤~레.

현자께서 남마다 강변의 모래에 남기신 발자취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태국어] Roi phra Bāt dai, an phra Buddha ong dai song sadeng wai,

레이 프라 바~트 다이, 안 프라 붓다 옹 다이 송 싸덴 와이,

nai hāt sai taep fang-maer-nam Nammadā.

나이 하트 사이 태프 팡매남 남마다.

Yam sacca-bandha-girike sumanā ca lagge,

양 삿짜 반다 기리게 수나마~ 짜 락게,

사짜반다 산²⁾과 수마나 산³⁾ 정상도,

[태국어] Roi Phra Bāt dai, an Phra Buddha-ong dai song sadeng wai,

레이 프라 바~트 다이, 안 프라 붓다 옹 다이 송 싸덴 와이,

nua khaw Saccha-pan, lae nua yort khaw Sumanā.

노아 카우 삿짜 판, 래 노아 요트 카우 수마나.

2) 미얀마 중부의 산이라고도 함.

3) 수마나 산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산이라고도 함.



Yam tattha yonaka-pure munino ca pādam,
양 따타 요나까 부레 무니노 짜 빠~당,

Tam pādavalāñjanamaham sirasā manāmi.
땅 빠~다왈란자나마함 시라사~ 마나~미.

요나까 지방⁴⁾도. 나는 이 다섯 곳의 발자취를 따라 경배 올립니다.

[태국어] Roi phra Bāt dai, an phra Buddha ong dai song sadeng wai,
레이 프라 바~ 다이, 안 프라 부~다 옹 다이 송 사~덴 와이,
nai muang Yonaka, Khāphajao khor namasgārṇ phra Bāt,
나이 므앙 요나까, 카~프라짜오 켜 나마사~가~ 프라 바~,
le roi phra Bāt nan nan, kong phra Muni doey sien klow.
레 레이 프라 바~ 난 난, 켕 프라 무니 도~이 씨~얀 클로.

Suvanna-mālike suvanna-pabbate, Sumana-kūṭe yonaka-pure nammadāya nadiyā,
수완나 말~리게 수완나 뽀바떼, 수마나 꾸떼 요나까 부레 남마다~야 나디아~,

pañca pāda-varam ṭhānaṃ ahaṃ vandāmi durato.
판짜 빠~다와랑 타~낭 아함 완다~미 두라도.

수완나 꽃 산, 수완나 바위산, 수마나 산 정상, 요나까 지역과 남마다 강변에

[태국어] Khāphajao khor namasgārṇ satān tī, mī roi Phra Bāt an prasert hā sathan taer tī klai,
카~프라짜오 켜 나마사~가~ 사~탄~ 티~, 미~ 레이 프라 바~ 안 프라~서 하~ 사~탄~ 때 티~ 클라이,
keu tī kow Suvanna-mālika neung, tī kow Suvanna-banpot neung,
커~ 티~ 카우 수완나 말~리가~ 능, 티~ 카우 수완나 뽀~팟~ 능,
tī yort kow Sumana-kūṭ neung, tī Yonaka burī neung,
티~ 요~ 카우 수마나~ 꾸~ 능, 티~ 요나까 부리~ 능,
tī pang hang maer nam cher Nammadā neung.
티~ 팡 행 매~ 남~ 초~어~ 남마다~ 능.

Icevām-accanta-namassaneyyaṃ, namassamāno ratanattayaṃ yaṃ,
잇제와 맛짤따 나맛사네이양, 나맛사마~노 라따나따양 양,

가장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삼보에 예경을 표합니다.

[태국어] Khāphajao namasgārṇ yū cheung phra Ratana-trai dai,
카~프라짜오 나마사~가~ 유~ 쉼 프라 라~타나트라이~ 다이,
an buk-kon kuan wai doay soo-an ying, yang nī doay prahārṇ chanī.
안 북~곤~ 관~ 와이~ 도~이~ 쉼~잉, 양~ 니~ 도~이~ 빠~라~가~ 차니~.

Puññābhisandaṃ vipulaṃ alattoṃ,
뽀냐~비산당 위뽀랑 알랏탕,

많은 공덕들이 쌓이고

[태국어] Dai laew cheung kong būn an paibūn.
다이 레우~ 쉼 켕~ 분~ 안~ 파이분~

Tassānubhāvena hatantarāyo.
탓사~누바~웨나 하판따라~요.

이런 공덕의 힘으로 모든 위험들이 사라지길...

[태국어] Khor ānu-phāp haeng Phra Ratana-trai nan, jong kamjad phai antarāi nan sier tern.
커~어 아~누~파~ 행 프라 라~타나트라이~ 난, 쉼~ 감~자~드~ 파이~ 안~따라~이~ 난~ 씨~야~ 텡.

4) 인도 서북부지방 아프카니스탄 지역



Āmantayāmi vo bhikkhave,
아만파야미 오 빅카웨,

비구들을 불러서,

[태국어] Doo kon *biksu tang-lāi, rao khor tuan tñn tang-lāi.⁵⁾
두곤 *빅수 탕라이, 라우 켜어 툐안 탄 탕라이.

Paṭivedayāmi vo bhikkhave,
빠띠웨다야미 오 빅카웨,

비구들에게 알려준다.

[태국어] Doo kon *biksu tang-lāi, rao khor hai tñn tang-lāi chāp wai wā.⁶⁾
두곤 *빅수 탕라이, 라우 켜어 하이 탄 탕라이 찻 와이 와.

Khayavayadhammā saṅkhārā,
카야와야담마 상카라,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사라진다.

[태국어] Sangkhārñ tang-lāi, mī khwām suam pen thammadā.
상카라 탕라이, 미 콴 수암 펜 탐마다.

Appamādena sampādetthāti.
압빠마데나 삼빠데타띠.

게으르지 말고 완벽함을 성취해라.

[태국어] Khor hai tan tang-lāi, jong yung pryot ton laer pryot tñn,
켜어 하이 탄 탕라이, 종 양 뿌랏 톤 래 뿌랏 탄,

hai thung prom duoy khwām mai pramād thert.
하이 퉁 프롬 두아이 콴 마이 뿌라마 터.

Iti
이띠

이상과 같다.

[태국어] doay prakārñ chanī laer.
두아이 뿌라칸 차니 래.

5) 재가자(남성과 여성)Doo kon *upāsaka lae upāsikā* tang lāi, rao khor tuan tñn tang lāi.

6) 재가자(남성과 여성)Doo kon *upāsaka lae upāsikā* tang lāi, rao khor hai tñn tang lāi chāp wai wā.



14. 승고한 삶(*Brahmavihāra Pharana pāṭha*)

[*Aham sukhito*] *homi* [태] Khor hai Khāphajao jong pen phū theng suk therd
 [아함 수키토] 호미. 커어 하이 카~파짜오 쯡 뵤 푸 텡 쑉 터어.

내가 행복하기를!

[*Niddukkho homi*] [태] jong pen phū rai tuk therd
 닛득코 호미. 쯡 뵤 푸 라이 툅 터어.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Avero homi*] [태] jong pen phū mai mī wen therd.
 아웨로 호미. 쯡 뵤 푸 마이 미 웬 터어.

내가 악의로부터 벗어나기를!

[*Abyāpajjho homi*] [태] jong pen phū mai beeat-bain seung-gun-lae-gun therd.
 아바야~뵤조 호미. 쯡 뵤 푸 마이 비얏비얀 쑹 갠 래 갠 터어.

내가 정신적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Anīgho homi*] [태] jong pen phū mai mī tuk therd
 아니~고 호미. 쯡 뵤 푸 마이 미 툅 터어

내게 육체적 어려움이 없기를!

[*Sukhī attānaṃ pariharāmi*] [태] jong raksā ton yū pen suk therd.
 수키~ 앓따~낭 빠리하라~미 쯡 락사~ 톤 유 뵤 쑉 터어.

내 자신을 행복하게 돌볼 수 있기를!

[*Sabbe sattā sukhitā hontu.*]
 삽베 샷따~ 수키타~ 혼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태국어] sat tang-lāi tang-puang, tī pen pern ruam tuk, gert-gaer-jep-tāi tang-mot tang-sin,
 샷 탕라~이 탕뵤앙, 티 뵤 판 루엄 툅, 겐어 개 쟈 따~이 탕뵤 탕싌,
 jong pen phū mī khwām-suk therd.
 쯡 뵤 푸 미 감 쑉 터어.

[*Sabbe sattā averā hontu.*]
 삽베 샷따~ 아웨라~ 혼뚜.

모든 중생들이 악의로부터 벗어나기를!

[태국어] sat tang-lāi tang-puang, tī pen pern ruam tuk, gert-gaer-jep-tāi tang-mot tang-sin,
 샷 탕라~이 탕뵤앙, 티 뵤 판 루엄 툅, 겐어 개 쟈 따~이 탕뵤 탕싌,
 jong pen phū mai mī wen gaer gun-lae-gun therd.
 쯡 뵤 푸 마이 미 웬 개 갠 래 갠 터어.

[*Sabbe sattā abyāpajjhā hontu.*]
 삽베 샷따~ 아바야~뵤자~ 혼뚜.

모든 중생들이 정신적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태국어] sat tang-lāi tang-puang, tī pen pern ruam tuk, gert-gaer-jep-tāi tang-mot tang-sin,
 삿 탕라~이 탕뽀웁, 티~ 뽀~ 프안 루엄 툽, 겐어 개 켈 따~이 탕뽏 탕썸,
 jong pen phū mai beeat-bain seung-gun-lae-gun therd.
 쯡 뽀~ 푸~ 마이 비얏 비얀 썽 갠 래 갠 터어.

Sabbe sattā anīghā hontu.

삿뽀 삿따~ 아니~가~ 혼뚜.

모든 중생들이 육체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태국어] sat tang-lāi tang-puang, tī pen pern ruam tuk, gert-gaer-jep-tāi tang-mot tang-sin,
 삿 탕라~이 탕뽀웁, 티~ 뽀~ 프안 루엄 툽, 겐어 개 켈 따~이 탕뽏 탕썸,
 jong pen phū mai mī tuk kái tuk jai therd.
 쯡 뽀~ 푸~ 마이 미~ 툽 까~이 툽 짜이 터어.

Sabbe sattā sukhī attānaṃ pariharantu.

삿뽀 삿따~ 수키~ 앓따~낭 빠리하란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하여 행복하기를!

[태국어] sat tang-lāi tang-puang, tī pen pern ruam tuk, gert-gaer-jep-tāi tang-mot tang-sin,
 삿 탕라~이 탕뽀웁, 티~ 뽀~ 프안 루엄 툽, 겐어 개 켈 따~이 탕뽏 탕썸,
 jong pen phū mī suk, raksā ton hai phon-jāk tuk phai therd.
 쯡 뽀~ 푸~ 미~ 썩, 락싸~ 톤 하이 폰 짜~ 툽 파이 터어.

Sabbe sattā sabba-dukkhā pamuccantu.

삿뽀 삿따~ 삿바 독카~ 빠뽏찬뚜.

모든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태국어] sat tang-lāi tang-puang, tī pen pern ruam tuk, gert-gaer-jep-tāi tang-mot tang-sin,
 삿 탕라~이 탕뽀웁, 티~ 뽀~ 프안 루엄 툽, 겐어 개 켈 따~이 탕뽏 탕썸,
 jong phon jāk tuk tang-puang therd.
 쯡 폰 짜~ 툽 탕뽀웁 터어.

Sabbe sattā laddha-sampattito mā vigacchantu.

삿뽀 삿따~ 랏다 삼뽏띠또 마~ 위갓찬뚜.

모든 중생들이 성취한 행복을 간직하기를!

[태국어] sat tang-lāi tang-puang, tī pen pern ruam tuk, gert-gaer-jep-tāi tang-mot tang-sin,
 삿 탕라~이 탕뽀웁, 티~ 뽀~ 프안 루엄 툽, 겐어 개 켈 따~이 탕뽏 탕썸,
 jong yā pai prasajāk sombat an ton dai laew therd.
 쯡 야~ 빠이 프라자~ 썸뽏 안 톤 다이 래우 터어.

Sabbe sattā

삿뽀 삿따~

모든 중생들은

[태국어] sat tang-lāi tang-puang, tī pen pern ruam tuk, gert-gaer-jep-tāi tang-mot tang-sin,
 삿 탕라~이 탕뽀웁, 티~ 뽀~ 프안 루엄 툽, 겐어 개 켈 따~이 탕뽏 탕썸,



kammassakā
깜맛사까~

자신의 행위의 주체이고,

[태] Mī kam pen khong khong ton,
 미~ 캄 베~ 켕 켕 톤

kamma- dāyādā
깜마 다야다~

자신의 행위의 상속자이고,

[태] Mī kam pen phū hai pon
 미~ 캄 베~ 푸~ 하이 푼

kamma- yonī
깜마 요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태어나서,

[태] Mī kam pen daen kerd
 미~ 캄 베~ 댄 커드

kamma- bandhū
깜마 반두~

자신의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태] Mī kam pen phū tit tām
 미~ 캄 베~ 푸~ 티트 따뎀

kamma- paṭisaraṇā.
깜마 빠띠사라나~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여 살아가네.

[태] Mī kam pen tī peung āsai
 미~ 캄 베~ 티~ 품 아~싸이

Yaṃ kammaṃ karissanti
얌 캄망 까릿산띠

내 자신이 짓는

[태] Jak tam kam an dai wai
 잭 따뎀 캄 안 다이 와이

kalyāṇaṃ vā pāpakaṃ vā
칼라야~낭 와~ 빠~빠강 와~

착한 행위이든 악한 행위이든,

[태] Pen būn reu pen bāp
 베~ 분~ 레~ 베~ 밥~

tassa dāyādā bhavissanti.
탓사 다야다~ 바윗산띠.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받아야만 하네.

[태국어] Rao jak pen tā-yāt, keu wā ja tong dai rap phon khong kam nan sup-pai.
 라우 잭 베~ 타~야~트, 켄 와~ 짜 텡 다이 랍 폰 켕 캄 난 썸빠이.

Sabbe sattā sadā hontu,
삽베 샛따~ 사다~ 혼뚜,

모든 중생들이 항상 증오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averā sukha-jīvino.
아웨라~ 수카 지~위노.

[태국어] Khor hi sat thang-lāi, yā dai mī wen kair kan-lae-kan ley,
 켄어 하이 싯 탕라~이, 야~ 다이 미~ 웬 개~ 캄 래~ 캄 레이,

jong damrongchīp yū pen suk tuk mua thern.
 쯡~ 뎃롱침~ 유~ 베~ 쑥 툅 무아 텡.

Kataṃ puñña-phalaṃ mayhaṃ, sabbe bhāgī bhavantu te.
까따뎀 뽀냐 팔랑 마이항, 삽베 바~기~ 바완뚜 떤.

내가 행한 공덕의 결과를 누구든지 함께 누리게 되기를!

[태국어] Khor hi sat thang-lāi, jong dai sawey phonbūn, tī kha-phajao dai bamphen,
 켄어 하이 싯 탕라~이, 쯡~ 다이 싸웨이 폰분~, 티~ 카~파짜오~ 다이 밤펜,

duay kai waca jai laew nan thern.
 두아이 카이 와짜~ 짜이 레우~ 난 텡.



15. 공덕의 회향(*Patti-Dāna-Gāthā : Puññassidāni-katassa*)

[*Handa mayam patti-dāna-gāthāyo bhaṇāma se.*]
[한다 마양 뱃피 다나 가타요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공덕의 회향’ 계송을 독송합시다.

[*Puññass'idāni*] *katassa,* *yān'aññāni katāni me,*
[뽀냇시다니] 까따사 야난나니 까따니 메,
모든 존재들이 공덕을 끝없이, 한량없이 함께 공유하길..

Tesaṇ-ca bhāgino hontu sattānantāppamāṇaka.
테산짜 바기노 혼뚜 샷타난담빠마나까.

내가 지금 행한 그리고 이미 행한 어떠한 공덕이라도

[태] Khor hi sat thang-lāi, mai mī tī sud mai mī pramān, jong pen phū mi suan haeng
커 하이 샷 탕라이, 마이 미 티 수드 마이 미 프라마, 종 펜 푸 미 수안 행
būn tī khāpajao dai tam nai pad nī,
분 티 카빠자오 다이 탐 나이 빠 니,
laer haeng būn tang-lāi eurn tī khāpajao dai tam laew,
래 행 분 탕라이 으른 티 카빠자오 다이 탐 래우.

Ye picā gunavantā ca, / *Kheur chon law dai pen tī rak phū mī kūn*
예 피짜 구나완타 짜, / 켄 춘 라오 다이 펜 티 락 푸 미 쿤,
나에게 친절하고 친밀한 분들과,

Mayham mātā-pitā-dayo, / *mī mārṇ-dā lae pidā khong khāpajao pen ton*
마이함 마따피따다요 / 미 마른다 래 피다 흥 카빠자오 펜 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여.

Diṭṭhā me cāpyadiṭṭhā vā, / *Tī khāpajao dai hen reu mae mai dai hen,*
딛타 메 짜빠딛타 와 / 티 카빠자오 다이 헨 르 매 마이 다이 헨,
내가 만났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거나,

Aññe majjhata-verino; *Sattā tiṭṭhanti lokasmim,*
안네 맛자따 웨리노, 샷타 락탄띠 로까사밍,
타인이거나, 관계없거나, 적대적이거나, 삼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삼계(욕, 색, 무색계)와

[태] laer sat tang-lāi eurn tī pen klāng, lae mī wen gun tang yū nai loke,
래 샷 탕라이 으른 티 펜 클랑, 래 미 웬 갠 탕 유 나이 록,

Te bhumā catu-yonikā, / *Kerd nai bhūmi sām, kerd nai kamnerd sī,*
떼 불마 짜뚜 요니까 / 켜 나이 부미 삼, 켜 나이 캄너드 씨,
습, 난, 태, 화생의 4가지 형태,

Pañc'eka-catu-vokārā, / *mī khan hā lae khan neung lae khan sī,*
판짜까 짜뚜 오까라 / 미 칸 하 래 칸 능 래 칸 씨.

5온과 함께 그리고 1온 또는 4온이 있어,



Samsarantā bhavābhavē: / Tong tieu yū nai phop nai lae phop yai,
 상사란따~ 바와~바워 / 땡 티야우 유~ 나이 푼 너이 래 푼 야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윤회하며,

Ñātaṃ ye patti-dānaṃ-me,
 나~땅 예 뵈띠 다~낭 메

만약 그들이 나의 공덕을 안다면,

[태] Sat lauw dai chārp kārṇ hai suan būn khong khāpajao laew,
 삿 라우 다이 찡~ 깡~ 하이 쑤원 분~ 켕 카~빠자오 래우,

anumodantu te sayam,
 아누모단뚜 떼 사양,

그들 스스로 축복받기를...

[태] khor sat lauw nan, jong anumodanā eng therd,
 켄 삿 라우 난, 쯡 아누모다나~ 앵 텅어,

Ye c'imaṃ na-ppajānanti,
 예 씨망~ 남 빠자~난띠,

만일 내가 지은 공덕을 모른다면,

[태] Kor sat lauw dai yom mai chārp kārṇ hai suan būn khong khāpajao nī~
 켄 삿 라우 다이 옴 마이 찡~ 깡~ 하이 쑤원 분~ 켕 카~빠자오 니

Devā tesam nivedayum,
 데와~ 떼상 니웨다움,

천신들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길..

[태] Khor tep tang-lāi, jong jeang kae sat lauw nan,
 켄 텡 탕~라이, 쯡 쟁 깨 삿 라우 난,

Mayā dinnāna-puññānaṃ anumodana-hetunā,
 마야~ 딘나~나 뽀냐~낭 아누모다나 헤투나~,

나의 공덕의 회향으로 인해 그들이 환희롭기 때문에

[태] Praor het khu anumodanā būn tang-lāi, tī khāpajao hai laew,
 프러 헤트 크 아누모다나~ 분~ 탕~라이, 티 카~빠자오 하이 래우,

Sabbe sattā sadā hontu averā sukha-jīvino,
 삽베 삿따~ 사다~ 혼뚜 아웨라~ 수카 지~위노,

모든 존재들이 항상 행복하고 증오로부터 자유롭기를

[태] Khor sat tang-puang, jong yā mī wen, yū pen suk samer therd,
 켄 삿 탕~뽕, 쯡 야~ 미~ 윈, 유~ 뽀 쑤 삿머 텅어,

Khema-ppadañ-ca pappontu,
 케맘~ 빠단~ 짜 뽀뽀뚜,

그들이 편안해지길...

[태] Laer jong theung tāng an kasem therd,
 래 쯡 텡~ 탕~ 안~ 까셈 텅어,

Tes'āsā sijjhatam subhā.
 떼사~사~ 싯자땅 수바~

그들의 밝은 희망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태] Khor khwām wang an dī khong sat lauw nan, khong samred tern.
 켄~ 콧~ 왕~ 안~ 디~ 켕~ 삿~ 라우~ 난, 켕~ 삿~렛~ 텅어.



16. 공덕회향 계송- 2(*Paṭṭi-dāna-Gāthā*)

[*Handa mayam Paṭṭi-dāna gāthāyo bhanāma Se.*]

[한다 마얌 뱃피다나 가타요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공덕 회향’ 계송을 독송합시다.

[*Ya devatā santi*] *vihāra-vāsini,*

[야 데와따 산띠] 위하~라와~시니,

이 도량과 사리탑과 나무 아래에서

Thūpe ghare pothi-ghare tahiṃ tahiṃ;

투~뻤 가레 보티가레 따힝 따힝;

평화롭게 살고 있는 천신들께,

Tā dhamma-dānena bhavantū pūjitā;

따~ 담마다~네나 바완뚜~ 부~지따~;

여러 담마를 독송하면서 예경 올렸으니;

Sotthiṃ karontedha vihāra-maṇḍale;

소팅~까론펜다 위하~라만달레;

이 도량 주위에서 축복을 누리기를!

Therā ca majjhā navakā ca bhikkhavo;

테라~ 짜 맛자~ 나와까~ 짜 빅카오,

장로스님, 중진 스님, 어린 스님이거나,

Sārāṃikā dānapatī upāsakā;

사~라~미까~ 다~나빠띠~ 우빠~사까~,

도량에 거주하는 평신도 보시자들과,

Gāmā ca desa nigamā ca issarā.

가~마~ 짜 데사 니가마~ 짜 잇사라~,

시골 사람이건, 작은 마을 사람이건, 지도자들이건,

Sappāṇa-bhūtā sukhitā bhavantū te;

삽빠~나부~따~ 수키따~ 바완뚜~ 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해지기를!

Jalābujā ye'pi ca aṇḍasambhavā;

잘라~부자~ 예삐 짜 안다삼바와~,

알에서 태어났건, 모태에서 태어났건,

Samśeda-jātā athavo papātikā;

상세다자~따~ 아타오 빠빠~띠까~,

습기로부터 태어났건, 그리고 화생으로 태어났건,

Niyyānikam dhamma-varam paṭicca te;

니이야~니깁 담마와랑 빠땃짜 떤,

그들이 위없는 담마를 피안처로 삼은,



Sabbe'pi dukkhassa karontu saṅkhayaṃ;
삽베삐 독캇사 까론투 상카양.

모든 이들도 괴로움이 소멸되기를!

Dhātu ciraṃ satāṃ dhammo,
다뚜 짜랑 사땅 담모,

담마가 오래도록 굳건하게 지속되기를!

Saṅgho hotu samaggo va,
상고 호뚜 사막고 와,

상가가 우리들의 번영과 이익을 위하여 화합되게 살아가기를!

Amhe rakkhatu saddhammo,
암헤 락카뚜 샛담모,

진실한 담마가 우리들을 보호하기를! 모든 이들이 좋지 못한 상태로 빠지지 않기를!

Vuddhiṃ sampāpuṇeyyāma,
웃딩 삼빠뿌네이야마,

우리 모두 성자에 의해 선언된 담마 속에서 성장하고 성취하기를!

Dhammaddharā ca puggalā
담맛다라 짜 뽁갈라.

사람들이 담마에 의거해서 살아가기를!

Atthāya ca hitāya ca
앗타야 짜 히타야 짜.

Sabbe'pi dhammacārino
삽베삐 담마짜리노.

Dhamme ariyappavedite
담메 아리압빠웨디떼.

17.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Udadissanādhīṭṭhāna-Gāthā*)

[*Handa mayaṃ udadissanādhīṭṭhāna-gāthāyo bhaṇāma se.*]

[한다 마양 우다딛사나딛타나 가타요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 계송을 독송합시다.

Iminā puñña kammaṇa
이미나 뽀냐 캄메나

나의 이와 같은 공덕행을

Ācariyūpakārā ca
아짜리유빠까라 짜

도움 주신 스승들과

suriyo candimā rājā
수리요 찬디마 라자

해와 달의 신과 국왕과

Brahma mārā ca indā ca
브라마 마라 짜 인다 짜

범천 마라천 도솔천과

Upajjhāyā guṇ'uttarā
우뵈자야 구눗따라,

덕 높으신 스승님과

*Mātā-pitā ca nātakā(*Piyā mamaṃ)*
마따삐따 짜 나따까, (*뽀야 마망)

부모 친지들과

Guṇavantā narā-pi ca
구나완따 나라 삐 짜,

고매하신 모든 분들과

Loka-pālā ca devatā
로까 팔라 짜 데와따,

불법수호 신중들과 천신들,



Yamo mittā manussā ca
야모 밋따~ 마눗사~ 짜
야마천과 친한 사람이거나

Sabbe sattā sukhī hontu
삽베 삿따~ 수키~ 혼뚜
모든 중생들 행복하기를!

Sukhaṃ ca ti-vidhaṃ dentu
수캄 짜 띠 위당 덴뚜
모든 중생들이 세 종류의 축복을 얻고,

Iminā puñña-kammena
이미나~ 뽀냐 감메나
나의 이와 같은 공덕 행을

Khippāhaṃ sulabhe c'eva
킵빠~항 술라베 켜와
내가 조속히 갈애와 집착을 떨쳐내길 기원합니다.

Ye santāne hinā dhammā
예 산따~네 히나~ 담마~
열반에 이를 때까지 내가 가진 어떠한 결점들이라도 모든 면에서 파괴되길,

Nassantu sabbadā-y-eva
낫산뚜 삽바다~ 예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Uju-cittaṃ satī-paṇṇā
우주 췌땅 사띠 뽀냐~
올곧은 마음, 알아차린 지혜로움으로

Mārā labhantu n'okāsaṃ
마~라~ 라반뚜 노까~상
어떠한 마라도 나의 힘을 약화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기를!

Buddhādhipa-varo nātho
붓다~디빠와로 나~토
부처님은 나의 뛰어난 수호자가 되어 주시길. 위없는 담마를 의지하는 힘으로,

Nātho pacceka-buddho ca
나~토 빠췌까 붓도 짜
벽지불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Te sottaṃ ānubhāvena
떼 쏫따마~누바~웨나
이와 같은 모든 위신력으로

Majjhata verikā-pi ca
맛자따~ 웨리카~ 삐 짜,
무관하거나 원수거나

Puññāni pakatāni me
뽀냐~니 빠까따~니 메.
나의 공덕 회향으로!

Khippaṃ pāpetha vo matam
킵빵 빠~뻬타 오 마땅.
조속히 (반복된) 죽음의 종식되기를...

Iminā uddisena ca
이미나~ 웃디세나 짜,
모든 분들에게 널리 회향하니,

Taṇh'upādāna-chedanaṃ
탄후빠~다~나 চে다낭.
탄후빠~다~나 চে다낭.

Yā va nibbānato mamaṃ
야~ 와 님바~나또 마망,
열반에 이를 때까지 내가 가진 어떠한 결점들이라도 모든 면에서 파괴되길,

Yattha jāto bhava bhava
얏타 자~또 바웨 바웨.
모든 악업이 제거되기를!

Sallekha viriyamhinā
살레코 위리암히나~,
(번뇌)의 오염을 없애는 힘을 갖추길,

Kātuñ-ca viriyesu me
까~툄짜 위리예수 메.
까~툄짜 위리예수 메.

Dhammo nātho var'uttamo
담모 나~토 와룻따모,
부처님은 나의 뛰어난 수호자가 되어 주시길. 위없는 담마를 의지하는 힘으로,

Saṅgho nātho'ttaro mamaṃ;
상고 나~툄따로 마망,
덕 높은 상가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길;

Mā'rokāsaṃ labhantu mā.
마~로까~상 라반뚜 마~.
마라에게 추호의 기회도 주질 않기를..



제 2장 저녁 예불(Evening Chanting)

1. 삼보 예경(*Ratanattaya Vandanā*)

Yo so Bhagavā araham sammā-sambuddho.

요 소 바가와~ 아라함 삼마~ 삼붓도.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Svākkhāto yena Bhagavatā dhammo.

사왓~카~또 예나 바가와따~ 담모.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

Supatipanno yassa Bhagavato sāvaka-saṅgho.

수빠띠판노 야사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훌륭하게 수행해온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Tam-mayaṃ Bhagavantam sadhammam sasaṅgham,

탐 마양 바가완탐 사담망 사상강,

이러한 우리들의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에

Imehi sakkārehi yathārahaṃ āropitehi abhipūjayāma.

이메히 삭까~레히 야타~라함 아~로삐떼히 아비뿌~자야~마.

우리들은 진정한 존경심으로 최상의 예경 올립니다.

Sādhu no bhante Bhagavā sucīra-parinibbutopi,

사~두 노 반떼 바가와~ 수찌라 빠리닙부또삐,

비록 존경하는 부처님께서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셨지만,

Pacchimājanatānukampamānasā,

팍치마~자나따~누감빠마~나사~,

후손들을 여전히 연민하여 주시니,

Ime sakkāre duggatapannākārabhūte paṭiggaṇhātu.

이메 삭까~레 독가따판나~까~라부~떼 빠딕간하~뚜.

우리들의 공손한 예를 받아 주소서.

Amhākaṃ dīgharattam hitāya sukhāya.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우리들의 이익과 행복이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Arahaṃ sammā-sambuddho*] *Bhagavā. Buddhā Bhagavantā abhivādemī.*
[아라함 삼마~ 삼붓도] 바가와~, 붓당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절하며 최상의 예경을 올립니다. (큰 절)

[*Svākkhāto*] *Bhagavatā dhammo. Dhammaṃ namassāmi.*
[사왓카~또] 바가와따~ 담모, 담망 나맛사~미.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 그 담마에 경의를 표합니다. (큰 절)

[*Su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Saṅghaṃ namāmi.*
[수빠띠판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상강 나마~미.

훌륭하게 수행해온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그 상가에 존경을 표합니다. (큰 절)

2. 첫번째 예경 (*Pubba-bhāga-nama-kāra-pāṭha*)

<인도자>

Yam-amha kho mayaṃ Bhagavantā saraṇaṃ gatā,
야 맘하 코 마양 바가완땅 사라낭 가따~

우리 모두는 세존께 의지했습니다.

(**uddissa pabbajitā*) *yo no Bhagavā satthā,*
(*웃딤사 뽀빠지따~) 요 노 바가와~ 샷타~

(*출가 수행자들인) 우리의 스승님은 세존이십니다.

yassa ca mayaṃ Bhagavato dhammaṃ rocema.
얏사 짜 마양 바가와또 담망 로쩌마.

세존의 담마에 우리는 환희롭습니다.

Imeḥi sakkārehi taṃ Bhagavantā sasaddhammaṃ sasāvaka-saṅghaṃ abhipūjayāma.
이메히 삭까레히 땅 바가완땅 사삿담망 사사~와까 상강 아비부~자야~마.

그분 세존, 그분의 진실한 담마, 그분의 제자들인 상가를 높이 받들며 이러한 예를 올립니다.

[*Handadāni mayantaṃ Bhagavantā vācāya abhitthutūṃ ~*
[한다다~니 마얀땅 바가완땅 와~짜~야 아빃투똥,

pubba-bhāga-nama-kāraṇceva buddhānussati-nayaṇ-ca karoma se.]
뽀바 바~가 나마 까~란쩌와 붓다~눗사띠 나얀짜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회상’에 앞서 존귀하신 부처님께 먼저 존경의 예불을 올립니다.

<모두>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 (3 times.)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닷사. (3번 반복)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3. 부처님 회상(*Buddhānussati-nayaṃ*)

<인도자>

[*Handa mayam buddhānussatinayaṃ karoma se.*]
[한다 마양 붓다~눗사띠나양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 회상’을 다함께 예불을 올립시다

[*Taṃ kho pana Bhagavantam*] *evam kalyāṇo kitti-saddo abbhuggato,*
[땅 코 빠나 바가완땅] 에왕 갈라야~노 깃띠 샷도 압복각또;

세존의 빼어난 명성은 다음처럼 널리 퍼졌습니다;

Itipi so Bhagavā araham sammā-sambuddho,
이띠삐 소 바가와~ 아라함 삼마~ 삼붓도,

이처럼, 그분은 세존,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Vijjā-carāṇa-sampanno sugato loka-vidū,
윗자~ 짜라나 삼판노 수가또 로까위두~,

지혜와 덕행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을 가신 분,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아시는 분,

Anuttaro purisa-damma-sārathi satthā deva-manussānaṃ buddho Bhagavā-ti.
아nut타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샷타~ 데와 마nut사~낭 붓도 바가와~띠.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4. 부처님 찬탄(*Buddhābhigīta*)

<인도자>

[*Handa mayam buddhābhigītiṃ karoma se.*]
[한다 마양 붓다~비기~띃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 찬탄’을 다함께 예불을 올립시다.

<모두>

[*Buddha-v-ārahanta*] *vara-tādi-guṇābhiyutto,*
[붓다 와~라한타] 와라 따~디구나~비윳또,

부처님은 아라한의 훌륭한 덕행을 모두 갖추시고,

Suddhābhiñña-karūṇāhi samāgatatto,
숫다~비냐~나 까루나~히 사마~가맛또,

청정하고 뛰어나신 지혜와 자비를 함께 지니셨고,

Bodhesi yo sujanatam kamalam va sūro,
보데시 요 수자나땅 까말랑 와 수~로,

연꽃을 피우는 태양처럼 현명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셨으니,



Vandām'aham tam-araṇaṃ sirasā jinendāṃ.
완다~마함 따 마라낭 시라사~ 지넨당.

나는 최상의 정복자이시며, 평화로운 그분에게 머리 숙여 예경합니다.

Buddho yo sabba-pāṇīnaṃ,
붓도 요 삽바 빠~니~낭,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Saraṇaṃ khemam-uttamaṃ.
사라낭 케마 못따망,

최상의 안전한 의지처이니,

Paṭhamānussatiṭṭhānaṃ,
빠타마~눗사땃타~낭

첫 번째로 이와 같이 회상하며,

Vandāmi taṃ siren'aham,
완다~미 땅 시레나함.

그분에게 머리를 숙여 예경드립니다.

*Buddhassāha'smi *dāso⁷⁾ va,*
붓닷사~하사미 *다~소 와,

나는 부처님의 종복이며,

Buddho me sāmik'issaro
붓도 메 사~미깃사로,

부처님은 나의 위대하신 군주이시니,

Buddho dukkhassa ghātā ca,
붓도 독캣사 가~따~ 짜,

부처님은 나를 위해 괴로움을 부수고,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Vidhātā ca hitassa me.
위다~따~ 짜 히땃사 메.

Buddhassāhaṃ niyyādemī,
붓닷사~함 니이야~데미

부처님께 헌신하나니,

Sarīraṇ- jīvitaṇ- c'idaṃ.
사리~란 지~위판 께당,

이 몸과 생명을 다 바쳐,

**Vandanto'ham⁸⁾ carissāmi,*
*완단또함 짜릿사~미

나는 부처님의 진실한 깨달음을 존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Buddhass'eva subodhitāṃ.
붓닷세와 수보디땅.

N'atthi me saraṇaṃ aññaṃ,
낫티 메 사라낭 안냥

나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Buddho me saraṇaṃ varaṃ:
붓도 메 사라낭 와랑,

부처님은 나의 최상의 의지처입니다.

Etena sacca-vajjena,
에테나 샷짜 왓제나,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Vaddheyyaṃ satthu-sāsane.
왓데이양 샷투 사~사네.

스승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성장하기를.

*Buddhaṃ me *vandamānena⁹⁾,*
붓당 메 완다마~네나

내가 부처님을 예경하는

Yaṃ puññaṃ pasutaṃ idha,
양 뽀냐ṃ 빠수땅 이다,

이와 같은 공덕 행의 힘으로

Sabbe pi antarāyā me,
삽베 삐 안따라~야~ 메

그분의 위신력으로 나에게 어떤 위험도 없기를...

Mā'hesuṃ tassa tejasā.
마~헤송 땃사 떼자사~.

7) 여성(Female): *dāsī* 다~시~

8) 여성(Female): *Vandanti'ham* 완단띠~함

9) 여성(Female): *vandamānāya*: 완다마~나~야



< 오체투지하여 엎드린 채로>:

<i>Kāyena vācāya va cetasā vā,</i> 까~예나 와~짜~야 와 켜다사~ 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i>Buddhe kukammaṃ pakataṃ mayā yaṃ,</i> 붓데 꾸감망 빠까땅 마야~ 양, 부처님께 저지른 크고 작은 나쁜 행위들,
<i>Buddho paṭiggaṇhatu accayan-taṃ,</i> 붓도 빠딕간하뚜 앓짜얀 땅, 부처님께 그 모든 허물의 용서를 빌며,	<i>Kāl'antare samvaritum va Buddhe.</i> 갈~란따레 상와리똥 와 붓데. 이후로는 절제하는 모습을 부처님께 보이겠습니다.

5. 담마 회상(*Dhammānussati-nayaṃ*)

<인도자>

[*Handa mayaṃ dhammānussati-nayaṃ karoma se.*]
[한다 마양 담마~눅사띠 나양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담마 회상’을 다함께 예불을 올립시다

<모두>:

[<i>Svākkhāto</i>] <i>Bhagavatā dhammo,</i> [사왓~카~또] 바가와따~ 담모,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는, 즉시 볼 수 있고, 시간과 관계없이, 와서 보라 청하며,	<i>Sandiṭṭhiko akāliko ehi-passiko,</i> 산딤티꼬 아갈~리꼬 에히 빠시꼬, <i>Opanayiko 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 ti.</i> 오빠나이꼬 빠짚땅 웨디따보 윈뉴~히~ 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볼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	---

6. 담마 찬탄(*Dhammābhigīta*)

<인도자>

[*Handa mayaṃ dhammābhigītiṃ karoma se.*]
[한다 마양 담마~비기~띃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담마 찬탄’을 다함께 예불을 올립시다.

<모두>

[*Svākkhātata*] *di-guṇa-yoga-vasena seyyo,*
[사왓~카~따따~] 디 구나 요가 와세나 세이요,
뛰어난 권위와 덕성이 합쳐진 담마는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졌고,



Yo magga-pāka-pariyatti-vimokkha-bhedo,
 요 막가 빠~까 빠리앗띠 위목카 베도,
 그것은 도와 과, 배움과 해탈로 분류되며,

Dhammo kuloka-patanā tad-adhāri-dhārī.
 담모 꿀로까 빠파나~ 따다 다~리 다~리~,
 진리 따라 나아가는 자, 악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니,

Vandām'ahaṃ tama-haraṃ vara-dhammam-etaṃ.
 완다~마함 따마 하랑 와라 담마 메땅.
 나는 무명을 제거하는 뛰어난 그 담마에 머리 숙여 예경합니다.

Dhammo yo sabba-pāṇīnaṃ,
 담모 요 삽바 빠~니~낭,
 담마는 모든 중생들에게,

Dutiyānussatiṭṭhānaṃ,
 두피야~눗사띃타~낭
 두 번째로 이와 같이 회상하며,

*Dhammassāha'smi *dāso¹⁰⁾ va,*
 담맛사~하사미 *다~소 와,
 나는 담마의 시봉자요,

Dhammo dukkhassa ghātā ca,
 담모 독갓사 가~따~짜
 담마는 나를 위해 괴로움을 부수고,

Dhammassāhaṃ niyyādemi,
 담맛사~함 니이야~데미
 담마에 나의 몸과 생명 다 바쳐 헌신하나니,

**Vandanto'haṃ¹¹⁾ carissāmi.*
 *완단또함 짜릿사~미.
 나는 담마만이 가진 진실한 깨달음을 존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N'atthi me saraṇaṃ aññaṃ,
 닛티 메 사라낭 안냥,
 나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Etena sacca-vajjena,
 에테나 샛짜 왓제나,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Dhammaṃ me *vandamānena¹²⁾,*
 담망 메 *완다마~네나
 내가 담마를 예경하는

Saraṇaṃ khemaṃ-uttamaṃ.
 사라낭 케마 뭇따망,
 최상의 안전한 의지처이니,

Vandāmi taṃ siraṇa'haṃ,
 완다~미 땅 시레나함.
 담마에 나의 머리를 숙여 예경드립니다.

Dhammo me sāmik'issaro.
 담모 메 사~미깃사로,
 담마는 나의 위대하신 인도자이니,

Vidhātā ca hitassa me.
 위다~따 짜 히닷사 메.
 행복을 제공하는 진리입니다.

Sarīraṇ-jīvitaṇ-c'idam.
 사리~란 지~위판 께당,
 담마에 나의 몸과 생명 다 바쳐 헌신하나니,

Dhammass'eva sudhammataṃ.
 담맛세와 수담마땅.
 나는 담마만이 가진 진실한 깨달음을 존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Dhammo me saraṇaṃ varaṃ:
 담모 메 사라낭 와랑,
 담마는 나의 최상의 의지처입니다.

Vaḍḍheyyaṃ satthu-sāsane.
 왓데이양 샛투 사~사네.
 스승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성장하기를.

Yaṃ puññaṃ pasutaṃ idha,
 양 뽀냐ṃ 빠수땅 이다,
 이와 같은 공덕 행의 힘으로,

10) 여성(Female): *dāsī*: 다~시~

11) 여성(Female): *Vandanti'haṃ* 완단띠~함

12) 여성(Female): *vandamānāya* 완다마~나~야



Sabbe pi antarāyā me,
 삽베 삐 안따라야~ 메,

담마의 위신력으로 나에게 어떤 위험도 없기를...

Mā'hesuṃ tassa tejasā.
 마~헤수 텃사 떤자사~.

< 오체투지하여 엎드린 채로 >:

Kāyena vācāya va cetasā vā,
 까~예나 와~짜야 와 켜따사~ 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Dhammo paṭiggaṇhatu accayan-taṃ,
 담모 빠딕간하뚜 앗짜안 땅,
 담마에 대한 모든 허물의 용서 빌면서,

Dhamme kukammaṃ pakataṃ mayā yaṃ,
 담메 꾸감망 빠까땅 마야~ 양,
 담마를 어긴 크고 작은 나쁜 행위들,

Kāl'antare saṃvaritum va dhamme.
 깔~란따레 상와리똥 와 담메.
 이후로는 절제하는 모습을 담마에게 보이겠습니다.

7. 상가 회상(Saṅghānussati-nayaṃ)

<인도자>

[*Handa mayaṃ saṅghānussati-nayaṃ karoma se.*]
 [한다 마양 상가~눅사띠 나양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상가 회상'을 다함께 예불을 올립니다

<모두>

☸ *Su* 『 *Uju-*, *Ñāya-*, *Sāṃīci-* 』

수 『 우주, 나야, 사~미~찌 』 ~ *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
 빠띠반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훌륭하게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노련하게』 수행해온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Yad'idam cattāri purisa-yugāni aṭṭha purisa-puggalā.

야디당 찢따~리 뿌리사 유가~니 앗타 뿌리사 뽅갈라~.,

이분들은 네 쌍과 여덟 유형의 성자(聖子)들이며.

Esa Bhagavato sāvaka-saṅgho,

에사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이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Ahuneyyo pāhuneyyo dakkhiṇeyyo añjali-karaṇīyo,

아~후네이요 빠~후네이요 닥키네이요 안잘리 까라니~요,

공경 받을 가치 있는, 환대할 가치 있는, 보시 받을 가치 있는, 합장 받을만한 분들이며;

Anuttaram puñṇakkhettaṃ lokassā'ti.

아~nut따랑 뽀~ṇakkett땅 로깟사~띠.

이 세상에서 비길 데 없는 복전(福田)입니다.



8. 상가 찬탄(*Saṅghābhigīta*)

<인도자>

[*Handa mayaṃ saṅghābhigītiṃ karoma se.*]
[한다 마양 상가~비기~띤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상가 찬탄’을 다함께 예불을 올립시다.

<모두>

[*Saddhamma-jo*] *supaṭipatti-guṇādiyutto,*
[삿담마 조] 수빠띠뻬띠 구나~디웃또,

올바른 담마를 따라 잘 수행하는 높은 덕을 함께 지니고,

Yo'tthābbidho ariya-puggala-saṅgha-seṭṭho,
욧탐~비도 아리야 뽁갈라 상가 섯토,

여덟 유형의 성자(聖子)들로 구성된 으뜸가는 상가이며,

Sil'ādi-dhamma-pavarāsaya-kāya-citto: *Vandāmaṃ tam-ariyāna-gaṇaṃ susuddhaṃ.*
실~라~디담마 빠와라~사야 까~야 켜또, 완다~마함 따마리야~나 가ṇṇ 수숫당.

훌륭한 계율과 담마로써, 스스로 몸과 마음 잘 보호하는 수행자들이니, 나는 아주
청정한 고귀한 분들의 모임에 머리 숙여 예경합니다.

Saṅgho yo sabba-pāṇīnam,
상고 요 삽바 빠~니~낭,

상가는 모든 중생들에게,

Tatīyānussatiṭṭhānaṃ,
따띠야~눗사띣타~낭,

세 번째로 이와 같이 회상하며,

*Saṅghassāha'smi *dāso¹³⁾ va,*
상갓사~하사미 *다~소 와,

나는 상가의 시봉자요,

Saṅgho dukkhassa ghātā ca,
상고 독갓사 가~따~짜,

상가는 나를 위해 괴로움을 부수고,

Saṅghassāhaṃ niyyādemi,
상갓사~함 니이야~데미,

상가에 나의 몸과 생명 다 바쳐 헌신하나니,

Saraṇaṃ khemaṃ-uttamaṃ.
사라ṇṇ 케마 뭇따망,

최상의 안전한 의지처이니,

Vandāmi taṃ siraṇaṃ-aham,
완다~미 땅 시레나함.

상가에 나의 머리를 숙여 예경드립니다.

Saṅgho me sāmik'issaro.
상고 메 사~미깃사로,

상가는 나의 위대하신 인도자이니,

Vidhātā ca hitassa me.
위다~따~짜 히따사 메.

행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Sarīraṇ-jīvitaṇ-c'idam.
사리~란지~위판 켜당,

13) 여성(Female): dāsi 다~시



**Vandanto'ham¹⁴⁾ carissāmi,*
***완단또함 짜릿사~미**

나는 상가의 진실한 실천을 존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N'atthi me saraṇaṃ aññaṃ,
낫티 메 사라낭 안냥,

나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Etena sacca-vajjena,
에테나 삿짜 왓제나,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Saṅghaṃ me *vandamānena¹⁵⁾*
상강 메 *완다마~네나

내가 상가를 예경하는,

Sabbe pi antarāyā me,
삽베 삐 안따라~야~ 메,

상가의 위신력으로 나에게 어떤 위험도 없기를...

Saṅghasso-paṭipannataṃ.
상갓소 빠띠뽀나땅

Saṅgho me saraṇaṃ varaṃ:
상고 메 사라낭 와랑,

상가는 나의 최상의 의지처입니다.

Vaḍḍheyyaṃ satthu-sāsane.
왓데이양 삿투 사~사네.

스승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성장하기를.

Yaṃ puññaṃ pasutaṃ idha,
양 뽀냐ṃ 빠수땅 이다,

이와 같은 공덕 행의 힘으로,

Mā'hesuṃ tassa tejasā.
마~헤송 땃사 떤자사~.

< 오체투지하여 엎드린 채로>:

Kāyena vācāya va cetasā vā,
까~예나 와~짜~야 와 꺄따사~ 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Saṅgho paṭiggaṇhatu accayan-taṃ,
상고 빠띠간하뚜 앗짜안 땅,

상가에 대한 모든 허물의 용서 빌면서,

Saṅghe kukammaṃ pakataṃ mayā yaṃ,
상게 꾸감망 빠까땅 마야~ 양,

상가에 끼친 크고 작은 나쁜 행위들

Kāl'antare saṃvaritum va saṅghe.
갈~란따레 상와리똥 와 상게.

이후로는 절제하는 모습을 상가에게 보이겠습니다.

14) 여성(Female): *Vandanti'ham* 완단띠~함

15) 여성(Female): *vandamānāya*, 완다마~나~야



제3장 길상 계송(AUSPICIOUS CHANTS)

1. 신들의 초청(*Ārāghanā Devatā*)

“*Sarajjam sasenam sabandhum nar'indam Paritt'ānubhavo sadā rakkhatū-ti,*
사랏장 사세낭 사반둥 나린당 빠릿따~누바오 사다~ 락카뚜~띠
 우리나라의 왕을 비롯한 군대, 모든 국민들이 이 축원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기를,
Pharitvāna mettam sa-metta bhadantā, Avikkhitta-cittā parittam bhanantu.”
빠리따와~나 멧땅 사 멧따 바단따~, 아윝키타 켓따~ 빠릿땅 바난뚜
 마음을 모아 예경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존경하는 이여 선한 생각을 펼쳐주소서

Samantā cakka-vālesu atr'āgacchantu devatā
사만따~ 짹까 왈~레수 아파라~갓찬뚜 데와따~,
 주변 세계에 머무시는 모든 천신들은 여기로 오십시오.

Saddhammam muni-rājassa suṇantu sagga-mokkha-dam.
삿담망 무니 라~랏사 수난뚜 삭가 목카 당.
 현자들 중에서 으뜸이신, 그분의 진실한 담마는 천상과 해탈로 이끄시니...

Sagge kāme ca rūpe giri-sikhara-taṭṭhe c'antalikkhe vimāne,
삭게 까~메 짜 루~빠 기리시카라 따떼 찐탈릭케 위마~네,
 욕계와 색계의 천상과, 가장 높은 산봉우리와 절벽과, 공중이나 천국에,

Dīpe raṭṭhe ca gāme taru-vana-gahane geha-vatthumhi khetṭe,
디~빠 랏테 짜 가~메 따루 와나가하네 게하 왓툼히 켓테,
 섬, 시골, 도회지와 수풀로 우거진 깊은 숲속, 집이나 밭 주변에 있는

Bhummā c'āyantu devā jala-thala-visame yakkha-gandhabba-nāgā,
뽀마~ 짜~얀뚜 데와~ 잘라 탈라 위사메 약카 간답바 나가~,
 지상신들, 물과 땅과 별판에 있는 약카, 건달바, 용신 등의 모든 신중들은,

Tiṭṭhantā santike yaṃ muni-vara-vacanam sādhavo me suṇantu.
띃탄따~ 산띠게 양 무니 와라 와짜낭 사~다오 메 수난뚜.
 위대한 현자의 귀한 말씀을 내가 예경드릴 때, 가까이 오셔서 지성으로 경청하시기를...

☸ *Dhammassavana-kālo ayam-bhadantā.* ☸(3X)
담맛사와나 깔~로 아얌 바단따~.
 존경하는 여러분들! 이제 담마를 경청할 시간입니다.(3번) 또는(or)

☸ ¹*Buddha-dassana-kālo*
붓다 닛사나 깔~로

²*Dhammassavana-kālo,* ³*Saṅgha-payirūpāsana-kālo* ~ *ayam bhadantā.* ☸(3X)
 『 담맛사와나 깔~로, 상가 빠이루~빠~사나 깔~로』 아얌 바단따~.



2. 첫 번째 예경 (*Pubba-bhāga-namakāra Pāṭha*)

[*Handa mayaṃ buddhassa Bhagavato pubba-bhāga-nama-kāraṃ karoma se.*]
[한다 마양 붓닷사 바가와또 뽀바 바가 나마 까랑 까로마 세.]

이제 우리 모두 존귀하신 부처님께 먼저 존경의 예물을 올립니다.

☸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뽏닷사.

☸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3. 삼보에 귀의 (*Saraṇagamana Pāṭha*)

[*Handa mayaṃ saraṇa-gamana-pāṭhaṃ bhaṇāma se.*]
[한다 마양 사라나 가마나 빠탕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삼보에 귀의’ 계송을 다함께 독송합니다.

☸

¹*Buddhaṃ,* 『²*Dhammaṃ,* ³*Saṅghaṃ*』

붓당 『담망, 상강』

부처님을 『담마를, 상가를』

~ *saraṇaṃ gacchāmi.* ☸(3X)

사라낭 갓차~미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

☸

¹*Dutiyam-pi Buddhaṃ,* 『²*Dhammaṃ,* ³*Saṅghaṃ*』

두피얌삐 붓당 『담망, 상강』

두 번째도, 부처님을 『담마를, 상가를』

~ *saraṇaṃ gacchāmi.* ☸(3X)

사라낭 갓차~미.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

☸

¹*Tatiyam-pi Buddhaṃ,* 『²*Dhammaṃ,* ³*Saṅghaṃ*』

따피얌삐 붓당 『담망, 상강』

세 번째도, 부처님을 『담마를, 상가를』

~ *saraṇaṃ gacchāmi.* ☸(3X)

사라낭 갓차~미.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딘



4. 삼보는 유일한 의지처(*Saccakiriya Gāthā*)

[*Handa mayam sacca-kiriya gāthāyo bhaṇāma se.*]

[한다 마양 삿짜 끼리야~ 가~타~요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삼보는 유일한 의지처’ 계송을 다함께 독송합시다.

N'atthi me saraṇam aññaṃ,

낫티 메 사라낭 안낭

나에게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¹Buddho 『²Dhammo, ³Saṅgho』 ~ *me saraṇam varam*
붓도 『담모, 상고』 메 사라낭 와랑

부처님은 『담마는 / 상가는』 나의 최상의 의지처입니다.

Etena sacca-vajjena,

에테나 삿짜 왓제나,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Sotthi me hotu sabbadā. /// (3X)

솟티 메 호뚜 삽바다~

내가 항상 축복받기를.. [MJG]

5. 부처님의 대자비(*Mahā-kāruṇiko nātho...*)

[*Handa mayam mahā-kāruṇikonāti-ādikā-gāthāyo bhaṇāma se.*]

[한다 마양 마하~ 까~루니꼬나~띠 아~디까~ 가~타~요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의 대자비’ 계송을 다함께 독송합시다.

Mahā-kāruṇiko nātho,

마하~ 까~루니꼬 나~토,

무한한 연민심을 지니신 보호자인 부처님께서,

¹Atthāya 『²Hitāya, ³Sukhāya』 ~ *sabba-pāṇinaṃ*
앗타~야 『히타~야, 수카~야』 삽바 빠~니낭

모든 생명들의 안위 『이익, 행복』 을 위하여,

Pūretvā pāramī sabbā,

뿌~레따와~ 빠~라미~ 삽바~,

모든 바라미를 성취한 후에,

Patto sambodhim-uttamaṃ.

빳또 삼보디 뭇따망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셨으니,

Etena sacca-vajjena,

에테나 삿짜 왓제나,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Mā hontu sabb'upaddavā. /// (3X)

마~ 혼뚜 삽부빳다와~

모든 어려움이 종식되기를! [MJG]



6. 진정한 의지처 (*Khemākhema-saraṇa-gamana-paridīpikā-Gāthā*)

[*Handa mayam khemākhema-saraṇa-gamana-paridīpikā-gāthāyo bhaṇāma se.*]

[한다 마양 케마~케마 사라나 가마나 빠리디~삐까~ 가~타~요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진정한 의지처’ 계송을 다함께 독송합시다.

[*Baḥuṃ ve*] *saraṇam yanti,*
[바홍 웨] 사라낭 얀띠

산이나 숲으로 의지처를 찾아 나선 많은 사람들,

Ārāma-rukkha-cetyāni,
아~라~마룩카 켜따야~니

공원이나, 나무, 묘역으로,

N'etaṃ kho saraṇam khemaṃ,
네땅 코 사라낭 케망

그러나 이런 곳들이 안전한 의지처도 아니며, 이런 곳들이 최상의 의지처가 아니며,

N'etaṃ saraṇam āgamma,
네땅 사라나 마~감마,

이러한 장소에 간다고

Yo ca Buddhañ-ca Dhammañ-ca,
요 짜 붓단 짜 담만 짜

그러나 부처님과 담마와

Cattāri ariya-saccāni,
찢따~리 아리야 샛짜~니

성스러운 4성제를

Dukkhaṃ dukkha-samuppādaṃ,
독캉 독카 사뭇빠~당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Ariyañ-c'aṭṭh'aṅgikaṃ maggaṃ,
아리얀 찢탕기강 막강

여덟 겁의 고귀한 길,

Etaṃ kho saraṇam khemaṃ,
에땅 코 사라낭 케망

이것이 안전한 의지처이며,

Etaṃ saraṇam āgamma,
에땅 사라나 마~감마

이러한 의지처로 가면

Pabbatāni vanāni ca
뵤바따~니 와나~니 짜

사람들이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 곳이지만.

Manussā bhaya-tajjitā.
마눗사~ 바야 따지따~

N'etaṃ saraṇam-uttamaṃ,
네땅 사라나 뭇따망

Sabba-dukkhā pamuccati.
삽바 독카~ 빠뭇짜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네.

Saṅghañ-ca saraṇam gato,
상간 짜 사라낭 가또

상가를 의지처로 삼을 때,

Sammappaññāya passati.
삼맷빠냐~야 빠사띠

올바른 지혜로 꿰뚫어 아네.

Dukkhaṃ ca atikkamaṃ,
독캉사 짜 아딕까망

괴로움의 소멸,

Dukkūpasama-gāmiṇaṃ.
독꾸~빠사마 가~미낭

그 길은 모든 괴로움을 고요하게 만드는 길.

Etaṃ saraṇam-uttamaṃ,
에땅 사라나 뭇따망

이것이 최상의 의지처일세.

Sabba-dukkhā pamuccatī'ti.
삽바 독카~ 빠뭇짜띠~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네.



7. 삼보에 귀의하여 얻는 승리(*Nama-Kāra-Siddhi-Gāthā*)

[*Yo cakkhumā*] *moha-malāpakattho*;
[요 짝쿠마~] 모하 말라~빠갓토

어리석음과 오염이 제거된 밝은 안목을 가지신,

Mārassa pāsā vinimocayanto;
마~랏사 빠~사~ 위니모짜얀토

마라의 함정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Buddham varan-taṃ sirasā namāmi;
붓당 와란 땅 시라사~ 나마~미

고귀하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Tan-tejasā te jaya-siddhi hotu;
탄 떤자사~ 떤 자야 싯디 호투

이런 위신력으로 승리와 성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당신의 모든 위험이 사라지길...

Dhammo dhajo yo viya tassa satthu
담모 다조 요 위야 땃사 샛투

담마는 스승의 깃발처럼 세속에서 정토로 향한 길을 보여 주시네.

Niyyāniko dhamma-dharassa dhārī
니이야~니꼬 담마 다랏사 다~리~

지속되는 윤회로부터 구하는 담마는, 바르게 완성되면, 즐거움을 선사하고 평화롭게 해주네.

Dhammaṃ varan-taṃ sirasā namāmi;
담망 와란 땅 시라사~ 나마~미

수승한 담마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니,

Tan-tejasā te jaya-siddhi hotu
탄 떤자사~ 떤 자야 싯디 호투

이런 위신력으로 승리와 성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당신의 모든 위험이 사라지길...

Saddhamma-senā sugatānugo yo
삿담마 세나~ 수가따~누고 요

잘 가신 분을 따르는 정법의 군대는

Santo sayam santi-niyojako ca
산또 사얌 산띠 니요자꼬 짜

스스로 고요하고 족쇄없는 분은 평화로움을 누리며, 잘 설해진 담마를 알게 해주니.

Saṅghaṃ varan-taṃ sirasā namāmi
상강 와란 땅 시라사~ 나마~미

수승한 상가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Tan-tejasā te jaya-siddhi hotu
탄 떤자사~ 떤 자야 싯디 호투

이런 위신력으로 승리와 성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당신의 모든 위험이 사라지길...

Sāmaṃ va Buddho sugato vimutto;
사~망 와 붓도 수가또 위뭇또

홀로 깨달은 후, 좋은 길을 가셨고, 해탈하신 분.

Pāpesi khemaṃ janataṃ vineyyaṃ;
빠~뻬시 케망 자나땅 위네이양

악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을 이끄시니

Lokassa nāthañ-ca vināyakañ-ca;
로갓사 나~탄 짜 위나~야간 짜

세상의 보호자이시며, 위대한 지도자이신 분

Sabb'antarāyā ca vināsamentu;
삿반따라~야~ 짜 위나~사멘투

모든 악과 번뇌를 없애주시길. 당신의 모든 위험이 사라지길...

Dassesī lokassa visuddhi-maggaṃ
닷세시 로갓사 위싯디 막강

깨달음의 길로 향하여, 모든 번뇌를 없애주시길.

Sāt'āvaho santi-karo sucinno;
사~따~와호 산띠 까로 수췌노.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번뇌를 없애주시길.

Moha-ppadālaṃ upasanta-dāhaṃ;
모합 빠달~랑 우빠산따 다~항

미혹함을 물러가고 분노는 고요함으로 바뀌네.

Sabb'antarāyā ca vināsamentu;
삿반따라~야~ 짜 위나~사멘투

모든 악과 번뇌를 없애주시길. 당신의 모든 위험이 사라지길...

Lokassa pāpūpakilesa-jetā
로갓사 빠~뿌~빠길레사 제따~

세상의 악과 번뇌들을 이겨내며,

Svākkhāta-dhammaṃ veditaṃ karoti;
사왁~카~따 담망 위디땅 까로띠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번뇌를 없애주시길.

Buddhānubuddhaṃ sama-sīla-ditṭhiṃ;
붓다~누붓당 사마 실~라 딛팅

깨달은 분과 같은 미덕과 견해로 조화로운.

Sabb'antarāyā ca vināsamentu;
삿반따라~야~ 짜 위나~사멘투

모든 악과 번뇌를 없애주시길. 당신의 모든 위험이 사라지길...



8. 수 많은 부처님(*SamBuddhe aṭṭhavīsañcadikā Gāthā*)

[*Sam Buddhe*] *aṭṭhavīsañca*,
[삼 붓데] 앓타위~산짜,
Pañca-sata-sahassāni,
빤짜 사따 사합사~니,

512,028분의 부처님께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Dvādasañca saḥassake
다와~다산짜 사합사께
Namāmi sirasā ahaṃ.
나마~미 시라사~ 아함

Tesaṃ dhammañca saṅghañca,
떼상 담만짜 상간짜,

이분 부처님들의 담마와 상가에 헌신하겠습니다.

Ādarena namāmi'haṃ.
아~다레나 나마~미함

Namakārānubhāvena,
나마까~라~누바~웨~나,

이 공덕의 힘으로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Hantvā sabbe upaddave
한따와~ 삽베 우뵤다웨

Anekā antarāyāpi,
아네까~ 안따라~야~삐~,

셀 수 없는 위험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길..

Vinassantu asesato.
위낫산뚜 아세사또

Sam Buddhe pañca-paññāsañca,
삼 붓데 뵤짜 뵤냐산짜,
Dasa-sata-sahassāni,
다사 사따 사합사~니,

1,024,055분의 부처님들께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Catuvīsati saḥassake
짜뚜위~사띠 사합사께
Namāmi sirasā ahaṃ.
나마~미 시라사~ 아함

Tesaṃ dhammañca saṅghañca,
떼상 담만짜 상간짜,

이분 부처님들의 담마와 상가에 헌신하겠습니다.

Ādarena namāmi'haṃ.
아~다레나 나마~미함

Namakārānubhāvena,
나마까~라~누바~웨~나,

이 공덕의 힘으로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Hantvā sabbe upaddave
한따와~ 삽베 우뵤다웨

Anekā antarāyāpi,
아네까~ 안따라~야~삐~,

셀 수 없는 위험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길..

Vinassantu asesato.
위낫산뚜 아세사또

Sam Buddhe navuttarasate,
삼 붓데 나유평따라사떼,
Vīsati-sata-sahassāni,
위~사띠 사따 사합사~니,

2,048,109 분의 부처님들께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Aṭṭhacattālīsa saḥassake
앓타짚따~리~사 사합사께
Namāmi sirasā ahaṃ.
나마~미 시라사~ 아함



Tesaṃ dhammañca saṅghañca,
 데상 담만짜 상간짜,

이분 부처님들의 담마와 상가에 헌신하겠습니다.

Namakārā nubhāvena,
 나마까~라~ 누바~웨나,

이 공덕의 힘으로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Anekā antarāyāpi,
 아네까~ 안파라~야~삐~,

셀 수 없는 위험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길..

Ādarena namāmi'haṃ.
 아~다레나 나마~미항

Hantvā sabbe upaddave
 한따와~ 삽베 우빳다웨

Vinassantu asesato.
 위낫산뚜 아세사또

9. 8번의 경배(*Namo-Kāra-Aṭṭhaka-Gāthā*)

[Namo arahato] sammā-
 [나모 아라하또] 삼마~

스스로 깨달은 아라한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Sambuddhassa mahesino
 삼붓닷사 마헤시노

Namo uttama-dhammassa
 나모 웃따마 담맛사

그분에 의해 잘 설해진 최상의 담마에 귀의합니다.

Svākkhātass'eva tenidha
 사왓~카~땃세와 떤니다

Namo mahā-saṅghassāpi
 나모 마하~ 상갓사~삐

순수하고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사시는 위대한 상가에 귀의합니다.

Visuddha-sīla-diṭṭhino
 위숫다 실~라 딛티노

Namo omāty-āraddhassa
 나모 오마~파야~랏닷사

어둠으로부터 길잡이가 되는 광명을 지닌 이들 삼보에게 귀의합니다.

Ratanattayassa sādhuḥkaṃ
 라따낫따얏사 사~두깁

Namo-omākatītassa
 나모 오마~까띠~땃사

저열한 것들을 떠나게 해준 이들 삼보에 귀의합니다.

Tassa vatthuttayassa-pi
 땃사 왓툏따얏사삐

Namo-kārappabhāvena
 나모 까~랍빠바~웨나

이러한 귀의의 위력으로

Vigacchantu upaddavā
 위갓찬뚜 우빳다와~

불행은 사라지고..

Namo-kārānubhāvena
 나모 까~라~누바~웨나

이러한 귀의의 위력으로

Suvatthi hotu sabbadā
 수왓티 호뚜 삽바다~

항상 평안하길...

Namo-kārassa tejena
 나모 까~랏사~떼제나

이러한 귀의의 위력으로,

Vidhimhi homi tejavā
 위딤히 호미 떤자와~

나에게 영광이 함께 하기를..



10. 길상경(Maṅgala Sutta)

(The Discourse on Blessings)

[*Evaṃ me sutam.*] *Ekam samayaṃ Bhagavā, Sāvattthiyaṃ viharati,*
[에왕 메 수땅.] **에깁 사마양 바가와~, 사~왓티양 위하라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한 때 세존께서, 사왓티에 있는,

Jeta-vane Anātha-piṇḍikassa, ārāme. Atha kho aññatarā devatā,
제따와네 아나~타뽀디갓사, 아~라~메. 아타 코 안냐따라~ 데~와따~

아나타뽀디가의 제따와나 승원에 머무실 적에. 그때 밤의 반이 지난 한밤중에 한 천인이 밝고

abhikkantāya rattiyaṃ abhikkanta-vannā kevala-kappam Jeta-vanaṃ obhāsetvā,
아빅칸따야 랏띠야~ 아빅칸따완나~ 께왈라깁뵙 제따와낭 오바~세따와~,

아름다운 빛으로 제따와나 전체를 환하게 비추면서,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예나 바가와~ 떤빠상까미.

세존의 처소 아래 이르렀다.

Upasaṅkamitvā Bhagavantam abhivādetvā ekam-antaṃ atthāsī,
우빠상까미따와~ 바가완땅 아비와~데따와~ 에까만땅 앗타~시,

세존께 다가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한쪽 옆에 물러선 후,

Ekam-antaṃ tithā kho sā devatā Bhagavantam gāthāya ajjhabhāsi:
에까만땅 티따~ 코 사~ 데와따~ 바가완땅 가~타~야 앗자바~시:

한쪽 곁에 서 있던 그 천인이 세존께 게송을 읊어 여쭙기를:

[*Bahū devā manussā*] *ca maṅgalāni acintayum,*
[바후~ 데와~ 마눗사~] **짜 망갈라~니 아찐따윙,**

많은 천인들과 인간들은 망갈라(길상, 吉祥)에 대해 사유하나니,

Ākaṅkhamānā sotthānaṃ brūhi maṅgalam-uttamaṃ..
아~깁카마~나~ 소타~낭 바루~히 망갈라 뭇따망.

세존이시여! 간절히 바라고 행복을 가져오는 최상의 망갈라가 무엇인지 설해 주옵소서!

[*Asevanā ca bālānaṃ,*]
[아세와나~ 짜 발~라~낭,]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Paṇḍitānañ-ca sevānā,
판디따~난짜 세와나~,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고

Pūjā ca pūjanīyānaṃ,
뿌~자~ 짜 뿌~자니~야~낭,

존경해야 할 분들을 존경하는 것,

Etam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 뭇따망.

이게 바로 으뜸가는 길상(吉祥)이네.



Patirūpa desa-vāso ca,
빠띠루~빠 데사 와~소 짜,
 적당하고 즐거운 장소에서 살아가고,

Atta-sammā-paṇidhi ca,
앗따 삼마~ 빠니디 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

Bāhu-saccañ-ca sippañ-ca,
바~후 삿짜 짜 싯빠짜,
 널리 배우고 바른 기술을 익히며,

Subhāsītā ca yā vācā,
수바~시따~ 짜 야~ 와~짜~,
 선한 말로 의미 있게 말하는 것,

Mātā-pitu upatṭhānam,
마~따~ 삐뚜 우빠타~낭,
 부모님을 잘 모시고,

Anākulā ca kammantā,
아나~쿨라~ 짜 감만따~,
 안정된 직업으로 평화롭게 일하는 것,

Dānañ-ca dhamma-cariyā ca,
다~난짜 담마 짜리야~ 짜,
 널리 베풀고, 담마에 맞게 살아가며,

Anavajjāni kammāni,
아나왓자~니 감마~니,
 비난받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

Āratī viratī pāpā,
아~라띠~ 위라띠~ 빠~빠~,
 악한 행위들을 피하고 삼가하며,

Appamādo ca dhammesu,
압빠마~도 짜 담메수,
 담마에 맞게 만족하는 것,

Gāravo ca nivāto ca,
가~라오 짜 니와~또 짜,
 존경할 줄 알고 겸손하며,

Kālena dhammassavanam,
갈~레나 담맛사와낭,
 적당한 때에 담마를 듣는 것,

Pubbe ca kata-puññatā
뽀베 짜 까따 뽀냐따~,
 전생에 쌓은 공덕들이 있으며,

Etam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 뽀따망.
 이게 바로 으뜸가는 길상(吉祥)이네.

Vinayo ca susikkhito,
위나요 짜 수식키토,
 계율들을 또한 잘 익히며,

Etam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 뽀따망.
 이게 바로 으뜸가는 길상(吉祥)이네.

Putta-dārassa saṅgaho,
뽀따 다~랏사 상가호,
 처자식을 보호하며,

Etam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 뽀따망.
 이게 바로 으뜸가는 길상(吉祥)이네.

Ñātakānañ-ca saṅgaho,
냐~따까~난짜 상가호,
 형제친척들과 서로 돕고,

Etam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 뽀따망.
 이게 바로 으뜸가는 길상(吉祥)이네.

Majja-pānā ca saññamo,
맛자 빠~나~ 짜 산냐모,
 술과 약물들 또한 자제하며,

Etam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 뽀따망.
 이게 바로 으뜸가는 길상(吉祥)이네.

Santutṭhi ca kataññutā,
산뽀띠 짜 까판뉴따~,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며,

Etam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 뽀따망.
 이게 바로 으뜸가는 길상(吉祥)이네.



Khantī ca sovacassatā,
칸띠~ 짜 소와짚사따~,

인내하고 공손하게 경책들을 받아들이며,

Kālena dhamma-sākaṇṇā,
갈~레나 담마 사~갓차~,

적당한 때에 법담을 나누는 것,

Tapo ca brahma-cariyā ca,
따보 짜 브라마 짜리야짜,

부지런히 노력하고 청정범행을 행하며,

Nibbāna-sacchi-kiriya ca,
닙바~나 사치 기리야~ 짜,

닙바나에 이르는 것,

Phuṭṭhassa loka-dhammehi,
풋탓사 로까 담메히,

세속의 방식으로 시달릴 때,

Asokaṃ virajaṃ khemaṃ,
아소깁 위라장 케망,

슬픔과 번뇌의 오염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으뜸가는 길상(吉祥)이네.

Etādisāni katvāna,
에따~디사~니 까따와~나,

누구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잘 행할 때,

Sabbattha sotthiṃ gacchanti,
삽밧타 소팅 갓찬띠,

어디서나 행복을 얻게 되니,

Samaṇānañ-ca dassanaṃ,
사마나~난짜 닛사낭,

사문(수행자)을 찾아뵙고,

Etam maṅgalaṃ-uttamaṃ..
에땅 망갈라 뭇따망.

이게 바로 으뜸가는 길상(吉祥)이네.

Ariya-saccāna-dassanaṃ,
아리야 사짜~나 닛사낭,

성스러운 진리들을 통찰하고,

Etam maṅgalaṃ-uttamaṃ..
에땅 망갈라 뭇따망.

이게 바로 으뜸가는 길상(吉祥)이네.

Cittaṃ yassa na kampaṭi,
짚땅 얏사 나 캄빠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Etam maṅgalaṃ-uttamaṃ..
에땅 망갈라 뭇따망.

이런 것이 바로 으뜸가는 길상(吉祥)이네.

Sabbattha-m-aparājita,
삽밧타 마빠라~지따~,

어디서나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Tan-tesaṃ maṅgalaṃ-uttamanti.
탄 떤상 망갈라 뭇따만띠.

이런 것이 바로 최상의 길상(吉祥)이네.

[*Khuddakapatha 5/Sutta Nipāta 2.4*]

11. 보배경(*Ratana Sutta*)

(The Discourse on Treasures)

<i>Yānīdha bhūtāni samāgatāni,</i> 야~니~다 부~따~니 사~마~가따~니, 여기 모인 존재들은,	<i>Bhummāni vā yāni va antalikkhe,</i> 뽕마~니 와~ 야~니 와 안팔릭케, 땅위에 있건 허공중에 있건 간에,
<i>sabb'eva bhūtā sumanā bhavantu,</i> 삽배 와 부~따~ 수마나~ 바완뚜, 모든 존재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i>Athopi sakkacca suṇantu bhāsitaṃ:</i> 아토피 삭갓짜 수난뚜 바~시땅. 그런 후 이제 계송들을 공손하게 들으시오:
<i>Tasmā hi bhūtāni sāmetha sabbe,</i> 따사마~ 히 부~따~니 사~메타 삽배,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은 주의를 기울여,	<i>Mettaṃ karotha mānusiya pajāya,</i> 멧땅 까로타 마~누시아~ 빠자~야, 인간들을 대함에 자애롭게 행동하고,
<i>divā ca ratto ca haranti ye baliṃ,</i> 디와~ 짜 랏또 짜 하란띠 예 발링, 밤낮으로 공양물 올리는 그들이니,	<i>Tasmā hi ne rakkhatha appamattā.</i> 따사마~ 히 네 락카타 압빠맛따~.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Yāni kiñci*] *vittaṃ idha vā huraṃ vā,* *Saggesu vā yaṃ ratanaṃ paṇītaṃ,*
[양 깐찌] 윗땅 이다 와~ 후랑 와~, 삭계수 와~ 양 라따낭 빠니~땅,
이생과 저생에 존재하는 어떤 귀한 재물들과, 천상세계의 어떤 뛰어난 보배도,

Na no samaṃ atthi Tathāgatena,
나 노 사망 앗티 따타~가떼나,
우리들에게 여래(부처님)와 견줄만한 어떠한 것들도 없으니,

Idam-pi Buddhē ratanaṃ paṇītaṃ.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이담 삐 붓데 라따낭 빠니~땅 에떼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부처님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Khayaṃ virāgaṃ amataṃ paṇītaṃ, *Yad-ajjhagā sakya-munī samāhito,*
카양 위라~강 아마땅 빠니~땅, 야 닛자가~ 사까무니~ 사마~히또,
삼매 속에서 현자 석가모니께서 알아낸, 번뇌를 소멸하고 탐욕을 떠나 불사(不死)의 으뜸가는 담마는,

Na tena dhammena sam'atthi kiñci,
나 떤나 담메나 사맛티 깐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뛰어난 담마이니,

Idam-pi Dhamme ratanaṃ paṇītaṃ.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이담 삐 담메 라따낭 빠니~땅 에떼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담마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Yam-Buddha-seṭṭho parivannaṇayī sucim,
얌 붓다 섯토 빠리완나이~ 수쨍,
위없는 스승, 부처님께서 순수하게 찬탄하신 것은,



Samādhim-ānantarikañ-ñam-āhu,
사마~디 마~난따리까냐 마~후,

즉각적인 앎이란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라 부르셨고, 이 삼매와 견줄만한 것은 없으니,

Idam-pi Dhamme ratanam paṇītaṃ.
이담 삐 담메 라따낭 빠니~땅

이러한 담마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Samādhinā tena samo na vijjati,
사마~디나~ 떤나 사모 나 윳자띠,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Ye puggalā aṭṭha satam pasatthā,
예 뵉갈라~ 앗타 사땅 빠삿타~,

평화로운 이들에게 칭찬받는 여덟 유형의 성자들, 이분들은 네 쌍의 도와 과를 구비한,

Te dakkhiṇeyyā Sugatassa sāvaka,
떼 닥키네이야~ 수가땃사 사~와까~,

부처님의 제자들로 보시받을 가치 있는 분들이니, 이런 분들께 보시하면 큰 이득을 가져오네,

Idam-pi Saṅghe ratanam paṇītaṃ.
이담 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이러한 상가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Cattāri etāni yugāni honti,
찻따~리 에따~니 유가~니 혼띠,

Etesu dinnāni mahapphalāni,
에떼수 딘나~니 마합팔라~니,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Ye suppayuttā manasā dalhena,
예 속빠윳따~ 마나사~ 달레나,

확고한 마음과 진지한 노력으로, 고타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났으며,

Te patti-pattā amatam vigayha,
떼 뵈띠뵈따~ 아마땅 위가이하,

이분들은 불사(不死)의 과를 이루었고, 죽음을 넘어선 님바나의 경지에 들었으며,

위없는 과위에서 오는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시니,

Idam-pi Saṅghe ratanam paṇītaṃ.
이담 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이러한 상가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Nikkāmino Gotama-sāsanamhi,
닉까~미노 고타마 사~사남히,

Laddhā mudhā nibbutiṃ bhuñjamānā,
랏다~ 무다~ 님부띠 분자마~나~,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Yath'inda-khīlo paṭhavim sito siyā,
야틴다킬~로 빠타윳 시또 시야~,

땅을 의지해 곳곳이 서있는 성문 앞의 돌기둥은,

Tathūpamaṃ sappurisaṃ vadāmi,
따투~빠망 삽뿌리상 와다~미,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

Idam-pi Saṅghe ratanam paṇītaṃ.
이담 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이러한 상가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Catubbhi vātehi asampakampiyo,
짜뵈비 와~떼히 아삼빠감삐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Yo ariya-saccāni avecca passati,
요 아리야 삿짜~니 아윳짜 뵈삿띠,

모든 성스러운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한 성자들이니,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Ye ariya-saccāni vibhāvayanti,
예 아리야 삿짜~니 위바~와안띠,

깊은 지혜를 지니신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확실하게 안 예류과의 성자들은,

Gambhīra-paññena sudesitāni,
감비~라뵈네나 수데시따~니,



Kiñ-cāpi te honti bhusappamattā,
 낀짜~삐 떤 혼띠 부삼빠맛따~,
 설령 그분들이 자주 방일하더라도,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 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이러한 상가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Sahāv'assa dassana-sampadāya,
 사하~왓사 닛사나삼빠다~야,
 수다원은 통찰지혜를 성취함과 동시에,

Sakkāya-diṭṭhi vicikicchitañ-ca,
 삭까~야 디띠 위찌깃치판짜,
 이 몸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8종류의 의심,

Catūh'apāyehi ca vippamutto,
 짜뚜~하빠~예히 짜 윽빠뭇또,
 사악처(四惡處)에서 벗어나,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 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이러한 상가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Kiñ-cāpi so kammaṃ karoti pāpakaṃ,
 낀짜~삐 소 감망 까로띠 빠~빠강,
 몸으로, 말로써, 또는 마음으로,

Abhabbo so tassa paṭicchadāya,
 아밤보 소 맛사 빠딛차다~야,
 그러한 행위들을 숨길 수 없으며,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 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이러한 상가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Vanappagumbe yathā phussi-t-agge,
 와남빠굼베 야타~ 쫓시딱게,
 숲속 나뭇가지 높은 곳마다 꽃망울이 활짝 피는 것은 여름의 첫 달 내내 내리쬐는 햇살로 말미암듯이,

Tathūpamaṃ dhamma-varaṃ adesayi,
 따투~빠망 담마와랑 아데사이,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위없는 담마를 설하시어 최상의 이익인 님바나로 인도하시니,

Na te bhavaṃ aṭṭhamaṃ ādiyanti,
 나 떤 바왕 앗타망 아~디안띠,
 여덟 번째의 태어남은 받지 않으니,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테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Tay'assu dhammā jahitā bhavanti,
 따얏수 담마~ 자히따~ 바완띠,
 세 가지 정신적인 현상이 끊어져 성자가 되니,

Sīlabbatam vā pi yad-atthi kiñci,
 실~랍바땅 와~ 삐 야~딛티 낀찌,
 의식에 대한 집착과 번뇌의 일부가 사라지고,

Cha cābhiñhānāni abhabbo kātuṃ,
 차 짜~비타~나~니 아~밤보 까~똥,
 여섯 가지 큰 잘못¹⁶⁾을 더 이상 짓지 않으니,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테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Kāyena vācā uda cetasā vā,
 까~예나 와~짜~ 우다 켜따사~ 와~,
 수다원은 비록 사소하게 악업을 지을지라도,

Abhabbatā diṭṭha-padassa vuttā,
 아~밤바따~ 디~타 빠~딛사 윽따~,
 님바나의 길을 본 자들은 그것들을 숨길 수 없으니,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테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Gimhāna-māse paṭhamasmiṃ gimhe,
 김하~나마~세 빠타마사~밍 김헤,
 여름의 첫 달 내내 내리쬐는 햇살로 말미암듯이,

Nibbāna-gāmiṃ paramaṃ hitāya,
 님바~나가~밍 빠라망 히따~야,
 님바나로 인도하시니,

16) 여섯 가지 큰 잘못 : ①어머니 살해(Mātu-ghāta), ②아버지 살해(pitru-ghāta), ③아라한 살해(arahanta-ghāta), ④부처님의 몸에 피(lohitupādaka), ⑤상가 분열(saṅgha-bheda), ⑥부처님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름(añña-satthā-uddesa).



Idam-pi Buddhē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 삿 붓데 라따낭 빠니~땅

이러한 부처님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Varo varaṇ-ñū vara-do var'āhara,
와로 와란뉴 와라도 와라~하로,

최상으로 고귀한 분, 최상의 님바나를 깨달으신 분, 최상의 님바나에 이르는 진리를 보여주신 분,
최상의 님바나로 인도하시는 분, 그 위없는 부처님께서 최상의 담마를 설하셨으니,

Aanuttaro dhamma-varam adesayi,
아누따로 담마와랑 아데사이,

Idam-pi Buddhē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 삿 붓데 라따낭 빠니~땅

이러한 부처님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Khīṇaṃ purāṇaṃ navaṃ n'atthi sambhavaṃ,

키~낭 뿌라~낭 나왕 닛티 삼바왕,

과거의 업은 끝났고, 새로운 태어남이 없으니,

Viratta citt'āyatike bhavasmim,
위랏따 췌따~야띠께 바와사밍,

미래의 존재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도 없어, 씨앗들이 없기에 욕망의 자라남이 없어,

Te khīṇa-bījā aviruḥhi-chandā,
떼 키~나 비~자~ 아유히리찬다~,

Nibbanti dhīrā yathā'yam-padīpo,
닙반띠 디~라~ 야타~얌 빠디~보,

이런 현자들은 마치 불꽃이 사라지듯 열반에 이르니,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 삿 상게 라따낭 빠니~땅

이러한 상가 역시 뛰어난 보배일세,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 *Yānīdha bhūtāni samāgatāni,*
야~니~다 부~따~니 사마~가따~니,

여기 모인 존재들은

Bhummāni vā yānīva antalikkhe,
뽄마~니 와~ 야~니와 안팔릭케,

땅위에 있는 이견 허공중에 있건,

Tathāgataṃ deva-manussa-pūjitaṃ,
따타~가땅 데와마눗사뿌~지땅,

인간과 천인들의 존경을 받는 부처님,

¹Buddhaṃ 『²dhammaṃ, 『³Saṅghaṃ』 ~
붓당 『 담망, 상강 』

부처님께 『 담마, 상가 』 에게

namassāma suvatthi hotu! ㄹㄹㄹ(3X)
나맛사~마 수왓티 호뚜!

예경 드리니, 행복하기를! (3반복)

[Sutta Nipāta 2.1]

12. 자애경 (*Karaṇīya-Metta Sutta*)

(The Discourse on Loving-kindness)

[*Karaṇīya*] *m -attha-kusalena,*
[까라니~야] 맛타 꾸살레나,
누구든지 착한 일을 능숙하게 실천하고,

Sakko ujū ca sūjū ca,
삭꼬 우주~ 짜 수~주~ 짜,
유능하고, 바르고 정직하며,

Santussako ca subhara ca,
산뜻삭꼬 짜 수바로 짜,
만족할 줄 알고, 공양받기 쉽고,

Sant'indriyo ca nipako ca,
산핀드리요 짜 니빠꼬 짜,
감관이 고요하며 사려가 깊고,

Na ca khuddam samācare kiñci,
나 짜 쿿당 사마~짜레 낌찌,
그리고 사소한 허물도 짓지 말며,

Sukhino vā khemino hontu,
수키노 와~ 케미노 혼뚜,
모두 행복하고 안온하기를!

Ye keci pāna-bhūt'atthi,
예 깨찌 빠~나 부~땃티,
어떤 형태의 생명으로 존재하더라도,

Dīghā vā ye mahantā vā,
디~가~ 와~ 예 마한따~ 와~,
길거나 크거나,

Diṭṭhā vā ye ca adiṭṭhā,
딛타~ 와~ 예 짜 아딛타~,
볼 수 있건, 볼 수 없건,

Bhūtā vā sambhavesī vā,
부~따~ 와~ 삼바웨시~ 와~,
태어났건 태어나게 될 것이건,

Na paro param nikubbetha,
나 빠로 빠랑 니꿍베타,
서로 서로를 속이지 않고,

Byārosanā paṭigha-saññā,
바야~로사나~ 빠띠가 산냐~,
화내거나 악한 생각 품어서도 안 되니,

Yan-taṃ santam padam abhisamecca,
얀땅 산땅 빠당 아비사멧짜,
고요함의 경지를 체득코자 한다면,

Suvaco c'assa mudu anatimānī.
수와쑈 찻사 무두 아나띠마~니~.
온순하며 부드럽고 자만하지 말자.

Appakicco ca sallahuka-vutti,
압빠깃쑈 짜 살라후까 웃띠,
해야할 일이적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Appagabbho kulesu ananugiddho.
압빠갑보 골레수 아나누깃도.
교만하지 않고 가문에 대해 욕심부리지 말자.

Yena viññū pare upavadeyyuṃ,
예나 윈뉴 빠레 우빠와데이유,
그것에 의해 현자들이 비난하게 되리

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삽베 샷따~ 바완뚜 수키땃따~.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기를!

Tasā vā thāvarā vā anavasesā
따사~ 와~ 타~와라~ 와~ 아나와세사~,
연약하건 강건하건 예외 없이,

Majjhimā rassakā aṇuka-thūlā,
맛지마~ 랏사까~ 아누까 툴~라~,
중간치건 짧건, 미세하건 두껍건,

Ye ca dūre vasanti avidūre,
예 짜 두~레 와산띠 아위두~레,
멀리 살건, 근처에서 살건,

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삽베 샷따~ 바완뚜 수키땃따~.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기를!

Nātimaññetha katthaci naṃ kiñci,
나~띠만네타 갓타찌 낭 낌찌,
어디서건 누구이건 경멸하지 말고,

Nāññam-aññassa dukkham-iccheyya.
난~냐 만났사 득카 밋체이야.
다른 이의 괴로움이 지속되길 바라지 않기를!



Mātā yathā niyaṃ puttāṃ,
 마~따~ 야타~ 니양~ 벗땅,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Evam-pi sabba-bhūtesu,
 에~웜~ 삐~ 샅바~ 부~떼수,
 그와 같이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도,

Āyusā eka-puttāṃ-anurakkhe,
 아~유사~ 에~까~ 벗따~ 마누락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처럼 보호하듯,

Māna-sambhāvaye aparimāṇaṃ.
 마~나~ 삼바~와~예~ 아~빠리~마~낭.
 한량없이 자애심을 펼치기를!

-----*17)
Mettañ'ca sabba-lokasmiṃ,
 멧판~짜~ 샅바~ 로~까~사~밍,
 온 세상에 대해서도 자애롭게,

Uddhaṃ adho ca tiriyañ-ca,
 웃~당~ 아~도~ 짜~ 피리~얀~짜,
 위로 아래로 그리고 사방으로,

Tiṭṭhañ-caraṃ nisinno vā,
 띠~탄~ 짜~랑~ 니~신~노~ 와~,
 서있건 걸어가건 앉아있건,

Etam satim adhiṭṭheyya,
 에~땅~ 사~띵~ 아~딤~테~이~야,
 이 같은 자애심을 확고하게 알아차리길!

Diṭṭhiñ-ca anupagamma,
 띠~띤~짜~ 아~누~빠~감~마,
 샅된 견해 갖지 않고,

Kāmesu vineyya gedhaṃ,
 까~메~수~ 위~네~이~야~ 게~당,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여,

Māna-sambhāvaye aparimāṇaṃ,
 마~나~ 삼바~와~예~ 아~빠리~마~낭,
 한량없이 자애 마음을 가꾸어서,

Asambādhaṃ averaṃ asapattaṃ.
 아~삼~바~당~ 아~웨~랑~ 아~사~빳~땅.
 증오심과 적개심에서 벗어나, 결림이 없기를..

Sayāno vā yāvat'assa vigata-middho,
 사~야~노~ 와~ 야~와~따~사~ 위~가~따~ 밋~도,
 누워있건 깨어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Brahmaṃ-etaṃ vihāraṃ idha-m-āhu.
 브~라~마~ 메~땅~ 위~하~랑~ 이~다~ 마~후.
 이것을 성스러운 삶이라고 설하셨네.

Sīlavā dāssanena sampanno,
 실~라~와~ 닷~사~네~나~ 삼~판~노,
 계행과 통찰력을 성취하여,

Na hi jātu gabbha-seyyaṃ punar-etī-ti.
 나~ 히~ 자~투~ 갇~바~ 세~이~양~ 부~나~레~띠~띠.
 태중에 결코 다시는 들지 않으리.

[Sutta Nipāta 1.8]

17) ----- 아래 부분부터 분리 독송되기도 함



13. 자비를 통한 보호주(*Khandha-Paritta*)

(Protection through *Mettā*)

[*Virūpakkhehi me*] *mettaṃ*,
[위루~빠케히 메] 멧땅

나는 위루빠카와 에라빠타 뱀 종족들에게 선량한 자비심을 품고 있습니다.

Chabyā-puttehi me mettaṃ,
차바야~뽏테히 메 멧땅

나는 뱀 종족인 차브야와 검은 고파마까에게도 선량한 자비심을 가집니다.

Apādakehi me mettaṃ,
아빠~다게히 메 멧땅

발 없는 존재들에게 자비심을,

Mettaṃ Erāpathehi me
멧땅 에라~빠테히 메

Mettaṃ Kaṇhā-Gotamakehi ca
멧땅 깐하~고따마께히 짜

Mettaṃ di-pādakehi me
멧땅 디 빠~다게히 메

두 발을 가진 존재들에게 자비심을

Catuppadehi me mettaṃ,
짜뽏빠데히 메 멧땅

네 발을 가진 존재들에게 자비심을, 여러 개의 발을 가진 존재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Mettaṃ bahuppadehi me
멧땅 바홉빠데히 메

Mā maṃ apādako hiṃsi,
마~망 아빠~다꼬 힝시

발 없는 존재들로부터 내가 해가 없기를,

Mā maṃ hiṃsi di-pādako
마~망 힝시 디 빠~다꼬

두 발 가진 존재들로부터 내가 해가 없기를

Mā maṃ catuppado hiṃsi,
마~망 짜뽏빠도 힝시

네 발을 가진 존재들로부터 내가 해로움이 없기를,

Mā maṃ hiṃsi bahuppado
마~망 힝시 바홉빠도

많은 발을 가진 존재들로부터 내가 해로움이 없기를

Sabbe sattā sabbe pānā,
삽베 삿따~삽베 빠~나~

모든 존재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Sabbe bhūtā ca kevalā
삽베 부~따~ 짜 깨왈라~

태어날 모든 존재들,

Sabbe bhadrāni passantu,
삽베 바다라~니 삿산뚜,

살아 숨 쉬는 모든 존재들은

Mā kiñci pāpam-āgamā
마~깁찌 빠~빠마~가마~

어떤 식으로도 불운이 닥치지 말기를

Appamāṇo Buddhō,
압빠마~노 붓도

부처님, 담마, 상가를 가늠할 수 없지만

Appamāṇo dhammo,
압빠마~노 담모

Appamāṇo saṅgho
압빠마~노 상고

Pamāṇa-vantāni sirim-sapāni,
빠마~나 완따~니 시림 사빠~니

그러나 기어가는 것들은 가늠할 수 있고;

Ahi-vicchikā sata-padī unṇā-nābhī sarabū mūsikā,
아히윗치까~사따 빠디~운나~나~비~사라부~무~시까~

전갈, 지네, 거미, 도마뱀, 쥐

Katā me rakkhā,
까따~메 락카~

나로 하여금 이들을 피하게 하고,

Katā me parittā,
까따~메 빠릿따~

나로 하여금 이들을 보호하게 해주고,



Paṭikkamantu bhūtāni,
빠딕까만뚜 부~따~니
 이들이 멀리 가버리길...

So'haṃ namo Bhagavato,
소함 나모 바가와또,
 나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Namo sattannaṃ sammā-sambuddhānaṃ
나모 샛판낭 삼마~ 삼뵤다~낭
 7가지 올바른 깨달음의 요소를 갖추신 분들에게 예경드립니다.

[무더기 경(칸다숫땅, *Khandha suttaṃ*)에서 발췌되어 빠릿따(*Paritta*) 분리 독송됨]

14. 공작새 보호주(*Mora-Paritta*)

(The Peacock's Protection)

[Udet'ayañ-cakkhumā] eka-rājā,
[우데따얀 짝꾸마~] 에까 라~자~,
 출중한 통찰력과 황금빛깔로,

Harissa-vanno paṭhavi-ppabhāso
하릿사 완노 빠타웁 빠바~소
 지상을 밝히는 한 분의 제왕

Taṃ taṃ namassāmi,
땅 땅 나맛사~미,
 나는 황금빛으로 지상을 빛나게 하는

Harissa-vannaṃ paṭhavi-ppabhāsaṃ
하릿사 완낭 빠타웁 빠바~상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Tay'ajja guttā viharemu divasaṃ.
타얏자 굿따~ 위하레무 디와상.
 당신의 보호를 받으며 오늘 하루를 지내길!

Ye brāhmaṇā veda-gu sabba-dhamme
예 브라~마나~ 웨다구 샛바 담메
 모든 진리를 아는 범천들께

Te me namo te ca maṃ pālayantu.
떼 메 나모 떼 짜 망 팔~라얀뚜.
 나는 그분들께 경의를 표하오니 그분들이 나를 보호해 주시길..

Nam'atthu Buddhānaṃ nam'atthu bodhiyā. Namo vimuttānaṃ namo vimuttiyā.
나맛투 뵤다~낭 나맛투 보디아~. 나모 위뭇따~낭 나모 위뭇피야~.
 깨달은 분들에게 경의를, 깨달음에 경의를. 해탈한 분들에게 경의를, 해탈에 경의를.

Imaṃ so parittaṃ katvā
이망 소 빠릿땅 까따와~
 이러한 힘들의 보호를 받아,

moro carati esanā.
모로 짜라띠 에사나~
 공작새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서니.

Apet'ayañ-cakkhumā eka-rājā,
아페따얀 짝꾸마~ 에까 라~자~,
 출중한 외모와 황금빛깔로,

Harissa-vanno paṭhavi-ppabhāso
하릿사 완노 빠타웁 빠바~소
 지상을 밝히는 한 분의 제왕,

Taṃ taṃ namassāmi,
땅 땅 나맛사~미,
 나는 황금빛으로 지상을 빛나게 하는

Harissa-vannaṃ paṭhavi-ppabhāsaṃ
하릿사 완낭 빠타웁 빠바~상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Tay'ajja guttā viharemu rattim.
타얏자 굿따~ 위하레무 랏띵

당신의 보호를 받으며 오늘 하루를 지내길! 모든 진리를 아는 범천들께

Te me namo te ca maṃ pālayantu.
떼 메 나모 떼 짜 망 팔~라얀뚜.

나는 그분들께 경의를 표하오니 그분들이 나를 보호해 주시길..

Nam'atthu Buddhānaṃ nam'atthu bodhiyā. namo vimuttānaṃ namo vimuttiyā.
나맛투 붓다~낭 나맛투 보디아~. 나모 위뭇따~낭 나모 위뭇띠야~.

깨달은 분들께 경의를, 깨달음에 경의를. 해탈한 분들께 경의를, 해탈에 경의를,

Imaṃ so parittaṃ katvā moro vāsam-akappayī-ti.
이망 소 빠릿땅 까타와~ 모로 와~사 마깁빠이~띠.

이러한 힘들의 보호를 받아, 공작새는 둥지를 정리하네.

[*Jātaka Nipāta* 159]

15. 어린 메추라기 보호주(*Vaṭṭaka-paritta*)

[*Atthi loke*] *sīla-gūṇo,*
[앗티 로께] 실~라 구~노,

세상에는 미덕, 진실,

Tena saccena kāhāmi,
테나 삿제나 까~하~미,

이러한 진리에 걸맞게,

Āvajjivā dhamma-balaṃ.
아~왓지따와~ 담마 발랑,

담마의 힘을 느끼면서,

Sacca-balam-avassāya,
삿짜 발라 마왓사~야,

진리의 힘에 의지하여,

Santi pakkhā apattanā,
산띠 빠까~ 아빳파나~,

여기 깃털없는 날개들이 있고

Mātā pitā ca nikkhantā,
마~따~ 삐따~ 짜 닉칸따~,

부모님은 나를 떠나셨으니,

Saccaṃ soceyy'anuddayā
삿짱 소제이야~눅다야~

순수함, 미묘함 있다네.

Sacca-kiriyaṃ-anuttaraṃ
삿짜 끼리야 마눅따랑

확신있게 비길 수 없는 맹세를 하려네.

Saritvā pubbake jine
사리따와~ 뽀바께 지네

과거 정복자를 회상하면서,

Sacca-kiriyaṃ-akās'ahaṃ
삿짜 끼리야 마까~사항

나는 최상의 맹세했네.

Santi pādā avañcanā
산띠 빠~다~ 아완짜나~

여기 걸을 수 없는 발들이 있다네.

Jāta-veda paṭikkama
자~따 웨다 빠딕까마

불이여, 물러가라!



Saha sacce kate mayham,
사하 삿째 까떼 마이함,
 내가 진실로 맹세를 했을 때,

Vajjesi soḷasa karīsāni,
왓제시 솔라사 까리~사~니,
 나로부터 멀어져 피했네

Saccena me samo n'atthi,
삿째나 메 사모 닛티,
 나의 진실은 비길 데 없으니,

Mahā-pajjalito sikhī
마하~ 뵈갈리또 시키~
 크게 휘몰아친 불길은

Udakaṃ patvā yathā sikkhī
우다강 빠따와~ 야타~ 식키~
 마치 물을 만난 듯이

Esā me sacca-pāramī-ti.
에사~ 메 삿짜 빠~라미~띠
 이것이 나의 진리의 구족함일세.

[*Vaṭṭaka Jātaka* No. 35]

16. 앙굴리말라 보호주(*Anguli-māla Paritta*)

Yato'haṃ bhagini ariyāya jātiyā jāto,
야또함 바기니 아리야~야 자~띠야~ 자~또,
 자매여! 나는 성스러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로,

Nābhijānāmi sañcicca pāṇaṃ jīvitaṃ voropetā,
나~비자~나~미 산짚짜 빠~낭 지~위따~ 오로베따~;
 어떠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고의로 해치지 않았다고 확실히 안다.

Tena saccena sotthi te hotu sotthi gabbhassa. ## (3회 반복)
떼나 삿째나 쏫티 떼 호뚜 쏫티 갇밧사.

이와 같은 진실로 그대가 평안하기를! 태아도 안전하게 되기를!

[*Āṅgulimāla sutta*, M.II.103]



17. 깨달음 7가지 요소(*Bojjh'aṅga Paritta*)

[*Bojjh'aṅgo sati*]-*saṅkhāto*,
[**붓장고 사띠**] **상카**~**또**,

깨달음의 요인들은 알아차림이란 요소와,

Viriyaṃ pīti passaddhi,
위리양 **삐**~**피** **빳**~**삿**디,

노력(정진)과 희열, 고요함,

Samādh'upekkha bojjh'aṅgā,
사마~**두**백카 **붓**장가~,

삼매와 평정이라는 깨달음의 요인까지,

Muninā sammad-akkhātā,
무니나~ **삼**마닥카~**따**~,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바르게 설하셨고,

Samvattanti abhiññāya,
상왓판띠 **아**비냐~**야**,

이것들은 완전한 앎을 통찰하고,

Etena sacca-vajjena,
에떼나 **삿**짜 **왓**제나,

이와 같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Ekasmiṃ samaye nātho,
에까사뎡 **사**마에 나~**토**,

어느 한 때 보호자인 부처님께서는,

Gilāne dukkhite disvā,
길라~**네** **둑**키떼 **디**사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Te ca taṃ abhinanditvā,
떼 **짜** **땅** **아**비난디**따**와~,

그분들은 그 법을 듣고 기쁨에 넘쳐,

Etena sacca-vajjena,
에떼나 **삿**짜 **왓**제나,

이와 같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Ekadā Dhamma-rājā-pi,
에까다~ **담**마 **라**~**자**~**삐**,

한 때 법왕이신 부처님께서,

Dhammānaṃ vicayo thatā,
담마~**낭** **위**짜요 **타**따~,

그와 같이 담마의 조사,

Bojjhaṅgā ca tathā'pare.
붓장가~ **짜** **따**타~**빠**레.

이와 함께 다른 깨달음의 요인들도 있으니.

Satte te sabba-dassinā,
삿떼 **떼** **삽**바 **닷**시나~,

이러한 일곱 가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Bhāvitā bahulī-katā.
바~**위**따~ **바**홀리~**까**따~.

열심히 수행하며 닦은 것이라네.

Nibbānāya ca bodhiyā,
닙바~**나**~**야** **짜** **보**디아~,

닙바나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인도하네,

Sotthi te hotu sabbadā.
솿티 **떼** **호**뚜 **삽**바다~.

그대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Moggallānañ-ca kassapaṃ,
목갈라~**난**짜 **갓**사빵,

목갈라나 존자와 갓사빠 존자가,

Bojjh'aṅge satta desayi.
붓장게 **삿**따 **데**사이.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들을 이같이 설하셨네.

Rogā muccim̐su tañ-khaṇe,
로가~ **뭇**쟁수 **땅**카네,

질병에서 곧바로 벗어나게 되었다네.

Sotthi te hotu sabbadā.
솿티 **떼** **호**뚜 **삽**바다~.

그대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Gelaññenābhipīlito,
겔란네나~**비**뵐~**리**또,

열병으로 통증에 시달리실 때,



Cundattherena taṃ yeva,
쫘닷테레나 땅 예와,

쫘다 장로에게 바로 그 가르침을

Sammoditvā ca ābādhā,
삼모디따와~ 짜 아~바~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기쁘게 들으시고,

Etena sacca-vajjena,
에테나 삿짜 왓제나,

이와 같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Pahīnā te ca ābādhā,
빠히~나~ 떤 짜 아~바~다~,

뿌리째 제거하고 극복하신 위대하신

Magg'āhata kilesā va,
막가~하따 길레사~ 와,

도에 의해 끊어진 번뇌들처럼,

Etena sacca-vajjena,
에테나 삿짜 왓제나,

이와 같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Bhaṇāpetvāna sādaraṃ.
바나~뻬따와~나 사~다랑.

공경하는 마음으로 암송하라 하시었네.

Tamhā vuṭṭhāsi ṭhānaṃ.
탐하~ 윳타~시 타~나소.

질병으로부터 곧바로 일어나셨네.

Sotthi te hotu sabbadā.
솏티 떤 호뚜 삽바다~.

그대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Tinnannam-pi mahesiṇaṃ,
띤난남 뵤 마헤시낭,

세 분 성자들의 질병은,

Pattā'nuppatti dhammataṃ.
뵤따~눔뵤띠 담마땅.

차례로 조화롭게 성취되었다네.

Sotthi te hotu sabbadā.
솏티 떤 호뚜 삽바다~.

그대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Bojjh'aṅga Sutta, Saṃyutta, Mahavagga iii.71, 72 and 73.*]



18. 과거불 보호경(*Āṭānāṭiya Paritta*)

(*Buddhas' Protection*)

과거 칠불 예경(Homage to the Seven Past *Buddhas*)

[*Vipassissa*] *nam'atthu*,
[위빳시사] 나맛투,

위빳시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Sikhissa pi*] *nam'atthu*,
시킿사 삐 나맛투,

시킿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Vessabhussa*] *nam'atthu*,
웻사뵤사 나맛투,

웻사부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Nam'atthu Kakusandhassa*,
나맛투 까꾸산닷사,

까꾸산다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Konāgamanassa*] *nam'atthu*,
꼬나~가마낫사 나맛투,

꼬나가마나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Kassapassa*] *nam'atthu*,
갓사뵤사 나맛투,

갓사빠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Angīrasassa*] *nam'atthu*,
앙기~라삿사 나맛투,

앙기라사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Yo imaṃ dhammam-adesesi*,
요 이망 담마 마데세시,

우리들에게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는,

[*Ye cāpi nibbutā loke*,
예 짜~삐 님부따~ 로께,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분명하게 숙고하여,

[*Te janā apisuṇā*,
떼 자나~ 아삐수나~,

그분들은 그 누구도 비방하지 않고,

[*Hitaṃ deva-manussānaṃ*,
히땅 데와 마눗사~낭,

천인과 인간들에게 이익을 주는,

[*Cakkhumantassa sirīmato*
짜꾸만팟사 시리~마또.

광명과 용모를 갖추신!

[*Sabba-bhūtānukampino*
삽바 부~따~누감삐노.

모든 중생들을 동정심으로 돌보시는!

[*Nhātakassa tapassino*.
나하~따갓사 따뵤시노.

번뇌를 깨끗이 제거하신 고행자!

[*Māra-sena-ppamaddino*
마~라 세납 빠맛디노.

마군중을 항복받으신!

[*Brāhmaṇassa vusīmato*
브라~마낫사 우시~마또.

청정범행을 완성하신!

[*Vippamuttassa sabbadhi*.
윽빠뵤팟사 삽바디.

모든 것에서 해탈하신!

[*Sakya-puttassa sirīmato*
사까 뵤팟사 시리~마또:

행운을 갖추신 석가족의 아들이신!

[*Sabba-dukkhāpanūdanaṃ*.
삽바 둑카~빠누~다낭.

담마를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Yathā-bhūtaṃ vipassisum*
야타~ 부~땅 위빳시승.

이 세상에서 적멸에 이르신 분들,

[*Mahantā vīta-sārādā*.
마한따~ 위~따 사~라다~.

두려움이 없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Yaṃ namassanti Gotamaṃ*.
양 나맛산띠 고타망;

고따마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것은;



Vijjā-carāṇa-sampannaṃ,
 윗자~ 짜라나 삼판낭,
 지혜와 덕행을 함께 갖추시어,

Mahantam vīta-sāradam
 마한땅 위~따 사~라당.
 두려움이 없는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N'atthi me saraṇam aññaṃ,
 낫티 메 사라낭 안낭
 나에게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¹*Buddho* 『²*Dhammo,* ³*Saṅgho*』 ~ *me saraṇam varaṃ.*
 붓도 『 담모, 상고 』 메 사라낭 와랑.
 부처님은 『 담마, 상가 』 는 나의 최상의 의지처입니다.

Etena sacca-vajjena, *Sotthi te jayamaṅgalam.* ㄴㄴ (3X)
 에테나 삿짜 왓제나, 솟티 테 자야망갈랑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들에게 항상 길상(吉祥)이 있기를...

[MJG]

*Yā kiñci ratanaṃ loke,*¹⁸⁾
 양 깐찌 라따낭 로께,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Vijjati vividham puthu,
 윗자띠 위위당 부투,
 세상의 어떤 보배도,

Ratanaṃ buddhasamaṃ 『²*dharmasamaṃ,* ³*Saṅghasamaṃ*』 ~ *n'atthi,*
 라따낭 붓다사망 『 담마사망, 상가사망 』 낫티,
 부처님과 『 담마, 상가 』 와 견줄만한 보배 없으니,

Tasmā sotthi bhavantu te(*1인칭:me). ㄴㄴ(3X)
 따사마~ 솟티~ 바완뚜 떤.
 그로인해 그대가(내가) 행복하기를! (3회 반복 구간)

-----19)
 ◆*Sakkatvā buddha-ratanaṃ,*
 삭까따와~ 붓다 라따낭,
 부처님이라는 보배를 공경하나니,

Osadham uttamaṃ varaṃ,
 오사당 웃따망 와랑,
 최상의 뛰어난 약이며,

Hitam deva-manussānaṃ,
 히땅 데와 마눗사~낭,
 천인과 인간들에게 이익을 주는,

Buddha-tejēna sotthinā,
 붓다 떤제나 솟티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행복하기를!

18) *Yamkiñci ratanaṃ loke*로도 분리되어 암송도 됨(P. 198과 동일)

19) *Sakkatvā Buddha - Ratanaṃ* (보배인 부처님)으로 발췌 축약되어 암송되어짐



Nassant'upaddavā sabbe,
 낫산뚜뵤다와~ 삽베,

모든 불행이 소멸되고,

Sakkatvā dhamma-ratanam,
 삭까따와~ 담마 라따낭,
 담마라는 보배를 공경하나니,

Pariāhūpasamanam,
 빠릴라~후~빠사마낭,
 고뇌를 가라앉히는,

Nassant'upaddavā sabbe,
 낫산뚜뵤다와~ 삽베,
 모든 불행이 소멸되고,

*Dukkā vūpasamentu me(*2인칭:te).*
 득카~ 우~빠사멘뚜 메.

모든 괴로움이 나에게서(그대에게서) 평정되기를!

Osadham uttamam varam,
 오사당 옷따망 와랑,
 최상의 뛰어난 약이며

Dhamma-tejēna sotthinā,
 담마 떤제나 솟티나~,
 담마의 위신력으로 행복하기를!

*Bhayā vūpasamentu me (*2인칭:te).*
 바야~ 우~빠사멘뚜 메.

모든 공포가 나에게서(그대에게서) 평정되기를!

◆*Sakkatvā saṅgha-ratanam,*
 삭까따와~ 상가 라따낭,
 상가라는 보배를 공경하나니,

Āhuneyyam pāhuneyyam,
 아~후네이양 빠~후네이양,
 공경받을 가치있는 분들, 환대할 가치있는 분들, 상가의 위신력으로 행복하기를!

Nassant'upaddavā sabbe,
 낫산뚜뵤다와~ 삽베,
 모든 불행이 소멸되고,

Osadham uttamam varam,
 오사당 옷따망 와랑,
 최상의 뛰어난 약이며

Saṅgha-tejēna sotthinā,
 상가 떤제나 솟티나~,
 상가의 위신력으로 행복하기를!

*Rogā vūpasamentu me (*2인칭:te).*
 로가~ 우~빠사멘뚜 메.

모든 질병이 나에게서(그대에게서) 치유되기를!

◆*Sabbītiyo vivajjantu*
 삽비~띠요 위왓잔뚜

모든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Mā te bhavatvantarāyo
 마~ 떤 바와따완따라~요
 그대에게 위험이 없기를!

Abhivādāna-sīlissa
 아비와~다나 실~릿사
 계를 높이 받들고

Cattāro dhammā vadḍhanti
 찢따~로 담마~ 왓단띠
 네 가지 복이 증가하네.

Sabba-rogo vinassatu
 삽바 로고 위낫사뚜

모든 질병 씻은 듯이 사라지기를!

Sukhī dīgh'āyuko bhava [MJG]
 수키~ 디~가~유꼬 바와
 그대가 행복하고 장수하시길!

Niccaṃ vuddhāpacāyino
 닛짱 뵤다~빠짜~이노
 항상 존경스런 성자를 숭배하는 분들은,

Āyu vanno sukham balaṃ.
 아~유 완노 수캉 발랑.
 수명장수, 아름다움, 행복, 건강이라는

[Dhp.v.109]



19. 안전 기원 보호주(*Abhaya-Paritta*)

##

Yan- dunnimittam avamaṅgalañ- ca,
안 둔니밋땅 아와망갈란 짜,
불길한 징조나 나쁜 예감들과

Yo cāmanāpo sakuṇassa saddo
요 짜~마나~보 사꾸낫사 샛도
힘오스런 새 소리들과

Pāpaggaho dussupinam akantam,
빠~빠가호 뒷수삐낭 아칸땅,
악처, 혼동스런 악몽들이 무엇이든,

Buddhānubhāvena ¹ 『 *Dhammānubhāvena,* ² *Saṅghānubhāvena* ³ 』 ~*vināsamentu*
붓다~누바~웨나 『 담마~누바~웨나, 상가~누바~웨나 』 위나~사멘뚜
부처님의 위신력 『담마의 위신력, 상가의 위신력』으로 모두 사라지길...

||| (3x)

20. 보호주(*Nakkhatta yakkha*)

Nakkhatta- yakkha- bhūtānam
낙캇따 약카 부~따~낭

이러한 보호의 위신력으로 별들, 약카,

Pāpa- ggaha- nivāranā;
빠~빠 가하 니와~라나~

Parittassānubhāvena
바릿탓사~누바~웨나

영령과 나쁜 행성으로부터 오는 불행이 없기를,

Hantvā tesam upaddave;
한따와~ 떤상 우뵤다웨

당신에게 어려움이 닥치질 않기를...

(3X)



21. 신들의 귀환(*Devatā Uyyojana Gāthā*)

[*Dukkhappattā ca*] *niddukkhā*,
[독갑빳따~ 짜] 닛독카~,

고통스러움에 쌓인 자는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위험에 빠진 자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며,

Sokappattā ca nissokā,
소갑빳따~ 짜 닛소까~,

슬픔에 잠긴 자는 슬픔이 사라지길...

Ettāvatā ca amhehi,
엣따~와따~ 짜 암헤히,

모든 성취와 성공을 위하여,

Sabbe devā'numodantu,
삽베 데와~누모단뚜,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나누고,

Dānaṃ dadantu saddhāya,
다~낭 다단뚜 샷다~야,

친밀하게 보시를 베푸시고,

Bhāvanābhiratā hontu,
바~와나~비라따~ 혼뚜,

수행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하시며,

Bhayappattā ca nibbhayā
바압빳따~ 짜 님바야~,

Hontu sabbe pi pāṇino.
혼뚜 삽베 비 빠~니노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되길.

Sambhataṃ puñña-sampadaṃ
삼바땅 뽀냐 삼빠당

우리들이 쌓은 공덕들을

Sabba-sampatti-siddhiyā.
삽바 삼빳띠 싯디야~.

모두 성취하기를.

Sīlaṃ rakkhantu sabbadā
실~랑 락칸뚜 삽바다~

항상 계행을 지켜나가기길.

Gacchantu devatā-gatā.
갓찬뚜 데와따~ 가따~.

신들의 세계로 돌아가시기길.

-----20)
Sabbe buddhā balappattā,
삽베 붓다~ 발랍빳따~,

모든 부처님들께서 성취하신 위력으로,

Arahantānañ-ca tejena,
아라한따~난 짜 테제나,

아라한들의 위력으로,

Paccekañña-ca yaṃ balaṃ
빳제까~난 짜 양 발랑

개별 부처님들의 위력으로

Rakkhaṃ bandhāmi sabbaso.
락캉 반다~미 삽바소

이러한 보살핌들이 사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네.

20) 이하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음.

[Note]



제4장 담마의 숙고

1. 법의 속성 경(*Dhammaniyāma Sutta*)

[*Evam-me sutam.*] *Ekam samayaṃ Bhagavā, Sāvatthiyaṃ viharati,*
[에왕 메 수땅.] **에깁 사마양 바가와~, 사~왓티양 위하라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한 때 세존께서, 사왓티에 있는,

Jeta-vane Anātha-piṇḍikassa, ārāme.
제따와네 아나~타뵤디깃사, 아~라~메.
 아나타뵤디까의 제따와나 승원에 머물고 계셨다.

Tatr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bhikkhavo'ti.
따따라 코 바가와~ 빅쿠~ 아~만떼시 빅카오피.
 거기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Bhadante'ti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m. Bhagavā etad'avoca.
바단떼피 떼 빅쿠~ 바가와또 뽏짚소승. 바가와~ 에따 다오짜.
 그러자 비구들도 받들었다.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Uppādā vā bhikkhave Tathāgatānaṃ anuppādā vā Tathāgatānaṃ,
옵빠~다~ 와~ 빅카웨 따타~가따~낭 아눗빠~다~ 와~ 따타~가따~낭
 “비구들이여, ‘생겨나거나 생기지 않는 것은 여래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은

thitā va sā dhātu dhammatṭhitatā dhamma-niyāmatā:
티따~ 와 사~ 다~뚜 담맛티따따~ 담마 니야~마따~
 여래들께서 출현하신 후이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界이며:

Sabbe saṅkhārā aniccā'ti.
삽베 상카~라~ 아닛짜~피.
 생겨난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제행무상-諸行無常)

Taṃ Tathāgato abhisambujjhati abhisameti.
땅 따타~가또 아비삼뵤자피 아비사메피.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여래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Abhisambujjhivā abhisametvā ācikkhati deseti,
아비삼뵤지따와~ 아비사메따와~ 아~찌카피 데세피,
 투철하게 깨달고 관통한 뒤, ‘생겨난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라고 알게 하고

paññapeti paṭṭhappeti, vivarati vibhajati uttānī-karoti:
판냐뵤피 뽏따뵤피, 위와라피 위바자피 윗따~니~까로피: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Sabbe saṅkhārā aniccā'ti.
삽베 상카~라~ 아닛짜~피
 생겨난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제행무상-諸行無常)



Uppādā vā bhikkhave Tathāgatānaṃ anuppādā vā Tathāgatānaṃ,
 읍빠~다~ 와~ 빅카웨 따타~가따~낭 아눙빠~다~ 와~ 따타~가따~낭

“비구들이여, ‘생겨나거나 생기지 않는 것은 여래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은

thitā va sā dhātu dhammatṭhitatā dhamma-niyāmata:
 티따~ 와 사~ 다~뚜 담맛티따따~ 담마 니야~마따:

존재하는 요소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Sabbe saṅkhārā dukkhā'ti.
 삽베 상카~라~ 독카~띠.

‘생겨난 모든 것들은 괴로움이다.’(일체행고(一切行苦))

Taṃ Tathāgato abhisambujjhati abhisameti.
 땅 따타~가또 아비삼붓자띠 아비사메띠

여래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Abhisambujjhitvā abhisametvā ācikkhati deseti,
 아비삼붓지따와~ 아비사메따와~ 아~찍카띠 데세띠,

투철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생겨난 모든 것들은 괴로움이다’라고,

paññapeti paṭṭhappeti, vivarati vibhajati uttāni-karoti:
 반냐빠띠 뵈따빠띠, 위와라띠 위바자띠 웃따~니~까로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Sabbe saṅkhārā dukkhā'ti.
 삽베 상카~라~ 독카~ 띠.

생겨난 모든 것들은 괴로움이다.(일체행고(一切行苦))

Uppādā vā bhikkhave Tathāgatānaṃ anuppādā vā Tathāgatānaṃ,
 읍빠~다~ 와~ 빅카웨 따타~가따낭 아눙빠~다~ 와~ 따타~가따~낭,

비구들이여, 여래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界로서

thitā va sā dhātu dhammatṭhitatā dhamma-niyāmata:
 티따~ 와 사~ 다~뚜 담맛티따따~ 담마 니야~마따~:

‘생겨난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은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Sabbe dhammā anattā'ti.
 삽베 담마~ 아닛따~띠.

‘모든 현상들은 내가 아니다.’(제법무아(諸法無我))

Taṃ Tathāgato abhisambujjhati abhisameti.
 땅 따타~가또 아비삼붓자띠 아비사메띠.

여래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Abhisambujjhitvā abhisametvā ācikkhati deseti,
 아비삼붓지따와~ 아비사메따와~ 아~찍카띠 데세띠,

투철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paññapeti paṭṭhappeti, vivarati vibhajati uttāni-karoti:
 반냐빠띠 뵈따빠띠, 위와라띠 위바자띠 웃따~니~까로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Sabbe dhammā anattā'ti.

삽베 담마~ 아낏따~띠.

모든 현상들은 내가 아니다.(제법무아(諸法無我))

Idam avoca Bhagavā, Attamanā te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un'ti.

이다 마오짜 바가와~, 앳따마나~ 떼 빅쿠~ 바가와또 바~시땅, 아비난둔 띠

세존께서 이를 말씀하시자, 비구들은 그분의 말씀에 환희하였다.

[An 3.134 출현경 -대림스님 번역 참조 인용]

2. 삼법인에 대한 계송(*Ti-lakkhaṇ'ādi-Gāthā*)

[*Sabbe saṅkhārā anicca'ti,*

[삽베 상카~라~ 아닛짜띠,]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無常)하다.

Atha nibbindati dukkhe,

아타 님빈다띠 독케,

괴로움에 초연하면,

Sabbe saṅkhārā dukkhā'ti,

삽베 상카~라~ 독카~띠,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괴로움이다.

Atha nibbindati dukkhe,

아타 님빈다띠 독케

괴로움에 초연하면,

Sabbe dhamma anatta'ti,

삽베 담마 아낏따띠,

모든 법은 나의 자아가 없다(제법무아(諸法無我)). 지혜롭게 이를 볼 때,

Atha nibbindati dukkhe,

아타 님빈다띠 독케

괴로움에 초연하면,

Appakā te manussesu,

압빠까~ 떼 마눗세수

저 언덕으로 가는 이들은 거의 없고

Athāyaṃ itarā pajā,

아타~양 이따라~ 빠자~,

이 언덕에 머무는 자는 참으로 많네.

Yadā paññaya passati;

야다~ 뽀냐야 뽀사띠;

지혜롭게 이를 볼 때,

Esa maggo visuddhiyā.

에사 막고 위숫디야~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Yadā paññaya passati;

야다~ 뽀냐야 뽀사띠;

지혜롭게 이를 볼 때,

Esa maggo visuddhiyā.

에사 막고 위숫디야~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Yadā paññaya passati;

야다~ 뽀냐야 뽀사띠;

Esa maggo visuddhiyā.

에사 막고 위숫디야~.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Ye janā pāra-gāmino;

예 자나~ 빠~라 가~미노

Tīram evānudhāvati.

띠~라 메와~누다~와띠.

(법구경 85)



Ye ca kho sammadakkhāte,
예 짜 코 삼마닥카~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Dhamme dhammānuvattino;
담메 담마~누왓띠노;

Te janā pāram-essanti,
떼 자나~빠~라 멧산띠

건너기 힘든 죽음의 영역을 건널 것이다.

Maccu-dheyyaṃ suduttaraṃ.
맛쭈 데이양 수뉘따랑.

(법구경 85)

Kaṇhaṃ dhammaṃ vippahāya,
칸항 담망 윽빠하~야

지혜로운 이는 집을 떠나 집 없이 고독을 즐기며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닦아야 한다.

Sukkaṃ bhāvētha paṇḍito;
숙강 바~웨타 뽀디또

Okā anokam-āgamma,
오까~아노까 마~감마,

즐거움을 포기하는 보기 힘든 환희심을 갈망하며, 무가치한 것을 소유하며 자신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Viveke yattha dūramaṃ.
위웨께 얏타 두~라망.

(법구경87)

Tatrābhiratim-iccheyya,
따따라~비라띠 밋체이야

지혜로운 이는 욕망을 버리고,

Hitvā kāme akiñcano;
히따와~까~메 아깁짜노;

집착에서 벗어남을 즐기고,

Pariyodapeyya attānaṃ,
빠리요다뻬ैया 앓~따낭

마음의 때를 씻어

Citta-klesehi paṇḍito.
췌따 갈레세히 뽀디또.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법구경88)

Yesaṃ sambodhi-y-aṅgesu,
예상 삼보디아양게수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바르게 닦는 이는

Samma cittaṃ subhaviṭṭaṃ;
삼마 췌땅 수바위땅

Ādāna-paṭinissagge,
아~다~나 빠띠닛삭게

아무것에 집착하지 않는 즐거움을 누린다.

Anupādāya ye ratā;
아누빠~다~야 예 라따~;

Khīṇ'āsavaṃ jutimanto,
키~나~사와~ 주띠만또

오염 없이 밝게 빛나는 그들은 이생에서 열반을 성취한다.

Te loke parinibbutā'ti.
떼 로께 빠리닙부따~띠.

[Dhp. vv.277-279 & 85-89, 법구경이야기3, P180 무념, 응진역 인용]



3. 위뵈사나 토대의 계송(*Vipassanā bhūmi-Pāṭha*)

[*Pañcakkhandha:*]

[반짜칸다:]

다섯가지 무더기(오온(五蘊))가 있으니:

rūpakkhandho, vedanākkhandho, saññākkhandho, saṅkhārākkhandho,
 루~뵈칸도, 웨다낙~칸도, 산낙~칸도 상카~락~칸도,
 색(色)의 무더기, 수(受)의 무더기, 상(想)의 무더기, 행(行)의 무더기,

viññāṇakkhandho.

원나~낙칸도.

식(識)의 무더기이다.

Dvā- das'āyatanāni.

다와~다사~야따나~니.

12가지 감각 영역(12 처(處))이 있으니,

Cakkhav- āyatanam rūp'āyatanam,
 짹카와~야따낭 루~뵈~야따낭,
 눈의 감각장소와 색(色)의 세계,

ghān'āyatanam gandh'āyatanam,
 가~나~야따낭 간다~야따낭,
 코의 감각장소와 냄새의 세계

Kāy'āyatanam phoṭṭhabb'āyatanam,
 까~야~야따낭 쫓잡바~야따낭,
 몸의 감각장소와 감촉의 대상계,

sot'āyatanam sadd'āyatanam,
 소따~야따낭 삿다~야따낭,
 귀의 감각장소와 소리의 세계,

jivh'āyatanam ras'āyatanam,
 지와~야따낭 라사~야따낭,
 혀의 감각장소와 맛의 세계

Man'āyatanam dhamm'āyatanam.
 마나~야따낭 담마~야따낭.
 마음의 감각장소와 법의 세계이다.

Aṭṭhārasa dhātuyo:

앗타~라사 다~뚜요:

18가지 요소(18계(界))가 있으니

Cakkhu- dhātu rūpa- dhātu cakkhu- viññāṇa- dhātu,
 짹꾸 다~뚜 루~뵈 다~뚜 짹꾸 원나~나 다~뚜,
 눈의 요소, 색(色)의 요소, 눈의 식(識)의 요소

Sota- dhātu sadda- dhātu sota- viññāṇa- dhātu,
 소따 다~뚜 삿다 다~뚜 소따 원나~나 다~뚜,
 귀의 요소, 소리의 요소, 귀의 식(意識)의 요소

Ghāna- dhātu gandha- dhātu ghāna- viññāṇa- dhātu,
 가~나 다~뚜 간다 다~뚜 가~나 원나~나 다~뚜,
 코의 요소, 냄새의 요소, 코의 식(意識)의 요소



Jivha-dhātu rasā-dhātu jivha-viññāṇa-dhātu,
지와 다뚜 라사~ 다뚜 지와 원냐~나 다뚜,
 혀의 요소, 맛의 요소, 혀의 식(識)의 요소

Kaya-dhātu phoṭṭhabba-dhātu kāya-viññāṇa-dhātu,
까야 다뚜 꾀탑바 다뚜 까야 원냐~나 다뚜,
 몸의 요소, 감촉의 요소, 몸의 식(識)의 요소

Mano-dhātu dhamma-dhātu mano-viññāṇa-dhātu.
마노 다뚜 담마 다뚜 마노 원냐~나 다뚜.
 마음의 요소, 법의 요소, 마음의 식(識)의 요소이다.

Bā-vīsat'indriyāni.
바위~사틴다리아~니;
 22가지 기능(근根)이 있으니,

Cakkhu'ndriyaṃ sot'indriyaṃ ghāṇ'indriyaṃ jivh'indriyaṃ kāy'indriyaṃ man'indriyaṃ,
썩쿤다리양 소핀다리양 가~닌다리양 지원다리양 까~이인다리양 마닌다리양,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 마음의 기능,

Itth'indriyaṃ puris'indriyaṃ jivitt'indriyaṃ,
잇틴다리양 뿌리신다리양 지윳핀다리양,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의 기능,

Sukh'indriyaṃ dukkh'indriyaṃ somanass'indriyaṃ domanass'indriyaṃ upekkh'indriyaṃ,
수킨다리양 독킨다리양 소마낫신다리양 도마낫신다리양 우뻑킨다리양,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기쁨의 기능, 불만족의 기능, 평온의 기능,

Saddh'indriyaṃ viriy'indriyaṃ sat'indriyaṃ samādh'indriyaṃ paññ'indriyaṃ,
삿딘다리양 위리인다리양 사핀다리양 사마~딘다리양 뻥닌다리양,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알아차림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

Anaññatañ-ñassāmīt'indriyaṃ aññ'indriyaṃ aññatāv'indriyaṃ.
아난나판낫사~미~핀다리양 안닌다리양 안나따~원다리양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구경의 지혜의 기능, 구경의 지혜를 구축한 기능이다.

Cattāri ariya-saccāni.
짚따~리 아리아 삿짜~니.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사성제)가 있으니,

Dukkhaṃ ariya-saccaṃ,
독캉 아리아 삿짱,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독카 사무다요 아리아 삿짱,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

Dukkha-nirodho ariya-sacc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a ariya-saccaṃ.²¹⁾
독카 니로도 아리아 삿짱, 독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아 삿짱.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달의 성스러운 진리,

21) 초전불전연구원 참조
 (<http://cafe.daum.net/chobul/QnaK/37?q=B%C4%81v%C4%ABsat%E2%80%99indriy%C4%81ni>)



*Avijjā-paccayā saṅkhārā,*²²⁾

아윗자~빳짜야~ 상카~라~,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행(行)들이 일어나며,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

원나~나 빳짜야~ 나~마루~빵,

식(識)을 조건으로 이름과 색(色)이 있으며,

Sal-āyatana-paccayā phasso,

살라~야파나 빳짜야~ 팟소,

여섯 감각장소(六處) 조건으로 접촉이 있으며, 접촉(觸)을 조건으로 수(受)가 있으며,

Vedanā-paccayā tanhā,

웨다나~ 빳짜야~ 판하~,

수(受)를 조건으로 갈애가 일어나며,

Upādāna-paccayā bhavo,

우빠~다~나 빳짜야~ 바오,

집착(取)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나며,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

상카~라 빳짜야~ 원나~낭,

행(行)들을 조건으로 식(識)이 일어나며,

Nāma-rūpa-paccayā sal-āyatanaṃ,

나~마 루~빠 빳짜야~ 살라~야파낭,

이름과 색(色)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장소가 있으며,

Phassa-paccayā vedanā,

팟사 빳짜야~ 웨다나~,

접촉(觸)을 조건으로 수(受)가 있으며,

tanhā-paccayā upādānaṃ,

판하~ 빳짜야~ 우빠~다~낭,

갈애(愛)를 조건으로 집착이 일어나며,

Bhava-paccayā jāti,

바와 빳짜야~ 자~띠,

존재(有)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일어나며,

Jāti-paccay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sambhavanti,

자~띠빳짜야~ 자라~마라낭 소까 빠리데와 독카 도마닛수빠~야~사~ 삼바완띠,

태어남(生)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에와 메닷사 께왈랏사 독각 칸닷사.

이와 같이 그에게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samudayo hoti.

사무다요 호띠.

일어난다.

Avijjāya tv-eva asesā virāga-nirodhā saṅkhāra-nirodho,

아윗자~야 파웨와 아세사 위라~가니로다~ 상카~라니로도,

그러나 무명이 완전하게 제거되어 사라지면 행(行)들이 사라지며,

Saṅkhāra-nirodhā viññāṇa-nirodho,

상카~라 니로다~ 원나~나 니로도,

행(行)들이 사라지면 식(識)이 사라지며,

Viññāṇa-nirodhā nāma-rūpa-nirodho,

원나~나 니로다~ 나~마 루~빠 니로도,

식(識)이 사라지면 이름과 색(色)들이 사라지며,

Nāma-rūpa-nirodhā sal-āyatana-nirodho, Sal-āyatana-nirodhā phassa-nirodho,

나~마 루~빠 니로다~ 살라~야파나 니로도, 살라~야파나 니로다~ 팟사 니로도,

이름과 색(色)이 사라지면 여섯 감각장소가 사라지며, 여섯 감각장소가 사라지면 접촉이 사라지며,

Phassa-nirodhā vedanā-nirodho,

팟사 니로다~ 웨다나~ 니로도,

접촉이 사라지면 수(受)가 사라지며,

Vedanā-nirodhā tanhā-nirodho,

웨다나~ 니로다~ 판하~ 니로도,

수(受)가 사라지면 갈애가 사라지며,

22) S12:1, Vin.1.1



tanhā nirodhā upādāna nirodho,
 탄하~ 니로다~ 우빠~다~나 니로도,
 갈애가 사라지면 집착이 사라지며,

Upādāna nirodhā bhava nirodho,
 우빠~다~나 니로다~ 바와 니로도,
 집착이 사라지면 존재가 사라지며,

Bhava nirodhā jāti nirodho,
 바와~ 니로다~ 자~띠 니로도,
 존재가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지며,

Jāti nirodhā jarā-maraṇaṃ soka parideva dukkha domanass'upāyāsā nirujjanti,
 자~띠 니로다~ 자라~마라낭 소까 빠리데와 독카 도마닛수빠~야~사~ 니룻잔띠,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Evam-etassa kevalassa dukkha kkhandhassa, *nirodho hoti.*
 에와 메탓사 깨왓랏사 독각 칸닷사, 니로도 호띠.
 이와 같이 그에게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사라진다.

4. 부처님의 오도송(*Buddha-Udāna-Gāṭha*)

(The Three Inspired Verses)

Yadā have pātubhavanti dhamma,
 야다~ 하웨 빠~뚜바완띠 담마,
 사성제가 명백해졌을 때,

Ātāpino jhāyato brāhmaṇassa,
 아~따~삐노 자~야또 브라~마닛사,
 열렬히 수행하는 고귀한 이에게

Yato pajānāti sahetu-dhammaṃ.
 야또 빠자~나~띠 사헤뚜담망
 각각의 담마의 원인을 있음을 알았기에

Yato khayam paccayānaṃ avedi.
 야또 카야 뵗짜야~낭 아웨디
 조건들의 소멸을 알았기에

Ātāpino jhāyato brāhmaṇassa,
 아~따~삐노 자~야또 브라~마닛사,
 열렬히 수행하는 고귀한 이는

Sūrova obhāsayamantalikkhanti.
 수~로와 오바~사야만따릭칸띠.
 찬란히 빛나는 태양처럼.

Athassa kaṅkhā vapayanti sabbā,
 아탓사 깡카~ 와빠얀띠 삽바~,
 모든 의혹은 사라졌다.

Athassa kaṅkhā vapayanti sabbā,
 아탓사 깡카~ 와빠얀띠 삽바~,
 모든 의혹은 사라졌다.

Yadā have pātubhavanti dhamma,
 야다~ 하웨 빠~뚜바완띠 담마
 사성제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Vidhūpayam tiṭṭhati māra-senaṃ,
 위두~빠양 띠타띠 마~라세낭
 마군을 물리치고 홀로 우뚝 서 있다.



5. 담마 분류(*Dhamma saṅgaṇī mātikā Pāṭha*)

[*Kusalā dhammā*,]
[꾸살라~ 담마~,]

선한 담마,

akusalā dhammā,
아꾸살라~ 담마~,

불선한 담마,

abyākatā dhammā.
아바야~까따~ 담마~.

둘 다 아닌 담마가 있다.

Sukhāya vedanāya sampayuttā dhammā,
수카~야 웨다나~야 삼빠윳따~ 담마~,

즐거운 수(受)와 상응하는 담마,

Dukkhāya vedanāya sampayuttā dhammā,
дук카~야 웨다나~야 삼빠윳따~ 담마~,

괴로운 수(受)와 상응하는 담마,

adukkhamā-sukhāya vedanāya sampayuttā dhammā.
아дук카마수카~야 웨다나~야 삼빠윳따~ 담마~.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수(受)와 상응하는 담마가 있다.

Vipākā dhammā,
위빠~까~ 담마~,

이전에 지은 행위의 결과로서의 담마,

vipāka-dhamma-dhammā,
위빠~까담마 담마~,

미래의 과보로서 작용할 담마,

N'eva vipāka na vipāka-dhamma-dhammā.
네와 위빠~까 나 위빠~까담마 담마~.

과거의 과보도 아니고 미래의 결과로 생겨나질 않는 담마가 있다.

Upādinn'upādāniyā dhammā,
우빠~딘누빠~다~니야~ 담마~,

업으로 얻어지고 집착될 수 있는 담마,

anupādinn'upādāniyā dhammā,
아누빠~딘누빠~다~니야~ 담마~,

업으로 얻어지진 않았지만 집착될 수 있는 담마,

anupādinnānupādāniyā dhammā.
아누빠~딘나~누빠~다~니야~ 담마~.

업으로 얻어지지도 않았고 집착될 수도 없는 담마가 있다.

Saṅkiliṭṭha-saṅkilesikā dhammā,
상길릿타상길레스िका~ 담마~,

번뇌에 쌓여있고 번뇌에 종속되어 있는 담마,

asaṅkiliṭṭha-saṅkilesikā dhammā,
아상길릿타상길레스िका~ 담마~,

번뇌스럽진 않지만 번뇌에 종속되어진 담마,

asaṅkiliṭṭhāsaṅkilesikā dhammā.
아상길릿타~상길레스िका~ 담마~.

번뇌에 쌓이지도 않았고 번뇌에 종속될 수도 없는 담마가 있다.

Savitakka-savicārā dhammā,
사위따까사위짜~라~ 담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담마,

avitakka-vicārā mattā dhammā,
아위따까위짜~라맛따~ 담마~,

일으킨 생각은 없지만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담마,

Avitakkāvicārā dhammā.
아위따까~위짜~라~ 담마~.

: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인 고찰도 없는 담마가 있다.



Pīti-saha-gatā dhammā, sukha-saha-gatā dhammā, Upekkhā-saha-gatā dhammā.
빠띠사하가따~ 담마~, 수카사하가따~ 담마~, 우베크카~사하가따~ 담마~.

기쁨이 동반하는 담마, 즐거움이 동반되는 담마, 평정이 동반되는 담마가 있다.

Dassanena pahātabbā dhammā, bhāvanāya pahātabbā dhammā,
닷사네나 빠하~प्प바~ 담마~, 바~와나~야 빠하~प्प바~ 담마~,

통찰에 의해 제거되는 담마, 수행에 의해 제거되는 담마,

N'evadassanena na bhāvanāya pahātabbā dhammā.
네와닷사네나 나 바~와나~야 빠하~प्प바~ 담마~.

통찰에 의해서도 수행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는 담마가 있다.

Dassanena pahātabba-hetukā dhammā, Bhāvanāya pahātabba-hetukā dhammā,
닷사네나 빠하~प्प바हेत्तु까~ 담마~, 바~와나~야 빠하~प्प바हेत्तु까~ 담마~,

통찰에 의해 원인과 더불어 제거되는 담마, 수행에 의해 원인과 더불어 제거되는 담마,

N'eva dassanena na bhāvanāya pahātabba-hetukā dhammā.
네와 닷사네나 나 바~와나~야 빠하~प्प바हेत्तु까~ 담마~.

통찰에 의해서도 수행에 의해서도 원인과 더불어 제거되지 않는 담마가 있다.

Ācaya-gāmino dhammā, apacaya-gāmino dhammā,
아짜야가~미노 담마~, 아빠짜야가~미노 담마~,

업(행위)이 축적되는 담마, 업의 감소로 인도하는 담마,

N'evācaya-gāmino nāpacaya-gāmino dhammā.
네와~짜야가~미노 나~빠짜야가~미노 담마~.

업의 축적도 업의 감소로도 인도하지 않는 담마가 있다.

Sekkhā dhammā, asekkhā dhammā, N'evassekkhā nāsekkhā dhammā.
섹카~ 담마~, 아섹카~ 담마~, 네와섹카~ 나~섹카~ 담마~.

배우는 자의 담마, 배움을 완성한 자의 담마, 배우지 않고 배움을 완성하지 못한 자의 담마.

Parittā dhammā, mahaggatā dhammā, appamānā dhammā.
빠릿따~ 담마~, 마학가따~ 담마~, 압빠마~나~ 담마~,

의미있는 담마, 고귀한 담마, 최상의 담마가 있다.

Paritt'ārammaṇā dhammā, mahaggat'ārammaṇā dhammā,
빠릿따~람마나~ 담마~, 마학가따~람마나~ 담마~,

의미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담마, 고귀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담마,

Appamāṇ'ārammaṇā dhammā.
압빠마~나~람마나~ 담마~.

최상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담마가 있다.

Hīnā dhammā, majjhimā dhammā, paṇītā dhammā.
히~나~ 담마~, 맛지마~ 담마, 빠니~따~ 담마.

열등한 담마, 중간 담마, 보배같은 담마가 있다.

Micchatta-niyatā dhammā, sammatta-niyatā dhammā, Aniyatā dhammā.
밋חת파니아따~ 담마~, 삼맛타파니아따~ 담마~, 아니아따~ 담마~.

잘못된 결과가 따르는 담마, 올바른 결과가 따르는 담마, 불확실한 결과가 따르는 담마가 있다.



Maggā'rammaṇā dhammā, magga-hetukā dhammā, Maggādhīpatino dhammā.
 막가~람마나~ 담마~, 막가헤투까~ 담마~, 막가~디빠띠노 담마~.

도를 목적으로 하는 담마, 기반으로 도를 가진 담마, 도를 지배하는 담마가 있다.

Uppannā dhammā, anuppannā dhammā, uppādinō dhammā.
 움반나~ 담마~, 아눔반나~ 담마~, 움빠~디노 담마~.

이미 일어난 담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담마, 일어날 담마가 있다.

Atitā dhammā, anāgatā dhammā, paccuppannā dhammā.
 아띠~따~ 담마~, 아나~가따~ 담마~, 뵈쑤뵈반나~ 담마~.

과거의 담마, 미래의 담마, 현전하는 담마.

Atit'ārammaṇā dhammā, anāgat'ārammaṇā dhammā, Paccuppann'ārammaṇā dhammā.
 아띠~따~람마나~ 담마~, 아나~가따~람마나~ 담마~, 뵈쑤뵈반나~람마나~ 담마~.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담마, 미래를 대상으로 하는 담마, 현전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담마가 있다.

Ajjhattā dhammā, bahiddhā dhammā, ajjhata-bahiddhā dhammā.
 앗жат따~ 담마~, 바히따~ 담마~, 앗жат따바히따~ 담마~.

내적인 담마, 외적인 담마, 내외적인 담마가 있다.

Ajjhatt'ārammaṇā dhammā, bahiddh'ārammaṇā dhammā,
 앗жат따~람마나~ 담마~, 바히따~람마나~ 담마~.

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담마, 외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담마,

Ajjhatta-bahiddh'ārammaṇā dhammā,
 앗жат따바히따~람마나~ 담마~,

내외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담마가 있다.

Sanidassana-sappaṭighā dhammā, anidassana-sappaṭighā dhammā,
 사니닷사나삽빠띠가~ 담마~, 아니닷사나삽빠띠가~ 담마~.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담마,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담마,

Anidassanāppaṭighā dhammā.
 아니닷사나~빠띠가~ 담마~.

보이지도 반응하지도 않는 담마가 있다.

[*Dhammasaṅgaṇī.1f*]



6. 논장(*Phra Abhidhamma 7 gambhī*)

담마의 분류(*Phra saṅgiṇī*)

(Enumeration of Phenomena)

[*Kusalā dhammā*] *akusalā dhammā abyākatā dhammā.*

[꾸살라~ 담마~] 아꾸살라~ 담마~ 아바야~까따~ 담마~.

이런 것들이 선한 담마, 선하지 못한 담마, 결정할 수 없는 담마가 있다.

Katame dhammā kusalā.

까따메 담마~ 꾸살라~.

어떤 것이 선한 담마인가?

Yasmiṃ samaye kāmāvacaraṃ kusalaṃ cittaṃ uppannaṃ hoti,

야사밧 사마예 까~마~와짜랑 꾸살랑 찻땅 흠반낭 호띠,

어느 때에 욕계에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희열과 함께하며,

Somanassa-sahagataṃ ñāṇa-sampayuttaṃ,

소마낏사사하가땅 나~나삼빠웃땅,

지혜와 상응하는 마음으로,

Rūpārammaṇaṃ vā saddārammaṇaṃ vā gandhārammaṇaṃ vā rasārammaṇaṃ vā,

루~빠~람마낭 와~ 샷다~람마낭 와~ 간다~람마낭 와~ 라사~람마낭 와~,

색(色)이라는 대상과 소리라는 대상과 냄새라는 대상과 맛이라는 대상과

phoṭṭhabbārammaṇaṃ vā dhammārammaṇaṃ vā,

풋탐바~람마낭 와~ 담마~람마낭 와~

촉감이라는 대상과 현상이라는 대상,

yaṃ yaṃ vā paṇārabbha,

양 양 와~ 빠나~랍바,

tasmiṃ samaye phasso hoti avikkhepo hoti,

따사밧 사마예 팟소 호띠 아윅케보 호띠,

그 어떤 것들과 연계되어 접촉이 있을 때, 고요함이 있다.

ye vā pana tasmiṃ samaye aññepi atṭhi paṭicca samuppannā,

예 와~ 빠나 따사밧 사마예 안네삐 앗티 빠똥짜 사웁판나~,

또한 그것들은 그 때에 서로 다른 조건에 의해서

arūpino dhammā, ime dhammā kusalā.

아루~삐노 담마~, 이메 담마~ 꾸살라~.

무색계의 담마가 일어나며, 이런 것들이 선한 담마이다.



분별(Phra Vibhaṅga)

[Pañcakkhandhā,]

[반짝칸다~,]

오온(五蘊)은 :

rūpakkhandho, vedanākkhandho, saññākkhandho, saṅkhārakkhandho, viññānakkhandho.
루~빠칸도, 웨다낙~칸도, 산낙~칸도, 상카~락칸도, 윈냐~낙칸도.

색(色)의 무더기, 수(受)의 무더기, 상(想)의 무더기, 행(行)의 무더기, 식(識)의 무더기이다.

attha katamo rūpakkhandho.

앗타 까따모 루~빠칸도.

여기에서 색(色)의 무더기란 무엇인가?

Yaṃkiñci rūpaṃ atītānāgata paccuppannaṃ,

양킨찌 루~빠 아띠~따~나~가따 빠쑈빠낭,

어떤 색(色)이건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ajjhataṃ vā bahiddhā vā olārikaṃ vā sukhumaṃ vā,
앗갓따ṃ 와~ 바히다~ 와~ 올라~리깁 와~ 수쿠망 와~,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hīnaṃ vā paṇītaṃ vā,
히~낭 와~ 빠니~땅 와~,

열등하건 수승하건,

yaṃ dūre vā santike vā,
양 두~레 와~ 산띠께 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tadekajjhaṃ abhisaññūhitvā abhisañkhipitvā,
따데갓장 아비산뉴~히따와~ 아비상키삐따와~,

그것이 같은 곳에 함께 모여 있고 함께 뭉쳐져 있다면,

ayaṃ vuccati rūpakkhandho.

아양 웃짜띠 루~빠칸도.

이것을 색(色)의 무더기라고 부른다.

요소들(Phra Dhātukathā)

[saṅgaho asaṅgaho,]

[상가호 아상가호,]

결합하는 것과 결합하지 않는 것,

asaṅgahitena saṅgahitaṃ,
아상가히떼나 상가히땅,

결합되지 않은 것과 함께 결합되는 것,

saṅgahitena asaṅgahitaṃ,

상가히떼나 아상가히땅,

결합된 것과 함께 결합되지 않는 것,

saṅgahitena saṅgahitaṃ,
상가히떼나 상가히땅,

결합된 것과 함께 결합되는 것,



asaṅgahitena asaṅgahitaṃ,
아상가히떼나 아상가히땅,

sampayogo vippayogo,
삼빠요고 뽀빠요고,

결합되지 않은 것과 함께 결합되지 않는 것, 상응하는 것과 분리되는 것,

sampayuttana vippayuttaṃ,
삼빠웃떼나 뽀빠웃땅,

vippayuttana sampayuttaṃ asaṅgahitaṃ.
뽀빠웃떼나 삼빠웃땅 아상가히땅.

상응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 분리된 것으로부터 상응되지만 결합되지 않는 것이 있다.

중생(*Phra Puggala-paññatti*)

(Description of Persons)

[*Cha paññattiyo*:]
[차 뽀냐띠요:]

khandha-paññatti
칸다뽀냐띠,

āyatana-paññatti,
아~아따나뽀냐띠,

여섯 종류의 설명은: 무더기에 대한 설명(五蘊), 감각장소에 대한 설명(十二處),

dhātu-paññatti, sacca-paññatti, indriya-paññatti, puggala-paññatti.
다~뚜뽀냐띠, 삿짜뽀냐띠, 인다리아뽀냐띠, 뽀갈라뽀냐띠.

요소에 대한 설명(十八界), 진리에 대한 설명(四聖諦), 기능에 대한 설명(二十二根),

중생에 대한 설명(三部類)이다.

Kittāvatā puggalānaṃ puggal-apaññatti.
깃따~와따~ 뽀갈라~낭 뽀갈라뽀냐띠.

어떤 식으로 중생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Samaya-vimutto asamaya-vimutto,
사마야위뽀또 아사마야위뽀또,

kuppa-dhammo akuppa-dhammo,
꿍빠담모 아꿍빠담모,

일시적인 해탈자, 조건 없는 해탈자, 동요되기 쉬운 법을 지닌 자, 흔들림 없는 법을 성취한 자,

Parihāna-dhammo aparihāna-dhammo,
빠리하~나담모 아빠리하~나담모,

Cetanābhabbo anurakkhanābhabbo,
췌따나~밤보 아누락카나~밤보,

쇠퇴하기 쉬운 법을 지닌 자, 불퇴전의 법을 성취한 자, 의도에 능통한 자, 스스로를 보호함에 능통한 자,

Puthujjano gotrabhū,
뿌툽자노 고타라부~,

bhayūparato abhayūparato,
바유~빠라또 아바유~빠라또,

평범한 자, 성자의 지위 직전 단계에 이른 자,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Bhābhāgamano
뽀빠~가마노

abhabbāgamano,
아뽀빠~가마노,

niyato aniyato,
니야또 아니야또,

도달할 능력이 있는 자, 도달할 능력이 없는 자, 결정된 자, 결정되지 않은 자,

Paṭipannako phale thito,
빠띠뽀나꼬 팔레 티또,

Arahā arahattāya paṭipanno.
아라하~ 아라hattā야 빠띠뽀노.

도에 들어선 자, 과를 성취한 자, 아라한들, 아라한과를 향해 수행하는 자가 있다.



토론의 주제(Phra Kathāvatthu)

(Points Of Controversy)

[Puggalo upalabbhati.] Sacchikattha-paramatthenāti? Āmantā.
[뵉갈로 우팔람바띠.] **삿치깃타빠라맛테나~띠.** **아~만따~.**

(장로): 여기에 계신 뵉갈라인 그대들은: 변하지 않고 실재하는 자아가 있는가?

(뵉갈라): 예, 그렇습니다.

Yo sacchikattho paramattho, tato so puggalo upalabbhati, sacchikattha-paramatthenāti.
요 삿치깃토 빠라맛토, 따또 소 뵉갈로 우팔람바띠, 삿치깃타빠라맛테나~띠.

(장로): 변하지 않고 실재하는 자아가 있다면, 똑같이 뵉갈라인 그대들도 변하지 않고 실재하는가?

Na hevaṃ vattabbe.
나 헤왕 왓답베.

(뵉갈라):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Ājānāhi niggahaṃ hañci, puggalo upalabbhati, sacchikattha-paramatthena,
아~자~나~히 닉가함 한찌, 뵉갈로 우팔람바띠, 삿치깃타빠라맛테나,

(장로): 만약 변하지 않고 실재하는 자아가 있다면, 똑같이 뵉갈라인 그대들도 변하지 않고

tena vata re vattabbe....
떼나 와따 레 왓답베,...

실재한다고 말해야 한다.

Yo sacchikattho paramattho,
요 삿치깃토 빠라맛토,

그런데 그대는 처음에는 그렇다고 말하고,

tato so puggalo upalabbhati,
따또 소 뵉갈로 우팔람바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기에,

sacchikattha-paramatthenāti micchā.
삿치깃타빠라맛테나~띠 밋차~.

그대의 사상은 틀렸다.

쌍으로 된(Phra Yamaka)

[Ye keci kusalā dhammā,]
[예 께찌 구살라~ 담마,]

어떤 선한 담마는 모두 선한 뿌리를 가진다.

Ye vā pana kusala-mūlā,
예 와~ 빠나 구살라물~라~,

그리고 반면에

Ye keci kusalā dhammā,
예 께찌 구살라~ 담마~,

어떤 선한 담마는

sabbe te kusala-mūlā.
삽베 떤 께살라물~라~.

sabbe te dhammā kusalā.
삽베 떤 담마~ 구살라~.

모든 선한 뿌리를 가진 담마는 선하다.

sabbe te kusala-mūlena eka-mūlā.
삽베 떤 께살라물~레나 에카물~라~.

모두 하나의 동일한 선한 뿌리를 가진다.



Ye vā pana kusala-mūlena eka-mūlā, sabbe te dhammā kusalā.
 예 와~ 빠나 꾸살라물~레나 에까물~라~, 삽베 떤 담마~ 꾸살라~.
 그리고 반면에 모든 하나의 동일한 선한 뿌리를 가진 담마는 선하다.

분석하여 나아감(*Phra Mahā-paṭṭhāna*)

(Matrix Of The Book On Origination)

[*Hetu-paccayo*,] *ārammaṇa-paccayo*, *adhipaṭi-paccayo*, *anantara-paccayo*,
 [혜두뵤짜요,] 아~람마나뵤짜요, 아디빠띠뵤짜요, 아난따라뵤짜요,
 원인 조건, 대상 조건, 우세한 조건, 빈틈없이 뒤따르는 조건,
samanantara-paccayo, *sahajāta-paccayo*, *aññamañña-paccayo*, *nissaya-paccayo*,
 사마난따라뵤짜요, 사하자~따뵤짜요, 안나만나뵤짜요, 닛사야뵤짜요,
 계속 빈틈없이 뒤따르는 조건, 함께 생긴 조건, 서로 지탱하는 조건, 의지하는 조건,
upanissaya-paccayo, *pure-jāta-paccayo*, *pacchā-jāta-paccayo*, *āsevana-paccayo*,
 우빠닛사야뵤짜요, 뿌레자~따뵤짜요, 뵤차~자~따뵤짜요, 아~세와나뵤짜요,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먼저 생긴 조건, 나중에 생긴 조건, 반복적인 조건,
kamma-paccayo, *vipāka-paccayo*, *āhāra-paccayo*, *indriya-paccayo*, *jhāna-paccayo*,
 감마뵤짜요, 위빠~까뵤짜요, 아~하~라뵤짜요, 인다리아뵤짜요, 자~나뵤짜요,
 업 조건, 과보 조건, 자양분 조건, 기능 조건, 선정 조건,
magga-paccayo, *sampayutta-paccayo*, *vippayutta-paccayo*, *atthi-paccayo*,
 막가뵤짜요, 삼빠윳따뵤짜요, 뵤빠윳따뵤짜요, 앗티뵤짜요,
 도 조건, 서로 관련 있는 조건, 서로 관련 없는 조건, 존재하는 조건,
n'atthi-paccayo, *vigata-paccayo*, *avigata-paccayo*.
 낫티뵤짜요, 위가따뵤짜요, 아위가따뵤짜요.
 존재하지 않는 조건, 떠난 조건, 떠나지 않은 조건이 있다.



7. 빵수꼴라 계송(*Paṃsu kula Gāthā*)

(Compounded Things)

[*Aniccā vata*] *saṅkhārā*,
[아닛짜~와따] 상카~라~,
형성되어진 것은 실로 무상하나니,

uppāda-vaya dhammino;
움빠~다와야 담미노;
이것이 생멸의 법칙이네;

Uppajjitvā nirujjhanti,
움빳지따와~ 니룻잔띠,

tesaṃ vūpasamo sukkho.
떼상 우~빠사모 수코.

일어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 그것의 멈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3번 독송)

(돌아가신 분에 대해 하는 계송)

Sabbe sattā maranti ca,
삽베 삿따~ 마란띠 짜,
모든 중생들은 죽음을 겪어야 하며,

marīṃsu ca marissare;
마링수 짜 마릿사레;
죽었고 또 죽을 것이라네.

Tath'evāhaṃ marissāmi,
따테와~항 마릿사~미,
나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n'atthi me ettha saṃsayo.
넛티 메 옛타 상사요.
이런 것은 내게 있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살아계신 분에 대해 하는 계송)

Aciraṃ vatayaṃ kāyo,
아찌랑 와따양 까~요,
오래지 않아 실로 이 몸은,

paṭhaviṃ adhisessati;
빠타윙 아디셋사띠;
땅속에서 영원히 잠들 것이다.

Chuddho apeta viññāno,
췌도 아베따윈냐노,
의식마저 떠나 사라져 버리면,

niratthaṃva kaliṅgaram.
니랏탕와 깔링가랑.
나무토막과 같아서 쓸모없다.

[Note]



제5장 경전(Various Suttas)

1. 초전법륜경(*Dhamma-cakkappavattana Sutta*)

(The Discourse on Setting the Wheel of Dhamma in Motion)

<Introduction to the *Dhamma-cakkappavattana Sutta*>

Anuttaram abhisambodhim

아nut따랑 아비삼보딩

Paṭhamam yaṃ adesesi

빠타망 양 아데세시

Sammadeva pavattento

삼마데와 빠왓펜토

Yatthākkhātā ubho antā

앗타카파 우보 안타

Catusvāriyasaccesu

짜뚜사와리아삿째수

Desitam dhammarājena

데시땅 담마라제나

Nāmena vissutaṃ suttaṃ

나메나 뽏수땅 슯땅

Veyyākaraṇapāthena

웨이야까라나빠테나

Sambujjhitvā Tathāgato

삼부지따와 따타가또

Dhammacakkaṃ anuttaram

담마작강 아nut따랑

Loke appaṭivattiyam

로께 앱빠띠왓띠양

Paṭipatti ca majjhimā

빠띠삿띠 짜 맛지마

Visuddham ñāṇadassanaṃ

위스당 나나닷사낭

Sammāsambodhikittanaṃ

삼마삼보디깃따낭

Dhammacakkappavattanaṃ

담마작감빠왓따낭

Saṅgītantam bhaṇāma se.

상기판담 바나마 세.

이것이 여래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무위(無爲) 완전한 깨달음이다. 여기 세상 어디에서도 설해진 바 없는 진리의 수레바퀴가 완벽하게 회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법왕께서 지적하신 사성제(四聖諦)와 청정한 지식과 비전을 가진 두 가지 극단과 중도(中道)를 밝히고 있다. 담마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독자적인 깨달음. 최고를 선포하는 이 경을 함께 독송하자.

[*Handa mayam 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bhaṇāma se.*]

[한다 마양 담마작감빠왓따나 슯땅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초전법륜경’을 다함께 독송합시다.

[*Evam me sutam.*]

[에왕 메 수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Ekam samayaṃ Bhagavā,

에깁 사마양 바가와,

어느 한 때 세존께서,



Bārānasiyam viharati,
바~라~나시~양 위하라띠,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머무셨다.

Isipatane Migadāye.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Tatra kho Bhagavā pañca- vaggiye bhikkhū āmantesi:
따따라 코 바가와~ 뽀짜 왁기에 빅꾸~ 아~만떼시: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들에게 이렇게 설하셨다.

Dv'eme bhikkhave antā pabbajitena na sevītabbā.
다웨메 빅카웨 안따~ 뽀빠지떼나 나 세위따빠~.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추구해서는 안 되는 두 극단이 있다.

Yo cāyaṃ kāmesu kāma-sukh'allikānuyogo,
요 짜~양 까~메수 까~마 수칼리카~누요고,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한 극단은 욕망을 따라 감각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것으로,

Hīno gammo pothujjaniko anariyo anatta-saṃhito,
히~노 감모 뽀투자니꼬 아나리요 아닛타 상히또,

이것은 열등하고 저속하고 세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으며,

Yo cāyaṃ atta-kilamathānuyogo, Dukkho anariyo anatta-saṃhito.
요 짜~양 앗따 길라마타~누요고, 독코 아나리요 아닛타 상히또.

또 한 극단은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Ete te bhikkhave ubho ante anupagamma,
에떼 떼 빅카웨 우보 안떼 아누빠감마,

비구들이여, 이런 양극단을 따르지 않고,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맛지마~ 빠띠빠다~ 따타~가떼나 아비삼뽀다~,

여래는 중도를 통해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갔고,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짜꾸 까라니~ 냐~나 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님바~나~야 상왓따띠.

시야를 열어주고, 지혜가 생겨나고, 고요함과 수승한 앎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했다.

Katamā ca sā bhikkhave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까따마~ 짜 사~ 빅카웨 맛지마~ 빠띠빠다 따타~가떼나 아비삼뽀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중도라는 어떤 것이 여래를 올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했고,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짜꾸 까라니~ 냐~나 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님바~나~야 상왓따띠.

시야를 열어주고, 지혜가 생겨나고, 고요함과 수승한 앎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했는가?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아야 메와 아리요 앗탕기꼬 막고,

그것은 바로 8첩의 성도(八支聖道)로서;

Seyyath'idam;
세이야티담;

이들을 말하면;



Sammā-diṭṭhi sammā-saṅ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삼마~ 딛티 삼마~ 상갑보, 삼마~ 와~짜~ 삼마~ 감만또 삼마~ 아~지~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계,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ī.
삼마~ 와~야~모 삼마~ 사띠 삼마~ 사마~디.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Ayaṃ kho sā bhikkhave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아얌 코 사~ 빅카웨 맛지마~ 빠띠빠다~ 따타~가떼나 아비삼붓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여래가 발견한 중도로, 올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했고,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mvattati.
짜꾸 까라니~ 냐~나 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님바~나~야 상왓따띠.
 시야를 열어주고, 지혜가 생겨나고, 고요함과 수승한 앎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했다.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ṃ ariya-saccaṃ:
이당 코 빠나 빅카웨 독캉 아리아 샛짱: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다음과 같다.

Jāti-pi dukkhā jarā-pi dukkhā maranam-pi dukkhaṃ,
자~띠삐 독카~ 자라~삐 독카~ 마라남 삐 독캉,
 태어남이 괴로움이요, 늙음이 괴로움이요, 죽음 또한 괴로움이요,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pi dukkhā,
소까 빠리데와 독카 도마낏수빠~야~사~삐 독카~,
 슬픔과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요.

Appiyehi sampayogo dukkho piyehi vippayogo dukkho yamp'icchaṃ na labhati tampi dukkhaṃ,
압삐예히 삼빠요고 독코 삐예히 윽빠요고 독코 얄뵈창 나 라바띠 팜삐 독캉,
 싫은 사람과 관련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괴로움이다.

Saṅkhittena pañc'upādāna-kkhandhā dukkhā.
상킛떼나 뽀쭈빠~다~낙칸다~ 독카~.
 짧게 말해, 오온(五蘊)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이당 코 빠나 빅카웨 독카 사무다요 아리아 샛짱: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는 다음과 같다.

Yā'yam tanhā ponobbhavikā nandī-rāga-sahagatā tatra tatrābhinandinī,
야~얌 탄하~ 뽀놈바위까~ 난디~ 라~가 사하가따~ 따따라 따따라~비난디니~,
 그것은 갈애로 인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쾌락과 탐욕을 쫓아가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Seyyath'idam;
세이야티당;
 이들을 말하면;



Kāma-tanhā bhava-tanhā vibhava-tanhā.
까~마 판하~ 바와 판하~ 위바와 판하~.

감각적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nirodho ariya-saccam:
이당 코 빠나 빅카웨 독카 니로도 아리아 샛짱: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다음과 같다.

Yo tassā yeva tanhāya asesā-virāga-nirodho cāgo paṭinissaggo mutti anālayo.
요 짤사~ 예와 판하~야 아세사 위라~가 니로도 짜고 빠띠닛삭고 뭇띠 아날~라요.

그것은 갈애를 남김 없이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내려 놓아, 집착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m:
이당 코 빠나 빅카웨 독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아샛짱: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는 다음과 같다.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아야 메와 아리요 앗탕기꼬 막고,

그것은 바로 8경의 성도(八支聖道)로서

Seyyath'idam:
세이야티당:

이를 말하자면,

Sammā-diṭṭhi sammā-saṅ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삼마~ 딛띠 삼마~ 상깁뵤, 삼마~ 와~짜~ 삼마~ 감만또 삼마~ 아~지~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계,

Sammā-vāyāmo sammā-satī sammā-samādhī.
삼마~ 와~야~모 삼마~ 사띠 삼마~ 사마~디.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

Idaṃ dukkham ariya-saccanti me bhikkhave,
이당 독캉 아리아 샛짱띠 메 빅카웨,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나는 알았다.

Pubbe ananussutesu dhammesu,
뵤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담마의,

Cakkhum udapādi ñān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짜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뵤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Taṃ kho pan'idam dukkham ariya-saccam pariññeyyan-ti me bhikkhave,
땅 코 빠니당 독캉 아리아 샛짱 빠린네이얀띠 메 빅카웨,

이 ‘괴로움이란 고귀한 진리’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나는 알았다.



Pubbe ananussutesu dhammesu,
붓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담마의,

Cakkhum udapādi ñān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짜쿹 우다빠디 나~낭 우다빠디 뽀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Taṃ kho pan'idam dukkhaṃ ariya-saccaṃ pariññatan-ti me bhikkhave,
땅 코 빠니당 둑캉 아리야 샷짱 빠린나판띠 메 빅카웨,

이 ‘괴로움이란 고귀한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였다고 나는 알았다.

Pubbe ananussutesu dhammesu,
붓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담마의,

Cakkhum udapādi ñān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짜쿹 우다빠디 나~낭 우다빠디 뽀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Idam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ti me bhikkhave,
이당 둑카 사무다요 아리야 샷짱띠 메 빅카웨,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알았다.

Pubbe ananussutesu dhammesu,
붓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담마의,

Cakkhum udapādi ñān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짜쿹 우다빠디 나~낭 우다빠디 뽀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Taṃ kho pan'idam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pahātabbanti me bhikkhave.
땅 코 빠니당 둑카 사무다요 아리야 샷짱 빠하~땡반띠 메 빅카웨.

고귀한 진리로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나는 알았다.

Pubbe ananussutesu dhammesu,
붓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담마의,

Cakkhum udapādi ñān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짜쿹 우다빠디 나~낭 우다빠디 뽀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Taṃ kho pan'idam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pahīnan-ti me bhikkhave.
땅 코 빠니당 둑카 사무다요 아리야샷짱 빠히~난띠 메 빅카웨.

고귀한 진리로서 ‘괴로움의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나는 알았다.



Pubbe ananussutesu dhammesu,
붐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담마의,

Cakkhum udapādi ñān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짜쿹 우다빠디 나~낭 우다빠디 뽀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Idaṃ dukkha-nirodho ariya-saccan-ti me bhikkhave,
이당 독카 니로도 아리야 샛짱띠 메 빅카웨,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고귀한 진리라고 나는 알았다.

Pubbe ananussutesu dhammesu,
붐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담마의,

Cakkhum udapādi ñān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짜쿹 우다빠디 나~낭 우다빠디 뽀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Taṃ kho pan'idaṃ dukkhanirodho ariya-saccaṃ sacchikātabban-ti me bhikkhave,
땅 코 빠니당 독카니로도 아리야 샛짱 샛치까~뽀반띠 메 빅카웨,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되어야만 한다고 나는 알았다’.

Pubbe ananussutesu dhammesu,
붐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담마의,

Cakkhum udapādi ñān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짜쿹 우다빠디 나~낭 우다빠디 뽀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Taṃ kho pan'idaṃ dukkha-nirodho ariya-saccaṃ sacchikatan-ti me bhikkhave,
땅 코 빠니당 독카 니로도 아리야 샛짱 샛치까~뽀띠 메 빅카웨,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고귀한 진리는 실현되었음을 나는 알았다.

Pubbe ananussutesu dhammesu,
붐베 아나눗수떼수 담메수,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담마의,

Cakkhum udapādi ñān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짜쿹 우다빠디 나~낭 우다빠디 뽀냐~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Id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n-ti me bhikkhave,
이당 독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야 샛짱띠 메 빅카웨,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라는 고귀한 진리임을 나는 알았다.

Cakkhum udapādi ñāṇ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짝쿵 우다빠디 나ᆞᆫ 우다빠디 뵈ᆞᆫ 우다빠디 외ᆞᆫ 우다빠디 알로코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Taṃ kho paṇ'id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m bhāvetabban-ti me bhikkhave,
 땅 코 빠니당 둑카니로다 가_미니 빠띠빠다_~ 아리아삿쟁 바_~웨प्판반띠 메 빅카웨,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라는 고귀한 진리가 닦여져야 한다고 나는 알았다.

Cakkhum udapādi nānaṃ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짝쿵 우다빠디 나낭 우다빠디 뻘나 우다빠디 윗자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Taṃ kho paṇ'idam dukkhaṇirodha-gāminī paṭipadā ariya-saccaṃ bhāvitā-ti me bhikkhave,
 땅 코 빠니당 독카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아삿쟁 바·워판띠 메 빅카웨,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라는 고귀한 진리가 담여졌다고 나는 알았다.

Cakkhum udapādi nānam udapādi paññā udapādi vijjā udapādi āloko udapādi.
 짝쿵 우다빠디 나^나낭 우다빠디 뽀^나나 우다빠디 윗자^나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눈, 앎, 지혜, 명지, 광명이 생겨났다.

Yāva-kīvañ-ca me bhikkhave imesu catūsu ariya-saccesu,
야와끼완짜 메 빅카웨 이메수 짜뚜수 아리야 사त्제수,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사성제)에 대해,

Evam-ti-parivaṭṭhaṃ dvā-das'ākāraṃ yathā-bhūtaṃ ñāṇa-dassanaṃ na suvisuddhaṃ ahoṣi,
 에왕 띠 빠리왓탕 다와·다사·까·랑 야타·부·땅 나·나 닷사낭 나 수위숫당 아호시,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과 열두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얹이 청정하지 못했기에,

Neva tāvāhaṃ bhikkhave sadevake loke samārake sabrahmaṇe,
네와 따와함 빅카웨 사데와께 로께 사마라께 사브라마께,
비구들이여! 나는 천인과 마라와 범천세계,

Sassamaṇa-brāhmaṇiṃ pajāya sadeva-manussāya,
 샷사마나 브라~마니야~ 빠자~야 사데와 마~누사~야,
 사문과 바라문과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에서,



Anuttaram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 paccaññāsiṃ.
아nut타랑 삼마~삼보딩 아비삼붓도 뵈짚나~싱.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다.

Yato ca kho me bhikkhave imesu catūsu ariya-saccesu,
야또 짜 코 메 빅카웨 이메수 짜뚜~수 아리아 샛째수,

그러나 비구들이여! 실로 이 네 가지 고귀한 진리(사성제)에 대해,

Evaṃ-ti-parivaṭṭhaṃ dvā-das'ākāraṃ yathā-bhūtaṃ ñāṇa-dassanaṃ na suvisuddhaṃ ahoṣi,
에왕 띠 빠리왓땅 다와~다사~까~랑 야타~부~땅 나~나 닛사낭 수위숫당 아호시,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과 열두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앎이 청정하게 완성되었기에,

Athāhaṃ bhikkhave sadevake loke samārake sabrahmake,
아타~항 빅카웨 사데와께 로께 사마~라께 사브라마께,

비구들이여! 나는 천인과 마라와 범천세계,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삿사마나 브라~마니아~ 빠자~야 사데와 마nut사~야,

사문과 바라문과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에서,

Anuttaram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 paccaññāsiṃ.
아nut타랑 삼마~삼보딩 아비삼붓도 뵈짚나~싱.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Ñāṇañ-ca pana me dassanaṃ udapādi: Akuppā me vimutti.
냐~난짜 빠나 메 닛사낭 우다빠~디: 아꺠빠~ 메 위뭇띠,

그리하여 내게 이러한 통찰지견이 일어났다; ‘나의 해탈은 확고하다.

Ayaṃ antimā jātī, N'atthi dāni punabbhavo-ti.
아양 안띠마~ 자~띠, 낫티 다~니 뿌납바오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며,

이제 다시 윤회하는 일이 없노라’고.

Idam-avoca Bhagavā,
이다 마오짜 바가와~,

이와 같이 세존께서 설하시자,

Attamanā pañca-vaggiyā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un.
앗따마나~ 뽤짜 왓기야~ 빅꾸~ 바가와또 바~시땅 아비난둥.

다섯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마음이 충만하여 크게 기뻐하였다.

Imasmiñ-ca pana veyyā-karaṇasmim bhaññamāne,
이마사민짜 빠나 웨이야~ 까라나사밍 반냐마~네,

이러한 상세한 가르침을 바르게 듣고 있던,

Āyasmato koṇḍaññaṃ virajam vīta-malaṃ dhamma-cakkuṃ udapādi:
아~야사마또 궂단냐사 위라장 위~따말랑 담마 짝쿵 우다빠~디:

궂단냐 존자에게 티 없고 오염 없는 담마의 눈이 생겨났다.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ṃ taṃ nirodha-dhammaṃ-ti.
양 깐찌 사무다야 담망 삽방 땅 니로다 담만띠.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Pavattite ca Bhagavatā dhamma-cakke, Bhumṃ devā saddaṃ anussāvesuṃ:
빠왓띠떼 짜 바가와따~ 담마 짝께, 뽀마~ 데와~ 샷당 아눗사~웨송:

세존께서 담마의 수레바퀴를 굴리시자, 땅에 머무는 신들이 한 소리로 외치었다.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ī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에땅 바가와따~ 바~라~나시야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눗따랑 담마 짝강 빠왓띠땅,

세존께서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서 위없는 담마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나니,

Appaṭivattiyaṃ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이어서)
압빠띠왓띠야 사마네나 와~ 브라~마네나 와~ 데웨나 와~ 마~레나 와~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브라무나~ 와~ 께나찌 와~ 로까사민띠.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천인이건 마라이건 범천이건 이 세상의 누구도 법륜을 멈추게 할 수 없노라!’

Bhum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뽀마~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땅에 머무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Cātumahā-rājikā devā saddaṃ-anussāvesuṃ: Cātumahā-rājik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짜~뚜마하~라지까~ 데와~ 샷다 마눗사~웨송, 짜~뚜마하~라지까~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사천왕』신들이 한 소리로 외치었다:

『사천왕』신들의 소리를 듣고,

Tāvatiṃsā devā saddaṃ-anussāvesuṃ: Tāvatiṃs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따~와띃사~ 데와~ 샷다 마눗사~웨송: 따~와띃사~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삼십삼천』의 신들이 한 소리로 외치었다:

『삼십삼천』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Yāmā devā saddaṃ-anussāvesuṃ:
야~마~ 데와~ 샷다 마눗사~웨송:

『야마천』의 신들이 한 소리로 외치었다:

Yām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야~마~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야마천』신들의 소리를 듣고,

Tusitā devā saddaṃ-anussāvesuṃ:
뚜시따~ 데와~ 샷다 마눗사~웨송:

『도솔천』의 신들이 한 소리로 외치었다:

Tusit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뚜시따~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도솔천』신들의 소리를 듣고,

Nimmāna-ratī devā saddaṃ-anussāvesuṃ:
님마~나라띠~ 데와~ 샷다 마눗사~웨송:

『화락천』의 신들이 한 소리로 외치었다:

Nimmāna-ratī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님마~나라띠~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화락천』신들의 소리를 듣고,



Para-nimmita-vasa-vattī devā saddam-anussāvesum:

빠라님미따 와사왓띠~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한 소리로 외치었다:

Para-nimmita-vasa-vattī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빠라님미따 와사왓띠~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타화자재천』 신들의 소리를 듣고,

Brahma-kāyikā devā saddam-anussāvesum:

브라마까~이까~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범중천의 신들이 한 소리로 외치었다:

*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유 예불이면 이 박스 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

Brahma Pārisajjā devā saddam-anussāvesum:

브라마 빠~리샷자~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Brahma Parohitā devā saddam-anussāvesum:

브라마 빠로히따~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Mahā Brahmā devā saddam-anussāvesum:

마하~ 브라마~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Parittābhā devā saddam-anussāvesum:

빠릿따바~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Appamānābhā devā saddam-anussāvesum:

압빠마~나바~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Ābhassarā devā saddam-anussāvesum:

아~빳사라~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Parittasubhā devā saddam-anussāvesum:

빠릿따수바~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Appamāṇasubhā devā saddam-anussāvesum:

압빠마~나수바~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Subhakinḥakā devā saddam-anussāvesum:

수바깸하까~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Asaññisattā devā saddam-anussāvesum:

아산니삿따~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Vehapphalā devā saddam-anussāvesum:

웨합팔라~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Avihā devā saddam-anussāvesum:

아위하~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Atappā devā saddam-anussāvesum:

아땨빠~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Sudassā devā saddam-anussāvesum:

수닷사~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Sudassī devā saddam-anussāvesum:

수닷시~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Akanitṭhakā devā saddam-anussāvesum:

아까닛타까~ 데와~ 샷다 마눗사~웨승: 》

Brahma Pārisajjā devānaṃ saddaṃ sutvā,

브라마 빠~리샷자~ 데와~낭 샷당 수따와~,

Brahma Parohit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브라마 빠로히따~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Mahā Brahm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마하~ 브라마~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Parittābh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빠릿따바~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Appamānābh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압빠마~나바~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Ābhassar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아~빳사라~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Parittasubh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빠릿따수바~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Appamāṇasubh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압빠마~나수바~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Subhakinḥak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수바깸하까~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Asaññisatt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아산니삿따~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Vehapphal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웨합팔라~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Avih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아위하~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Atapp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아땨빠~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Sudassā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수닷사~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Sudassīnaṃ devānaṃ saddaṃ sutvā,

수닷시~낭 데와~낭 샷당 수따와~,

- 뒷장으로 이어짐



“Etaṃ Bhagavatā Bārāṇasīyaṃ Isipatane Migadāye anuttaraṃ dhamma-cakkaṃ pavattitaṃ,
에땅 바가와따 바~라~나시야ṃ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눗따랑 담마 짝강 빠왓띠땅,
 “세존께서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서 위없는 담마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나니,

Appaṭivattiyaṃ samaṇena vā brāhmaṇena vā devena vā mārena vā ~ (이어서)
압빠띠왓띠야ṃ 사마네나 와~ 브라~마네나 와~ 데웨나 와~ 마~레나 와~

brahmunā vā kenaci vā lokasmin-ti.”
브라무나~ 와~ 께나찌 와~ 로까사민띠.”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천인이건 마라이건 범천이건 이 세상의 누구도 법륜을 멈추게 할 수 없노라!”

Iti-ha tena khaṇena tena muhuttana, Yāva brahma-lokā saddo abbhuggacchi.
이띠하 떤나 카네나 떤나 무훗테나, 야~와 브라마로까~ 샷도 압북갓치.

이와 같은 외침은 찰라지간, 그 짧은 순간에 범천세계에까지 울려 퍼져나갔다.

Ayañ-ca dasa-sahassī loka-dhātu, Saṅkampi sampakampi sampavedhi,
아얀짜 다사사합시~ 로까다~뚜, 상감삐 삼빠감삐 삼빠웨디,
 그리하여 일만 세계는 흔들리고, 요동치고 강하게 진동했으며,

Appamāṇo ca uḷāro obhāso loke pātur-ahosi.
압빠마~노 짜 울라~로 오바~소 로께 빠~뚜라호시.

무량광대한 빛이 이 세상을 비추었다.

Atikkamm'eva devānaṃ dev'ānubhāvaṃ.
아띠깜메와 데와~낭 데와~누바~왕.

신과 신들의 위신력을 능가하였다.

Atha kho Bhagavā udānaṃ udānesi: Aññāsi vata bho koṇḍañño,
아타 코 바가와~ 우다~낭 우다~네시: 안냐~시 와따 보 쏬단뇨,
 바로 그때 세존께서 찬탄하여 말씀하길; 쏬단냐는 공극적인 앎을 얻었다.

Aññāsi vata bho koṇḍañño-ti. Iti-h'idaṃ āyasmato koṇḍaññassa,
안냐~시 와따 보 쏬단뇨띠. 이띠 히당 아~야사마또 쏬단냐사,
 ‘쏬단냐는 공극적인 앎을 얻었다! 이로 인해 쏬단냐 존자는,

'Aññā-koṇḍañño'tv-eva nāmaṃ, Ahoṣī-ti.
안냐~쏬단뇨 따웨와 나~망, 아호시~띠.

아는 사람이란 뜻의 ‘안냐 쏬단냐’ 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네.

[SN 56.11 (Sv 420); Vin.I.10f]



2. 무아경(*Anatta-lakkhaṇa Sutta*)

[*Handa mayam Anatta-lakkhaṇa suttaṃ bhaṇāma se.*]
[한다 마양 아낏따 락카나 슛땅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무아경’을 다함께 독송합시다.

[*Evam-me sutam.*] *Ekam samayam Bhagavā,* *Bārānasiyam viharati,*
[에왕 메 수땅.] 에깁 사마양 바가와~, 바~라~나시양 위하라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한 때 세존께서, 바라나시에 있는

Isipatane Migadāye. *Tatra kho Bhagavā pañca-vaggiye bhikkhū āmantesi:*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따따라 코 바가와~ 뽀짜 왓기에 빅꾸~ 아~만떼시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들에게 이렇게 설하셨다:

Rūpaṃ bhikkhave anattā. *Rūpañ-ca h'idaṃ bhikkhave attā abhavissa,*
루~뽕 빅카웨 아낏따~. 루~뽀짜 히당 빅카웨 앓따~ 아바윳사,
비구들이여! 이 몸은 자아가 없다. 만일 이 몸이 나라면,

Na-y-idam rūpaṃ ābādhāya samvatteyya. *Labbhetha ca rūpe:*
나이당 루~뽕 아~바~다~야 상왓떼이야, 랍베타 짜 루~뽀,
이 몸이 병고에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vam me rūpaṃ hotu evam me rūpaṃ mā ahoṣī-ti.
에왕 메 루~뽕 호뚜 에왕 메 루~뽕 마~ 아호시~띠.
‘나의 몸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몸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이라고

Yasmā ca kho bhikkhave rūpaṃ anattā,
야사마~ 짜 코 빅카웨 루~뽕 아낏따~,
비구들이여, 그러나 이 몸은 자아가 없다.

Tasmā rūpaṃ ābādhāya samvattati. *Na ca labbhati rūpe,*
따사마~ 루~뽕 아~바~다~야 상왓따띠, 나 짜 랍바띠 루~뽀,
이 몸은 저절로 병고에 빠지니. 이 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Evam me rūpaṃ hotu evam me rūpaṃ mā ahoṣī-ti.
에왕 메 루~뽕 호뚜 에왕 메 루~뽕 마~ 아호시~띠.
‘나의 몸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몸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Vedanā anattā. *Vedanā ca h'idaṃ bhikkhave attā abhavissa,*
웨다나~ 아낏따~. 웨다나~ 짜 히당 빅카웨 앓따~ 아바윳사,
비구들이여! 수(受)에는 자아가 없다. 만일 이 수(受)가 나라면,

Na-y-idam vedanā ābādhāya samvatteyya. *Labbhetha ca vedanāya:*
나이당 웨다나~ 아~바~다~야 상왓떼이야, 랍베타 짜 웨다나~야,
괴로운 상태에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수(受)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vam me vedanā hotu evam me vedanā mā ahoṣī-ti.

에왕 메 웨다나~ 호뚜 에왕 메 웨다나~ 마~ 아호시~띠.

‘나의 수(受)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수(受)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Yasmā ca kho bhikkhave vedanā anattā,

야사마~ 짜 코 빅카웨 웨다나~ 아낫따~,

비구들이여! 그러나 이 수(受)에는 자아가 없다.

Tasmā vedanā ābādhāya samvattati,

따사마~ 웨다나~ 아바다야 상왓따띠,

Na ca labbhati vedanāya:

나 짜 랍바띠 웨다나야,

이 수(受)는 스스로 괴로운 상태에 빠지니, 이 수(受)에 대해 다음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Evam me vedanā hotu evam me vedanā mā ahoṣī-ti.

에왕 메 웨다나~ 호뚜 에왕 메 웨다나~ 마~ 아호시~띠.

‘나의 수(受)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수(受)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Saññā anattā.

산냐~ 아낫따~.

비구들이여! 상(想)은 자아가 없다.

Saññā ca h'idaṃ bhikkhave attā abhavissa,

산냐~ 짜 히당 빅카웨 앗따~ 아바윗사,

만일 이 상(想)이 나라면,

Na y-idaṃ saññā ābādhāya samvatteyya,

나이당 산냐~ 아바다야 상왓테이야,

Labbhetha ca saññāya,

랍베타 짜 산냐야,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상(想)에 대해 다음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vam me saññā hotu evam me saññā mā ahoṣī-ti.

에왕 메 산냐~ 호뚜 에왕 메 산냐~ 마~ 아호시~띠.

‘나의 상(想)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상(想)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Yasmā ca kho bhikkhave saññā anattā,

야사마~ 짜 코 빅카웨 산냐~ 아낫따~,

비구들이여! 그러나 이 상(想)에는 자아가 없다.

Tasmā saññā ābādhāya samvattati,

따사마~ 산냐~ 아바다야 상왓따띠,

Na ca labbhati saññāya,

나 짜 랍바띠 산냐야,

이 상은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로 떨어지니, 이 상에 대해 다음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Evam me saññā hotu evam me saññā mā ahoṣī-ti.

에왕 메 산냐~ 호뚜 에왕 메 산냐~ 마~ 아호시~띠.

‘나의 상(想)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상(想)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Saṅkhārā anattā.

상카~라~ 아낫따~.

비구들이여! 행(行)은 자아가 없다. 만일 이 행(行)이 나라면,

Saṅkhārā ca h'idaṃ bhikkhave attā abhavissamsu,

상카~라~ 짜 히당 빅카웨 앗따~ 아바윗상수,

Na y-idaṃ saṅkhārā ābādhāya samvatteyyuṃ,

나이당 상카~라~ 아바다야 상왓테이유,

Labbhetha ca saṅkhāresu:

랍베타 짜 상카~레수,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행(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vam me saṅkhārā hontu evam me saṅkhārā mā ahesun-ti.

에왕 메 상카~라~ 혼뚜 에왕 메 상카~라~ 마~ 아헤순띠.

나의 행(行)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행(行)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이라고.

Yasmā ca kho bhikkhave saṅkhārā anattā,

야사마~ 짜 코 빅카웨 상카~라~ 아닛따~,

비구들이여! 그러나 이 행(行)은 자아가 없다.

Tasmā saṅkhārā ābādhāya saṃvattanti,

따사마~ 상카~라~ 아~바~다~야 상왓따띠,

이 행(行)이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드니, 이 행(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Na ca labbhati saṅkhāresu:

나 짜 랍바띠 상카~레수,

Evam me saṅkhārā hontu evam me saṅkhārā mā ahesun-ti.

에왕 메 상카~라~ 혼뚜 에왕 메 상카~라~ 마~ 아헤순띠.

‘나의 행(行)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행(行)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이라고.

Viññāṇaṃ anattā.

원냐~낭 아닛따~.

비구들이여! 이 식(識)은 자아가 없다. 만일 이 식(識)이 나라면,

Viññāṇaṃ-ca h'idaṃ bhikkhave attā abhavissa,

원냐~낭 짜 히당 빅카웨 앓따~ 아바윳사,

Na-y-idaṃ viññāṇaṃ ābādhāya saṃvattēyya,

나이당 원냐~낭 아~바~다~야 상왓테이야,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식(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Labbhettha ca viññāṇe:

랍베타 짜 원냐~네,

Evam me viññāṇaṃ hotu evam me viññāṇaṃ mā ahoṣī-ti.

에왕 메 원냐~낭 호뚜 에왕 메 원냐~낭 마~ 아호시~띠.

‘나의 식(識)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식(識)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이라고.

Yasmā ca kho bhikkhave viññāṇaṃ anattā,

야사마~ 짜 코 빅카웨 원냐~낭 아닛따~,

비구들이여! 그러나 이 식(識)은 자아가 없다.

Tasmā viññāṇaṃ ābādhāya saṃvattati,

따사마~ 원냐~낭 아~바~다~야 상왓따띠,

이 식은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로 자리를 내어주니, 이 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Na ca labbhati viññāṇe:

나 짜 랍바띠 원냐~네,

Evam me viññāṇaṃ hotu evam me viññāṇaṃ mā ahoṣī-ti.

에왕 메 원냐~낭 호뚜 에왕 메 원냐~낭 마~ 아호시~띠.

‘나의 식(識)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식(識)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이라고.

Taṃ kiṃ maññatha bhikkhave rūpaṃ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땅 깁 만냐타 빅카웨 루~빵 닛짱 와~ 아닛짱 와~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몸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못한가?

"Aniccaṃ bhante."

아닛짱 반떼.

대덕이시여! 무상합니다.



"*Yam-panāniccam dukkham vā taṃ sukham vā-ti.*"
 얌 빠나~닛짱 독캉 와~ 땅 수캉 와~띠.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Dukkham bhante.*"
 “독캉 반떼.”

괴로움입니다.

"*Yam-panāniccam dukkham vipariṇāma-dhammaṃ,*
 얌 빠나~닛짱 독캉 위빠리나~마 담망,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이 현상을 두고,

Kallaṃ nu taṃ samanupassitum:
 깔랑 누 땅 사마누빳시똥,

다음처럼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Etam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
 에땅 마마 에소하마사미 에소 메 앗따~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No h'etaṃ bhante.
 노 헤땅 반떼.

확실히 옳지 않습니다.

"*Taṃ kiṃ maññatha bhikkhave vedanā niccā vā aniccā vā-ti?*"
 땅 킴 만냐타 빅카웨 웨다나~ 닛짜~ 와~ 아닛짜~와~띠.

이 수(受)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Aniccā bhante.*"
 아닛짜~ 반떼.

대덕이시여! 무상합니다.

"*Yam-panāniccam dukkham vā taṃ sukham vā-ti.*"
 얌 빠나~닛짱 독캉 와~ 땅 수캉 와~띠.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Dukkham bhante.*"
 “독캉 반떼.

대덕이시여! 괴로움입니다.

"*Yam-panāniccam dukkham vipariṇāma-dhammaṃ,*
 얌 빠나~닛짱 독캉 위빠리나~마 담망,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이 현상을 두고,

Kallaṃ nu taṃ samanupassitum:
 깔랑 누 땅 사마누빳시똥,

다음처럼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Etam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
 에땅 마마 에소하마사미 에소 메 앗따~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확실히 옳지 않습니다.

No h'etaṃ bhante.
 노 헤땅 반떼.

"*Taṃ kiṃ maññatha bhikkhave saññā niccā vā aniccā vā-ti.*" "*Aniccā bhante.*"
 땅 킴 만냐타 빅카웨 산냐~ 닛짜 와~ 아닛짜~와~띠. 아닛짜~ 반떼.

이 상(想)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Yam-panāniccam dukkham vā taṃ sukham vā-ti.*"
 얌 빠나~닛짱 독캉 와~ 땅 수캉 와~띠.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Dukkham bhante.*"
 “독캉 반떼.”

대덕이시여! 괴로움입니다.



"*Yam-panāniccam dukkham vipariṇāma-dhammaṃ,*

얌 빠나~닛짱 둑캉 위빠리나~마 담망,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이 현상을 두고,

Kallam nu taṃ samanupassitum:

갈랑 누 땅 사마누빳시똥,

다음처럼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Etam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

에땅 마마 에소하마사미 에소 메 앳따~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No h'etaṃ bhante."

노 헤땅 반떼.

확실히 옳지 않습니다.

"*Taṃ kiṃ maññatha bhikkhave saṅkhārā niccā vā aniccā vā-ti."*

땅 킁 만나타 빅카웨 상카~라~ 닛짜~ 와~ 아닛짜~ 와~띠.

이 행(行)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Aniccā bhante."

아닛짜~ 반떼.

대덕이시여! 무상합니다.

"*Yam-panāniccam dukkham vā taṃ sukham vā-ti."*

얌 빠나~닛짱 둑캉 와~ 땅 수캉 와~띠.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Dukkham bhante."

“둑캉 반떼.”

대덕이시여! 괴로움입니다.

"*Yam-panāniccam dukkham vipariṇāma-dhammaṃ,*

얌 빠나~닛짱 둑캉 위빠리나~마 담망,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이 현상을 두고,

Kallam nu taṃ samanupassitum:

갈랑 누 땅 사마누빳시똥,

다음처럼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Etam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

에땅 마마 에소하마사미 에소 메 앳따~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No h'etaṃ bhante."

노 헤땅 반떼.

옳지 않습니다.

"*Taṃ kiṃ maññatha bhikkhave viññāṇaṃ niccam vā aniccam vā-ti."*

땅 킁 만나타 빅카웨 윈나~낭 닛짱 와~ 아닛짱 와~띠.

이 식(識)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Aniccam bhante."

아닛짱 반떼.

대덕이시여! 무상합니다.

"*Yam-panāniccam dukkham vā taṃ sukham vā-ti."*

얌 빠나~닛짱 둑캉 와~ 땅 수캉 와~띠.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Dukkham bhante."

“둑캉 반떼.”

대덕이시여! 괴로움입니다.



"Yam-panāniccam dukkham vipariṇāma-dhammaṃ,
얌 빠나~닛짱 둑캉 위빠리나~마 담망,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이 현상을 두고,

Kallam nu taṃ samanupassitum:
갈랑 누 땅 사마누빻시똥,
 다음처럼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Etam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
에땅 마마 에소하마사미 에소 메 앳따~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No h'etaṃ bhante."
노 헤땅 반떼.

대덕이시여! 확실히 옳지 않습니다.

"Tasmā-t-īha bhikkhave!
따사마~띠하 빅카웨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yañ-kiñci rūpaṃ atītānāgata-paccuppannaṃ
얌 긴찌 루~빵 아띠~따~나~가따 빻쑼뻠낭
 그 어떤 몸이라도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앗жат땅 와~ 바히따~ 와~
 안이건, 밖이건,

Oḷārikaṃ vā sukhumaṃ vā,
올라~리깡 와~ 수쿠망 와~
 거칠건, 섬세하건,

Hīnaṃ vā paṇītaṃ vā,
히~낭 와~ 빠니~땅 와~
 저열하건, 수승하건,

Yan-dūre santike vā,
얀 두~레 산띠께 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Sabbaṃ rūpaṃ,
삽방 루~빵,
 모든 몸에 대해,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ti,
네땅 마마 네소하마사미 나 메소 앳따~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에와 메땅 야타~ 부~땅 삼맷뻠나~야 닷탐방.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바른 지혜로써 이해해야 한다.

Yā kācī vedanā atītānāgata-paccuppannā,
야~ 까~찌 웨다나~ 아띠~따~나~가따 빻쑼뻠나~

그 어떤 수(受)이라도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Ajjhattā vā bahiddhā vā,
앗жат따~ 와~ 바히따~ 와~
 안이건, 밖이건,

Oḷārikā vā sukhumā vā,
올라~리까~ 와~ 수쿠마~ 와~
 거칠건, 섬세하건,

Hīnā vā paṇītā vā,
히~나~ 와~ 빠니~따~ 와~
 저열하건, 수승하건,

Yā-dūre santike vā,
야~ 두~레 산띠께 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Sabbaṃ vedanā
삼방 웨다나~,

모든 수(受)에 대해,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ti,
네땅 마마 네소하마사미 나 메소 앓따~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에와 메땅 야타~ 부~땅 삼맷판나~야 닷탐방.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바른 지혜로써 이해해야 한다.

Yā kāci saññā atītānāgata-paccuppannā,
야~ 까~찌 산냐~ 아띠~따~나~가따 뵈죤판나~,

그 어떤 상(想)이라도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Ajjhattā vā bahiddhā vā,
앗жат따~ 와~ 바히따~ 와~,

안이건, 밖이건,

Oḷārikā vā sukhumā vā,
올라~리까~ 와~ 수쿠마~ 와~,

거칠건, 섬세하건,

Hīnā vā paṇītā vā,
히~나~ 와~ 빠니~따~ 와~,

저열하건, 수승하건,

Yā-dūre santike vā,
야 두~레 산띠께 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Sabbaṃ saññā
삼방 산냐~,

모든 상(想)에 대해,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ti,
네땅 마마 네소하마사미 나 메소 앓따~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에와 메땅 야타~ 부~땅 삼맷판나~야 닷탐방.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바른 지혜로써 이해해야 한다.

Ye keci saṅkhārā atītānāgata-paccuppannā
예 깨찌 상카~라~ 아띠~따~나~가따 뵈죤판나~

그 어떤 행(行)이라도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Ajjhattā vā bahiddhā vā,
앗жат따~ 와~ 바히따~ 와~

안이건, 밖이건,

Oḷārikā vā sukhumā vā,
올라~리까~ 와~ 수쿠마~ 와~

거칠건, 섬세하건,

Hīnā vā paṇītā vā,
히~나~ 와~ 빠니~따~ 와~

저열하건, 수승하건,

Ye-dūre santike vā,
예 두~레 산띠께 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Sabbe saṅkhārā
삼베 상카~라~,

모든 행(行)에 대해,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ti,
네땅 마마 네소하마사미 나 메소 앓따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에와 메땅 야타 부땅 삼맙빠냐야 닛탐방.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바른 지혜로써 이해해야 한다.

Yaṃ kiñci viññāṇaṃ atītānāgata-paccuppannaṃ
양 깐찌 윈냐낭 아띠따나가가따 뵗쑤뵗낭

그 어떤 식(識)이라도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앗жат땅 와 바히따 와,
안이건, 밖이건,

Oḷārikaṃ vā sukhumaṃ vā,
올라리깡 와 수쿠망 와,
거칠건, 섬세하건,

Hīnaṃ vā paṇītaṃ vā,
히낭 와 빠니땅 와,
저열하건, 수승하건,

Yan-dūre santike vā,
얀 두레 산띠게 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Sabbaṃ viññāṇaṃ,
삽방 윈냐낭,
모든 식(識)들에 대해,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so attā-ti,
네땅 마마 네소하마사미 나 메소 앓따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에와 메땅 야타 부땅 삼맙빠냐야 닛탐방.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바른 지혜로써 이해해야 한다.

Evam passaṃ bhikkhave sutavā ariya-sāvako,
에왕 뵗상 빅카웨 수따와 아리야사와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해하면서 고귀한 분의 잘 배우는 제자들은,

ㄸ ¹Rūpasmiṃ, 『 ²Vedanāya, ³Saññāya, ⁴Saṅkhāresu, ⁵Viññāṇasmiṃ 』
루빠사밍, 『 웨다나야, 산냐야, 상카레스, 윈냐나사밍 』
~ *pi nibbindati,* ㄸ (5회 반복)
삐 님빈다띠,

몸, 『수(受), 상(想), 행(行), 식(識)』에 대해서 초연하고,

Nibbindaṃ virajjati,
님빈당 위랏자띠,

초연한 고로 탐착을 끊고

Virāgā vimuccati.
위라가 위뭇짜띠.

탐착하지 않음으로 자유롭다.



Vimuttasmim vimuttami-ti nāṇaṃ hoti,
위뭇따사밧 위뭇따미띠 나~낭 호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앎이 생겨난다.

Khīṇā jāti,
키~나~ 자~띠,

그리하여 ‘태어남은 끝이 나고,

Vusitaṃ brahma-cariyaṃ,
우시땅 브라마 짜리양,

청정범행은 완성되었다!

Kataṃ karaṇīyaṃ,
까땅 까라니~양,

해야 할 일을 마쳤다!

Nāparaṃ itthattāyā-ti pajānātī-ti."
나~빠랑 잇따따야~띠 빠자~나~띠~띠.

다시는 이 윤회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Idam-avoca Bhagavā,
이다 마오짜 바가와~,

이와 같이 세존께서 말씀하시자,

Attamanā pañca-vaggiyā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um.
앗따마나~ 뽀짜 왓기야~ 빅쿠~ 바가와또 바~시땅 아비난둥.

다섯 비구들은 기쁨에 넘쳐 세존의 그 말씀에 크게 환희하였다네.

Imasmiñ-ca pana veyyā-karaṇasmim bhaññaṃāne,
이마사민짜 빠나 웨이야~까라나사밧 반냐마~네,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Pañca-vaggiyānaṃ bhikkhūnaṃ anupādāya,
뽀짜 왓기야~낭 빅쿠~낭 아누빠~다~야 ,

다섯 비구들은 마음에서 더 이상 집착함이 없어져

Āsavehi cittāni vimuccimsū-ti.
아~사웨히 췌따~니 위뭇짱수~띠.

집착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흐름(유루)들로부터 벗어났다.

[S22:59]



3. 불의 경(*Āditta-pariyāya Sutta*)

[*Handa mayam Āditta-pariyāya suttaṃ bhaṇāma se.*]

[한다 마양 아딧따 빠리야~야 슷땅 바나~마 세.]

이제 우리 모두 ‘불의 경’을 다함께 독송합시다.

[*Evam-me sutam.*]

[에왕 메 수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Ekam samayaṃ Bhagavā,*

에깁 사마양 바가와~,

어느 한 때 세존께서,

[*Gayāyaṃ viharati gayāsīse,*

가야~양 위하라띠 가야~시~세

[*Saddhiṃ bhikkhu-sahassena.*

삿딩 비꾸 사합세나.

1,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가야의 가야산 정상에 머무셨다.

[*Tatr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따따라 코 바가와~ 비꾸~ 아~만떼시.

그 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Sabbaṃ bhikkhave ādittaṃ,*

삿방 비카웨 아~딧땅,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Kiñ-ca bhikkhave sabbaṃ ādittaṃ.*

깐 짜 비카웨 삿방 아~딧땅.

어떠한 모든 것들이 불타는가?

[*Cakkhuṃ bhikkhave ādittaṃ,*

짜쿿 비카웨 아~딧땅,

눈(시각)도 불타고 있고,

[*Rūpā ādittā,*

루~빠~ 아~딧따~,

색(色)도 불타고 있고,

[*Cakkhu-viññāṇaṃ ādittaṃ,*

짜꾸 윈냐~낭 아~딧땅,

눈의 식(識)도 불타고 있고,

[*Cakkhu-samphassa āditto,*

짜꾸 삼팟소 아~딧또,

눈과 접촉하는 것도 불타고,

[*Yam-p'idaṃ cakkhu-samphassa-paccayā uppajjati vedayitaṃ,*

얌 삿당 짜꾸 삼팟사 뽳짜야~ 움뽳자띠 웨다이땅,

눈에 보여짐으로써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Sukhaṃ vā dukkhaṃ vā adukkham-asukhaṃ vā,*

수캉 와~ 독캉 와~ 아독카 마수캉 와~,

[*Tam-pi ādittaṃ.*

탐 삿 아~딧땅

즐겁거나 괴롭거나 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Kena ādittaṃ.*

케나 아~딧땅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Ādittaṃ rāg'agginā dos'agginā moh'agginā,*

아~딧땅 라~각기나~ 도삭기나~ 모학기나~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Ādittaṃ jātiyā jarā-maraṇena,*

아~딧땅 자~피야~ 자라~마라네나,

[*Sokehi paridevehi dukkhehi domanassehi upāyāsehi ādittan-ti vadāmi.*

소개히 빠리데웨히 독케히 도마났세히 우빠~야~세히 아~딧판띠 와다~미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卍 (5회 반복)

¹Sotam 『²Ghānaṃ 』 ~ ādittam,
소탕 『가~낭 』 아~딛땅,
『³Jivhā 』 ādittā,
지화~ 아~딛파,
『⁴Kāyo, ⁵Mano 』 ~ āditto.
『까~요, 마노 』 아~딛또.
귀, 『코, 혀, 육체, 마음 』도 불탄다.

¹Saddā 『²Gandhā, ³Rasā, ⁴Phoṭṭhabbā, ⁵Dhammā 』 ~ ādittā,
삿다~, 『간다~, 라사~, 꾀탐바~, 담마~, 』 아~딛따~,
소리 『향기, 맛, 촉감, 생각들 』도 불타고,

¹Sota 『²Ghāna, ³Jivhā, ⁴Kāya, ⁵Mano 』 ~ viññāṇaṃ ādittam,
소따 『가~나 지화~ 까~야 마노 』 원냐~낭 아~딛땅,
귀 『코, 혀, 육체, 마음 』에 있는 식(識)도 불타고,

¹Sota 『²Ghāna, ³Jivhā, ⁴Kāya, ⁵Mano 』 ~ samphasso āditto,
소따 『가~나 지화~ 까~야 마노 』 삼팟소 아~딛또,
귀 『코, 혀, 육체 마음 』과 접촉하는 것도 불타고,

¹Yam-p'idaṃ ²Sota 『³Ghāna, ⁴Jivhā, ⁵Kāya, ⁶Mano 』 ~
얌 삿당 소따 『가~나, 지화~, 까~야, 마노 』
~ samphassa-paccayā uppajjati vedayitaṃ,
삼팟사 팻짜야~ 움팟짜띠 웨다이땅

귀 『코, 혀, 육체, 마음 』과 접촉으로 인해 생겨나는 무엇이라도,
¹Sukhaṃ vā dukkhaṃ vā adukkham-asukhaṃ vā, Tam-pi ādittam.
수캄 와~ 둑캄 와~ 아둑카 마수캄 와~, 땀 삐 아~딛땅.
즐겁거나 괴롭거나 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것들 역시 불타고 있다.

¹Kena ādittam. ²Ādittam rāg'agginā dos'agginā moh'agginā,
케나 아~딛땅. 아~딛땅 라~각기나~ 도삭기나~ 모학기나~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¹Ādittam jātiyā jarā-maraṇena,
아~딛땅 자~띠야~ 자라~ 마라네나,
태어남, 늙음, 죽음과 함께,

¹Sokehi paridevehi dukkhehi domanassehi upāyāsehi ādittan-ti vadāmi.
소게히 빠리데웨히 둑케히 도마낫세히 우빠~야~세히 아~딛판띠 와다~미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탄다고 나는 말한다.

卍(5회)



Evam passam bhikkhave sutavā ariya-sāvako,
에왕 뵘상 빅카웨 수따와~ 아리아 사~와꼬

비구들이여! 고귀한 분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듣고 이해하면서,

卍 (6회 반복)

Cakkhusmim 『 *Sotasmim*, *Ghānasmim*, *Jivhāya*, *Kāyasmim*, *Manasmim* 』
짹꾸사밍 『 소따사밍, 가~나사밍, 지화~야, 까~야사밍, 마나사밍 』

~ *pi nibbindati*,
삐 님빈다띠

눈 『 귀, 코, 혀, 육체, 마음 』도 초연하고

Rūpesu 『 *Saddesu*, *Gandhesu*, *Rasesu*, *Phoṭṭhabbesu*, *Dhammesu* 』
루~베수 『 샷데수, 간데수, 라세수, 췌탐베수, 담메수 』

~ *pi nibbindati*,
삐 님빈다띠,

색(色) 『 소리, 향기, 맛, 감촉, 생각들 』도 초연하고,

Cakkhu 『 *Sota*, *Ghāna*, *Jivhā*, *Kāya*, *Mano* 』
짹꾸 『 소따, 가~나, 지화~, 까~야, 마노 』

~ *viññāpe pi nibbindati*,
원냐~네 삐 님빈다띠,

눈 『 귀, 코, 혀, 육체, 마음 』의 식(識)도 초연하고,

Cakkhu 『 *Sota*, *Ghāna*, *Jivhā*, *Kāya*, *Mano* 』
짹꾸 『 소따, 가~나, 지화~, 까~야, 마노 』

~ *samphasse pi nibbindati*,
삼팟세 삐 님빈다띠

눈 『 귀, 코, 혀, 육체, 마음 』과 접촉에도 초연하고

Yam-p'idam ~ *Cakkhu* 『 *Sota*, *Ghāna*, *Jivhā*, *Kāya*, *Mano* 』
얌삐당 짹꾸 『 소따, 가~나, 지화~, 까~야, 마노 』

~ *samphassa paccayā uppajjati vedayitam*,
삼팟사 뵘짜야~ 움뵘자띠 웨다이팡

눈 『 귀, 코, 혀, 육체, 마음 』과 접촉으로 인해 일어나는 무엇이라도,

Sukham vā dukkham vā adukkham-asukham vā, *Tasmim pi nibbindati*.
수캉 와~ 둑캉 와~ 아둑카 마수캉 와~, 따사밍 삐 님빈다띠

즐겁거나 괴롭거나 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것들 역시 초연하다.

卐 (6회 반복)



Nibbindam virajjati,
닙빈당 위랏자띠,

초연한 고로 탐착을 끊고,

Virāgā vimuccati,
위라~가~ 위뭇짜띠

탐착을 끊고 해탈한다.

Vimuttasmim vimuttam-iti ñāṇaṃ hoti,
위뭇따사밍 위뭇따 미띠 냐~낭 호띠,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는 앎이 생겨난다.

Khīṇā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
키~나~ 자~띠, **우시땅 브라마 짜리양,**

‘태어남은 끝이 나고, 청정 범행은 완성되었다!

Kataṃ karaṇīyaṃ,
까땅 까라니~양,

해야 할일을 마쳤다!

Nāparaṃ itthattāyā-ti pajānāti-ti."
나~빠랑 잇타따~야~띠 빠자~나~띠~띠.

다시는 이 윤회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Idam-avoca Bhagavā,
이다 마오짜 바가와~,

세존께서 이처럼 말씀하시자,

Attamanā te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un.
앗따마나~ 떤 비꾸~ 바가와또 바~시땅 아빈난둥.

비구들은 만족하여 세존의 말씀에 아주 기뻐했다.

Imasmiñ-ca pana veyyā-karaṇasmim bhaññamāne,
이마사민 짜 빠나 웨이야~ 까라나사밍 반냐마~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Tassa bhikkhu-sahassassa anupādāya,
탓사 비꾸 사합삿사 아누빠~다~야,

1,000명의 비구들의 마음은

Āsavehi cittāni vimuccimsū-ti.
아~사웨히 췌따~니 위뭇짱수~띠

집착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흐름(유루)들로부터 벗어났다.

[Sn 35:28]



4. 기억해야 함 경(*Sārāṇīya-dhamma-Sutta*)

[*Evam me sutam.*]

[에왕 메 수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ekam samayaṃ Bhagavā,

에깁 사마양 바가와~,

어느 한 때 세존께서는,

Sāvatthiyam viharati,

사~왓티양 위하라띠,

사왓티에 있는,

Jeta-vane Anātha-piṇḍikassa,

제따와네 아나~타뻔디깃사,

아나타뻔디까의 제따와나 승원에 머무셨다.

ārāme.

아~라~메.

Tatr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bhikkhavo ti.

따따라 코 바가와~ 빅쿠~ 아~만떼시 빅카오 띠.

거기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Bhadante ti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m.

바단떼 띠 떤 빅쿠~ 바가와또 뵈짚소승,

그러자 비구들도 받들었다. "세존이시여" 라고.

Bhagavā etadavoca:

바가와~ 에따다오짜,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Chayime bhikkhave dhammā sārāṇīyā piyakaraṇā garukaraṇā.

차이메 빅카웨 담마~ 사~라~니~야~ 뵈야까라나~ 가루까라나~

“비구들이여, 6가지 법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법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saṅgahāya avivādāya sāmaggīyā ekī-bhāvāya samvattanti.

상가하~야 아워와~다~야 사~막기야~ 에끼~바~와~야 상왓판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katame cha.

까따메 차.

무엇이 여섯인가?

Idha bhikkhave bhikkhuno,

이다 빅카웨 빅쿠노,

비구들이여, 비구는

mettaṃ kāya-kammaṃ paccupaṭṭhitam hoti.

멧땅 까~야 감망 뵈쭈뵈띠땅 호띠.

동료들에 대해서 친밀한 행위를 유지한다. 이 법을 기억해야 한다.

sabrahmacārīsu āvī ceva raho ca,

사브라마짜~리~수 아~워 켜와 라호 짜,

여기 비구는 동료 비구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ayampi dhammo sārāṇīyo piyakaraṇo garukaraṇo.

아얌삐 담모 사~라~니~요 뵈야까라노 가루까라노,

이러한 법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saṅgahāya avivādāya sāmaggīyā ekī-bhāvāya saṁvattati.

상가하야 아워와다야 사막기야 예끼 바와야 상왓따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Puna caparam bhikkhave bhikkhuno,

부나 짜빠랑 빅카웨 빅쿠노,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mettam vacī-kammaṃ paccupatṭhitam hoti.

멧땅 와찌 감망 뽕쭈뽕티땅 호띠.

동료들에 대해 친밀한 말을 유지해야 한다. 이 법도 기억해야 한다.

sabrahmacārīsu āvi ceva raho ca,

사브라마짜리수 아워 켜와 라호 짜,

여기 비구는 동료 비구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ayampi dhammo sārāṇīyo piyakaraṇo garukaraṇo.

아얌삐 담모 사라니요 비야까라노 가루까라노,

이러한 법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saṅgahāya avivādāya sāmaggīyā ekī-bhāvāya saṁvattati.

상가하야 아워와다야 사막기야 예끼 바와야 상왓따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Puna caparam bhikkhave bhikkhuno,

부나 짜빠랑 빅카웨 빅쿠노,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mettam mano-kammaṃ paccupatṭhitam hoti

멧땅 마노 감망 뽕쭈뽕티땅 호띠

동료들에 대해 친밀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 법도 기억해야 한다.

sabrahmacārīsu āvi ceva raho ca,

사브라마짜리수 아워 켜와 라호 짜,

여기 비구는 동료 비구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ayampi dhammo sārāṇīyo piyakaraṇo garukaraṇo.

아얌삐 담모 사라니요 비야까라노 가루까라노,

이러한 법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saṅgahāya avivādāya sāmaggīyā ekī-bhāvāya saṁvattati.

상가하야 아워와다야 사막기야 예끼 바와야 상왓따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Puna caparam bhikkhave bhikkhu,

부나 짜빠랑 빅카웨 빅쿠,

다시 비구들이여,

ye te lābhā dhammikā dhamma-laddhā.

예 떤 라바 담미까 담마랏다.

여기 비구는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들은



antamaso patta-pariyāpanna-mattam-pi,
안파마소 뱃따 빠리아뽀나 맛땅 뽀,
비록 밭우 안에 담긴 것일지라도

tatharūpehi lābhehi appaṭivibhattabhogī hoti,
따타루뽀히 라뽀히 압빠띠위뱃따보기 호띠,
그렇게 얻은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수용하며

sīlavantehi sabrahmacārīhi sādharma-bhogī.
실라완떼히 사브라마짜리히 사다라나 보기.

계를 잘 지키는 동료 비구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한다. 이 법도 기억해야 한다.

ayampi dhammo sārāṇiyo piyakaraṇo garukaraṇo,
아얌뽀 담모 사라니요 뽀야까라노 가루까라노,
이러한 법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saṅgahāya avivādāya sāmaggīyā ekī-bhāvāya saṃvattati.
상가하야 아위와다야 사막기야 예끼 바와야 상왓따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Puna caparaṃ bhikkhave bhikkhu,
부나 짜빠랑 빅카웨 빅쿠,
다시 비구들이여,

yāni tāni sīlāni akhaṇḍāni achiddāni asabalāni akammāsāni,
야니 따니 실라니 아칸다니 아치다니 아사발라니 아깜마사니,
훼손되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bhujissāni vinnūpasatthāni aparāmatthāni samādhisaṃvattanikāni,
부짚사니 윈누빠삿타니 아빠라맛타니 사마디상왓따니까니,
현자들이 찬탄하고, 집착하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들을

tathārūpesu sīlesu sīla-sāmaññagato viharati,
따타루뽀수 실레수 실라 사만냐가또 위하라띠,
그 동료 비구들과 함께 동등하게 구족하여 머문다. 이 법도 기억해야 한다.”

sabrahmacārīhi āvi ceva raho ca,
사브라마짜리히 아위 켄와 라호 짜,
여기 비구는 동료 비구들이 있건 없건

ayampi dhammo sārāṇiyo piyakaraṇo garukaraṇo,
아얌뽀 담모 사라니요 뽀야까라노 가루까라노,
이러한 법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saṅgahāya avivādāya sāmaggīyā ekī-bhāvāya saṃvattati.
상가하야 아위와다야 사막기야 예끼 바와야 상왓따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Puna caparam bhikkhave bhikkhu,

부나 짜빠랑 빅카웨 빅쿠,

다시 비구들이여,

yāyaṃ diṭṭhi ariyā niyyānikā.

야~양 딛티 아리야~ 니이야~니까~

성스럽고 출리(出離)로 인도하고

niyyāti takkarassa sammādukkhakkhayāya,

니이야~띠 딱까랏사 삼마~дук카카야~야,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tathārūpāya diṭṭhiyā diṭṭhisāmaññagato viharati.

따타~루~빠~야 딛티야~ 딛티사~만냐가또 위하라띠,

바른 견해를 그들과 함께 동등하게 구족하여 머문다. 이 법도 기억해야 한다.

sabrahmacārīhi āvi veca raho ca,

사브라마짜~리~히 아위~ 웨짜 라호 짜,

여기 비구는 동료 비구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ayampi dhammo sārāṇīyo piyakaraṇo garukaraṇo,

아얌삐 담모 사~라~니~요 삐야까라노 가루까라노,

이러한 법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saṅgahāya avivādāya sāmaggīyā ekī-bhāvāya saṃvattati.

상가하~야 아위와~다~야 사~막기야~ 예끼~바~와~야 상왓따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Ime kho bhikkhave cha dhammā sārāṇīyā piyakaraṇā garukaraṇā,

이메 코 빅카웨 차 담마~ 사~라~니~야~ 삐야까라나~ 가루까라나~,

"비구들이여, 이것이 여섯 가지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saṅgahāya avivādāya sāmaggīyā ekī-bhāvāya saṃvattantīti.

상가하~야 아위와~다~야 사~막기야~ 예끼~바~와~야 상왓따띠~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Idamavoca Bhagavā.

이다마오짜 바가와~.

세존께서 이처럼 말씀하시자.

Attamanā te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앗따마나~ 떤 빅쿠~ 바가와또 바~시땅.

만족한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abhinandun- ti.

아비난둔 띠.

아주 기뻐했다.

[AN 6:11~12]



5. (7가지 불퇴전)의 비구경

(*Bhikkhu-aparihāṇiya-dhamma-sutta*)

[*Evam me sutam.*]

[에왕 메 수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Ekam samayaṃ Bhagavā,

에깁 사마양 바가와~,

어느 한 때 세존께서,

Rājagahe viharati, Gajjhakūṭe pabbate,

라~자가헤 위하라피, 갓자꾸~떼 뽕바떼,

라자가하의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다.

Tatr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따따라 코 바가와~ 빅꾸~ 아~만떼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Satta vo bhikkhave aparihāṇiye dhamme desessāmi.

삿따 오 빅카웨 아빠리하~니예 담메 데셋사~미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곱 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을 설하리라.

Taṃ supātha sādhukaṃ manasikarotha bhāsissāmi.

땅 수나~타 사~두깁 마나시까로타 바~싯사~미~띠.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Evam bhante'ti kho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m.

에왕 반떼띠 코 떼 빅꾸~ 바가와또 뽕짜소승.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Bhagavā etadavoca,

바가와~ 에따다오짜,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Katame ca bhikkhave satta aparihāṇiyā dhammā.

까따메 짜 빅카웨 삿따 아빠리하~니야~ 담마~.

무엇이 쇠퇴하지 않는 7가지 법인가?

Yāvakīvaṇca bhikkhave bhikkhū,

야~와끼~완짜 빅카웨 빅꾸~,

“비구들이여,

Abhinhasannipātā bhavissanti sannipātabahulā.

아빈하산니빠~따~ 바윗산띠 산니빠~따바홀라~.

비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는 한,

vuḍḍhiy'eva bhikkhave bhikkhūnaṃ pāṭikaṅkhā no parihāṇi.

웃디예와 빅카웨 빅꾸~낭 빠~띠깁카~ 노 빠리하~니.

비구들은 퇴보함이 없이,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Yāvakīvañca bhikkhave bhikkhū,
 야~와끼~완짜 빅카웨 빅쿠~,
 비구들이여,

Samaggā sannipatissanti,
 사막가~ 산니빠똥산띠,
 비구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samaggā vutthāhissanti,
 사막가~ 윗타~힛산띠,
 화합하여 해산하고,

samaggā saṅghakaraṇīyāni karissanti,
 사막가~ 상가까라니~야~니 까릿산띠,
 화합하여 상가의 업무를 보는 한,

vuddhiy'eva bhikkhave bhikkhūnaṃ pāṭikañkhā no parihānī.
 웃디예와 빅카웨 빅쿠~낭 빠~띠깡카~ 노 빠리하~니.
 비구들은 퇴보함이 없이,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Yāvakīvañca bhikkhave bhikkhū,
 야~와끼~완짜 빅카웨 빅쿠~,
 비구들이여,

Apaññattaṃ na paññapessanti,
 아빠냐땅 나 뻘나뻘산띠,
 비구들이 공인되어지지 않은 것을 하지 않고,

paññattaṃ na samucchindissanti,
 뻘냐땅 나 사뭇친딛산띠,
 공인한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yathā-paññattesu sikkhāpadesu samādāya vattissanti,
 야타~ 뻘냐떼수 식카~빠떼수 사마~다~야 왓똥산띠,
 공인되어 온 학습계목을 준수하고 있는 한,

vuddhiy'eva bhikkhave bhikkhūnaṃ pāṭikañkhā no parihānī.
 웃디예와 빅카웨 빅쿠~낭 빠~띠깡카~ 노 빠리하~니.
 비구들은 퇴보함이 없이,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Yāvakīvañca bhikkhave bhikkhū.
 야~와끼~완짜 빅카웨 빅쿠~,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Ye te bhikkhū therā rattaññū cirapabbajitā.
 예 떤데 빅쿠~ 테라~ 랏판뉴~ 켜라뵤바지따~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비구들

saṅghapitaro saṅghaparināyakā,
 상가뵤따로 상가빠리나~야까~,
 상가의 아버지고, 상가의 지도자인 구참(久參)들을,



te sakkarissanti garukarissanti manessanti pūjessanti.
떼 삭까릿산띠 가루까릿산띠 마넛산띠 부~젯산띠,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tesañca sotabbam maññissanti,
떼산짜 소탑방 만닛산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기는 한,

vuddiy'eva bhikkhave bhikkhūnaṃ pāṭikaṅkhā no parihānī
웃디예와 빅카웨 빅쿠~낭 빠~띠깡카~ 노 빠리하~니.
 비구들은 퇴보함이 없이,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Yāvakīvañca bhikkhave bhikkhū,
야~와끼~완짜 빅카웨 빅쿠~,
 비구들이여,

Uppannāya tanhāya ponobbhavikāya no vasaṃ gacchissanti,
웁판나~야 판하~야 보놈바위까~야 노 와상 갓치산띠,
 비구들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갈애가 생겼더라도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vuddiy'eva bhikkhave bhikkhūnaṃ pāṭikaṅkhā no parihānī.
웃디예와 빅카웨 빅쿠~낭 빠~띠깡카~ 노 빠리하~니.
 비구들은 퇴보함이 없이,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Yāvakīvañca bhikkhave bhikkhū,
야~와끼~완짜 빅카웨 빅쿠~,
 비구들이여,

Āraññakesu senāsanesu sāpekkhā bhavissanti,
아~란냐게수 세나~사네수 사~뻑카~ 바윗산띠
 비구들이 숲 속의 거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vuddiy'eva bhikkhave bhikkhūnaṃ pāṭikaṅkhā no parihānī.
웃디예와 빅카웨 빅쿠~낭 빠~띠깡카~ 노 빠리하~니.
 비구들은 퇴보함이 없이,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Yāvakīvañca bhikkhave bhikkhū,
야~와끼~완짜 빅카웨 빅쿠~,
 비구들이여,

Paccattaññeva satim upaṭṭhapessanti,
빳짠판네와 사띳 우빳타뻑산띠,
 비구들이 스스로 각각 알아차림을 확립해서

kintī anāgatā ca pesalā sabrahmacārī āgaccheyyūṃ,
킨띠 아나~가따~ 짜 빼살라~ 사브라마짜~리~ 아~갓체이윽,
 오지 않은 좋은 동료 수행자들은 오게 하고,



ānagatā ca pesalā sabrahmacāī phāsum vihareyyunti,
 아나~가따~ 짜 빼살라~ 사브라마짜~리~ 파~승 위하레이윤흐,
 이미 온 좋은 동료 수행자들은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는 한,

vuddiy'eva bhikkhave bhikkhūnaṃ pāṭikaṅkhā no parihānī.
 웃디예와 빅카웨 빅쿠~낭 빠~띠강카~ 노 빠리하~니.

비구들은 퇴보함이 없이,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Yāvakīvaṇca bhikkhave,
 야~와끼~완짜 빅카웨,

비구들이여,

ime satta aparihāniyā dhammā bhikkhūsu ṭhassanti,
 이메 샷따 아파리하~니야~ 담마~ 빅쿠~수 톳산띠

이러한 일곱 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이 비구들에게 정착되고,

imesu ca sattasu aparihāniyesu dhammesu bhikkhū sandississanti,
 이메수 짜 샷따수 아파리하~니예수 담메수 빅쿠~ 산딧싯산띠,

이러한 일곱 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vuddiy'eva bhikkhave bhikkhūnaṃ pāṭikaṅkhā no parihānīti.
 웃디예와 빅카웨 빅쿠~낭 빠~띠강카~ 노 빠리하~니~띠.

비구들은 퇴보함이 없이,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Idamavoca Bhagavā,
 이다마오짜 바가와~.

세존께서 이처럼 말씀하시자.

attamanā te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앳따마나~ 떤 빅쿠~ 바가와또 바~시땅,

비구들은 만족하여 세존의 말씀에

abhinandun- ti.
 아비난둔 띠.

아주 기뻐했다.

[AN 7:23/ PTS vol.4 pp.21- 2]

* 왓지품(7가지..) 중의 비구경(AN 7:21)/ DN 16



6. 깃발 보호경(*Dhaj'agga Sutta*)

[*Evam me sutam.*]

[에왕 메 수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Sāvatthiyaṃ viharati,
사~왓티양 위하라띠,

사왓티에 있는,

Jeta-vane Anātha-piṇḍikassa,
제따와네 아나~타뻔디깃사,

아나타뻔디까의 제따와나 승원에

Ekam samayaṃ Bhagavā,

에깁 사마양 바가와~,

어느 한 때 세존께서,

ārāme.

아~라~메.

머무셨다.

Tatr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bhikkhavo-ti.”

따따라 코 바가와~ 빅쿠~ 아~만떼시 빅카오티.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라고 부르셨다.

“Bhadante-ti,”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m.

바단떼띠 떤 빅쿠~ 바가와또 뵈쌔소쑤.

그 비구들은 “대덕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Bhagavā etadavoca:

바가와~ 에따다오짜:

세존께서는 이렇게 설하셨다:

Bhūta-pubbam bhikkhave devāsura-saṅgāmo samupabyūḥho ahosi.

부~따뵈방 빅카웨 데와~수라상가~모 사무빠바울~로 아호시.

비구들이여! 옛날에 천인들과 아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었다.

Atha kho bhikkhave Sakko devānamindo deva tāva-timse āmantesi;

아타 코 빅카웨 삭꼬 데와~나민도 데와 따~와뵈게 아~만떼시;

비구들이여! 그때 천인들의 통치자인 삭까(제석천왕)가 삼십삼 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Sace mārisā devānaṃ saṅgāma-gatānaṃ uppajjeyya bhayaṃ ~ (이어서)

사췌 마~리사~ 데~와~낭 상가~마가따~낭 읍뵈췌이야 바양

vā chambhitattaṃ vā loma-haṃso vā,

와~ 참비뵈땅 와~ 로마항소 와~,

‘만약 여러분! 전쟁에 참가한 천인들에게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놀람이 일어나거나, 공포가 일어나면,

mameva tasmim samaye dhaj'aggam ullokeyyātha,

마메와 따사뵈 사마예 다작깁 울로께이야~타,

그때 나의 뛰어난 깃발을 확실히 보아라.

Mamaṃ hi vo dhaj'aggam ullokayatam

마맘 히 오 다작깁 울로까야땅

나의 뛰어난 깃발을 확실히 보게 되면,



yam bhavissati bhayaṃ vā chambhitattam vā loma-haṃso vā, so pahīyissati.
 양 바윗사띠 바양 와~ 참비땃땅 와~ 로마항소 와~, 소 빠히~잇사띠.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가 능히 그대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No ce me dhaj'aggam ullokeyyātha,
 노 께 메 다작강 울로께이야~타,
 '만약 나의 뛰어난 깃발을 볼 수 없다면,

atha Pajāpatissa deva-rājassa dhaj'aggam ullokeyyātha.
 아타 빠자~빠땃사 데와라~갓사 다작강 울로께이야~타.

그때는 천인들의 왕인 빠자뻏띠의 뛰어난 깃발을 보아라.

Pajāpatissa hi vo deva-rājassa dhaj'aggam ullokayatam,
 빠자~빠땃사 히 오 데와라~갓사 다작강 울로까야땅,
 천인들의 왕인 빠자뻏띠의 뛰어난 깃발을 확실히 본다면,

yam bhavissati bhayaṃ vā chambhitattam vā loma-haṃso vā, so pahīyissati.
 양 바윗사띠 바양 와~ 참비땃땅 와~ 로마항소 와~, 소 빠히~잇사띠.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가 능히 그대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No ce Pajāpatissa deva-rājassa dhaj'aggam ullokeyyātha,
 노 께 빠자~빠땃사 데와라~갓사 다작강 울로께이야~타,
 '만약 천인들의 왕인 빠자뻏띠의 뛰어난 깃발을 볼 수 없다면,

atha Varuṇassa deva-rājassa dhaj'aggam ullokeyyātha.
 아타 와루낫사 데와라~갓사 다작강 울로께이야~타.

그때는 천인들의 왕인 와루나의 뛰어난 깃발을 보아라.

Varuṇassa hi vo deva-rājassa dhaj'aggam ullokayatam,
 와루낫사 히 오 데와라~갓사 다작강 울로까야땅,
 천인들의 왕인 와루나의 뛰어난 깃발을 확실히 본다면,

yam bhavissati bhayaṃ vā chambhitattam vā loma-haṃso vā, so pahīyissati.
 양 바윗사띠 바양 와~ 참비땃땅 와~ 로마항소 와~, 소 빠히~잇사띠.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가 능히 그대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No ce Varuṇassa deva-rājassa dhaj'aggam ullokeyyātha,
 노 께 와루낫사 데와라~갓사 다작강 울로께이야~타,
 '만약 천인들의 왕인 와루나의 뛰어난 깃발을 볼 수 없다면,

atha Īsānassa deva-rājassa dhaj'aggam ullokeyyātha.
 아타 이~사~낫사 데와라~갓사 다작강 울로께이야~타.

그때는 천인들의 왕인 이사나의 뛰어난 깃발을 보아라.

Īsānassa hi vo deva-rājassa dhaj'aggam ullokayatam,
 이~사~낫사 히 오 데와라~갓사 다작강 울로까야땅,
 천인들의 왕인 이사나의 뛰어난 깃발을 확실히 본다면,



yaṃ bhavissati bhayaṃ vā chambhitattam vā loma-haṃso vā. so pahīyissati.
 양 바윗사띠 바양 와~ 참비팟땅 와~ 로마항소 와~. 소 빠히~잇사띠.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가 능히 그대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Taṃ kho pana bhikkhave Sakkassa vā devānamindassa dhaj'aggam ullokayatam,
 땅 코 빠나 빅카웨 삭갓사 와~ 데와~나민닷사 다작강 울로까야땅,
 그러나 실로 비구들이여! 천인들의 통치자인 삭가의 뛰어난 깃발을 확실히 보았거나,

Pajāpatissa vā deva-rājassa dhaj'aggam ullokayatam,
 빠자~빠뎡사 와~ 데와라~갓사 다작강 울로까야땅,
 천인들의 왕인 빠자빠띠의 뛰어난 깃발을 확실히 보았거나,

Varuṇassa vā deva-rājassa dhaj'aggam ullokayatam,
 와루낫사 와~ 데와라~갓사 다작강 울로까야땅,
 천인들의 왕인 와루나의 뛰어난 깃발을 확실히 보았거나,

Īsānassa vā deva-rājassa dhaj'aggam ullokayatam,
 이~사~낫사 와~ 데와라~갓사 다작강 울로까야땅,
 천인들의 왕인 이사나의 뛰어난 깃발을 확실히 본 자들 중에,

yaṃ bhavissati bhayaṃ vā chambhitattam vā loma-haṃso vā,
 양 바윗사띠 바양 와~ 참비팟땅 와~ 로마항소 와~,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가 능히 그대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so pahīyethāpi no pi pahīyetha. Taṃ kissa hetu.
 소 빠히~예타~삐 노 삐 빠히~예타. 땅 깃사 हेतु.
 사라진 자도 있을 것이고, 사라지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Sakko hi bhikkhave devānamindo avītarāgo avītadoso avītamoho,
 삭꼬 히 빅카웨 데와~나민도 아위~따라~고 아위~따도소 아위~따모호,
 비구들이여! 천인들의 통치자인 삭가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에,

bhīru chambhī utrāsī palāyī-ti.
 비~루 참비~ 우따라~시~ 팔라~이~띠.
 전쟁 중에 두려워하고 놀라며 무서워하여 도망치는 것이다.

Ahañ-ca kho bhikkhave evaṃ vadāmi:
 아한짜 코 빅카웨 에왕 와다~미;
 비구들이여! 나 여래가 그대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나니,

Sace tumhākaṃ bhikkhave arañña-gatānaṃ vā rukkha-mūla-gatānaṃ vā~
 사째 뚝하~깡 빅카웨 아란냐가따~낭 와~ 록카물~라가따~낭 와~ (이어서)

suññ'āgāra-gatānaṃ vā,
 순냐~가~라가따~낭 와~,

비구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숲 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한적한 곳에 가 있을 때에,

uppajjeyya bhayaṃ vā chambhitattam vā loma-haṃso vā,
 움빳제이야 바양 와~ 참비팟땅 와~ 로마항소 와~,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가 일어난다면,



mameva tasmim samaye anussareyyātha;
마메와 따사밍 사마예 아눗사레이야~타;

그럴 때는 실로 이와 같이 나 여래를 자주 회상하여라.

Itipi so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
이띠삐 소 바가와~ 아라함 삼마~ 삼붓도,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Vijjā-carāṇa-sampanno sugato loka-vidū,
윗자~짜라나 삼판노 수가또 로카위두~,

지혜와 덕행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을 가신 분,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아시는 분,

Anuttaro purisa-damma-sārathi satthā deva-manussānaṃ Buddho Bhagavā-ti.
아nut타로 뿌리사담마 사~라티 사타~ 데와 마nut사~낭 붓도 바가와~띠.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Mamaṃ hi vo bhikkhave anussarataṃ,
마맘 히 오 빅카웨 아눗사라땅,

이런 연유로 이와 같이 나 여래를 회상할 때,

yaṃ bhavissati bhayaṃ vā chambhitattaṃ vā loma-haṃso vā, so pahīyissati.
양 바윗사띠 바양 와~ 참비팟땅 와~ 로마항소 와~, 소 빠히~잇사띠.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가 능히 그대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No ce maṃ anussareyyātha,
노 켜 망 아눗사레이야~타,

만약 나 여래를 회상할 수 없다면,

atha dhammaṃ anussareyyātha;
아타 담망 아눗사레이야~타;

담마를 회상하여라;

Svākkhāto Bhagavatā dhammo,
사왁~카~또 바가와따~ 담모,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위없는 담마는, 즉시 볼 수 있고, 시간과 관계없이, 와서 보라 청하며,

Sandiṭṭhiko akāliko ehi-passiko,
산딤티꼬 아갈~리꼬 에히빳시꼬,

Opanayiko 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ti.
오빠나이꼬 뵈딤따뵈 웨디뵈보 윈뉴~히~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볼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Dhammaṃ hi vo bhikkhave anussarataṃ,
담망 히 오 빅카웨 아눗사라땅,

비구들이여! 담마를 확실히 회상한다면,

yaṃ bhavissati bhayaṃ vā chambhitattaṃ vā loma-haṃso vā. so pahīyissati.
양 바윗사띠 바양 와~ 참비팟땅 와~ 로마항소 와~. 소 빠히~잇사띠.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가 능히 그대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No ce dhammaṃ anussareyyātha,
노 켜 담망 아눗사레이야~타,

만약 담마를 회상할 수 없다면,

atha saṅghaṃ anussareyyātha;
아타 상강 아눗사레이야~타;

그러면 상가를 회상하여라;



Su 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Uju-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수빠띠반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우주빠띠반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훌륭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Nāya 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Sāmicī 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나~아빠띠반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사~미~찌빠띠반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노련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Yad-idam cattāri purisa-yugāni aṭṭha purisa-puggalā,
야디당 찢따~리 부리사 유가~니 앓타 부리사 뽅갈라~,
이분들은 네 쌍과 여덟 유형의 성자(聖子)들이며.

Esa Bhagavato sāvaka-saṅgho, Āhuneyyo pāhuneyyo dakkhiṇeyyo añjalī-karaṇīyo;
에사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아~후네이요 빠~후네이요 닥키네이요 안잘리~까라니~요;
이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경 받을 가치 있는, 환대할 가치 있는, 보시 받
을 가치 있는, 합장 받을만한 분들이며;

Anuttaram puññakkhettaṃ lokassā-ti. Saṅghaṃ hi vo bhikkhave anussarataṃ,
아nut타람 뽀ṇṇ갯헛탕 로갓사~띠. 상강 히 오 빅카웨 아nut사라탕,
이 세상에서 위없는 복(福)을 심는 밭입니다. 비구들이여! 상가를 확실히 회상한다면,
yaṃ bhavissati bhayaṃ vā chambhitattaṃ vā loma-haṃso vā. so pahiyissati.
양 바윗사띠 바양 와~ 참비땃탕 와~ 로마함소 와~. 소 빠히~잇사띠.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가 능히 그대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Taṃ kissa hetu.
땅 깃사 헛투.
왜 그러한가?

Tathāgato hi bhikkhave araham sammā-sambuddho,
따타~가또 히 빅카웨 아라함 삼마~삼뽏도,
비구들이여!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나 여래는

vītarāgo vītadoso vītamoho, abhīrū acchambhī anutrāsī apalāyī-ti.
위~따라~고 위~따도소 위~따모호, 아비~루~ 앓참비~ 아nut따라~시~ 아팔라이~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버렸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무서
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Idamavoca Bhagavā.
이다마오짜 바가와~.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Idaṃ vatvāna sugato, athāparam etadavoca satthā;
이당 와따와~나 수가또, 아타~빠랑 에따다오짜 샛타~;
진리의 길 보이신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신 후,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시었다.



Araññe rukkha-mūle vā,
아란네 룩카물~레 와~,
숲 속이나, 나무 아래이거나,

Anussaretha Sambuddham.
아nut사레타 삼붓당.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나 여래를 자주 회상하라.

No ce Buddhāṃ sareyyātha,
노 켜 붓당 사레이야~타,
만약 나 여래를 세상의 존경받는 자요,

Atha Dhammāṃ sareyyātha,
아타 담망 사레이야~타,
또한 담마를 윤회해탈의 가르침이요,

No ce dhammāṃ sareyyātha,
노 켜 담망 사레이야~타
만약 담마를 윤회해탈의 가르침이요,

Atha saṅghāṃ sareyyātha,
아타 상강 사레이야~타
또한 상가를 복을 심는 밭이요,

Evaṃ Buddhāṃ sarantānaṃ,
에왕 붓당 사란따~낭
이와 같이 부처님과

Bhayaṃ vā chambhitattaṃ vā
바양 와~ 참비팟땅 와~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에서 벗어나

Suññ'āgāre va bhikkhavo,
순나~가~레 와 빅카오,
한적한 곳에 가 있을 때, 비구들은

Bhayaṃ tumhāka no siyā.
바양 뚝하~까 노 시야~.

그러면 그대에게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Loka-jetṭhaṃ nar'āsabhaṃ;
로까젯땅 나라~사방;
인간 중의 최상자라고 회상할 수 없다면,

Niyyānikaṃ sudesitaṃ.
니이야~니깁 수데시땅.
잘 설해진 진리라고 회상하여라.

Niyyānikaṃ sudesitaṃ;
니이야~니깁 수데시땅
잘 설해진 진리라고 회상할 수 없다면,

puññakkhettaṃ anuttaraṃ.
뽀낙켓땅 아nut따랑.
위없는 스승이라고 회상하여라.

Dhammāṃ saṅghaṃ-ca bhokkhavo;
담망 상간짜 빅카오;
담마와 상가를 기억하는 비구들은

loma-haṃso na hessatī-ti.
로마항소 나 헷사띠~띠.
다시는 겪지 않는다.

[Sn 11.3]



7. 대회경-신들의 회합(Mahāsamaya Sutta)

[*Evam me sutam.*]
[에왕 메 수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ekam samayaṃ Bhagavā,
에강 사마양 바가와~,
어느 한 때 세존께서,

Sakkesu viharati Kapilavatthusmiṃ Mahāvane,

삭게수 위하라띠 까뵤라왓투사밍 마하~와네,

까뵤라왓투에 있는 큰 숲[大林]에서 삭까족들의 가운데 머무시며,

Mahatā bhikkhu-saṅghena saddhiṃ pañca-matehi bhikkhu-satehi, ~ (이어짐)
마하따~ 빅쿠 상게나 샷딩 뽀짜 마떼히 빅쿠 사떼히,

sabbeheva arahantehi.

삽베헤와 아라한떼히.

모두가 아라한인 약 500명의 큰 상가와 함께 계셨다.

Dasahi ca loka-dhātūthi devatā yebhuyyena sannipatitā honti, ~ (이어짐)
다사히 짜 로까 다~뚜티 데와따~ 예부이에나 산니빠띠따~ 혼띠,

Bhagavantam dassanāya bhikkhu-saṅghaṇca.

바가완땅 닷사나~야 빅쿠 상간짜.

열 군데 세계의 신들도 대부분 다 모였다. 세존과 비구 상가를 친견하기 위해

Atha kho catunnam suddhavāssa kāyikānam devānam etadahosi:

아타 코 짜툑낭 수다왓~사 까~이까~낭 데~와낭 에따다호시,

그때 정거천에 몸을 받은 네 명의 신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Ayaṃ kho Bhagavā sakkesu viharati Kapilavatthusmiṃ mahāvane,

아양 코 바가와~ 삭게수 위하라띠 까뵤라왓투사밍 마하~와네,

“세존께서는 까뵤라왓투에 있는 큰 숲에서 삭까족들 사이에 머무신다.

Mahatā bhikkhusaṅghena saddhiṃ pañca-matehi bhikkhu-satehi, ~ (이어짐)
마하따~ 빅쿠상게나 샷딩 뽀짜 마떼히 빅쿠 사떼히,

Sabbeheva arahantehi.

삽베헤와 아라한떼히.

모두가 아라한이신 약 500명의 큰 상가와 함께

Dasahi ca lokadhātūthi devatā yebhuyyena sannipatitā honti, ~ (이어짐)
다사히 짜 로까다~뚜티~ 데와따~ 예부이에나 산니빠띠따~ 혼띠,

Bhagavantam dassanāya bhikkhu-saṅghaṇca.

바가완땅 닷사나~야 빅쿠 상간짜.

열 군데 세계에서 신들도 세존과 비구 상가를 친견하기 위해 대부분 다 모였다.

Yannūna mayampi yena Bhagavā ten'upasaṅkameyyāma,

얀누~나 마얌삐 예나 바가와~ 떤누빠상까메이야~마,

그러니 우리들도 세존께 가야겠다.



upasaṅkamitvā Bhagavato santike paccekam-gāthā bhāseyyāmāti.

우빠상까미따와~ 바가와또 산띠께 뵈짜깁 가~타~ 바~세이야~마~띠.

가서는 세존의 앞에서 각각 계송을 읊어야겠다.’

Atha kho tā devatā seyyathāpi nāma balavā puriso samiññitaṃ ~ (이어짐)

아타 코 따~ 데와따~ 세이야타~삐 나~마 발라와~ 부리소 사민지땅

vā bāhaṃ pasāreyya pasāritaṃ vā bāhaṃ sammiñjeyya.

와~ 바~항 빠사~레이야 빠사~리땅 와~ 바~항 삼민제이야,

그러자 그 신들은 마치 힘센 자가 오므렸던 팔을 펴고, 편 팔을 오므리듯이,

evameva suddhāvāsesu devesu antarahitā Bhagavato purato pāturaṃsu.

에와메와 슯다~와~세수 데웨수 안따라히따~ 바가와또 부라또 빠~뚜라항수.

그와 같이 정거천에서 사라져서 세존 앞에 나타났다.

Atha kho tā devatā Bhagavantam abhivādetvā ekamantaṃ atṭṭhaṃsu,

아타 코 따~ 데와따~ 바가완땅 아비와~데따와~ 에까만땅 앗탕수,

그리하여 그 신들은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섰다.

ekamantaṃ thitā kho ekā devatā Bhagavato santike imaṃ gātham abhāsi.

에까만땅 티따~ 코 에까~ 데와따~ 바가와또 산띠께 이땅 가~탕 아바~시.

한 곁에 서서 어떤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계송을 읊었다.

"Mahā-samayo pavanasmim deva-kāyā samāgatā.

마하~ 사마요 빠와나사밍 데와 까~야~ 사마~가타~,

“이 숲에 큰 회합이 있습니다. 신들의 무리가 모였고,

Āgatamha imaṃ dhamma-samayaṃ dakkhitāyeva aparājita-saṅghanti."

아~가따마 이땅 담마 사마양 닥키따~예와 아빠라~지따 상간띠.

이런 법다운 회합에 우리도 왔습니다. 멀하지 않는 상가를 친견하기 위해서.”

Atha kho aparā devatā Bhagavato santike imaṃ gātham abhāsi.

아타 코 아빠라~ 데와따~ 바가와또 산띠께 이땅 가~탕 아바~시.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계송을 읊었다.

"Tatra bhikkhavo samādahaṃsu,

따따라 빅카오 사마~다항수,

“여기 삼매에 든 비구들은

cittaṃ attano ujukam-akaṃsu,

짚땅 앗타노 우주까 마깁수,

자신의 마음을 곧게 합니다.

Sārathī va nettāni gahetvā,

사~라티~ 와 넷따~니 가헤따와~,

Indriyāni rakkhanti paṇḍitāti."

인~다리아~니 락칸띠 빠~디따~띠.

마부가 고삐를 쥐고서 그리하듯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각기능들을 보호합니다.”

Atha kho aparā devatā Bhagavato santike imaṃ gātham abhāsi:

아타 코 아빠라~ 데와따~ 바가와또 산띠께 이땅 가~탕 아바~시:

그 이후, 또 다른 신이 세존 앞에서 다른 계송을 읊었다.



"Chetvā khīlaṃ chetvā palighaṃ, Inda-khīlaṃ ohaccaṃ-anejā,
체따와~ 킬~랑 체따와~ 팔리강, 인다 킬~랑 오하짜 마네자~

“황무지를 가로질러, 역경을 극복하고, 인드라의 기둥을 뿌리 뽑아 옮기자.

Te caranti suddhā vimalā, Cakkhumatā sudantā susū-nāgāti."
떼 짜란띠 숫다~ 위말라~, 찡꾸마따~ 수단따~ 수수~ 나~가~띠.

그들은 순수하고 오염없이 유행했다. 젊은 용들이 안목을 가진 이들에 의해 잘 길들여졌습니다.”

Atha kho aparā devatā Bhagavato santike imaṃ gāthaṃ abhāsi.
아타 코 아파라~ 데와따~ 바가와또 산띠께 이망 가~탕 아바~시.

이번에는 다른 신이 세존 앞에서 이런 계송을 읊었다.

"Ye keci Buddhāṃ saraṇaṃ gatāse, Na te gamissanti apāya-bhūmiṃ,
예 께끼 붓당 사라낭 가따~세, 나 떤 게미산띠 아빠~야 부~밍,

“부처님을 의지처로 하는 사람들은 악처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Pahāya mānuṣaṃ dehaṃ, Deva-kāyaṃ paripūressantīti."
빠하~야 마~누상 데함, 데와 카~이양 빠리부~렛산띠~띠.

인간의 몸을 버린 후, 신의 성체(聖體)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Atha kho Bhagavā bhikkhu āmantesi,
아타 코 바가와~ 빅쿠 아~만테시,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Yebhuyyena bhikkhave dasasu loka-dhātūsu devatā sannipatitā honti. ~ (이어짐)
예부이예나 빅카웨 다사수 로까 다~뚜~수 데와따~ 산니빠띠따~ 혼띠.

Tathāgatam dassanāya bhikkhu-saṅghaṇca.
따타~가따~ 닷사나~야 빅쿠 상간짜.

“비구들이여, 주로 10 곳의 세계에서 신들이 여래와 비구 상가를 친견하기 위해 모였다.

Yepi te bhikkhave ahesuṃ atītaṃ-addhānaṃ arahanto sammā-sambuddhā,
예삐 떤 빅카웨 아헤송 아띠~따 맛다~낭 아라한또 삼~마 삼뵓다~,

비구들이여, 마치 지금 나에게 [열 군데의 세계에서 신들이 온 것처럼],

Tesampi Bhagavantānaṃ eta-paramāyeva devatā sannipatitā ahesuṃ,
테삼삐 바가완따~낭 에따 빠라마~예와 데와따~ 산니빠띠따~ 아헤송,

과거세의 아라한 · 정등각들인 그 부처님들께도 이 만큼의 최대로 많은 신들이 모였었다.

Seyyathāpi mayhaṃ etarahi.
세이야타~삐 마이함 에따라히.

이와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Yepi te bhikkhave bhavissanti anāgataṃ-addhānaṃ arahanto sammā-sambuddhā,
예삐 떤 빅카웨 바윗산띠 아나~가따 맛다~낭 아라한또 삼마~ 삼뵓다~,

마치 지금 나에게 [열 군데의 세계에서 신들이 온 것처럼]



Tesampi Bhagavantānaṃ eta-paramāyeva devatā sannipattitā bhaviṣṣanti,
데삼삐 바가완따~낭 에따 빠라마~예와 데와따~ 산니빳띠따~ 바윗산띠,
 미래세의 아라한 · 정등각들인 그 부처님들께도

Seyyathāpi mayhaṃ etarahi.
세이야타~삐 마이항 에따라히.
 이 만큼의 최대로 많은 신들이 모일 것이다.

Ācikkhissāmi bhikkhave deva-kāyānaṃ nāmāni,
아~쩍킷사~미 빅카웨 데와 까~야~낭 나~마~미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신들의 이름들을 묘사할 것이다.

Kittayissāmi bhikkhave deva-kāyānaṃ nāmāni,
킷따잇사~미 빅카웨 데와 까~야~낭 나~마~미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신 무리들의 이름을 설명할 것이다.

Desissāmi bhikkhave deva-kāyānaṃ nāmāni.
데싯사~미 빅카웨 데와 까~야~낭 나~마~미.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신 무리들의 이름을 가르칠 것이다.

Taṃ sunātha sādhukaṃ manasikarotha bhāṣissāmīti.
땅 수나~타 사~두깡 마나시까로타 바~싯사~미~띠.
 주의 깊게 들어라. 이제 나는 설할 것이다.”

“Evam-bhanteti” kho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m,
에웜 반떼띠 코 떤 데 빅꾸~ 바가와또 뵈뵈소쑤,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Bhagavā etad-avoca:
바가와~ 에따 다오짜: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Silokam-anukassāmi, Yattha bhumkā tadassitā,
실로까 마누갓사~미, 얏타 붐까~ 따닷시따~,
 “그들이 머무는 영역에 따라 나는 찬양하는 시로서 밝히리라.

Ye sītā giri-gabbharam, Pahitattā samāhitā.
예 시~따~ 기리 갇바랑, 빠히따따~ 사마~히따~.
 많은 [비구들은] 산의 동굴에 의지하여 자신을 독려하고 삼매에 들었으며

Puthū sīhāva sallīnā, Loma-hamsāhisambhuno,
뿌투~ 시~하~와 살리~나~, 로마 항사~히삼부노,
 마치 사자처럼 움직임 없고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을 극복했다.

Odāta-manasā suddhā, Vip̐pasannāṃ-anāvilā.
오다~따 마나사~ 슯다~, 윽빠산나~ 마나~윽라~.
 그들의 마음은 희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혼란하지 않았다.



Bhiyyo pañca-sate ñatvā, Vane Kāpilavatthave,
비이요 반짜 사떼 나따와~ 와네 까~벨라왓타웨,
 까벨라왓투의 숲에 500명이 넘는 [아라한들이] 모였다.

Tato āmantayī, Satthā sāvake sāsane rate.
따또 아~만파이, 샷타~ 사~와께 사~사네 라떼.
 그분의 가르침에 환희하는 제자들에게 스승은 말씀하셨다.

'Deva-kāyā abhikkantā, Te vijānātha bhikkhavo.'
데와 까~야~ 아빅칸따~, 떤 위자~나~타 빅카오.
 ‘신들의 무리가 왔다. 비구들은 [천안으로] 보라.’

Te ca ātappam-akarum. Suttvā Buddhassa sāsanaṃ.
떼 짜 아~땡빠 마까룽. 수따와~ 붓닷사 사~사낭.
 그 [비구]들은 부처님의 교법을 들으면서 주의를 기울였다.”

Tesam pāturahu ñāṇaṃ, Amanussāna dassanaṃ,
테삼 빠~뚜라후 나낭, 아마눗사~나 닷사낭
 “비인간[신들]을 보는 앎이 그들에게 드러나서,

Appeke satam-addakkhum, Sahassaṃ atha sattarim,
압베께 사따 맛닥쿱, 사합삼 아타 샷타링,
 어떤 분들은 백 명을 보았고, 어떤 분들은 천명,

Sataṃ eke sahassānaṃ, Amanussānaṃ-addasaṃ,
사따ṃ 에께 사합사~낭, 아마눗사~나 맛다승,
 어떤 분들은 칠만 명을, 어떤 분들은 십만 명의 [신]들을 보았으며,

Appeke'nantam-addakkhum, Disā sabbā bhuṭā ahuṃ.
압베께난따 맛닥쿱, 디사~ 삽바~ 부따~ 아홍.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사방에 넘쳐나는 셀 수없는 신들을 보았다.

Taṅca sabbam abhiññāya, Vavatthitvāna cakkhumā,
판짜 삽방 아비냐~야, 와왓티따와~나 짝쿠마~,
 그리고 이 모두를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상세하게 설명한 뒤

Tato āmantayī, Satthā sāvake sāsane rate.
따또 아~만파이~, 샷타~ 사~와께 사~사네 라떼.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눈을 가진 스승은 말씀하셨다.

"Deva-kāyā abhikkantā, Te vijānātha bhikkhavo,
데와 까~야~ 아빅칸따~, 떤 위자~나~타 빅카오,
 ‘신들의 무리가 와 있다. 그대 비구들은 [천안으로] 감지해야 한다.

Ye vo'haṃ kittayissāmi, Girāhi anupubbaso."
예 오항 깃따잇사~미, 기라~히 아누뵤바소.
 이제 나는 그대(비구)들에게 계승으로 차례대로 묘사할 것이다.”

Satta-sahassā te yakkhā, bhumma Kāpilavatthavā,
샷타 사합사~ 떤 약카~, 불마~ 까~벨라왓타와~,
 “7,000의 약카들은 까벨라왓투가 그 영역이다.



Iddhimanto jutimanto, Vaṇṇ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용모를 갖추고 명성을 가졌으니

Modamānā abhikkāmu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룽, 빅쿠~낭 사미띩 와낭.

그들은 기뻐하면서 비구들의 숲속 회중으로 다가 왔다.

Cha-sahassā hemavatā, Yakkhā nānatta-vannino.

차 사합사~ 헤마와따~, 약카~ 나~낫따 완니노

6,000의 히말라야의 약카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졌고,

Iddhimanto jutimanto, Vaṇṇ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용모를 갖추고 명성을 가졌으니.

Modamānā abhikkāmu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룽, 빅쿠~낭 사미띩 와낭.

그들은 기뻐하면서 비구들의 숲속 회중으로 다가 왔다.

Sātāgirā ti-sahassā, Yakkhā nānatta-vannino,

사~따~기라 띠 사합사, 약카~ 나~낫따 완니노,

사타 산에서 온 3,000의 약카들은 다양한 색깔이며,

Iddhimanto jutimanto, Vaṇṇ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u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룽, 빅쿠~낭 사미띩 와낭.

Iccete soḷasa-sahassā, Yakkhā nānatta-vannino

잇째떼 솔라사 사합사~, 약카~ 나~낫따 완니노

이와 같이 16,000의 약카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졌고,

Iddhimanto jutimanto, Vaṇṇ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u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룽, 빅쿠~낭 사미띩 와낭.

Vessāmittā pañca-satā, Yakkhā nānatta-vannino,

웬사~밋따~ 반짜 사따~, 약카~ 나~낫따 완니노,

“웬사밋따에서 온 500의 약카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졌고..

Iddhimanto jutimanto, Vaṇṇ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u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룽, 빅쿠~낭 사미띩 와낭.



Kumbhīro Rājagahiko, Vepullassa nivesanam,
 꿈비~로 라~자가히꼬, 웨뿔랏사 니웨사낭,
 웨뿔라 산에 거주하는 꿈비라 [약카]는 라자가하에서 왔다.

Bhiyyo nam sata-sahassam, Yakkhānam payirupāsati.
 비이요 낭 사따 사핫사낭, 약카~낭 빠이루빠~사띠.
 십만 명이 넘는 약카들이 그를 뒤따라 왔나니,

Kumbhīro Rājagahiko, Sopāga samitiṃ vanam.
 꿈비~로 라~자가히꼬, 소빠~가 사미띵 와낭.
 라자가하에서 온 그 꿈비라도 비구들의 숲속 회중으로 다가 왔다.”

Purimañca disaṃ rājā, Dhataratṭho pasāsati.
 뿌리만짜 디상 라~자~, 다타랏토 빠사~사띠.
 다타랏타 왕은 동쪽 방위를 통치했고,

Gandhabbānam ādhipati, Mahārājā yasassi so.
 간담바~낭 아~디빠띠, 마하~라~자~ 야삿시 소.
 간담바들의 주인이고, 대왕이며 명성을 가졌다.

Puttāpi tassa bahavo, Inda-nāmā mahabbalā,
 뽏따~삐 땃사 바하오, 인다나~마~ 마합발라~,
 그의 많은 아들들은 인드라라 불렀고 큰 힘을 가졌으며,

Iddhimanto jutimanto, Vann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um, Bhikkhūnam samitiṃ vanam.
 모다마~나~ 아빅까~똥, 빅쿠~낭 사미띵 와낭.

Dakkhinañca disaṃ rājā, Virūḷho tappasāsati,
 닥키난짜 디상 라~자~, 위룰~로 탐빠사~사띠,
 위룰하 왕은 남쪽 방위를 통치했고

Kumbhanthānam ādhipati, Mahārājā yasassi so.
 꿈반타~낭 아~디빠띠, 마하~라~자~ 야삿시 소.
 꿈반다들의 주인이고, 대왕이며 명성을 가졌다.

Puttā pi tassa bahavo, Inda-nāmā mahabbalā,
 뽏따~삐 땃사 바하오, 인다나~마~ 마합발라~,
 그의 많은 아들들은 인드라란 이름이고 큰 힘을 가졌으며,

Iddhimanto jutimanto, Vann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um, Bhikkhūnam samitiṃ vanam.
 모다마~나~ 아빅까~똥, 빅쿠~낭 사미띵 와낭.

Pacchimañca disaṃ rājā, Virūpakkho pasāsati,
 빠치만짜 디상 라~자~, 위루~빠꼬 빠사~사띠,
 위루빠카 왕은 서쪽 방위를 통치했고



Nāgānaṃ ādhipati, Mahārājā yasassi so.
 나~가~낭 아~디~빠띠, 마하~라~자~ 야~삿시 소.
 용들의 주인이요, 대왕이며 명성을 가졌다.

Puttāpi tassa bahavo, Inda-nāmā mahabbalā,
 뽏따~삐 땃사 바하오, 인다나~마~ 마합발라~,
 그의 많은 아들들은 인드라라 불렸고 큰 힘을 가졌으며 ...

Iddhimanto jutimanto, Vaṇṇ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a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룽, 빅쿠~낭 사미띵 와낭.

Uttarañca disaṃ rājā, Kuvero tappasāsati,
 웃따란짜 디상 라~자~, 구웨로 땃빠사~사띠,
 구웨라 왕은 북쪽 방위를 통치했고,

Yakkhānaṃ ādhipati, Mahārājā yasassi so.
 약카~낭 아~디~빠띠, 마하~라~자~ 야~삿시 소.
 약카들의 주인이요, 대왕이며 명성을 가졌다.

Puttāpi tassa bahavo, Inda-nāmā mahabbalā,
 뽏따~삐 땃사 바하오, 인다나~마~ 마합발라~,
 그의 많은 아들들은 인드라라는 이름으로 큰 힘을 가졌으며, ...

Iddhimanto jutimanto, Vaṇṇ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a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룽, 빅쿠~낭 사미띵 와낭.

Purima-disaṃ Dhataratṭho, Dakkhinena Virūḥako,
 뿌리마 디상 다따랏토, 닥키네나 위를~라꼬.
 동쪽의 다타랏타, 남쪽의 위를하,

Pacchimena Virūpakkho, Kuvero uttaram disaṃ.
 뽏치메나 위루~빠꼬, 구웨로 웃따람 디상.
 서쪽의 위루빠카, 북쪽의 구웨라,

Cattāro te Mahārājā, Samantā caturo disā,
 찏따~로 떤 마하~라~자~, 사만따~ 찏뚜로 디사~,
 그들 네 명의 대천왕은 네 방위 전체에서

Daddallamānā atṭhamsu, Vane Kāpilavatthave.
 닷달라마~나~ 앗탕수, 와네 까~뽀라왓타웨.
 광명을 내뿜으면서 까뽀라왓투의 숲에 서 있었다.”

Tesaṃ māyāvino dāsā, Āgū vañcanikā sathā,
 떤상 마~야~위노 다~사~, 아~구~ 완짜니까~ 사타~,
 “간계를 가졌으며 속임수에 능하고 교활한 그들의 수하들도 왔나니



Māyā Kuṭeṇḍu Veṭeṇḍu, Viṭū ca Viṭuto saha,
 마~야~ 꾸뎨두 웨뎨두, 위뚜~ 짜 위뚜또 사하,
 간교한 꾸뎨두, 웨뎨두, 위뚜, 위뚜따와 함께

Candano Kāma-seṭṭho ca, Kinnughaṇḍu Nighaṇḍu ca,
 찐다노 까~마 섯토 짜, 낌누간두 니간두 짜,
 찐다나, 까마섯타, 낌누간두, 니간두가 왔다.

Panādo Opamañño ca, Deva-sūto ca Mātali,
 빠나~도 오빠만노 짜, 데와 수~또 짜 마~팔리,
 빠나다, 오빠만나와, 신들의 마부인 마팔리,

Cittaseno ca gandhabbo, Nalo rājā Janosabho,
 찿따세노 짜 간답보, 날로 라~자~ 자노사보,
 간답바인 찿따세나, 날라 왕, 자네사바

Āgū Pañcasikho ceva, Timbarū Suriyavaccasā,
 아~구~ 뽀짜시코 켜와, 땸바루~ 수리아왓짜사~,
 뽀자시카, 땸바루, 수리아왓짜사가 왔다,

Ete caññe ca rājāno, Gandhabbā saha rājubhi,
 에떼 찿네 짜 라~자~노, 간답바~ 사하 라~주비,
 이들 왕들과 함께 다른 간답바의 왕들도

Modamānā abhikkāma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m.
 모다마~나~ 아빅까~똥, 빅꾸~낭 사미땡 와낭.
 그들도 기뻐하면서 비구들을 보기 위해 숲으로 왔다.”

Athāgū Nābhasā nāgā, Vesālā saha Tacchakā,
 아타~구~ 나~바사~ 나~가~, 웨살~라~ 사하 땃차까~,
 “나바사, 웨살리, 땃차까 용들도 왔고,

Kambal'Assatarā āgū, Pāyāgā saha ñātibhi.
 캄발랏사따라~ 아~구~, 빠~야~가~ 사하 나~띠비.
 캄발라, 앓사따라 용들이 왔고, 빠야가 용들이 친척들과 함께 왔고

Yāmunā Dhataratthā ca, Āgū nāgā yasassino,
 야~무나~ 다따랏타~ 짜~, 아~구~ 나~가~ 야삿시노,
 야무나에 사는 용들과 다따랏타 용들의 명성있는 용들이 왔으며,

Erāvanno mahānāgo, Sop'āga samitiṃ vanam.
 에라~완노 마하~나~고, 소빠~가 사미땡 와낭.
 위대한 용의 에라완나 역시 비구들을 보기 위해 숲으로 왔다.”



Ye nāga-rāje sahasā haranti, Dibbā dijā pakkhi visuddha-cakkhu,
 예 나~가라~제 사하사~ 하란띠, 딥바~ 디자~ 빠키 위숫다 짝쿠,
 “용왕을 낚아채는, 청정한 눈을 가진 신성한 [가루다]새들,

Vehāsayā te vana-majjha-pattā, Citrā Supannā iti tesa'nāmaṃ.
 웨하~사야~ 떼 와나 맛자 뽏따~, 찌따라~ 수뽏나~ 이띠 떼사나~망.
 그들도 하늘을 날아서 숲의 가운데에 도착했나니, 찌따라와 수뽏나가 그들의 이름이다.

Abhayantadā nāga-rājā namāsi, Supannato khemam-akāsi Buddho,
 아바얀따다~ 나~가라~자~ 나마~시, 수뽏나또 케마마까~시 붓도,
 그때 용왕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나니, 부처님께서 수뽏나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Sanhāhi vācāhi upavahayantā, Nāgā Supannā saranam-agamsu buddham.
 산하~히 와~짜~히 우빠와하얀따~, 나~가~ 수뽏나~ 사라나 마강수 붓당.
 부드러운 말을 나누면서 나가들과 수뽏나들은 부처님께 의지했다.”

Jitā vajira-hatthena samuddaṃ asurā sitā,
 지따~ 와지라 핫테나 사뭇당 이수라~ 시따~,
 “벼락을 손에 든 [인드라]에게 패한 바다에 사는 이수라들도 왔나니

Bhātaro Vāsavassete, Iddhimanto yasassino.
 바~따로 와~사왓세떼, 잇디만또 야삿시노.
 그들은 와사와의 형제들이며 신통을 갖추고 명성을 가졌다.

Kālakañjā mahābhismā, Asurā Dānaveghasā,
 깔~라깐자~ 마하~비사마~, 이수라~ 다~나웨가사~,
 아주 무시무시한 깔라깐자들, 다나웨가사 이수라들

Vepacitti Sucitti ca, Pahārādo Namuci saha.
 웨빠찌띠 수찌띠~, 짜, 빠하~라~도 나무찌~ 사하.
 웨빠찌띠, 수찌띠와, 빠하라다, 나무찌도 함께 왔다,

Satañca Bali-puttānaṃ, Sabbe Veroca-nāmakā,
 사판짜 발리 뽏따~낭, 삽베 웨로짜 나~마까~,
 모두 웨로짜라는 이름을 가진 100명의 발리의 아들들,

Sannayhitvā balim senaṃ, Rāhu-bhaddam-upāgamuṃ,
 산나이히따와~ 발림 세낭, 라~후 뱃다 무빠~가뭇,
 이들은 용감한 군대를 데리고 [아수라의 왕] 라후에게 가서

‘Samayo’dāni bhaddante, Bhikkhūnaṃ samitaṃ vanam’.
 사마요다~니 뱃단떼, 빅꾸~낭 사미땡 와낭.
 ‘영광이 있으시기를’이라면서 오늘 모임은 비구들이 모인 숲입니다.”

Āpo ca devā Pathavī ca, Tejo Vāyo tad-āgamuṃ,
 아~보 짜 데와~ 빠타위~ 짜, 떼조 와~요 따다~가뭇,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의 신들도 거기에 왔으며

Varuṇā Vāruṇā devā, Somo ca Yasasā saha.
 와루나~ 와~루나~ 데와~, 소모 짜 야사사~ 사하.
 와루나들과 와루나에 속하는 신, 소마와 야사도 함께 왔다.



Mettā-karunā-kāyikā, Āgū devā yasassino.
 멧따~ 까루나~ 까~이까~, 아~구~ 데와~ 야삿시노.

자애를 몸으로 하고 연민을 몸으로 하는 명성을 가진 신들도 왔나니

Dasete dasadhā kāyā, Sabbe nānatta-vāṇṇino.
 다세떼~ 다사다~ 까~야~, 삽베 나~낫따 완니노.

열 곳에 있는 이들 열 무리의 [신]들은 모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졌으며....”

Iddhimanto jutimanto, Vāṇn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a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룽, 빅꾸~낭 사미띵 와낭.

Veṇḍu ca devā Sahalī ca, Asamā ca duve Yamā,
 웬두~ 짜 데와~ 사할리~ 짜, 아사마~ 짜 두웨 야마~,

“웬후(위슈누), 사할리와, 아사마, 쌍둥이 야마신,

Candassūpanisā devā, Candam-āgū purakkhitā.
 찐닷수~빠니사~ 데와~, 찐다 마~구~ 뿌락키타~.

달(moon)에 의지하는 신들은 달의 신을 앞세우고 왔으며,

Suriyassūpanisā devā, Suriyam-āgū purakkhitā,
 수리얏수~빠니사~ 데와~, 수리야 마~구~ 뿌락키타~,

태양(Suriya)에 의지하는 신들은 태양의 신을 앞세우고 왔으며,

Nakkhattāni purakkhitvā, Āgū mandavalāhaka,
 낙캇따~니 뿌락키타와~, 아~구~ 만다왈라~하까~,

별에 의지하는 신들은 별들을 앞세우고 왔으며, 먹구름의 신들도 [왔으며],

Vasūnaṃ Vāsavo seṭṭho, Sakkop'āga purindado.
 와수~낭 와~사오 셋토, 삭꼬빠~가 뿌린다도.

와수들 가운데 최상의 와사와인 삭까는 오래된 보시자인데 그도 왔나니,”

Dasete dasadhā kāyā, Sabbe nānatta-vāṇṇino,
 다세떼~ 다사다~ 까~야~, 삽베 나~낫따 완니노,

열 곳에 있는 이들 열 무리의 [신]들은, 모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졌으며,”

Iddhimanto jutimanto, Vāṇn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a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룽, 빅꾸~낭 사미띵 와낭.

Athāgū Sahabhū devā, Jalam-aggi-sikhāriva,
 아타~구~ 사하부~ 데와~, 잘라 막기 시카~리와,

“그러자 타오르는 불빛과 같은 광채를 가진 사하부 신들이 왔으며,

Ariṭṭhakā ca Rojā ca, Ummā-pupphanibhāsino.
 아릿타까~ 짜 로자~ 짜, 움마~ 뽀파니바~시노.

아릿타까들, 움마 꽃처럼 빛나는 로자 신들 왔다.



Varuṇā Sahadhammā ca, Accutā ca Anejakā
 와루나~ 사하담마~ 짜, 앓쭈따~ 짜 아네자까~,
 와루나, 사하담마 신들, 앓쭈따 신들, 아네자까 신들,

Sūleyya-Rucirā āgū, Āgū Vāsavanessino.
 술~레이야 루찌라~ 아~구~, 아~구~ 와~사와네시노.
 술래야 신들과 루찌라 신들이 왔으며, 와사와네시 신들도 왔나니,

Dasete dasadhā kāyā, Sabbe nānatta-vanṇino.
 다세떼 다사다~ 까~야~, 샅베 나~낫따 완니노.
 열 곳에 있는 이들 열 무리의 [신]들은, 모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졌으며,...”

Iddhimanto jutimanto, Vanṇ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a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똥, 빅꾸~낭 사미띵 와낭.

Samānā mahāsamānā, Mānusa mānussuttamā,
 사마~나~ 마하~사마~나~, 마~누사~ 마~누삿따마~,
 “사마나 신들, 마하사마나 신들, 마누사 신들, 마누삿따마 신들과,

Khiddā-padūsikā āgū, Āgū mano-padūsikā.
 킃다~ 빠두~시까~ 아~구~, 아~구~ 마노 빠두~시까~.
 유희로 타락한 [신]들도 왔고, 마음이 타락한 [신]들도 왔으며,

Athāgū Harayo devā, Ye ca Lohitavāsino,
 아타~구~ 하라요 데와~, 예 짜 로히따와~시노,
 하리신들과 로히따와신들도 왔으며,

Pāragā Mahāpāragā, Āgū devā yasassino.
 빠~라가~ 마하~빠~라가~, 아~구~ 데와~ 야삿시노.
 명성을 가진 빠라가 신들과 마하빠라가 신들도 왔나니,

Dasete dasadhā kāyā, Sabbe nānatta-vanṇino,
 다세떼 다사다~ 까~야~, 샅베 나~낫따 완니노,
 열 곳에 있는 이들 열 무리의 [신]들은, 모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졌으며,”

Iddhimanto jutimanto, Vanṇ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a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똥, 빅꾸~낭 사미띵 와낭.

Sukkā Karamhā Arunā, Āgū Vekhanasā saha,
 숙까~ 까람하~ 아루나~, 아~구~ 웨카나사~ 사하,
 “숙까 신들, 까람바 신들, 아루나 신들, 웨가나사들도 함께 왔다,

Odātagayhā pāmokkhā, Āgū devā Vicakkhanā.
 오다~따가이하~ 빠~목카~, 아~구~ 데와~ 위짜카나~.
 오다따가이하라는 뛰어난 신들과 위짜카나들도 왔으며,



Sadāmatthā Hāragajā, Missakā ca yasassino,
사다~맛따~ 하~라가자~, 밋사까~ 짜 야삿시노,
사다맛따들, 하라가자들, 명성을 가진 혼합된 [신]들,

Thanayaṃ āgā, Pajunno yo disā abhivassati.
타나양 아~가~, 빠준노 요 디사~ 아비왓사띠.
사방에 비를 내리는 빠준나 신도 그곳에 왔나니,

Dasete dasadhā kāyā, Sabbe nānatta-vāṇṇino,
다세떼 다사다~ 까~야~, 삽베 나~낫따 완니노,
열 곳에 있는 이들 열 무리의 [신]들은, 모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졌으며,...

Iddhimanto jutimanto, Vāṇn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a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뭉, 빅꾸~낭 사미띵 와낭.

Khemiya Tusitā Yāmā, Katthakā ca yasassino,
케미야~ 투시따~ 야~마~, 갓타까~ 짜 야삿시노,
“케미야 신들, 투시따 신들, 야마 신들, 명성을 가진 갓타까 신들,

Lambitakā Lāmasetthā, Jotināmā ca āsavā,
람비따까~ 라~마셋타~, 조띠나~마~ 짜 아~사와~,
람비따까 신들, 라마셋타 신들, 조띠(광명)라는 [신들], 희망의 [신들],

Nimmānaratino āgū, athāgū Paranimmitā.
님마~나라띠노 아~구~, 아타~구~ 빠라님미따~.
화락천들도 왔고 타화자재천들도 왔나니

Dasete dasadhā kāyā, Sabbe nānatta-vāṇṇino,
다세떼 다사다~ 까~야~, 삽베 나~낫따 완니노,
열 곳에 있는 이들 열 무리의 [신]들은, 모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졌으며,”

Iddhimanto jutimanto, Vāṇnavanto yasassino.
잇디만또 주띠만또, 완나완또 야삿시노

Modamānā abhikkāmaṃ, Bhikkhūnaṃ samitiṃ vanaṃ.
모다마~나~ 아빅까~뭉, 빅꾸~낭 사미띵 와낭.

Satthete deva-nikāyā, Sabbe nānatta-vāṇṇino,
삿테떼 데와 니까~야~, 삽베 나~낫따 완니노,
이들 60의 천신 무리들은 모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졌으며,

Nāmanvayena āgañchum, Ye caññe sadisā saha.
나~만와예나 아~간쵡, 예 찼네 사디사~ 사하.

이름에 따라 무리지어 왔으며, 다른 [신]들도 이런 방법으로 함께 왔다.



'Pavuttha-jātim-akhīlam, Ogha-tinnam-anāsavam,
 빠웃타 자~피 마키~랑, 오가 띤나 마나~사왕,
 ‘태어남을 넘어선 [성자들의 상가는] 완전히 격류를 건넜고

Dakkhe moghataram nāgam, Candam va asitātigam.'
 닥케 모가따랑 나~강, 찐당 와 아시따~피강.
 번뇌가 없으니,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은 분을 우리는 뵙고자 합니다.’

Subrahmā Paramatto ca, Puttā iddhimato saha,
 수브라마~ 빠라맛또 짜, 뵈따~ 잇디마또 사하,
 “신통력 있는 분의 아들들인 수브라마, 빠라맛따,

Sanaikumāro Tisso ca, Sop'āga samitīm vanam.
 사낭꾸마~로 띠소 짜, 소빠~가 사미팅 와낭.
 그들도 사낭꾸마라, 띠사와 함께 비구들을 보기 위해 숲으로 왔고,

Sahassa-brahma-lokānam, Mahā-brahmābhitiṭṭhati,
 사합사 브라마 로까~낭, 마하~ 브라마~비뵈타피,
 천의 범천을 다스리는 대범천도 있어서,

Upapanno jutimanto, Bhismā-kāyo yasassi so.
 우빠반노 주피만또, 비사마~ 까~요 야삿시 소.
 광채를 가지고 무서운 몸을 가졌으며, 명성을 가진 그도 도착했나니,

Dasettha issarā āgū, Pacceka-vasavattino,
 다셋타 잇사라~ 아~구~, 빠찌까 와사왓피노,
 여기에 각각의 [범천의 세상을] 다스리는 열 명의 지배자들도 왔으니,

Tesañca majjhato āgā, Hārīto parivārīto."
 테산짜 맛자또 아~가~, 하~리또 빠리와~리또.
 그들의 가운데에 둘러싸여서 하리따 신도 왔다.”

Te ca sabbe abhikkante, S'inde deve sabrahmake,
 떤 짜 삽베 아빅간떼, 신데 데웨 사브라마께,
 “인드라와 범천을 포함한 그 모든 신들이 도착하였고 마라의 군대들도 왔다.

Mārasenā abhikkāmi, Passa kaṇhassa mandiyam.
 마~라세나~ 아빅까~미, 빠사 칸합사 만디양.
 보라, 검은 [마라]의 몽매함을! [마라]가 그의 수행원들에게 말했다.

"Etha ganhatha bandhatha, Rāgena bandhamatthu vo,
 에타 간하타 반다타, 라~게나 반다맛투 오,
 ‘[이 모든 신들의 무리들을] 잡아서 밧줄로 묶어라. 그들에게 애욕의 올가미를 씌워라.

Samantā parivāretha, Mā vo muñcittha koci nam."
 사만따~ 빠리와~레타, 마~ 오 문췌타 꼬찌 낭.
 사방으로 포위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Iti tattha mahāseno, Kaṇha-senam apesayi,
 이피 띠타 마하~세노, 칸하 세낭 아페사이,
 이렇게 하여 큰 군대를 가진 검은 [마라]는 그의 군대를 보냈다.



Pāninā talam-āhacca, Saram katvāna bheravam.
 빠~니나~ 딸라 마~핫짜, 사랑 까따와~나 베라왕.

마치 억수같은 비구름과 천둥과 벼락처럼 손으로 땅바닥을 두드리고

Yathā pāvussako megho, Thanayanto savijjuko.
 야타~ 빠~웃사꼬 메고, 타나얀또 사윗주꼬.

공포의 소리를 내면서 그는 격노하였지만

Tadā so paccudāvatti, Saṅkuddho asayaṃ-vase.
 따다~ 소 뱃쭈다~왓띠, 상궂도 아사양 와세.

그러나 힘을 잃고 되돌아갔다.”

Taṇca sabbam abhiññāya, Vavakkhivāna cakkhumā,
 판짜 삽방 아빈냐야, 와왓키따와~나 짝쿠마~,

“그리고 눈을 가지신 분께서 이 모두를 최상의 지혜로 알고 상세하게 설명한 뒤,

Tato āmantayī, Satthā sāvake sāsane rate,
 따또 아~만파이~, 샛타~ 사~와께 사~사네 라떼,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눈을 가진 스승은 말씀하셨다.

"Māra-senā abhikkantā, Te vijānātha bhikkhavo."
 마~라 세나~ 아빅칸따~, 떼 위자~나~타 빅카오.

‘[마라]의 군대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비구들이여 주의하라!’라고.

Teca ātappam-akarum, Sutvā Buddhassa sāsanaṃ.
 떼짜 아~땨빠 마까룽, 수따와~ 뽏닷사 사~사낭.

그 [비구들]은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서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였다.

Vitarāgehi pakkāmuṃ, Nesaṃ lomampi iñjayuṃ.
 위~따라~게히 빠까~뭉, 네상 로맘삐 인자웁.

[마라의 군대는] 애욕을 벗어난 자들로부터 물러갔고, 그 [비구]들은 적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떨쳐냈다.

Sabbe vijjita-saṅgāmā, Bhayātītā yasassino,
 삽베 위지따 상가~마~, 바야~띠~따~ 야삿시노,

그들 모두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두려움을 여의고, 명성을 날리는,

Modanti saha bhūtehi, Sāvakā te janesutāti.
 모단띠 사하 부~떼히, 사~와까~ 떼 자네수따~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 제자들은 모든 존재들과 함께 기뻐하였다.”

[D20, 대회경]



8. 사띠(알아차림)의 확립 계송(*Satipaṭṭhana-pāṭha*)

[*Atthi kho tena*] *Bhagavatā jānatā passatā arahatā sammā-sambuddhena.*
[앗티 코 떤나] 바가와따~ 자~나따~ 뵤사따~ 아라하따~ 삼마~ 삼뵤데나,
 아시는 분, 보시는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세존께서.

Ekāyano ayaṃ maggo sammadakkhāto, sattānaṃ visuddhiyā,
에까~야노 아양 막고 삼마닥카~또, 샛따~낭 위숫디아~
 이것이 직접적으로 도에 이르는 것이라 천명하셨다.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soka-paridevānaṃ samatikkamāya, dukkha-domanassānaṃ atthaṅgamāya,
소까 빠리데와~낭 사마딕까마~야, 둑카 도마닛사~낭 앗탕가마~야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ñāyassa adhigamāya, nibbānassa sacchikiriyāya.
냐~얏사 아디가마~야, 님바~닛사 샛치끼리야~야
 성스러운 도를 성취하게 하고, 열반을 체험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Yadidaṃ cattāro sati paṭṭhānā. Katame cattāro?
야디당 찢따~로 사띠 뵤타~나~. 까따메 찢따~로?
 비구들이여, 네 가지 사띠를 확립하는 것이다. 무엇이 네가지인가?

Idha bhikkhu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이다 빅쿠 까~예 까~야~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 내부와 몸 자체를 집중하면서 머무르고, (몸에 대한 집중)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 domanassaṃ.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위네이야 로께 아빃자~ 도마닛상.
 세상에 대한 탐심과 근심을 가라앉히며,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노력하면서, 몸을 사띠한다.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웨다나~수 웨다나~누뵤시~ 위하라띠,
 수(受)들 안에서 그리고 그 자체들의 특질에 집중하며 머무르고, (수(受)에 대한 집중)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 domanassaṃ.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위네이야 로께 아빃자~ 도마닛상.
 세상에 대한 탐심과 근심을 가라앉히며,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노력하면서, 수(受)를 사띠한다.

Citte cittānupassī viharati,
찢떼 찢따~누뵤시~ 위하라띠,
 마음 안에서 그리고 그 자체들의 특질에 집중하며 머무르고, (마음에 대한 집중)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 domanassaṃ.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위네이야 로께 아빃자~ 도마닛상.
 세상에 대한 탐심과 근심을 가라앉히며,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노력하면서, 마음을 사띠한다.



Dhammesu dhammānupassī viharati,
담메수 담마~누뵤시~ 위하라띠,

담마 안에서 그리고 그 자체들의 특질에 집중하며 머무르고, (법에 관한 집중)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위네이야 로께 아뵤자~ 도마낏상

세상에 대한 탐심와 근심을 가라앉히며,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노력하면서, 담마를 사띠한다.

Kathaṇ-ca bhikkhu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까탄 짜 빅쿠 까~예 까~야~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들이여, 어떻게 몸의 내부와 몸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무는 것인가?

Idha bhikkhu ajjhattaṃ vā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이다 빅쿠 앗자따 와~ 까~예 까~야~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는 내적으로 몸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bahiddhā vā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바히따~ 와~ 까~예 까~야~누뵤시~ 위하라띠,

또는 외부적으로 몸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ajjhatta-bahiddhā vā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앗자따 바히따~ 와~ 까~예 까~야~누뵤시~ 위하라띠,

또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몸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samudaya dhammānupassī vā kāyasmim viharati,
사무다야 담마~누뵤시~ 와~ 까~야사뵤 위하라띠,

또는 몸과 관련하여 일어난 현상에 집중하며 머문다.

vaya-dhammānupassī vā kāyasmim viharati,
와야 담마~누뵤시~ 와~ 까~야사뵤 위하라띠,

몸과 관련된 현상의 사라짐에 집중하며 머문다.

samudaya-vaya-dhammānupassī vā kāyasmim viharati.
사무다야 와야 담마~누뵤시~ 와~ 까~야사뵤 위하라띠,

또는 몸과 관련하여 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집중하며 머문다.

‘Atthi kāyoti’vā panassa sati paccupaṭṭhitā hoti.
앗티 까~요띠와~ 빠낏사 사띠 뵤쑤뵤띠따~ 호띠.

또는 여기 ‘몸이 있다’라고 사띠가 현전한다.

Yāvadeva ñāṇa-mattāya paṭissati-mattāya,
야~와데와 나~나 맛따~야 빠뵤사띠 맛~따야,

단지 알고 기억하는 정도만큼, 비구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anissito ca viharati na ca kiñci loke upādiyati.
아닛시또 짜 위하라띠 나 짜 깐찌 로께 우빠~디아띠,

세간에서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고) 머문다.



Evam kho bhikkhu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에왕 코 빅쿠 까~예 까~야~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몸의 안과 몸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Kathaṇ- ca bhikkhu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까탄 짜 빅쿠 웨다나~수 웨다나~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들이여, 어떻게 자신의 안의 수(受) 또는 수(受)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무는 것인가?

Idha bhikkhu ajjhataṃ vā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이다 빅쿠 앓자땅 와~ 웨다나~수 웨다나~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는 자신의 수(受)를 내적으로 그리고 수(受)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bahiddhā vā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바히다~ 와~ 웨다나~수 웨다나~누뵤시~ 위하라띠,

또는 외적으로 수(受)를 그리고 수(受)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ajjhata- bahiddhā vā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앓자땅 바히다~ 와~ 웨다나~수 웨다나~누뵤시~ 위하라띠

또는 수(受)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양면으로 집중하면서 머문다.

samudaya- dhammānupassī vā vedanāsu viharati.

사무다야 담마~누뵤시~ 와~ 웨다나~수 위하라띠,

또는 수(受)와 관련된 현상(담마)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집중하며 머문다.

vaya- dhammānupassī vā vedanāsu viharati.

와야 담마~누뵤시~ 와~ 웨다나~수 위하라띠,

수(受)와 관련된 현상(담마)의 사라짐을 집중하며 머문다.

samudaya- vaya- dhammānupassī vā vedanāsu viharati.

사무다야 와야 담마~누뵤시~ 와~ 웨다나~수 위하라띠,

또는 수(受)와 관련된 현상(담마)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집중하며 머문다.

‘Atthi vedanāti’ vā panassa sati paccupaṭṭhitā hoti.

앗티 웨다나~띠 와~ 빠낏사 사띠 뵤쑤뵤티따~ 호띠.

또는 여기 '수(受)가 있다'라고 사띠가 현전한다.

Yāvadeva ñāṇa- mattāya paṭissati- mattāya.

야~와데와 나~나 맛따~야 빠뵤사띠 맛~따야,

단지 알고 기억하는 정도만큼, 비구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anissito ca viharati na ca kiñci loke upādiyati.

아닛시또 짜 위하라띠 나 짜 긴찌 로께 우빠~디야띠.

세간에서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고) 머문다.

Evam kho bhikkhu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에왕 코 빅쿠 웨다나~수 웨다나~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수(受)의 안과 수(受)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Kathaṇ-ca bhikkhu citte cittānupassī viharati?
까탄 짜 빅쿠 췌떼 췌따~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들이여, 어떻게 마음을 내적으로 그리고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무는 것인가?

Idha bhikkhu ajjhataṃ vā citte cittānupassī viharati.
이다 빅쿠 앗자따 와~ 췌떼 췌따~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는 내적으로 마음과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bahiddhā vā citte cittānupassī viharati.
바히따~ 와~ 췌떼 췌따~누뵤시~ 위하라띠,

또는 외부적으로 마음과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ajjhata-bahiddhā vā citte cittānupassī viharati.
앗자따 바히따~ 와~ 췌떼 췌따~누뵤시~ 위하라띠,

또는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양면으로 마음과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samudaya-dhammānupassī vā cittasmiṃ viharati.
사무다야 담마~누뵤시~ 와~ 췌따사밍 위하라띠

또는 마음과 관련된 현상(담마)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집중하며 머문다.

vaya-dhammānupassī vā cittasmiṃ viharati.
와야 담마~누뵤시~ 와~ 췌따사밍 위하라띠.

마음과 관련된 현상의 사라짐에 집중하며 머문다.

samudaya-vaya-dhammānupassī vā cittasmiṃ viharati.
사무다야 와야 담마~누뵤시~ 와~ 췌따사밍 위하라띠.

또는 마음과 관련된 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집중하며 머문다.

'Atthi cittaṇṇi' vā paṇassa sati paccupaṭṭhitā hoti.
앗티 췌탄띠 와~ 빠ṇ사 사띠 뵤췌뵤티따~ 호띠.

여기 '마음이 있다'라고 사띠가 현전한다.

Yāvadeva ñāṇa-mattāya paṭissati-mattāya.
야~와데와 나~나 맛따~야 빠뵤사띠 맛~따야

단지 알고 기억하는 정도만큼, 비구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anissito ca viharati na ca kiñci loke upādiyati.
아닛시또 짜 위하라띠 나 짜 긴찌 로께 우빠~디아띠

세간에서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고) 머문다.

Evam kho bhikkhu citte cittānupassī viharati.
에왕 코 빅쿠 췌떼 췌따~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과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Kathaṇ-ca bhikkhu dhammesu dhammānupassī viharati?
까탄 짜 빅쿠 담메수 담마~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들이여, 어떻게 안으로 담마와 담마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무는 것인가?

Idha bhikkhu ajjhataṃ vā dhammesu dhammānupassī viharati.
이다 빅쿠 앗자따 와~ 담메수 담마~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는 안으로 담마와 담마 그 자체에 내적으로 집중하면서 머문다.



bahiddhā vā dhammesu dhammānupassī viharati.
바히따~ 와~ 담메수 담마~누뵤시~ 위하라띠,

또는 외부적으로 담마와 담마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ajjhatta-bahiddhā vā dhammesu dhammānupassī viharati.
앗자따 바히따~ 와~ 담메수 담마~누뵤시~ 위하라띠,

또는 안으로 외부적으로 양면으로 담마의 특성들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samudaya-dhammānupassī vā dhammesu viharati.
사무다야 담마~누뵤시~ 와~ 담메수 위하라띠,

또는 담마의 특성과 관련된 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집중하며 머문다.

vaya-dhammānupassī vā dhammesu viharati.
와야 담마~누뵤시~ 와~ 담메수 위하라띠.

또는 담마 특성과 관련된 현상의 사라짐에 집중하며 머문다.

samudaya-vaya-dhammānupassī vā dhammesu viharati.
사무다야 와야 담마~누뵤시~ 와~ 담메수 위하라띠,

또는 담마의 특성과 관련된 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집중하며 머문다.

'Atthi dhammāti' vā panassa sati paccupaṭṭhitā hoti.
앗티 담마~띠 와~ 빠낏사 사띠 뵤쑤뵤티따~ 호띠.

여기 '담마의 특성이 있다'라고 사띠가 현전한다.

Yāvadeva ñāṇa-mattāya paṭissati-mattāya.
야~와데와 나~나 맛따~야 빠뵤사띠 맛~따야,

단지 알고 기억하는 정도만큼, 비구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anissito ca viharati na ca kiñci loke upādiyati.
아닛시또 짜 위하라띠 나 짜 낀찌 로께 우빠~디아띠

세간에서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고) 머문다.

Evaṃ kho bhikkhu dhammesu dhammānupassī viharati.
에왕 코 빅쿠 담메수 담마~누뵤시~ 위하라띠.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담마와 담마 그 자체의 특성에 집중하면서 머문다.

Ayaṃ kho tena Bhagavatā jānatā passatā arahatā sammā-sambuddhena,
아양 코 떤나 바가와따~ 자~나따~ 뵤사따~ 아라하따~ 삼마~ 삼뵤데나,

아시는 분, 보시는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세존께서

ekāyano ayaṃ maggo sammadakkhāto,
에까~야노 아양 막고 삼마닥카~또,

이것이 직접적인 도에 이르는 것이라 천명하셨다.

sattānaṃ visuddhiyā,
삿따~낭 위숫디아~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soka-paridevānaṃ samatikkamāya,
소까 빠리데와~낭 사마뵤까마~야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dukkha-domanassānaṃ atthaṅgamāya,
 독카 도마낏사~낭 앗탕가마~야,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nibbānassa sacchikiriyaṃ,
 님바~낏사 샷치끼리야~야,

열반을 체험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바로 네 가지 사띠 확립이다.

ñāyassa adhigamāya,
 나~얏사 아디가마~야,

성스러운 도를 성취하게 하고,

yadidaṃ cattāro satipaṭṭhānā.
 야디당 찢따~로 사띠빳타~나~.

[*satipaṭṭhana sutta*에서 발췌]

Ekāyaṇaṃ jāti-khaya'anta-dassī,
 에까~야낭 자~띠 카얀따 닛시~,

태어남의 소멸을 보고 (중생의)이익을 위하여 연민심을 가진 분께서 유일한 이 길을 아셨다.

Etena maggena tarissu pubbe,
 에테나 막게나 따링수 뵘베,

그들은 이전에도 이 길을 따라 건넜고,

Maggam pajānāti hitānukampī.
 막강 빠자~나~띠 히따~누감삐~.

Tarissare c'eva taranti c'oghanti.
 따릿사레 켜와 따란띠 쪼간띠.

(미래에도)건널 것이며, (현재도)건너간다.

[*brahma sutta* SN 47.18 ; SN 47.43]



9. 재보(財寶)의 축적(*Nidhikaṇḍa-sutta-Gāthā*)

[*Nidhiṃ nidheti puriso,*]
[니딩 니데띠 뿌리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Atthe kicce samuppanne,
아테 깃께 사웁판네

재물이 필요할 때 꺼낸다면,

Rājato vā duruttassa,
라자또 와 두룻따사

만일 국가에 의해 피소되거나

Ḫassa vā pamokkhāya,
이낏사 와 빠목카야

부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Etadatthāya lokasmim,
에따닷타야 로까사밍

이와 같은 말 그대로의 목적들과 함께

Tāvassunihito santo,
따왓수니히또 산또

재물들을 아무리 훌륭히 감출지라도

Na sabbo sabbadāyeva,
나 삽보 삽바다예와

재물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질 않을 것이다.

Nidhi vā thānā cavatī,
니디 와 타나 짜와띠

재물이 사라지거나

Nāgā vā apanāmenti,
나가 와 아파나멘띠

용이 옮겨갈 수도 있고

Appiyā vāpi dāyādā,
압피야 와삐 다야다

넘겨주고 싶지 않는 상속자들이 몰래 파헤칠 수도 있다.

Yadā puññakkhayo hoti,
야다 뽀냐카요 호띠

한 사람의 공덕이 소진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

Yassa dānena sīlena,
얏사 다네나 실레나

누구나 관대함, 도덕

Gambhīre udakantike;
감비레 우다칸띠께

깊숙이 그리고 물 근처에 감추어

Atthāya me bhavissati.
아타야 메 바윳사띠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Corato pīlittassa vā;
쪼라또 뽀리따사 와

도적에게 압박을 받는다면

Dubbhikkhe āpadāsu vā;
뉘빅케 아빠다수 와

기근 또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Nidhi nāma nidhīyati.
니디 나마 니디야띠.

감추어진 재물들을 넘겨준다..

Gambhīre udakantike;
감비레 우다칸띠께

깊숙이 그리고 물 근처에 있을지라도

Tassa taṃ upakappati.
따사 땅 우빠까빠띠

Saññā vāssa vimuyhati;
산냐 왓사 위무이하띠;

감춰놓은 곳을 잊을 수도 있으며

Yakkhā vāpi haranti naṃ.
약카 와삐 하란띠 낭

약카들이 가져갈 수도 있으며

Uddharanti apassato;
웃다하란띠 아빳사또

Sabbametam vinassati.
삽바메땅 위낏사띠.

Saññamena damena ca;
산냐메나 다메나 짜

절제와 자제력으로



Nidhī sunihito hoti,
니디~ 수니히또 호띠

잘 보존된 재물은

Cetiyaṃhi ca saṅghe vā,
체띠얌히 짜 상게 와~

탑이나 상가에서나

Mātari pitari vāpi
마~파리 비파리 와~삐

부모님에게서나 형들에 의해 잘 보존된다.

Eso nidhī sunihito,
에소 니디 수니히또

손실이 없이 잘 보존된 재물을 간수하며

Pahāya gamanīyesu,
빠하~야 가마니~예수

이생을 떠나면서

Asādhāraṇamaññesaṃ,
아사~다~라나만네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도 없으며

Kayirātha dhīro puññāni,
까이라~타 디~로 뽀냐~니

현명하게 쌓은 공덕이란

Esa deva-manussānaṃ,
에사 데와마눗사~낭

이런 재보(財寶)는 필요로 하는 신과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며

Yaṃ yaṃ devābhipatthenti,
양 양 데와~비빳텐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

Suvannatā susaratā,
수완나따~ 수사라따~

아름다움, 좋은 목소리

Ādhipaccaṃ parivāro,
아~디빳짱 빠리와~로

리더쉽과 지지자들,

Padesarajjaṃ issariyaṃ,
빠데사랏장 잇사리양

지상의 왕과 통치자

Devarajjampi dibbesu,
데와랏잠삐 딥베수

천상에 있는 신들의 제왕

Itthiyā purisassa vā.
잇티야~ 부리삿사 와~.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Puggale atithīsu vā;
뿌갈레 아띠티~수 와~,

개인적인 유행자이거나

Atho jetṭhamhi bhātari.
아토 젣탐히 바~파리

Ajeyyo anugāmiyo;
아제이요 아누가~미요,
그들을 따른다.

Etam ādāya gacchati.
에탐 아~다~야 갓차띠.

그는 이 재물들을 가지고 간다.

Acorāharaṇo nidhī;
아쨌라~하라노 니디,

이런 재물들은 도둑들도 훔칠 수 없다.

Yo nidhī anugāmiko.
요 니디 아누가~미꼬.

재보(財寶)는 당신을 뒤따르게 될 것이다.

Sabbakāmadado nidhī;
삼바까~마다도 니디,

Sabbametena labbhati.
삼바메테나 랍바띠.

이런 방법으로 얻게 된다.

Susanṭhānaṃ surūpatā
수산타~낭 수루~빠따~,

완벽한 육체와 잘 생긴 외모

Sabbametena labbhati.
삼바메테나 랍바띠.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얻는다.

Cakkavattisukhaṃ piyaṃ;
짜까왓띠수캉 삐양,

호감받는 정복자

Sabbametena labbhati.
삼바메테나 랍바띠.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얻는다.



Mānussikā ca sampatti,
 마~눔시까~ 짜 삼빳띠
 인간으로서의 탄생

Yā ca nibbāna sampatti,
 야~ 짜 님바~나 삼빳띠
 열반의 성취

Mitta sampadamāgama,
 밋따 삼빠다마~감마
 선한 친구들의 축복

Vijjāvimuttivasībhāvo,
 윳자~위뭇피와시~바~오
 지혜의 완성과 자유

Paṭisambhidā vimokkhā ca,
 빠띠삼비다~ 위목카~ 짜
 분석적 지혜와 해탈

Paccekabodhi buddhabhūmi,
 빠찌까보디 뭇다부~미
 홀로 깨달은 벽지불과 완벽한 깨달음을

Evaṃ mahatthikā esā,
 에왕 마하티까~ 에사~
 이것들이 공덕 속에서 이루어지는 커다란 이익들이다.

Tasmā dhīrā pasamsanti,
 따사마~ 디~라~ 빠상산띠
 그러므로 현자는 항상 공덕 행을 찬탄한다.

Devaloke ca yā rati,
 데와로께 짜 야~ 라띠,
 그리고 하늘 영역에서의 환희

Sabbametena labbhati.
 삽바메떼나 랍바띠.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얻는다.

Yoniso ce payuñjato;
 요니소 켜 빠운자또,
 체계적인 집중력의 활용

Sabbametena labbhati.
 삽바메떼나 랍바띠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얻는다.

Yā ca sāvakapāramī;
 야~ 짜 사~와까빠~라미~
 그리고 제자들의 완벽함

Sabbametena labbhati.
 삽바메떼나 랍바띠.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얻는다.

Yadidaṃ puññasampadā;
 야디당 뽤냐삼빠다~

Paṇḍitā katapuññatanti.
 판디따~ 까따뽤냐판띠.

[Khp.8 Nidhi Kaṇḍa sutta]



10. 권고하는 계목(*Ovāda paṭimokkhādipāṭha*)

[*Uddiṭṭham kho*] *tena Bhagavatā jānatā passatā arahatā sammā-sambuddhena,*
[웃딤탕 코] 떤나 바가와따~ 자~나따~ 뽏사따~ 아라하따~ 삼마~ 삼뽏데나,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정등각자이며 아라한이신 세존께서 설하신 요약입니다.

Ovāda-paṭimokkha gāthāhi,
오와~다 빠띠목카 가~타~히,

3가지 계송을 통한 계목의 권고는

Khantī paramaṃ tapo titikkhā,
칸띠~ 바라망 따보 띠띠카~,

참고 견디는 데는 인욕이 으뜸이며,

nibbānaṃ paramaṃ vadanti Buddhā;
닙바~낭 바라망 와단띠 뽏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가운데 열반이 으뜸이다.

Na hi pabbajito parūpaghātī;
나 히 뽏바지또 빠루~빠가~띠~,

타인을 해치거나 남을 괴롭히는 자는;

samaṇo hoti paraṃ viheṭṭhayanto.
사마노 호띠 빠랑 위헤타얀또.

어떤 사문도 될 수 없다.

Sabba-pāpassa akaraṇaṃ,
삽바 빠~뽏사 아까라낭,

모든 악행을 짓지 아니하고,

Kusalassa upasampadā;
꾸살랏사 우빠삼빠다~;

유익함과 선행을 개발하고,

Sacitta-pariyodapanam,
사췌따 빠리요다빠낭,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

Etam Buddhāna-sāsaṇaṃ.
에땅 뽏다~나 사~사낭.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Anūpavādo anūpaghāto,
아누~빠와~도 아누~빠가~또,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Pāṭimokkhe ca saṃvaro;
빠~띠목케 짜 상와로;

계목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Mattañ-ñutā ca bhattasmiṃ,
맛판뉴따~ 짜 밧따사밍,

식사를 알맞게 하고,

Pantañ-ca sayan'āsaṇaṃ;
판판짜 사야나~사낭;

조용한 곳에 거주하며,

Adhicitte ca āyogo;
아디췌떼 짜 아~요고,

승고한 마음을 개발하는 것,

Etam buddhāna-sāsaṇaṃ ti.
에땅 뽏다~나 사~사낭 띠.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네

[Dn14. 3.28]

Anekapariyāyena kho pana tena Bhagavatā jānatā passatā arahatā sammā sambuddhena,
아네까파리아~예나 코 빠나 떤나 바가와따~ 자~나따~ 뽏사따~ 아라하따~ 삼마~ 삼뽏데나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sīlaṃ sammadakkhātāṃ samādhī sammadakkhāto paññā sammadakkhātā.
실~랑 삼마닥카~땅 사마~디 삼마닥카~또 뽏냐~ 삼마닥카~따~

계, 정, 혜에 대하여 좋은 방법으로 설하셨습니다.



Kathaṇca sīlaṃ sammadakkhātāṃ Bhagavatā,

까탄짜 실~랑 삼마닥카~땅 바가와따~,

계에 대하여 세존께서는 어떻게 설하셨을까?

Heṭṭhimenapi pariyāyena,
헛티메나삐 빠리아~예나,

Sīlaṃ sammadakkhātāṃ Bhagavatā,
실~랑 삼마닥카~땅 바가와따~,

세존께서는 계의 실천이 수행의 밑바탕이 된다고 훌륭하게 설하셨습니다.

Uparimena pariyāyena,
우빠리메나 빠리아~예나,

Sīlaṃ sammadakkhātāṃ Bhagavatā.
실~랑 삼마닥카~땅 바가와따~

세존께서는 계의 실천이 수행의 최상의 수준이라고 훌륭하게 설하셨습니다.

Kathaṇca heṭṭhimena pariyāyena,
까탄짜 헛티메나 빠리아~예나,

Sīlaṃ sammadakkhātāṃ Bhagavatā,
실~랑 삼마닥카~땅 바가와따~,

수행의 기초로서 계의 실천을 세존께서는 어떻게 설하셨을까? 세존께서 설하시길..

Idha ariya-sāvako:

이다 아리아사~와꼬

고귀한 제자들은

1) *Pāṇātipātā paṭivirato hoti,*

빠~나~띠빠~따~ 빠띠위라또 호띠,

살아있는 존재들을 해치는 것을 피한다.

2) *Adinnādānā paṭivirato hoti,*

아딘나~다~나~ 빠띠위라또 호띠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을 피한다.

3) *Kāmesu micchācārā paṭivirato hoti,*

까~메수 밋차~짜~라~ 빠띠위라또 호띠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피한다.

4) *Musāvādā paṭivirato hoti,*

무사~와~다~ 빠띠위라또 호띠,

거짓말, 스캔들, 무례한 말과 허풍떠는 언행을 피한다.

5) *Surā-meraya-majja-pamādaṭṭhānā paṭivirato hotīti,*

수라~ 메라야 맛자 빠마~닷타~나~ 빠띠위라또 호띠~띠,

알콜류와 의식을 혼미하게 하는 음료를 피한다.

Evam kho heṭṭhimena pariyāyena,
에왕 코 헛티메나 빠리아~예나,

Sīlaṃ sammadakkhātāṃ Bhagavatā.
실~랑 삼마닥카~땅 바가와따~.

이것이 세존께서 설하신 수행의 기초로서 계의 실천이다.

Kathaṇca uparimena pariyāyena,
까탄짜 우빠리메나 빠리아~예나,

Sīlaṃ sammadakkhātāṃ Bhagavatā.
실~랑 삼마닥카~땅 바가와따~.

세존께서는 계의 실천이 수행의 최상의 수준이라고 훌륭하게 어떻게 설하셨을까?



Idha bhikkhu sīlavā hoti,
이다 빅꾸 실~라와~ 호띠

그는 계행이 훌륭한 비구이다.

pāṭimokkha samvarasamvuto viharati ācāra gocara sampanno,
빠~띠목카 상와라상우또 위하라띠 아~짜~라 고짜라 삼반노,

계목과 일치하게 스스로를 자제하는 비구는 예의바르고, 작은 허물조차 두려워한다.

aṇumattesu vajjesu bhayadassāvī samādāya sikkhati sikkhāpadesūti.
아누맛떼수 왓제수 바야닷사~워~ 사마~다~야 식카띠 식카~빠데수~띠.

가능한 좋은 방식으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Evam kho uparimena pariyāyena, Sīlam sammadakkhātā Bhagavatā.
에왕 코 우빠리메나 빠리야~예나, 실~랑 삼마닥카~또 바가와따~.

이것이 계의 실천이 수행의 최상의 수준이라고 세존에 의해 설해졌다.

Kathaṇca samādhi sammadakkhāto Bhagavatā,
까탄짜 사마~디 삼마닥카~또 바가와따~.

세존께서는 삼매(Samadhi)에 관해 어떻게 설하셨을까?

Heṭṭhimenapi pariyāyena, samādhi sammadakkhāto Bhagavatā,
헛띠메나삐 빠리야~예나, 사마~디 삼마닥카~또 바가와따~.

세존께서는 삼매 수행이,

기초 수행이라고 훌륭하게 설하셨습니다.

uparimenapi pariyāyena, samādhi sammadakkhāto Bhagavatā.
우빠리메나삐 빠리야~예나, 사마~디 삼마닥카~또 바가와따~.

세존께서는 삼매 수행이,

수행의 최상의 수준이라고 훌륭하게 설하셨습니다.

Kathaṇca heṭṭhimena pariyāyena, samādhi sammadakkhāto Bhagavatā,
까탄짜 헛띠메나 빠리야~예나 사마~디 삼마닥카~또 바가와따~.

세존께서는 기초 수행으로서 삼매 수행을 어떤 식으로 훌륭하게 설하셨을까?

Idha ariyasāvako vossaggārammaṇaṃ karitvā,
이다 아리야사~와꼬 옷작가~람마낭 까리따와~.

만일 마음에서 번뇌를 멀리할 수 있다면 그는 성문승이다.

labhati samādhim labhati cittassekaggatanti.
라바띠 사마~딩 라바띠 췌따세깍가따띠.

그러면 그는 삼매를 얻을 수 있고 오직 하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Evam kho heṭṭhimena pariyāyena, samādhi sammadakkhāto Bhagavatā.
에왕 코 헛띠메나 빠리야~예나 사마~디 삼마닥카~또 바가와따~.

이것이 세존께서 설하신 수행의 기초로서 삼매 수행이다.

Kathaṇca uparimena pariyāyena, samādhi sammadakkhāto Bhagavatā,
까탄짜 우빠리메나 빠리야~예나, 사마~디 삼마닥카~또 바가와따~.

세존께서 설하신 수행의 최상의 수준에서, 삼매 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Idha bhikkhu viviccev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이다 빅쿠 위윳째와 까~메히 위윳짜 아구살레히 담메히,
 그리하여 비구는 스스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멀어졌다.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āmpītisukhaṃ paṭhamam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사위딱깁 사위짜~랑 위웨까잠삐~띠수캉 빠타망 자~낭 우빠삼빳자 위하라띠.
 그러면 삐띠(즐거움)와 수카(행복)한 마음상태와 같은 제 1선정에서 고요하다.

Vitakkavicārānaṃ vūpasamā,
위딱까위짜~라~낭 우~빠사마~,
 여기서 하나의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위딱까)과 마음을 고착하는 노력(위짜라)이 여전히 있다.

ajjhataṃ sampasādanaṃ cetaso ekodibhāvaṃ avitakkaṃ avicāraṃ,
앗жат땅 삼빠사~다낭 제따소 에꼬디바~왕 아위딱깁 아위짜~랑,
 그런 후, 위딱까와 위짜라로부터 벗어난 후,

samādhī-jāmpītisukhaṃ duttiy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사마~디 잠삐~띠수캉 두띠양 자~낭 우빠삼빳자 위하라띠.
 그는 2선정의 고요함에 들어가 행복하고 희열 속에 머문다.

Pītiyā ca virāgā upekkhako ca viharati sato ca sampajāno,
삐~띠야~ 짜 위라~가~ 우뵉까꼬 짜 위하라띠 사또 짜 삼빠자~노,
 위따까와 위짜라가 없이(욕구가 없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sukhañca kāyena paṭisaṃvedeti,
수칸짜 까~예나 빠띠상웨데띠,
 몸은 행복감에 잠겨있고,

yantaṃ ariyā ācikkhanti upekkhako satimā sukhavihārīti,
얀땅 아리아~ 아~찌칸띠 우뵉까꼬 사띠마~ 수카위하~리~띠,
 이것을 성인들은 알아차림과 마음의 균형을 갖춘 행복이라고 말한다.

tatiy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따띠양 자~낭 우빠삼빳자 위하라띠,
 그리고 3선정에서 들어가 고요하게 머문다.

Sukhasa ca pahānā dukkhassa ca pahānā,
수카사 짜 빠하~나~ 독갓사 짜 빠하~나~,
 행복감이 없어지고, 환희로움과 행복하지 않음도 사라진다.

pubbeva somanassa domanassānaṃ atthamgamā,
뵉베와 소마낏사 도마낏사~낭 앗탕가마~,
 이전에 느꼈던 것들과 함께 4선정에 들어가 고요하게 머문다.

adukkhamasukhaṃ upekkhāsati pārisuddhiṃ,
아дук카마수캉 우뵉카~사띠 빠~리숫딩,
 4선정에서는 완벽하게 균형잡힌 청정함을 알아차리며,

catutth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īti.
짜뫋탕 자~낭 우빠삼빳자~ 위하라띠~띠.
 마음은 행복과 행복하지 않는 수(受)에서 자유롭다.



Evam kho uparimena pariyāyena, samādhi sammadakkhātā Bhagavatā.
에왕 코 우빠리메나 빠리아예나, 사마디 삼마닥카또 바가와따.
 이와 같은 것들이 세존께서 가르친 높은 수준에서의 삼매 수행이다.

Kathaṇca paññā sammadakkhātā Bhagavatā,
까탄짜 뽀냐 삼마닥카따 바가와따,
 세존께서는 기초 수행으로서 지혜(paññā) 수행을 어떻게 설하셨을까?

Heṭṭhimenapi pariyāyena, paññā sammadakkhātā Bhagavatā,
헛티메나삐 빠리아예나, 뽀냐 삼마닥카따 바가와따,
 세존께서는 지혜 수행도 기초 수행이라고 훌륭하게 설하셨습니다.

Uparimenapi pariyāyena, paññā sammadakkhātā Bhagavatā.
우빠리메나삐 빠리아예나, 뽀냐 삼마닥카따 바가와따.
 세존께서는 지혜 수행 또한 수행의 최상의 수준이라고 훌륭하게 설하셨습니다.

Kathaṇca heṭṭhimena pariyāyena, paññā sammadakkhātā Bhagavatā,
까탄짜 헛티메나 빠리아예나, 뽀냐 삼마닥카따 바가와따,
 세존께서는 기초 수행으로서 지혜 수행을 어떤 식으로 훌륭하게 설하셨을까?

Idha ariyasāvako paññavā hoti, udayatthagāminiyā paññāya samannāgato,
이다 아리야사왁코 뽀냐와 호띠, 우다얏타가미니야 뽀냐야 사만나가또,
 만일 마음에서 괴로움과 그 원인을 이해했다면 그는 성문승이다.

ariyāya nibbedhikāya sammā dukkha khayagāminiyāti.
아리야야 님베디까야 삼마 둑카 카야가미니야띠.
 만일 그것이 괴로움의 종식이 있고, 괴로움의 종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이해한다면, (성문승이다)

Evam kho heṭṭhimena pariyāyena, paññā sammadakkhātā Bhagavatā.
에왕 코 헛티메나 빠리아예나, 뽀냐 삼마닥카따 바가와따,
 이것이 세존에 의해 설해진 수행의 기초로서 지혜 수행이다.

Kathaṇca uparimena pariyāyena, paññā sammadakkhātā Bhagavatā,
까탄짜 우빠리메나 빠리아예나, 뽀냐 삼마닥카따 바가와따,
 세존께서 설하신 수행의 최상의 수준으로 어떻게 지혜 수행이 이루어지는가?

Idha bhikkhu idaṃ dukkhanti yathābhūtaṃ pajānāti.
이다 빅쿠 이당 둑칸띠 야타부땅 빠자나띠.
 세존께서 설하시길, 비구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여실지견 한다.

Ayaṃ dukkha samudayoti yathābhūtaṃ pajānāti.
아양 둑카 사무다요띠 야타부땅 빠자나띠.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여실지견 한다.

Ayaṃ dukkha nirodhoti yathābhūtaṃ pajānāti.
아양 둑카 니로도띠 야타부땅 빠자나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여실지견 한다.

Ayaṃ dukkha nirodha gāminī paṭipadāti yathābhūtaṃ pajānātīti.
아양 둑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띠 야타부땅 빠자나띠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도)이다.’라고 여실지견 한다.



Evam kho uparimena pariyāyena, paññā sammadakkhātā Bhagavatā.
에왕 코 우빠리메나 빠리아예나, 뽀냐~ 삼마닥카따~ 바가와따~.

이와 같은 것이 여래에 의해 가르쳐진 높은 수준에서의 지혜 수행이다.

Sīla paribhāvito samādhi mahappalo hoti mahānisamsa,
실라 빠리바위또 사마디 마합팔로 호띠 마하니상소,

알맞게 증진되어진 계를 바탕으로, 삼매는 큰 공덕과 이로움을 줄 것이며,

samādhi paribhāvitā paññā mahapphalā hoti mahānisamsā,
사마디 빠리바위따 뽀냐~ 마합팔라~ 호띠 마하니상사~,

알맞게 증진되어진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는 큰 공덕과 이로움을 줄 것이며,

paññā paribhāvitam citam sammadeva āsavehi vimuccati.
뽀냐~ 빠리바위땅 찌땅 삼마데와 아사웨히 위뭇짜띠.

알맞게 증진되어진 지혜를 바탕으로, 마음은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Seyyathīdam;
세이야티당;

이들을 말하면;

Kāmāsavā bhavāsavā avijjāsavā.

까마사와 바와사와 아윳자사와~

감각적 오염, 존재의 오염, 무지의 오염이 있다.

Bhāsītā kho pana Bhagavatā parinibbāna samaye ayam pacchimavācā,
바시따 코 파나 바가와따~ 빠리닙바나 사마예 아양 빠치마와짜~,

세존께서 열반에 임박하셨을 때, 마지막 유훈을 말씀하시길,

handadāni bhikkhave āmantayāmi vo, vayadhammā saṅkhārā,
한다다니 빅카웨 아만따야미 오, 와야담마 상카라~,

“자! 비구들이여,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appamādena sampādetthāti,
압빠마데나 삼빠데타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완벽함을 성취해라.”고

Bhāsitañcidam Bhagavatā,
바시판찌당 바가와따~,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seyyathāpi bhikkhave yāni kānici jaṅgalānaṃ pāṇānaṃ padajātāni,
세이야타삿 빅카웨 야니 까니찌 장갈라낭 빠나낭 빠다자따니,

비구들이여. 모든 존재들의 발자국들은

sabbāni tāni hatthipade samodhānaṃ gacchanti,
삽바니 타니 핫티빠데 사모다낭 갓찬띠,

코끼리의 발자국 속에 들어 갈 수 있다.

hatthipadaṃ tesam aggamakkhāyati, yadidam mahantattena,
핫티빠당 떼상 악가막카야띠, 야디당 마한땃떼나,

코끼리의 발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Evameva kho bhikkhave ye keci kusalā dhammā,
에와메와 코 빅카웨 예 케찌 쿠살라 담마~,

그래서, “비구들이여, 모든 선업의 공덕은



sabbe te appamādamūlakā appamādasamosaraṇā,
 삽베 떤 았빠마~다물~라까~ 았빠마~다사모사라나~,
 주의깊음이 원인이 되어, 주의깊음으로부터 생겨난다.

appamādo tesam aggamakkhāyatīti.
 았빠마~도 떤상 악가막카~야띠~띠.
 왜냐하면 주의깊음은 모든 것들 가운데 첫 번째이기 때문이다.

Tasmātihamhehi sikkhitabbam, *tibbāpekkhā bhavissāma,*
 따사마~띠하메히 식키답방, 띵바~뵡카~ 바윗사~마,
 그러므로 비구들은 훌륭하게 수행해야만 한다.” 진지하게 경청하던 비구들은 답했다.

adhisīla sikkhāsamādāne, adhicitta sikkhāsamādāne, adhipaññā sikkhāsamādāne,
 아디실~라 식카~사마~다~네, 아디짚따 식카~사마~다~네, 아디뵤냐~ 식카~사마~다~네,
 “우리들은 주의 깊게 높은 계행, 높은 심행, 높은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ppamādena sampādessāmāti, *evaṃhi no sikkhitabbam.*
 았빠마~데나 삼빠~뎡사~마~띠, 에완히 노 식키답방.
 우리들은 게으르지 않고 완벽함을 성취하기 위해 진지하게 수행하겠습니다.”

[*Ovādapātimokkham*. DN 14.3.26]



11. 계목 암송후 독송 계송(*Sīluddesa-Pāṭha*)

[*Bhāsitamidam tena*] *Bhagavatā jānatā passatā arahatā sammā-sambuddhena:*

[바~시따미당 떤나] 바가와따~ 자~나따~ 뱃사따~ 아라하따~ 삼마~ 삼뭇데나,

아시는 분, 보시는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sampanna-sīlā bhikkhave viharatha sampanna-pāṭimokkhā.

삼뻬나 실~라~ 빅카웨 위하라타 삼뻬나 빠~띠목카~

계(덕성)에서 완벽해져라. 비구여! 계목에서 완벽해라;

pāṭimokkha-saṃvara-saṃvutā viharatha ācāra-gocara-sampannā.

빠~띠목카 상와라 상우따~ 위하라타 아~짜~라 고짜라 삼뻬나~.

계목을 지켜나감으로 절제하며 살아가라. 행동과 방법에서 완벽해라.

aṇu-mattesu vajjesu bhaya-dassāvī samādāya sikkhatha sikkhāpadesū-ti.

아누 맛떼수 왓제수 바야 닷사~위~ 사마~다~야 식카타 식카~빠데수~띠.

가벼운 잘못에서 위험이 숨어 있음을 보면서, 훈련규율을 따르며 연마해라.

Tasmā t-ih'amhehi sikkhitabbam:

따사마~ 띠함헤히 식키팞방.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이처럼 훈련해야한다:

sampanna-sīlā viharissāma sampanna-pāṭimokkhā.

삼뻬나 실~라~ 위하릿사~마 삼뻬나 빠~띠목카~

우리는 계에서 계목에서 완벽해질 것이다.

pāṭimokkha-saṃvara-saṃvutā viharissāma ācāra-gocara-sampannā.

빠~띠목카 상와라 상우따~ 위하릿사~마 아~짜~라 고짜라 삼뻬나~

계목을 지켜나감으로 절제하며 살아갈 것이다. 사소한 잘못으로부터 생겨나는 위험을 보면서, 행동과 수단에서 완벽해질 것이다.

aṇu-mattesu vajjesu bhaya-dassāvī samādāya sikkhissāma sikkhāpadesū-ti.

아누맛떼수 왓제수 바야 닷사~위~ 사마~다~야 식킷사~마 식카~빠데수~띠.

우리들은 스스로 훈련규율을 준수하면서 단련해나갈 것이다.

Evañ hi no sikkhitabbam.

에완 히 노 식키팞방

이와 같이 우리들은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cf. D.I.63; D.III.266]



12. 따야따나 계송(*Tāyatana-Gāthā*)

[*Chinda sotam*] *parakkamma*,
[친다 소팜] 빠락감마,
스스로를 속달시켜, 흐름을 잘라내고,

Nappahāya muni kāme,
납빠하야 무니 까메,
바라문이여!,

Kayirā ce kayirāth'enam,
까이라 켜 까이라테낭,
슬기로운 자라도 정신이 모아지지 않는다.

Sithilo hi paribbājo,
시틸로 히 빠립바조,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는

Akatam dukkaṭam seyyo,
아까탕 독가땅 세이요,
느슨한 생활은 밖으로 먼지만 자욱하게 만들 뿐이다.

Katañ-ca sukataṃ seyyo,
까판 짜 수가땅 세이요,
느슨함이 더 할수록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나쁜 행위이다.

Kuso yathā duggahito,
꾸소 야타 독가히토,
그러나 선행이 잘 행해지면,

Sāmaññaṃ dupparāmaṭṭham,
사만냐 뉘빠라맛탕,
억센 풀을 잘못 잡으면 손이 잘리듯이

Yañ-kiñci sithilaṃ kammaṃ,
양 깐찌 시틸랑 감마,
출가자의 삶이 잘못되면

Saṅkassaram brahma-cariyaṃ,
상갓사람 브라마 짜리양,
어떤 느슨한 행위, 사악한 준수, 의심을 받을 만한 범행은 결코 과(果)를 주지 않는다.

Kāme panūda brāhmaṇa;
까메 빠누다 브라마나;
관능을 포기하라.

Nekattam-upapajjati;
네갓따 무빠빳자띠;
관능을 포기하지 않으면,

Daḷham-enam parakkame;
달라 메낭 빠락까메;
관능을 포기하라.

Bhiyyo ākirate rama;
비이요 아끼라페 라장;
완벽하게 자신을 갈고 닦는다.

Pacchā tappati dukkaṭam;
빳차 땡빠띠 독가땅
관능을 포기하라.

Yaṃ katvā nānutappati;
양 까따와 나누땡빠띠;
관능을 포기하라.

Hattham-evānukantati;
핫타 메와누칸따띠;
행한 일에 후회함이 없다.

Nirayāyūpakaddhati;
니라야유빠갓다띠;
관능을 포기하라.

Saṅkiliṭṭhañ-ca yaṃ vataṃ;
상길릿탄짜 양 와땅;
지옥으로 떨어진다.

Na taṃ hoti Mahapphalan-ti.
나 땅 호띠 마합팔란 띠.
관능을 포기하라.

[SN 2:8 = Dhp. vv.383, 313-4, 311-2.]



13. 보호주(*Parittakaraṇa-Pāṭha*)

[*Yāvataṃ sattā*] *apadā vā davipadā vā catuppadā vā bahuppadā vā*,
[아~와따~ 샷따~] 아빠다~ 와~ 다위빠다~ 와~ 짜똥빠다~ 와~ 바홉빠다~ 와~,
발이 없건 두 발을 가졌건 네 발을 가졌건 여러 발을 가졌건,

rūpino vā arūpino vā saññino vā asaññino vā nevasaññīnāsaññino vā,
루~삐노 와~ 아루~삐노 와~ 산니노 와~ 아산니노 와~ 네와산니~나~산니노 와~,
색(色)을 가졌건 색(色)이 없건, 식(識)을 가졌건 없건, 혹은 식(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건,

Tathāgato tesam aggamakkhāyati araham sammā-sambuddho,
따타~가또 떤상 악가막카~야띠 아라함 삼마~삼똥도,

그 어떤 종류의 중생들이 있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서 여래, 아라한, 정등각이 으뜸이라고 불린다.

ye kho Buddhē pasannā agge te pasannā,
예 코 똥데 빠산나~악게 떤 빠산나~,

여래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요,

agge kho pana pasannānam aggo vipāko.
악게 코 빠나 빠산나~낭 악고 위빠~꼬.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보도 또한 으뜸이다.

Yaṃ kiñci vittaṃ idha vā huraṃ vā, Saggesu vā yaṃ ratanaṃ paṇītaṃ,
양 긴찌 똥땅 이다 와~ 후랑 와~, 삭게수 와~ 양 라따낭 빠니~땅,

이생과 저생에 존재하는 어떤 귀한 재물들과, 천상세계의 어떤 뛰어난 보배도,

Na no samaṃ atthi Tathāgatena,
나 노 사망 앗티 따타~가떼나,

우리들에게 여래(세존)와 견줄만한 어떠한 것들도 없으니,

Idam-pi Buddhē ratanaṃ paṇītaṃ.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이담 똥 똥데 라따낭 빠니~땅 에떼나 샷떼나 수왓티 호뚜!

역시,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보배일세,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Yāvataṃ dhammā saṅkhatā vā asaṅkhatā vā, virāgo tesam aggamakkhāyati,
아~와따~ 담마~ 상카따~ 와~ 아상카따~ 와~, 위라~고 떤상 악가막카~야띠,

유위법[有爲法]들이건 혹은 무위법[無爲法]들이건 그 법들 중 탐욕의 사라짐이 으뜸이라고 불리니,

yadidaṃ matanimmadano pipāsavinayo ālayasamugghāto vaṭṭupaccheto ~
야디당 마따님마다노 똥똥~사위나요 알~라야사목가~또 왓뚜~똥체또

Taṇhakkhayo virāgo nirodho nibbānaṃ,
판학카요 위라~고 니로도 님바~낭

그것은 바로 교만의 분쇄요, 갈증의 제거요, 집착의 근절이요, 윤회의 멸절이요,
갈애의 파괴요, 탐욕의 사라짐이요, 소멸이요, 열반이다.

ye kho virāgadhamme pasannā agge te pasannā, agge kho pana pasannānam aggo vipāko.
예 코 위라~가담메 빠산나~악게 떤 빠산나~, 악게 코 빠나 빠산나~낭 악고 위빠~꼬.

소멸법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요,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보도 또한 으뜸이다.



Khayaṃ virāgaṃ amataṃ paṇītaṃ, Yadajjhagā sakya-munī samāhito,
 카양~ 위라~강~ 아마땅~ 빠니~땅, 야닷자가~ 사까무니~ 사마~히또,

현자이신 석가모니께서 삼매에서 알아낸 번뇌를 소멸하고 탐욕을 떠나 불사(不死)의 뛰어난 담마는,

Na tena dhammena sam'atthi kiñci,
 나~ 떤나~ 담메나~ 사맛티~ 낀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뛰어난 담마이니,

Idam-pi dhamme ratanaṃ paṇītaṃ.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이담~ 삐~ 담메~ 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샛제나~ 수왓티~ 호뚜!

역시, 담마는 뛰어난 보배일세,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Yāvataṃ dhammā saṅkhatā,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tesam aggamakkhāyati,
 야~와따~ 담마~ 상카따~, 아리요~ 앗탕기꼬~ 막고~ 떤상~ 악가막카~야띠,

형성된 법[有爲法]들, 성인(聖人)들의 8정도가 으뜸이라고 불리나니,

seyyathīt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ṅkappo,
 세이야티~땅; 삼마~ 딛티 삼마~ 상갸쁘,

이들을 말하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삼마~와~짜~ 삼마~갸만토 삼마~아~지~오,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계,

Sammā vāyāmo sammā sati sammā samādhī.
 삼마~와~야~모 삼마~사띠 삼마~사마~디.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

ye kho ariya-magga-dhamme pasannā agge te pasannā,
 예~ 코~ 아리야~ 막가~ 담메~ 빠산나~ 악게~ 떤~ 빠산나~,

성인의 도와 담마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요,

agge kho pana pasannānam aggo vipāko.
 악게~ 코~ 빠나~ 빠산나~낭~ 악고~ 위빠~꼬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보도 또한 으뜸이다.

Yam-buddha-setṭho parivaṇṇayī sucim,
 얌~ 붓다~ 셋토~ 빠리완나이~ 수침,

위없는 부처님께서 순수하게 찬탄하신 이 담마는,

Samādhim-ānantarikaññaṃ-āhu, Samādhinā tena samo na vijjati,
 사마~디~ 마~난따리까냐~ 마~후, 사마~디나~ 떤나~ 사모~ 나~ 뵈자띠,

즉각적인 앎의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라 부르셨고, 이 삼매와 견줄만한 것은 없으니,

Idam-pi dhamme ratanaṃ paṇītaṃ.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이담~ 삐~ 담메~ 라따낭~ 빠니~땅 에테나~ 샛제나~ 수왓티~ 호뚜!

역시, 담마는 뛰어난 보배일세,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Yāvataṃ saṅghā vā gaṇa vā, Tathāgata-sāvaka-saṅgho tesam aggamakkhāyati,
 야~와따~ 상가~ 와~ 가나~ 와~, 따타~가따~ 사~와까~ 상고~ 떤상~ 악가막카~야띠,

상가이건 무리이건 그들 가운데서, 여래의 제자들의 모임인 상가가 으뜸이라고 불리나니,



yadidam cattāri purisayugāni attha-purisapuggalā,
야디당 찻따~리 부리사유가~니 앗타 부리사뵉갈라~,
 이분들은 네 쌍과 여덟 유형의 성자(聖子)들이며.

Ye kho saṅghe pasannā agge te pasannā, agge kho pana pasannānaṃ aggo vipāko.
예 코 상게 빠산나~ 악게 떤 빠산나~, 악게 코 빠나 빠산나~낭 악고 위빠~꼬.
 상가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요,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보도 또한 으뜸이다.

Ye puggalā attha satam pasatthā, Cattāri etāni yugāni honti,
예 뵉갈라~ 앗타 사땡 빠삿타~, 찻따~리 에따~니 유가~니 혼띠,
 평화로운 이들에게 칭찬받는 여덟 유형의 성자들, 이분들은 네 쌍의 도와 과를 구비한,

Te dakkhiṇeyyā sugatassa sāvaka, Etesu dinnāni mahapphalāni,
떼 닥키네이야~ 수가땡사 사~와까~, 에떼수 딘나~니 마합팔라~니,
 잘 가신분의 제자들로 보시받을 가치 있는 분들이니, 이 분들에게 보시하면 큰 이득을 가져오네,

Idam-pi saṅghe ratanam paṇītaṃ.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이담 삐 상게 라따낭 빠니~땡 에테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역시, 상가는 뛰어난 보배일세,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Ye suppayuttā manasā dāhena, Nikkāmino gotama-sāsanamhi,
예 솜빠웃따~ 마나사~ 달레나, 닝까~미노 고탓마 사~사남히,
 확고한 마음과 진지한 노력으로, 고탓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났으며,

Te pattipattā amatam vigayha, Laddhā mudhā nibbutiṃ bhuñjamānā,
떼 빠띠빠따~ 아마땡 위가이하, 랏다~ 무다~ 님부땡 분자마~나~,
 이분들은 불사(不死)의 과를 이루었고, 위없는 과위로부터 나오는 열반락을 누리시니,

Idam-pi saṅghe ratanam paṇītaṃ.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이담 삐 상게 라따낭 빠니~땡 에테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역시, 상가는 뛰어난 보배일세,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Khīṇaṃ purāṇaṃ naṃ natthi sambhavaṃ,
키~낭 뿌라~낭 나왕 닛티 삼바왕,
 과거의 업은 이미 다했고, 새로운 태어남을 짓지 않으며,

Virattacittāyatike bhavasmim, Te khīṇa-bijā avirūḥic-chandā,
위랏따찢따~야띠께 바와사땡, 떤 키~나 비~자~ 아위를~ 릿찬다~,
 미래의 존재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도 없어, 씨앗들이 없어 욕망의 자라남이 없어,

Nibbanti dhīrā yathā'yam-padīpo,
닙반띠 디~라~ 야타~얌 빠디~뵵,
 이러한 현자들은 마치 불꽃이 사라지듯 열반에 이르니,

Idam-pi saṅghe ratanam paṇītaṃ.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이담 삐 상게 라따낭 빠니~땡 에테나 삿째나 수왓티 호뚜!
 역시, 상가는 뛰어난 보배일세, 이러한 진리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쑤디경을 위주로(*Cundī-sutta*, A5:32)]



제 6장 공덕 회향 감사(*Anumodana*)

1. 감사 계송(*Anumodanā- Gāthā*)

(인도자):

Yathā vāri-vahā pūrā paripūrenti sāgaram,

야타~ 와~리 와하~ 부~라~ 빠리부~렌띠 사~가랑

가득 찬 강물이 큰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Evam-eva ito dinnam petānam upakappati,

에와 메와 이또 딘낭 পে따~낭 우빠갸빠띠

지금 여기 보시된 것들이 바로 공덕이듯이,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되길!

Ichchitam patthitam tumham khippam-eva samijjhatu,

잇치땅 빠띠땅 톰함 깃빠 메와 사밋자뚜,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이라도 속히 성취되기를!

Sabbe pūrentu saṅkappā, cando paṇṇa-raso yathā, Maṇi jotī-raso yathā.²³⁾

삼베 부~렌뚜 상갸빠~, 찬도 뽀나 라소 야타~, 마니 조띠라소 야타~

그대가 뜻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채워지길! 마치 보름날의 둥근달처럼,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여의주처럼!

[DhpA.I.198]

[*Sabb'ittiyo*] *vivajjantu*

[삼비~띠요] 위왓잔뚜

“모든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Mā te bhavattv-antarāyo

마~ 떤 바와따완따라~요

그대에게 위협이 없기를!

Abhivādana-sīlissa

아비와~다나 실~릿사

계를 높이 받들고

Cattāro dhammā vadḍhanti

찢따~로 담마~ 왓단띠

수명장수, 아름다움, 행복, 건강이라는 네 가지 복이 증가하네.

[Dhp.v.109]

Sabba-rogo vinassatu

삼바 로고 위낫사뚜

모든 질병 씻은 듯이 사라지기를!

Sukhī dīgh'āyuko bhava [MJG]

수키~ 디~가~유꼬 바와

그대가 행복하고 장수하시기를!”

Niccaṃ vuddhāpacāyino

닛짱 웃다~빠짜~이노

항상 존경스런 성자를 숭배하는 분들은,

Āyu vanno sukhaṃ balaṃ.

아~유 완노 수캉 발랑.

23) 이 계송을 암송할 때, 준비물을 따르며 축원을 받고 축원 받은 청정수를 주변에 뿌려 회향합니다.



2. 삼보 회상(*Anussaraṇa Pāṭha*)

[*Itipi so*]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

[이피씨 소] 바가와~ 아라함 삼마~ 삼붓도,

이처럼 그분은 세존,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Vijjā-carāṇa-sampanno sugato loka-vidū,

위자~ 짜라나 삼판노 수가또 로까위두~,

지혜와 덕행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을 가신 분,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아시는 분,

Anuttaro purisa-damma-sārathi satthā deva-manussānaṃ buddho Bhagavā-ti.

아nut타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데와 마nut사~낭 붓도 바가와~ 띠.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Svākkhāto Bhagavatā dhammo,

사왓~카~또 바가와따~ 담모,

세존에 의해 잘 설하신 담마는,

Sandiṭṭhiko akāliko ehi-passiko,

산딧티고 아갈~리고 에히 뺏시고,

즉시 볼 수 있고, 시간과 관계없이, 와서 보라 청하며,

Opanayiko 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ti.

오빠나이고 뺏짚땅 웨디따보 윈뉴~히~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볼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卐 *Su* 『 *Uju-*, *Ñāya-*, *Sāma-* 』

수 『 우주, 나야, 사~미~째 』

~ *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卐

빠띠판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훌륭하게 『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노련하게 』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Yad'idam cattāri purisa-yugāni aṭṭha purisa-puggalā.

야디담 찢따~리 뿌리사 유가~니 앗타 뿌리사 뽉갈라.

이분들은 네 쌍과 여덟 유형의 성자(聖子)들이며.

Esa Bhagavato sāvaka-saṅgho,

에사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이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Āhuneyyo pāhuneyyo dakkhiṇeyyo añjali-karaṇīyo,

아~후네이요 빠~후네이요 닥키네이요 안잘리 까라니~요,

공경 받을 가치 있는, 환대할 가치 있는, 보시 받을 가치 있는, 합장 받을만한 분들이며;

Anuttaram puññakkhettaṃ lokassā'ti.

아nut타람 뽤낙켓땅 로갓사~띠.

이 세상에서 비길데 없는 복전(福田)입니다.



3. 부처님 길상 승리 계송(*Buddha-Jayamaṅgala-Gāthā*)

[*Bāhuṃ sahaṣṣam*]-*abhinimmita-sāvudhan-taṃ*,
[바~홍 사~하사] 마비~님미따 사~우단땅,

일천 개로 이루어진 팔마다 각각의 무기를 들고,

Girīmekhalaṃ uḍita-ghora-sasena-māraṃ,
기리~메칼랑 우디따 고라 사~세나 마~랑,

마라가 기리메칼라 코끼리에 올라 마군중을 이끌고서 무자비하게 다가올 때에,

Dān'ādi-dhamma-vidhinā jītavā mun'indo,
다~나~디 담마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위대한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관대함으로 구족된 공덕으로 승리하셨으니,

*Tan-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탄 떤~자사~ 바와뚜 떤 자야 망갈라~니. (또는 *maṅgalaggam* ; 망갈락강)

이와 같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도 승리의 길상이 있기를!(*부처님 성도하실 때)

Mārāṭirekam-abhiyujjhita-sabba-rattim, *Ghorampan'ālavakam-akkhama-thaddha-yakkham*,
마~라~띠레까 마비~윳지따 삽바 랏땡, 고람~빠날~라와까 막카 마~타다 약강,

밤 새워 싸운 마라보다 더 무서운, 교만하고 변덕스러운 괴물 알라와까 야차와 싸울 때에,

Khantī-sudanta-vidhinā jītavā munindo, *Tan-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칸띠~ 수단따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탄 떤~자사~ 바와뚜 떤 자야망갈라~니.

위대한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잘 닦여진 인내심으로 승리하셨으니,

이와 같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도 승리의 길상이 있기를! (*Sn10.12, *Ālavaka sutta*)

Nālāgiriṃ gaja-varam atimatta-bhūtaṃ, *Dāvaggi-cakkam-asaniṃva sudāruṇaṇ-taṃ*,
날~라~기링 가자 와랑 아~띠맛따부~땅, 다~완기 짹까 마~사니~와 수다~루난땅,

술에 취한 사나운 날라기리 코끼리가, 산불처럼 불타는 바퀴처럼 벼락처럼 무자비하게 달려올 때에,

Mett'ambu-seka-vidhinā jītavā mun'indo, *Tan-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멧땀부~세까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탄 떤~자사~ 바와뚜 떤 자야망갈라~니.

위대한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자비의 물을 뿌려 승리하셨으니,

이와 같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도 승리의 길상이 있기를! (*법구경계송 17)

Ukkhitta-khaggam-atihattha sudāruṇaṇ'taṃ, *Dhāvan-ti-yojana-path'aṅguli-mālavantaṃ*,
옥~키타~각가 마~띠하타 수다~루난땅, 다~완 띠 요~자나 빠탕굴리 말~라완땅,

무자비하게 칼을 높이든 손으로, 손가락 목걸이를 하고 양굴리말라가 3요자나를 달려올 때,

Iddhī'bhisāṅkhata-mano jītavā munindo, *Tan-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잇디~비상카따 마노 지따와~ 무닌도, 탄 떤~자사~ 바와뚜 떤 자야망갈라~니.

위대한 성자이신 부처님께서神通력이 갖든 마음으로 승리하셨으니,

이와 같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도 승리의 길상이 있기를! (*법구경계송 173)



Katvāna katṭham-udaram iva gabbhinīyā, Ciñcāya duṭṭha-vacanam jana-kāya-majjhe,
 까따와~나 갓타 무다랑 이와 갇비니~야, 찐짜~야 뒹타 와짜낭 자나 까~야 맛제,
 나무를 배에 묶어 임신부처럼 꾸민, 찐짜 여인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사악한 말을 퍼뜨릴 때에,

Santena soma-vidhinā jitavā muni'ndo, Tan-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산테나 소마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탄 떤자사~ 바와뚜 떤 자야망갈라~니.
 위대한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고요한 침묵에 의지하여 승리하셨으니,

이와 같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도 승리의 길상이 있기를! (*법구경계송 176)

Saccaṃ viḥāya mati-saccaka-vāda-ketuṃ, Vādābhiropita-manam ati-andha-bhūtaṃ,
 삿짜 위하~야 마띠 삿짜까 와~다 깨똥, 와~다~비로삐따 마낭 아띠 안다부~땅,
 도발적인 견해를 가진 삿짜가가 진리를 포기하고, 논쟁을 즐기며 암흑 속에 빠졌을 때

Paññā-padīpa-jalito jitavā munindo, Tan-tejasā bhavantu te jayamaṅgalāni.
 판냐~ 빠디~빠 잘리또 지따와~ 무닌도, 탄 떤자사~ 바와뚜 떤 자야망갈라~니.
 위대한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시어 승리하셨으니,

이와 같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도 승리의 길상이 있기를! (*Mn 35.36 작은 삿짜까경.)

Nandopananda-bhujagaṃ vibudhaṃ mahiddhiṃ, Puttena therā-bhujagena damāpayanto,
 난도빠난다 부자강 위부당 마히딩, 뽏테나 테라 부자에게나 다마~빠얀또,
 큰 힘을 가졌지만 삿된 견해를 지닌 난도빠난다 독룡에게 그의 제자 목갈라나 장로를 보내어 현명하게 제압한 것은,

Iddhūpadesa-vidhinā jitavā munindo, Tan-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이두~빠데사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탄 떤자사~ 바와뚜 떤 자야망갈라~니.
 위대한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나타내라는 지시에 의지하여 승리하셨으니,

이와 같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도 승리의 길상이 있기를! (*청정도론12장)

Duggāha-ditṭhi-bhujagena sudaṭṭha-hatthaṃ, Brahmaṃ visuddhi-juti-m-iddhi-Bakābhidhānaṃ,
 독가~하 딛티 부자에게나 수닷타 핫탕, 브라망 위숫디 주띠 밋디 바까~비다~낭,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힌 독룡에게 손을 물린, 청정하고 빛나고 위력 있는 바까라는 이름의 범천에게,

Ñāṇāgadena vidhinā jitavā munindo, Tan 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냐~나~가데나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탄 떤자사~ 바와뚜 떤 자야망갈라~니.
 위대한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지혜의 말씀(약)에 의지하여 승리하셨으니,(*Sn6.4 bakabrahma sutta)

이와 같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도 승리의 길상이 있기를!

Etāpi Buddha-jaya-maṅgala aṭṭha-gāthā, Yo vācano dina-dine sarate-m-atandī,
 에따~삐 붓다 자야 망갈라 앗타 가~타~, 요 와~짜노 디나디네 사라떼 마판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승리의 길상 여덟 가지 계송을 누구라도 매일같이 부지런히 암송하고 회상하면,

Hitvān'aneka-vividhāni c'upaddavāni, Mokkhaṃ sukhaṃ adhigameyya naro sapaṇṇo.
 히따와~나네까 위위다~니 쯔뽏다와~니, 목캉 수캉 아디가메이~야 나로 사판뇨.
 많은 장애들이 제거하면서, 지혜를 갖춘 자 되어 해탈과 행복을 성취한다네.



4. 승리의 계송(Jaya Paritta)²⁴⁾

[Mahā kāruṇiko nātho,]

[마하~ 까~루니꼬 나~토,]

큰 연민심을 지니신 보호자인 부처님께서

Pūretvā pāramī sabbā,

부~레따와~ 빠~라미~ 삽바~,

모든 완벽함(바라밀)을 갖추시면서

Etena sacca-vajjena,

에테나 삿짜 왓제나,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Jayanto bodhiyā mūle,

자얀토 보디아~ 물~레,

보리수 아래에서 승리하신 부처님께서는 석가족의 기쁨을 증장시키는 분 되셨으니

Evam tvam vijayo hohi,

에왕 따왕 위자요 호히,

이와 같이 그대도 동일한 승리를 쟁취하길.. 승리의 축복을 누리길...!

Aparājita-pallaṅke,

아빠라~지따 빨랑께,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보좌에 앉으시어, 땅위로 솟은 연꽃처럼 머리를 세우시고,

Abhiseke sabba-buddhānaṃ,

아비세께 삽바 붓다~낭,

모든 부처님들이 관정하셨으니,

Sunakkhattaṃ sumaṅgalaṃ,

수낙캇땅 수망갈랑,

좋은 별자리, 좋은 축복,

Sukhaṇo sumuhutto ca

수카노 수무훗토 짜

좋은 기회, 알맞은 시간이기에

Padakkhiṇaṃ kāya-kammaṃ,

빠닥키낭 까~야 감망,

몸으로 짓는 바른 행위,

Padakkhiṇaṃ mano-kammaṃ,

빠닥키낭 마노 감망,

바른 뜻으로 짓는 행위,

Padakkhiṇāni katvāna,

빠닥키나~니 까따와~나,

바르게 행함으로써

Hitāya sabbā-pāṇinaṃ,

히따~야 삽바~ 빠~니낭,

모든 생명들의 안녕(安寧)을 위하여,

Patto sambodhim-uttamaṃ,

빳또 삼보디 뭇따망,

없는 완전한 깨달음에 홀로 성취하셨으니,

Hotu te jaya-maṅgale.

호투 떤 제야 망갈레.

그대에게(나에게) 승리의 길상이 있기를!

Sakyānaṃ nandi-vadḍhanaṃ,

사까야~낭 난디 왓다노,

사카족의 기쁨을 증장시키는 분 되셨으니

Jayassu jaya-maṅgalaṃ.

자얏수 제야 망갈랑.

승리의 축복을 누리길...!

Sīse pathavi-pokkhale,

시~세 빠타위 뵅칼레,

땅위로 솟은 연꽃처럼 머리를 세우시고,

Aggappatto pamodati.

악갯빳또 빠모다띠.

최고의 정상에 올라 기쁨을 누리셨네.

Supabhātaṃ suhuttiṃ,

수빠바~땅 수훗티땅,

좋은 새벽, 성스러운 공양물,

Suyiṭṭhaṃ brahma-cārisu.

수잇탕 브라마짜~리수.

청정한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기 좋았네.

Vācā-kammaṃ padakkhiṇaṃ,

와~짜~ 감망 빠닥키낭,

바른 말로 짓는 행위,

Panidhī te padakkhiṇā

빠니디~ 떤 빠닥키나~,

그대의 올바른 행위들을 결심하여

Labhant'atthe padakkhiṇe.

라반땃테 빠닥키네.

당신의 올바른 이익이 성취되기를!

24) (Maha Jaya maṅgla)에서 발췌된 내용(P.166)



5. 모든 부처님의 위력으로(*Culla-Maṅgala-cakka-vāḷa Pāṭha*)

Sabba - Buddhā¹nubhāvena 『 Dhammā²nubhāvena, Saṅghā³nubhāvena 』 ///

삼바 붓다~누바~웨나 『 담마~누바~웨나, 상가~누바~웨나 』

모든 부처님의 『 담마, 상가』의 위력으로

Buddha 『 Dhamma, Saṅgha 』 ~ rattanam ///

붓다 『 담마, 상가 』 랏따낭

부처님 『 담마, 상가 』는 보배일 세,

Tiṇṇaṃ ratanānaṃ ānubhāvena, Catur-āsīti-sahassa-Dhammakkhanda'nubhāvena,

띤낭 라따나~낭 아~누바~웨나, 짜투라~시~핏사합사 담막칸다~ 누바~웨나

이 삼보의 위력으로 팔만사천 법문의 위력으로

Piṭakattay'ānubhāvena

삿따갓따야~ 누바~웨나

삼장의 위력으로

Jina-sāvaka'nubhāvena,

지나 사~와까~ 누바~웨나,

정복자의 제자들의 위신력으로

Sabbe te roga¹ 『 bhaya², antarāyā³, uppada⁴vā, dunnimittā⁵, 』 ///

삼베 떼 로가~ 『 바야~, 안따라~야~, 움빠다와~, 둔니밋따~.』

Sabbe te avamaṅgalā vinassantu.

삼베 떼 아와망갈라~ 위낫산뚜.

모든 질병, 『 두려움, 위험, 스트레스(장애), 불길한 징조 』 등이 없어지길..

Āyu 『 dhana¹, Siri², yassa³, bala⁴, vanna⁵, Sukha⁶ 』 ~ vaddhako ///

아~유 『 다나, 시리, 야사, 발라, 완나, 수카 』 ~ 왓다꼬

수명 『 부유함, 행운, 명성, 건강, 아름다움, 행복』이 증가되길..(7번 반복)

Hotu sabbadā.

호뚜 삽바다~ 이와 같이 항상 지속되길...

Dukkha-roga-bhaya¹ verā sokā sattu c'upaddavā,

독카 로가 바야~ 웨라~ 소까~ 샷뚜 쭈빠다와~,

괴로움, 질병, 위험, 적의, 슬픔, 곤궁함과 스트레스

Anekā antarāyāpi vinassantu ca tejasā.

아네까~ 안따라~야~삿 위낫산뚜 짜 떼자사~.

어떠한 장애도 남지 않고 이러한 위신력으로 모두 사라지길..

Jaya-siddhi dhanam lābham,

자야 싯디 다낭 라~방

승리, 성공, 건강과 재산,

Sotthi bhagyaṃ sukhaṃ balaṃ

솃티 바가양 수캉 발랑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Siri āyu ca vaṇṇo ca,

시리 아~유 짜 완노 짜

길상, 수명과 아름다움,

Bhogaṃ vuddhī ca yasavā,

보강 웃디~ 짜 야사와~

번영과 명성이 증장되고,

Sata-vassā ca āyū ca,

사따 왓사~ 짜 아~유~ 짜

100세가 될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그대에게 항상 좋은 일들만 누리시길!

Jīva-siddhī bhavantu te.

지~와싯디~ 바완뚜 떼.



6. 대 승리의 길상 계송(Mahā jaya maṅgala Gāthā)

(Namo Me ~~)

[Namo me Buddha-tejasā]
[나모 메 붓다 떤자사~]

Tejapasiddhipasidevā
떼자빠싯디빠시데와~

Siddhi brohmā ca indā ca
싯디 브로마~ 짜 인다~ 짜

Samuddā bhūtuṃgaṅgā Sabrambā
삼뭇다~ 부~똥강가~ 사바람바~

Jaya jaya dhorani dhoranī
자야 자야 도라니 도라니~

Jaya jaya gagonlatonlanisai
자야 자야 가곤라똥라니사이

~

Jaya jaya gambhīra sombhī
자야 자야 감비~라 솜비~

~

Jaya jaya dunnimitta rogī
자야 자야 둔니밋따 로기~

Jaya jaya varuṇnamukhasātrā
자야 자야 와룬나무카사~파라~

Jaya jaya gajja gonna-turong
자야 자야 갓자 곤나투론

Jaya jaya varuṇnamukhāyatrā
자야 자야 와룬나무카~야파라~

Jaya jaya sukhā sukhā Jīvī
자야 자야 수카~ 수카~ 지~위~

Jaya jaya dhoranī santin sadā
자야 자야 도라니~ 산핀 사다~

Jaya jaya varuṇna yakhe
자야 자야 와룬나 야케

Jaya jaya brahma-menda-gaṇā
자야 자야 브라마뎨다가나~

Jaya jaya pathaviṃ sabbam
자야 자야 빠타윳 상방

Jaya jaya mahesuro haro harin devā
자야 자야 마헤수로 하로 하린 데와~

Jaya jaya brahmā surakkho
자야 자야 브라마~ 수락코

Virupakkho candimā ravi
위루박코 찬디마~ 라위

Ratanattaya-dhammikā
라따낏따야 담미까~

Nārāyaboramesurā
나~라~야보라메수라~

Catulokā gambhīrakkhakā
짜투로까~ 감비~락카까~

jaya pasiddhi bhavantu te
자야 빠싯디 바완뚜 떤

Udadhi udadhī nādi nādī
우다디 우다디~ 나~디~ 나~디~

Niray say senna meru rājja pon no rajj
니라이 사이 센나 메루랏~자 뽀 노 라지

Nāgendanāgī pīsācca bhūtakālī
나~겐다나~기~ 삐~삿~짜 부~따갈~리

Jaya jaya singisudādāna-mukhajā
자야 자야 싱기수다~다~나 무카자~

Jaya jaya Campādī nāga kula-gamthok
자야 자야 찰빠~디 나~가 꼴라 감톡

Sukaro bhūjom siha pieyaggha dīpā
수카로 부~종 시~하 삐에약가 디~빠~

Jita Jita senāripuna suddhi-noradī
지따 지따 세나~리부나 슯디 노라디~

Jaya jaya dhorani tale sadā-sujayā
자야 자야 도라니 딸레 사다~ 수자야~

Jaya jaya maṅkaraj-raññā bhavagge
자야 자야 망까라자란나~ 바왓게

Jaya jaya rakkhase surabhū-jatejā
자야 자야 락카세 수라부~자떼자~

Jaya jaya rājādhirāja sajjai
자야 자야 라~자~디라~자 삿자이

Jaya jaya arahantā pacceka-buddhasāvaṃ
자야 자야 아라한따~ 뽏째까 붓닷사~왕

Jaya jaya nāgo virūlhako
자야 자야 나~고 위를~라꼬

Indo ca venateyyo ca
인도 짜 웨나떼이요 짜



Kuvero varunopi ca
꾸웨로 와루노삐 짜

Kumāro dhataratṭhako
꾸마~로 다따랏타고

Siddhitā pasa ādayo
싯디따~ 빠사 아~다요

Jaya rāmo bhavantu te
자야 라~모 바완뚜 떼

Dasapālo ca jayyakam
다사팔~로 짜 자이야깁

Jaya sotthi bhavantu te
자야 쏫티 바완뚜 떼

Hotu te jayamaṅgalam
호뚜 떼 자야망갈랑

Aggi vāyo ca pājūho
악기 와~요 짜 빠~준호

Aṭṭharasa mahādevā
앗타라사 마하~데와~

Isīno sāvakā sabbā
이시~노 사~와까~ 삽바~

Jaya Dhammo ca saṅgho ca
자야 담모 짜 상고 짜

Etena jaya tejena
에테나 자야 떼제나

Etena Buddha tejena
에테나 붓다 떼제나

Jayopi Buddhassa sirimato ayam mārassa ca pāpimato parājayo
자요삐 붓닷사 시리마또 아얌 마~랏사 짜 빠~삐마또 빠라~자요

Uggho sayam-bodhimaṇḍe pamoditā jayya tadā Brahma-gaṇā mahesino
욱고 사얌보디만데 빠모디따~ 자야 따다~ 브람마가나~ 마헤시노

Jayopi Buddhassa sirimato ayam mārassa ca pāpimato parājayo
자요삐 붓닷사 시리마또 아얌 마~랏사 짜 빠~삐마또 빠라~자요

Uggho sayam-bodhimaṇḍe pamoditā jayya tadā Inda-gaṇā mahesino
욱고 사얌보디만데 빠모디따~ 자야 따다~ 인다가나~ 마헤시노

Jayopi Buddhassa sirimato ayam mārassa ca pāpimato parājayo
자요삐 붓닷사 시리마또 아얌 마~랏사 짜 빠~삐마또 빠라~자요

Uggho sayam-bodhimaṇḍe pamoditā jayya tadā deva-gaṇā mahesino
욱고 사얌보디만데 빠모디따~ 자야 따다~ 데와가나~ 마헤시노

Jayopi Buddhassa sirimato ayam mārassa ca pāpimato parājayo
자요삐 붓닷사 시리마또 아얌 마~랏사 짜 빠~삐마또 빠라~자요

Uggho sayam-bodhimaṇḍe pamoditā jayya tadā supanna-gaṇā mahesino
욱고 사얌보디만데 빠모디따~ 자야 따다~ 수빤나가나~ 마헤시노

Jayopi Buddhassa sirimato ayam mārassa ca pāpimato parājayo
자요삐 붓닷사 시리마또 아얌 마~랏사 짜 빠~삐마또 빠라~자요

Uggho sayam-bodhimaṇḍe pamoditā jayya tadā nāga-gaṇā mahesino
욱고 사얌보디만데 빠모디따~ 자야 따다~ 나가가나~ 마헤시노

Jayopi Buddhassa sirimato ayam mārassa ca pāpimato parājayo
자요삐 붓닷사 시리마또 아얌 마~랏사 짜 빠~삐마또 빠라~자요

Uggho sayam-bodhimaṇḍe pamoditā jayya tadā saramba-gaṇā mahesino
욱고 사얌보디만데 빠모디따~ 자야 따다~ 사람바가나~ 마헤시노

Jayanto bodhiyā mūle,²⁵⁾
자얀또 보디아~ 물~레,

Sakyānam nandi-vaḍḍhano,
사까야~낭 난디 왓다노,

보리수 아래에서 승리하신 부처님께서는 석가족의 기쁨을 증장시키는 분 되셨으니

25) p.163과 동일한 계송



Evam tvam vijayo hohi,
에왕 따왕 위자요 호히,

이와 같이 그대도 동일한 승리를 쟁취하길.. 승리의 축복을 누리길...!

Aparājita-pallaṅke,
아빠라~지따 빨랑께,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보좌에 앉으시어, 땅위로 솟은 연꽃처럼 머리를 세우시고,

Abhiseke sabba-buddhānaṃ,
아비세께 삽바 붓다~낭,

모든 부처님들처럼 관정하셨으니,

Sunakkhattaṃ sumaṅgalaṃ,
수낙캇땅 수망갈랑,

좋은 별자리, 좋은 길상,

Sukhaṇo sumuhutto ca
수카노 수무훗또 짜

좋은 기회, 알맞은 시간이기에

Padakkhiṇaṃ kāya-kammaṃ,
빠닥키낭 까~야 감망,

몸으로 짓는 바른 행위,

Padakkhiṇaṃ mano-kammaṃ,
빠닥키낭 마노 감망,

바른 뜻으로 짓는 행위,

Padakkhiṇāni katvāna,
빠닥키나~니 까따와~나,

바르게 행함으로써

Te atthaladdhā sukhitā
떼 앗타랏다~ 수키타~

Arogā sukhitā hotha
아로가~ 수키타~ 혼타

Sūnantu bhonto ye devā
수난뚜 본또 예 데와~

Dīghāyukā sadā hontu
디~가~유까~ 사다~ 혼뚜

Rakkhantu sabba sattānaṃ
락칸뚜 삽바 삿따~낭

Yā keci patthanā tesam
야~ 께께 빠따나~ 떤상

Yutta kāle pavassantu
유타 깔~레 빠왓산뚜

Rogā cupaddavā tesam
로가~ 주빳다와~ 떤상

Kāya sukhaṃ citta sukhaṃ
까~야 수캉 찢따 수캉

Jayassu jaya-maṅgale.
자얏수 자야 망갈레.

Sīse paṭhavi-pokkhale,
시~세 빠타위 뽉칼레,

Aggappatto pamodati.
악갸빠또 빠모다띠.

최고의 정상에 올라 기쁨을 누리셨네.

Supabhātaṃ suhuttiṃ,
수빠바~땅 수훗티땅,

좋은 새벽, 성스러운 공양물,

Suyiṭṭhaṃ brahmacārisu.
수잇탕 브라마짜~리수.

청정한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기 좋았다네.

Vācā-kammaṃ padakkhiṇaṃ,
와~짜~감망 빠닥키낭,

바른 말로 짓는 행위,

Paṇidhī te padakkhiṇā
빠니디~ 떤 빠닥키나~,

그대의 올바른 행위들을 결심하여

Labhant'atthe padakkhiṇe.
라반땃테 빠닥키네.

당신의 올바른 이익이 성취되기를!

virūḷha buddhasāsane
위를~라 붓다사~사네

Saha sabbehi ñātibhi
사하 삽베히 냐~띠비

Imasmim thāne adhigatā
이마사밍 타~네 아디가따~

Sukithā hontu sabbadā
수키타 혼뚜 삽바다~

Rakkhantu jina sāsanaṃ
락칸뚜 지나 사~사낭

Sabbe pūrentu manorathā
삽베 뿌~렌뚜 마노라타~

Vassaṃ vassā valāhakā
왓상 와사~ 왓라~하까~

Nivārentu ca sabbadā
니와~렌뚜 짜 삽바다~

Āharantu yāthārahaṃ
아~하란뚜 야~타~라함



7. 정사(亭舍) 보시(*Vihāra-dāna-Gāthā*)

(Verses on donation of lodging)

[*Sītāṃ uṇhaṃ paṭihanti*]
[시~땅 운항 빠띠한띠]

정사는 추위와 더위
Sirīmsape ca makase
시링사빠 짜 마까세
뱀과 모기, 차가운 비를 막아냅니다.

Tato vātātapo ghorō
따또 와~따~따보 고로

두려운 열풍이 불어도 이 또한 막아내니

Lenatthañca sukhatthañca
레낫탄짜 수캇탄짜

수호와 안락 속에서
Vihāra dānaṃ saṅghassa
위하~라 다~낭 상갓사

상가에 보시함으로서
Tasmā hi paṇḍito poso
따사마~ 히 뽀띠또 보소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현자는
Vihāre kāraye ramme
위하~레 까~라예 람메

많이 배운 자들이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네

Tesaṃ annañca pānañca
떼상 안난짜 빠~난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설 곳,

Dadeyya ujubhūtesu
다데이야 우주부~떼수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올곧은 분에게 보시하여

Te tassa dhammaṃ desenti
떼 따사 담망 데센띠

그들은 그대를 위하여 모든 악을 물리치는 담마를 가르치니

yaṃ so dhamma midhaññāya
양 소 담마 미단냐~야

그 담마를 알아 여기에서 번뇌 없이 열반을 성취한다.

Tato vālamigāni ca
따또 왈~라미가~니 짜

맹수뿐만 아니라
Sisire cāpi vuṭṭhiyo.
시시레 짜~삐 윗티요

Sañjāto paṭihaññati.
산자~또 빠띠한냐띠

Jhāyitum ca vipassitum.
자~이똥 짜 위빳시똥

통찰력을 얻고 수행하기 위함이니
Aggaṃ Buddhēhi vāṇitaṃ.
악강 붓데히 완니땅

부처님께서 찬탄하는 거주처일세
Sampassaṃ. atthamattano
삼빳상 앗타맛따노

아담한 거주처를 갖게 되니
Vāsa yettha bahussute.
와~사 옛타 바훗수떼

Vattha senāsanāni ca
왓타 세나~사나~니 짜

Vippasannena cetasā.
윽빠산네나 켜따사~

Sabba-dukkh'ā-panūdanaṃ.
삼바독카~ 빠누~다낭

Parinibbā-tyanāsavoti.
빠리닙바~ 따야나~사오티

[쫄라박가 p.759, 전채성 번역 참조]

8. 30 바라밀(*Tim̐sa Pāramī*)

(The 30 Perfections)

[*Dāna pāramī*] *sampanno*,
[다~나 빠~라미~] 삼반노,

부처님은 보시(베푼)의 완벽함을,

Dāna upa pāramī sampanno,
다~나 우빠 빠~라미~ 삼반노

지극한 보시(베푼)의 완벽함을,

Dāna paramattha pāramī sampanno,
다~나 빠라맛타 빠~라미~ 삼반노

최상의 보시(베푼)의 완벽함을 완성하셨으니

Mettā maitri karunā muditā upekkhā pāramī sampanno
멧따~ 마이뜨리 까루나~ 무디따~ 우베크카~ 빠~라미~ 삼반노

자비, 친밀, 연민, 공감하는 환희심과 평정심의 완성을 지니셨으니 (*자,비,희,사)

Itipi so Bhagavā.
이띠삐 소 바가와,

세존께서는 실로 이러하셨네.

Sīla pāramī sampanno,
실~라 빠~라미~ 삼반노,

부처님은 덕성의 완벽함을,

Sīla upa pāramī sampanno,
실~라 우빠 빠~라미~ 삼반노

지극한 덕성을 구족하셨으니

Sīla paramattha pāramī sampanno,
실~라 빠라맛타 빠~라미~ 삼반노

최상의 덕성을 구족하셨으니

Mettā maitri karunā muditā upekkhā pāramī sampanno,
멧따~ 마이뜨리 까루나~ 무디따~ 우베크카~ 빠~라미~ 삼반노

자비, 친밀, 연민, 공감하는 환희심과 평정심의 완성을 지니셨으니

Itipi so Bhagavā.
이띠삐 소 바가와,

세존께서는 실로 이러하셨네..

Nekkhamma pāramī sampanno,
넝캄마 빠~라미~ 삼반노,

세존은 금욕의 완벽함을,

Nekkhamma upa pāramī sampanno,
넝캄마 우빠 빠~라미~ 삼반노

지극한 금욕을 구족하셨으니

Nekkhamma paramattha pāramī sampanno,
넝캄마 빠라맛타 빠~라미~ 삼반노

최상의 금욕을 구족하셨으니

Mettā maitri karunā muditā upekkhā pāramī sampanno
멧따~ 마이뜨리 까루나~ 무디따~ 우베크카~ 빠~라미~ 삼반노

자비, 친밀, 연민, 공감하는 환희심과 평정심의 완성을 지니셨으니

itipi so Bhagavā.
이띠삐 소 바가와,

세존께서는 실로 이러하셨네.



Paññā pāramī sampanno,
반나~ 빠~라미~ 삼반노

세존은 지혜의 완벽함을,

Paññā upa pāramī sampanno,
반나~ 우빠 빠~라미~ 삼반노

지혜의 지극한 완벽함을,

Paññā paramattha pāramī sampanno,
반나~ 바라맛타 빠~라미~ 삼반노

지혜의 최상의 완벽함을 구족하셨으니

Mettā maitri karunā muditā upekkhā pāramī sampanno,
멧따~ 마이뜨리 까루나~ 무디따~ 우뻑카~ 빠~라미~ 삼반노

자비, 친밀, 연민, 공감하는 환희심과 평정심의 완성을 지니셨으니

Itipi so Bhagavā
이띠삿 소 바가와,

세존께서는 실로 이러하셨네..

卍 7 회 반복

Viriya, Khantī, Saccā, Adhiṭṭhāna, Mettā, Upekkhā, Dāsa 』
위리야, 칸띠~, 샷짜~, 아딧타~나, 멧따~, 우뻑카~, 다~사 』
 ~ *pāramī sampanno,*
빠~라미~ 삼반노

세존은 『정진, 인내, 진실함, 결단력, 자비심, 평정심, 완성도』의 완벽함을

Viriya, Khantī, Saccā, Adhiṭṭhāna, Mettā, Upekkhā, Dāsa 』
위리야, 칸띠~, 샷짜~, 아딧타~나, 멧따~, 우뻑카~, 다~사 』
 ~ *upa pāramī sampanno,*
우빠 빠~라미~ 삼반노

정진 『인내, 진실함, 결단력, 자비심, 평정심, 완성도』의 지극한 완벽함을,

Viriya, Khantī, Saccā, Adhiṭṭhāna, Mettā, Upekkhā, Dāsa 』
위리야, 칸띠~, 샷짜~, 아딧타~나, 멧따~, 우뻑카~, 다~사 』
 ~ *paramattha pāramī sampanno,*
바라맛타 빠~라미~ 삼반노

정진 『인내, 진실함, 결단력, 자비심, 평정심, 완성도』의 최상의 완벽함을 구족하셨으니

Mettā maitri karunā muditā upekkhā pāramī sampanno,
멧따~ 마이뜨리 까루나~ 무디따~ 우뻑카~ 빠~라미~ 삼반노

자비, 친밀, 연민, 공감하는 환희심과 평정심의 완성을 지니셨으니

Itipi so Bhagavā
이띠삿 소 바가와,

세존께서는 실로 이러하셨네.

卍 (7회 반복구간)



9. 최상의 믿음(*Aggappasāda-sutta-Gāthā*)

[*Aggato ve*] *pasannānaṃ*,²⁶⁾
[악가또 웨] 빠산나~낭

진실한 최상의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

Agge Buddhē pasannānaṃ
악게 붓데 빠산나~낭

부처님에 대한 최상의 믿음 가지며,

Agge Dhamme pasannānaṃ
악게 담메 빠산나~낭

담마에 최상의 믿음을 가지며

Agge Saṅghe pasannānaṃ
악게 상게 빠산나~낭

상가에 최상의 믿음을 가지며

Aggasmim dānaṃ dadatam,
악가사밧 다~낭 다다땅

최상의 보시를 통해,

Aggaṃ āyu ca vanṇo ca,
악강 아~유 짜 완노 짜

오래도록 사시고, 아름다우시길..

Aggassa dātā medhāvi,
악갓사 다~따~ 메다~위

최상에 보시하는 지혜로운 분은,

Deva-bhūto manusso vā,
데와 부~또 마눗소 와~

천신이나 인간이 되더라도

Aggaṃ dhammaṃ vijānataṃ
악강 담망 위자~나땅

최상의 담마는 알려 졌고,

Dakkhiṇeyye anuttare
닥키네이예 아눗따레

무한한 공양을 받을 만 하시네.

Virāgūpasame sukhe
위라~구~빠사메 수케

모든 열정이 고요한, 기쁨으로 충만 하네

Puñṇakkhetṭe anuttare
뽤낙켓테 아눗따레

무한 공덕의 터전 일세

Aggaṃ puñṇaṃ pavaddhati.
악강 뽤낭 빠왓다피.

최상의 공덕이 늘어나네.

Yaso kitti sukhaṃ balaṃ
야소 깃띠 수캉 발랑

그처럼 명성과 행복과 건강을 즐기시길..

Agga-Dhamma-samāhito
악가 담마 사마~히또

최상의 담마에 대해 확고하네

Agga-patto pamodati ti.
아갓 빠또 빠모다피~ 띠.

최상의 것을 성취하며 향유한다네.

26) 양굿따라 니까야 (V.32)



10. 때맞은 보시 공덕의 경(*Kāla-dānā-sutta-Gāthā*)²⁷⁾

[*Kāle dadanti*] *sapaññā*,
[갈~레 다단띠] 사뻘나~
관대하고 인색함을 초월한

Kālena dinnam ariyesu,
갈~레나 딘낭 아리에수
고귀한 분, 진실한 분,

Vippasanna-manā tassa,
윽빠산나 마나~ 땃사
정신이 청정하면

Ye tattha anumodanti,
예 땃타 아누모단띠
그것에 기뻐하고 기꺼이

Na tena dakkhinā onā,
나 떤나 닥키나~ 오나~
그들의 베품도 적지 않아

Tasamā dade appaṭivāna-citto,
따사마~ 다데 압빠띠~와나 췌또
보시된 것이 커다란 열매를 거두는 곳에

Puññāni para-lokasmiṃ
뽀냐~니 빠라 로까사밍
공덕은 저 세상에서

Vadaññū vīta-maccharā
와단뉴~ 위~따 맛차라~
지혜로운 자는 때맞춰 보시한다.

Uju-bhūtesu tādisu
우주 부~떼수 따~디수
거룩한 분들에게 때맞춰 보시된 것

Vipulā hoti dakkhinā.
위뽀라~ 호띠 닥키나~
그가 베푸는 것은 광대한 것이네

Veyyāvaccam karonti vā
웨이야~왓짱 까론티 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Te pi puññassa bhāgino
떼 비 뽀냐ssa 바~기노
공덕을 나누어 가지네

Yattha dinnam mahapphalaṃ
얏타 딘낭 마합팔랑
기꺼운 마음으로 보시하라

paṭiṭṭhā honti pāninan-ti
빠땃타~ 혼띠 빠~니난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리.

11. 음식의 경(*Bhojana-dānanumodana-Gāthā*)²⁸⁾

[*Āyu-do bala-do*] *dhīro*
[아~유도 발라도] 디~로
수명과 힘과

Sukhassa dātā medhāvī
수갓사 다~따~ 메다위~
스스로 얻은 행복감을 나누는 지혜로운 분

Vaṇṇa-do paṭibhāṇa-do
완나~도 빠띠바~나 도
아름다움과 재치를 가진 깨달은 분.

Sukham so adhigacchati
수강 소 아디갓차띠

27) *Āṅguttara Nikaya* (V.36)에서 발췌됨. 까티나 데이와 같은 특별한 의식이 있는 날에 종종 예경되어짐.

28) *AN*(V.37)



Āyum datvā balam vaṇṇam
아~음 다따와~ 발랑 완낭

수명과 힘과 아름다움과 재치를 가진

Dīgh'āyu yasavā hoti
디~가~유 아사와~ 호피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오래 살고, 명성을 누린다네.

Sukhañ-ca paṭibhāṇa-do
수칸 짜 빠띠바~나 도

Yattha yatthūpapajjati-ti.
얏타 얏투~빠빳자띠~띠

12. 보시하는 이익(*So atthaladdho*)

[*So atthaladdho*] *sukhito*,
[소 앗탈랏도] 수키또,

그대가 이로움을 얻고 안락하기를!

Arogo sukhito hohi,
아로고 수키또 호히,

모든 친척들과 함께

Sā atthaladdhā sukhitā,
사~ 앗탈랏다~ 수키따~,

그녀가 이로움을 얻고 안락하기를!

Arogā sukhitā hohi,
아로가~ 수키따~ 호히,

모든 친척들과 함께

Te atthaladdhā sukhitā,
떼 앗탈랏다~ 수키따~,

그들이 이로움을 얻고 안락하기를!

Arogā sukhitā hontu,
아로가~ 수키따~ 혼뚜,

모든 친척들과 함께

Virulho buddhasāsane,
위룰로 붓닷사~사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증장되길!

Saha sabbhehi ñātibhi.
사하 삽베히 냐~띠비.

질병 없이 행복하기를!

Virulhā buddhasāsane,
위룰라~ 붓닷사~사네,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나아가기를!

Saha sabbhehi ñātibhi.
사하 삽베히 냐~띠비.

질병 없이 행복하기를!

Virulhā buddhasāsane,
위룰라~ 붓닷사~사네,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나아가기를!

Saha sabbhehi ñātibhi.
사하 삽베히 냐~띠비.

질병 없이 행복하기를!

[*Jaya-paritta*에서 발취]



13. 돌아가신 분을 위한 보시(*Tirokuddakanda Sutta*)

[*Adāsime,*] *akāsi me,*
[아다~시메,] 아까~시 메

그분은 나를 위해 보시하고, 일 하셨으며,

Petānaṃ dakkhiṇaṃ dajjā
빼따~낭 닥키낭 닛자~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며,

Na hi runnaṃ vā soka vā
나 히 룬낭 와~ 소꼬 와~

비록 눈물 흘릴 수 없고, 또한 슬픔도 없으며, 어떠한 비탄의 기색도 없지만,

Na taṃ petānaṃ-atthāya
나 팅 빼따~낭 앗타~야

돌아가신 분에게 이익이 되길..

-----*29)

Ayañ-ca kho dakkhiṇā dinnā
아얀짜 코 닥키나~ 딘나~

이 공양물들이

Dīgha-rattaṃ hitāyassa
디~가 랏땅 히따~앗사

그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So ñāti-dhammo ca ayaṃ nidassito
소 냐~띠 담모 짜 아양 니닷시또

이같이 친지들에게 적절한 의무를 보여드렸으니,

Petanā pūjā ca katā uḷārā
빼따나~ 부~자~ 짜 까~따~ 올라~라~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높은 명성이 주어지고,

Tumhehi puññaṃ pasutaṃ anappakan-ti.
똥헤히 뽀낭 빠수땅 아납빠간띠.

여러분은 적지 않은 공덕을 지었습니다.

Ñāti-mittā sakhā ca me
냐~띠 밋따~ 사카~ 짜 메

가족이며, 친구이며,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Pubbe katam-anussaraṃ
뵈베 까따 마눗사랑

돌아가신 분들에게 보시가 이루어지길..

Yā vaññā paridevanā
야~ 완냐~ 빠리데와나~

Evaṃ tiṭṭhanti ñātayo
에왕 땃탄띠 냐~파요

친지들이 이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Saṅghamhi supatitṭhitā
상감히 수빠땃티따~

잘 수행하는 상가가 보시될 때,

Thānaso upakappati
타~나소 우빠깁빠띠

즉각 도움이 됩니다.

Balañ-ca bhikkhūnaṃ-anuppadinnaṃ
발란짜 빅꾸~나 마눗빠딘낭

스님들도 그만큼 수행의 힘을 얻었으니,

29) *부분은 *Tirokuddakanda Sutta* (Discourse on Those Outside the Wall), Khuddakapatha 8에 있는 결론 부분으로, 종종 죽은 분들에게 공덕을 올리고자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예불문. 또는 이 부분만 분리 독송하기도 함.



14. 보시의 으뜸은 상가(*Keṇīyānumodanā Gāthā*)

[*Aggihuttaṃ mukhā yañña*]
[악기훑땅 무카~ 안나~]

불에 헌공하는 것이 제사중의 제일이고,

Rājā mukhaṃ manussānaṃ
라~자~ 목강 마눗사~낭

왕은 사람들 중의 제일이고

Nakkhattānaṃ mukhaṃ cando
낙캇따~낭 목강 찬도

달은 하늘의 별 중에 으뜸이요

Puññaṃ ākaṅkhamānānaṃ
뿐냐 마~깡카마~나~낭

보시자들이 올린 공덕으로는

Bhaṇissāma mayā gāthā
바닛사~마 마양 가~타~

그러므로 여기 이 계송으로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이루어진 공덕을 말하니,

Etā suṇantu sakkaccaṃ
에따~ 수난뚜 삭갓짱

이를 듣고서 모든 보시자들에게 공덕이 스며들기를...

Sāvitti chandaso mukhaṃ
사~윳띠 찬다소 무강

‘사윳뜨리’는 운율의 제일이다.

Nadīnaṃ sāgaro mukhaṃ
나디~낭 사~가로 목강

바다는 강들 중에 제일이다.

Ādicco tapataṃ mukhaṃ
아~딛쪼 따빠땅 목강

태양은 빛나는 것들 중에 으뜸이다.

Saṅgho ve yajataṃ mukhaṃ.
상고 웨 야자땅 목강

상가가 제일이다.

Kāladānappadīpikā
갈~라다~납빠디~삐까~

Dāyakā puñṇakāminotī.
다~야까~ 뿐냐까~미노띠

[MN 92 셀라경- 26계송:대림스님 번역]

15. 삼보의 위신력(*Ratanattay'ānubhāv'ādi- Gāthā*)

[*Ratanattay'ānubhāvena,*]
[라따닛따야~누바~웨나,]

삼보의 위신력으로,

ratanattayā tejasā,
라따닛따야~ 떤자사~

삼보의 찬란한 광명으로,

Dukkha-roga-bhayā verā sokā sattū c'upaddavā,
독카 로가 바야~ 웨라~ 소까~ 샷뚜 쭈빳다와~

고통, 질병, 재난과 증오, 슬픔, 위험과 근심 걱정 등

Anekā antarāyā pi vinassantu asesato,
아네까~ 안따라~야~ 삐 위닛산뚜 아세사또,

이 위신력으로 모든 장애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모두 소멸되기를!



Jaya-siddhi dhanam lābham,

자야 싯디 다낭 라~방,

승리, 성공, 건강과 재산,

Siri āyu ca vaṇṇo ca,

시리 아~유 짜 완노 짜,

길상, 수명과 아름다움,

Sata-vassā ca āyū ca,

사따왓사~ 짜 아~유~ 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sotthi bhāgyam sukham balaṃ,

솿티 바~가양 수캉 발랑,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bhogam vuḍḍhī ca yasavā,

보강 웃디~ 짜 야사와~,

번영과 명성이 증장되고,

jīva-siddhī bhavantu te.

지~와 싯디~ 바완뚜 떼.

그대에게 항상 좋은 결과 있기를!

16. 모든 축복이 함께 하길..(*Sumaṅgala- Gāthā*)

☞ *Hotu sabbam sumaṅgalam;*

호뚜 삽방 수망가랑;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길.

Rakkhantu sabba-devatā

락칸뚜 삽바 데와따~

모든 천신들이 보호해주시길..

Sabba- buddh'ānubhāvena

삽바 붓다~누바~웨나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 dhamm'ānubhāvena,

『 담마~누바~웨나,

『 담마의 위신력으로,

saṅgh'ānubhāvena 』

상가~누바~웨나 』

상가의 위신력으로 』

Sotthī hontu nirantaram.

솿티~ 혼뚜 니란따랑.

축복이 영원하길.

/// (3번 반복)

17. 삼보 예찬(Venerating the Triple Gem)–(태)

[*Yo so Bhagavā*] *araham sammā-sambuddho.*

[요 소 바가와~] 아라함 삼마~ 삼붓도.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태] Phra-phū-mī-phra-phāk jao phra-ong dai pen phra, arahanta sam-mā sam-buddha,

프라~푸~미~ 프라~팍~ 짜오 프라옹 다이 펜 프라 아라한~ 삼마~ 삼붓다,

Svākkhāto yena Bhagavatā dhammo.

사왓~카~또 예나 바가와따~ 담모.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

[태] Phra-dham an Phra-phū-mī-phra-phāk jao phra-ong dai trat soon dī laew,

프라담~ 안 프라~푸~미~ 프라~팍~ 짜오 프라옹 다이 트랏 썬 디~ 래우



Supatipanno yassa Bhagavato sāvaka-saṅgho.
수빠띠반노 얏사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훌륭하게 수행해온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태] Phra-song sāvok khong Phra-phū-mī-phra-phāk jao phra-ong dai patibat dī laew
프라송 사~워 켕 프라 푸~ 미~ 프라 팍~ 짜오 프라옹 다이 빠티바~ 디~ 래우

Tam-mayam Bhagavantam sadhammam sasaṅgham,
탐 마양 바가완탐 사담망 사상강,

이러한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에

[태] khāpajao tang lāi khor pūjā yang ying cheung Phra-phū-mī-phra-phāk jao phra-ong nan
카~빠짜오 탕 라~이 커 부~차~ 양 잉 쯡 프라 푸~ 미~ 프라 팍~ 짜오 프라옹 난

prom dooy phra-dham prom dooy phra-song,
프롬 두외 프라담 프롬 두외 프라송

Imehi sakkārehi yathāraham āropitehi abhipūjayāma.
이메히 삭까~레히 야타~라함 아~로삐떼히 아비부~자야~마.

우리들은 진정한 존경심으로 최상의 예경 올립니다.

[태] Dooy kreung sakkara law-nī ti yok kheun leaw tām-som-khwan
두외 크렁 삭까라 라우니~ 티~ 욱 켜~ 큰 래우 탐~ 쏜 쿵원

Sādhū no bhante Bhagavā sucira-parinibbutopi,
사~두 노 반떼 바가와~ 수찌라 빠리닙부또삐,

비록 존경하는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셨지만,

[태] Phra-phū-mī-phra-phāk jao mae parinibbān nan leaw khor dai song-karunā prod therd,
프라 푸~ 미~ 프라 팍~ 짜오 매 빠리닙반~ 난 래우 커 다이 송 까루나~ 뽏~ 터어,

Pacchimājanatānukampamānasā,
빳치마~자나따~누감빠마~나사~,

제자들을 연민히 여기시어,

[태] Khor dai mī nām-phra-tai anukroh kear mū-jon ti kerd mā mai phāi lang,
커 다이 미~ 남 프라 타이 아누사로 깨 무~죤 티 커드 마~ 마이 파~이 랑,

Ime sakkāre duggatapaṇṇākārabhūte paṭiggaṇhātu.
이메 삭까~레 둑가따반나~까~라부~떼 빠띃간하~뚜.

우리들의 공손한 예를 받아 주소서.

[태] Khor jong song rap greung sakkāra tang-lāi law nī an pen bannakrān khong kon yāk,
커 쯡 송 랍 쯡 삭까라 탕~라이 라우 니~ 안 뽀~ 반나까~안 켕 켜~ 약~,

Amhākam dīgharattam hitāya sukhāya.
암하~강 디~가랏탐 히타~야 수카~야.

오래도록 이익과 행복을 바랍니다.

[태] Pheu-pra-yod lae khwām suk kear puwok khaphrajao tang-lāi sin kāl-nān tern.
푸어 프라 욱 래 콰~움 쑉 깨 푸웍 카파짜오 탕~라이 싸~ 칼~라난~ 터어.



18. 승리자의 보금자리(*Jina-pañjara Gāthā*)

(The Victor's Cage)

[*Jay'asan'āgatā Buddhā*]
[자야~사나~가따~ 붓다~]

Catu-saccā sabhaṃ rasam
짜뚜 삿짜~ 삽방 라상

사성제의 감로를 마신 성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승리의 왕좌에 앉으시고, 마라를 물리치셨습니다.

Taṇhaṃ kar'ādayo Buddhā
탄항 까라~다요 붓다~

Sabbe paṭiṭṭhitā mayhaṃ
삽베 빠띃띠따~ 마이항

탄항까라로부터 시작된 현명한 군주이며 28분의 지도자인 이러한 부처님들은 나의 머리의 정수리에 모두 자리하고 계십니다.

Sise paṭiṭṭhito mayhaṃ
시~세 빠띃띠또 마이항

부처님은 나의 머리에,

Saṅgho paṭiṭṭhito mayhaṃ
상고 빠띃띠또 마이항

모든 덕성을 지닌 상가는

Hadaye me Anuruddho
하다예 메 아누룻도

아누룻도는 나의 심장에,

Koṇḍañño piṭṭhi-bhāgasmim
꼰단뇨 빗티 바~가사밍

꼰단냐는 나의 등 뒤에,

Dakkhiṇe savane mayhaṃ
닥키네 사와네 마이항

나의 오른쪽 귀에는

Kassapo ca Mahānāmo
깟사보 짜 마하~나~모

깟사빠와 마하나마는

Ke'sante piṭṭhi-bhāgasmim
께산떼 빗티 바~가사밍

나의 머리 뒤쪽에서

Jetvā māraṃ savāhanam
제따와~ 마~랑 사와~하낭

Ye pivimsu nar'āsabhā
예 비윙수 나라~사바~

Aṭṭha-vīsati nāyakā
앗타 위~사띠 나~야까~

Matthake te mun'issarā
맏타께 떼 무닛사라~

Buddho Dhammo davi locane
붓도 담모 다위 로짜네

나의 눈에는 담마가,

Ure sabba-guṇākaro
우레 삽바구나~까로

나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Sārīputto ca dakkhiṇe
사~리~붓또 짜 닥키네

사리붓따는 나의 오른쪽에,

Moggallāno ca vāmake
목갈란~노 짜 와~마께

목갈라나는 나의 왼편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Āsum Ānanda-Rāhulo
아~승 아~난다 라~홀로

아난다와 라홀라가,

Ubh'āsum vāma-sotake
우바~승 와~마 소따께

나의 왼쪽 귀에 상주하시며,

Suriyo'va pabhaṅkaro
수리요와 빠방까로

고귀한 성자이신 소비따는



Nisinnō siri-sampanno
니신노 시리 삼판노

태양처럼 빛나며 완전한 후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Kumāra-kassapo thero
꾸마~라 깃사보 테로

지혜롭고 웅변가이시며,

So mayham vadane niccām
소 마이함 와다네 닛짱

꾸마라까삿빠는

Punno Aṅgulimālo ca
뿐노 앙굴리마~로 짜

뿐나, 앙굴리말라,

Therā pañca ime jāta
테라~ 뽀짜 이메 자~따~

다섯 분의 장로께서는 나의 이마의 중간에 경이스러운 징표로 솟아있습니다.

Se'sāsī-ti mahātherā
세사~시~띠 마하~테라~

승리자이며, 승리자의 제자들이며,

Etesīti mahātherā
에테시~띠 마하~테라~

덕성으로 빛나시는 80분의 위대한 존자들은

Jalantā sīla-tejena
잘란따~ 실~라떼제나

나의 몸의 곳곳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Ratanam purato āsi
라따낭 뿌라또 아~시

보배경은 중앙에,

dhaj'aggam pacchato āsi
다작강 뽀차또 아~시

다작가(깃발) 경은 뒤쪽에,

Khandha-Mora-parittaṇ ca
칸다 모라 빠릿판 짜

칸다(무더기) 보호주와 모라 보호주와

Ākāsechadanam āsi
아~까~세차다낭 아~시

나머지 경전들은 성벽처럼 굳건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Jin'ānanavara-samyuttā
지나~나나와라 상윳따~

승리자의 권위와 위력으로 보호되는

Sobhito muni-puṇḍavo
소비또 무니 붕가오

Mahesī citta-vādako
마헤시~ 켓따 와~다코

덕성의 보고이신

Patitthāsi guṇākaro
빠띃타~시 구나~카로

항상 나의 입에 계십니다.

Upālī Nanda-Sīvalī
우팔~리~ 난다 시~왈리~

우팔리, 난다와 시왈리의

Nalāte tilakā mama
날라~떼 필라까~ 마마

Vijitā jina-sāvaka
위지따~ 지나사~와까~

승리자의 아들이며,

Jitavanto jinorasā
지따완또 지노라사~

Aṅga-maṅgesu saṇṭhitā
앙가망게수 산티따~

Dakkhine Metta-suttakam
닥키네 멧따 슛따강

자비경은 오른쪽에,

Vāme Aṅgulimālakaṃ
와~메 앙굴리말~라강

앙굴리말라 보호주는 왼편에,

Ātānāṭiya-suttakam
아~따~나~피야 슛따강

아따나피야 경은 앞쪽 천장에 있으며

Sesā pākāra-saṇṭhitā
세사~ 빠~까~라 산티따~

Satta-pākāra-laṅkatā
삿따 빠~까~라 랑까타~

7가지 성벽들이 그들을 에워 쌓습니다.



Vāta-pitt'ādi-sañjātā
와~따 뵈따~디 산자~따~

허풍이나 짜증과 같은 일들로 생겨난 안과 밖의 모든 불운들이

Asesā vinayaṃ yantu
아세사~ 위나양 얌뚜

끝이 없는 승리자의 위력으로 모두 남김없이 소멸되길..

Vasato me sakiccena
와사또 메 사깃쨌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스스로 깨우치신 부처님의 보호 속에

Jina-pañjara-majjhamhi
지나 뽀자라 맛잠히

승리자들의 보호 속에 머물며 살아가는 동안,

Sadā pārentu maṃ sabbe
사다~ 뽤~렌뚜 망 삽베

모든 위대한 성자들께서 나를 항상 보호해주십니다.

Icc'evamanto sugutto surakkho
잇쨌와만또 수굿또 수락코

그러나 나는 최상으로 편안하고, 보호 받습니다.

Dhammānubhāvena jītārisaṅgho
담마누바웨나 지따~리상고

담마의 위력으로 적군들이 퇴각합니다.

Saddhammānubhāva-pālito
삿담마~누~바와 뽤~리또~

진실한 담마의 위력으로 보호받는,

Bāhir'ajjhataṭṭupaddavā
바~히랏갓뚜뽤따와~

Ananta-jina-tejasā
아난따 지나 떤자사~

Sadā Sambuddha-pañjare
사다~ 삼뽤다 뽀자레

Viharantaṃ mahītaḷe
위하란땅 마히~팔레

Te mahā-purīsāsabhā
떼 마하~ 뿌리사~사바~

Jinānubhāvena jīt'upaddavo
지나~누바~웨나 지뚜뽤다오

승리자의 위력으로 모든 불행들이 사라집니다.

Saṅghānubhāvena jīt'antarāyo
상가~누바~웨나 지판따라~요

상가의 위력으로 위험들이 소멸됩니다.

Carāmi jina-pañjareti.
짜라~미 지나 뽀자레띠

나는 승리자의 등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19. 10 방위 보호 계송(*Atthanga Disani Sutta*)

(*Bodhipāda Gāthā – Ten Direction Sutta*)

1. 동(東) East

[*Būraphā-rasamim*] *Phra-buddhaguṇaṃ*, *Būraphā-rasamim Phra dhammettaṃ*,
[부~라파~라사밍] 프라 붓다구낭, **부~라파~라사밍 프라 담멧땅,**
Būraphā-rasamim Phra saṅghānaṃ, *Dukkha roga bhayaṃ vivañjayye*,
부~라파~라사밍 프라 상가~낭 **дукка 로가 바양 위완자이에**

동쪽으로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의 덕스러움이 있나니, 괴로움, 질병과 공포가 물러가길

Sabba-dukkh' sabba-sokh' sabba-roke' sabba-pai sabba-kroh' saniet-jañrai vivañjayye,
삼바дук 삼바속 삼바록 삼바빠이 삼바끄로 사니엣 잔라이 위완자이에,
 모든 고통, 슬픔, 위험, 불운, 불경스런 일들이 모두 사라지길..

Sabbe-dhanaṃ sabbe-lābhaṃ bhavantu me, Rakkhantu surakkhantu.
삽베 다낭 삽베 라~방 바완뚜 메, 락칸뚜 수락칸뚜.
 부와 번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잘 보호해주시길...

2. 남동(南東) South East

Āgane-rasamim Phra-buddhaguṇaṃ, *Āgane-rasamim Phra dhammettaṃ*,
아~가네라사밍 프라 붓다구낭, **아~가네라사밍 프라 담멧땅,**
Āgane-rasamim Phra saṅghānaṃ, *Dukkha roga bhayaṃ vivañjayye*,
아~가네라사밍 프라 상가~낭 **дукка 로가 바양 위완자이에**

동남쪽으로도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의 덕스러움이 있나니, 괴로움, 질병과 공포가 물러가길

Sabba-dukkh' sabba-sokh' sabba-roke' sabba-pai sabba-kroh' saniet-jañrai vivañjayye,
삼바дук 삼바속 삼바록 삼바빠이 삼바끄로 사니엣 잔라이 위완자이에,
 모든 고통, 슬픔, 위험, 불운, 불경스런 일들이 모두 사라지길..

Sabbe-dhanaṃ sabbe-lābhaṃ bhavantu me, Rakkhantu surakkhantu.
삽베 다낭 삽베 라~방 바완뚜 메, 락칸뚜 수락칸뚜.
 부와 번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잘 보호해주시길...

3. 남(南) South

Dakṣiṇ-rasamim Phra-buddhaguṇaṃ, *Dakṣiṇ-rasamim Phra dhammettaṃ*,
닥신라사밍 프라 붓다구낭, **닥신라사밍 프라 담멧땅,**
Dakṣiṇ-rasamim Phra saṅghānaṃ, *Dukkha roga bhayaṃ vivañjayye*,
닥신라사밍 프라 상가낭 **дукка 로가 바양 위완자이에**

남쪽으로도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의 덕스러움이 있나니, 괴로움, 질병과 공포가 물러가길



Sabba-dukkh' sabba-sokh' sabba-roke' sabba-pai sabba-kroh' saniet-jañrai vivañjayye,
삼바дук 삼바속 삼바록 삼바빠이 삼바끄로 사니엣 잔라이 위완자이에,
 모든 고통, 슬픔, 위험, 불운, 불경스런 일들이 모두 사라지길..

Sabbe-dhanam sabbe-lābham bhavantu me, Rakkhantu surakkhantu.
삼베 다낭 삼베 라~방 바완뚜 메, 락칸뚜 수락칸뚜.
 부와 번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잘 보호해주시길...

4. 남서(南西) South West

Haradī-rasamim Phra-buddhagunam, Haradī-rasamim Phra-dhammettam,
하라디~라사밍 프라 붓다구낭, 하라디~라사밍 프라 담멧땅,
Haradī-rasamim Phra-saṅghānam, Dukkha roga bhayaṃ vivañjayye,
하라디~라사밍 프라 상가~낭, 독카 로가 바양 위완자이에

남서쪽으로도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의 덕스러움이 있나니, 괴로움, 질병과 공포가 물러가길

Sabba-dukkh' sabba-sokh' sabba-roke' sabba-pai sabba-kroh' saniet-jañrai vivañjayye,
삼바дук 삼바속 삼바록 삼바빠이 삼바끄로 사니엣 잔라이 위완자이에,
 모든 고통, 슬픔, 위험, 불운, 불경스런 일들이 모두 사라지길..

Sabbe-dhanam sabbe-lābham bhavantu me, Rakkhantu surakkhantu.
삼베 다낭 삼베 라~방 바완뚜 메, 락칸뚜 수락칸뚜.
 부와 번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잘 보호해주시길...

5. 서(西) West

Pacchima-rasamim Phra-buddhagunam, Pacchima-rasamim Phra-dhammettam,
빳치마라사밍 프라 붓다구낭, 빳치마라사밍 프라 담멧땅
Pacchima-rasamim Phra-saṅghānam, Dukkha roga bhayaṃ vivañjayye,
빳치마라사밍 프라 상가~낭, 독카 로가 바양 위완자이에

서쪽으로도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의 덕스러움이 있나니, 괴로움, 질병과 공포가 물러가길

Sabba-dukkh' sabba-sokh' sabba-roke' sabba-pai sabba-kroh' saniet-jañrai vivañjayye,
삼바дук 삼바속 삼바록 삼바빠이 삼바끄로 사니엣 잔라이 위완자이에,
 모든 고통, 슬픔, 위험, 불운, 불경스런 일들이 모두 사라지길..

Sabbe-dhanam sabbe-lābham bhavantu me, Rakkhantu surakkhantu.
삼베 다낭 삼베 라~방 바완뚜 메, 락칸뚜 수락칸뚜.
 부와 번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잘 보호해주시길...



6. 북서(北西) North West

Phāyap-rasamīṃ Phra-buddhagūṇaṃ,
파야빠라사밍 프라 붓다구낭,

Phāyap-rasamīṃ Phra-saṅghānaṃ,
파야빠라사밍 프라 상가낭,

Phāyap-rasamīṃ Phra-dhammettaṃ,
파야빠라사밍 프라 담멧땅,

Dukkha roga bhayaṃ vivaṇṇajaye,
독카 로가 바양 위완자이에

북서쪽으로도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의 덕스러움이 있나니, 괴로움, 질병과 공포가 물러가길

Sabba-dukkh' sabba-sokh' sabba-roke' sabba-pai sabba-kroh' saniet-jaṇṇai vivaṇṇajaye,
삼바독 삼바속 삼바록 삼바빠이 삼바크로 사니엣 잔라이 위완자이에,

모든 고통, 슬픔, 위험, 불운, 불경스런 일들이 모두 사라지길..

Sabbe-dhanaṃ sabbe-lābhaṃ bhavantu me, Rakkhantu surakkhantu.
삼베 다낭 삼베 라방 바완뚜 메, 락칸뚜 수락칸뚜.

부와 번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잘 보호해주시길...

7. 북(北) North

Udara-rasamīṃ Phra-buddhagūṇaṃ,
우다라라사밍 프라 붓다구낭,

Udara-rasamīṃ Phra-saṅghānaṃ,
우다라라사밍 프라 상가낭

Udara-rasamīṃ Phra-dhammettaṃ,
우다라라사밍 프라 담멧땅

Dukkha roga bhayaṃ vivaṇṇajaye,
독카 로가 바양 위완자이에

북쪽으로도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의 덕스러움이 있나니, 괴로움, 질병과 공포가 물러가길

Sabba-dukkh' sabba-sokh' sabba-roke' sabba-pai sabba-kroh' saniet-jaṇṇai vivaṇṇajaye,
삼바독 삼바속 삼바록 삼바빠이 삼바크로 사니엣 잔라이 위완자이에,

모든 고통, 슬픔, 위험, 불운, 불경스런 일들이 모두 사라지길..

Sabbe-dhanaṃ sabbe-lābhaṃ bhavantu me, Rakkhantu surakkhantu.
삼베 다낭 삼베 라방 바완뚜 메, 락칸뚜 수락칸뚜.

부와 번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잘 보호해주시길...

8. 북동(北東) North East

Isāna-rasamīṃ Phra-buddhagūṇaṃ,
이사나라사밍 프라 붓다구낭,

Isāna-rasamīṃ Phra-saṅghānaṃ,
이사나라사밍 프라 상가낭.

Isāna-rasamīṃ Phra-dhammettaṃ,
이사나라사밍 프라 담멧땅,

Dukkha roga bhayaṃ vivaṇṇajaye,
독카 로가 바양 위완자이에,

북동쪽으로도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의 덕스러움이 있나니, 괴로움, 질병과 공포가 물러가길



Sabba-dukkh' sabba-sokh' sabba-roke' sabba-pai sabba-kroh' saniet-jañrai vivañjayye,
삼바дук 삼바속 삼바록 삼바빠이 삼바끄로 사니엣 잔라이 위완자이에,
 모든 고통, 슬픔, 위험, 불운, 불경스런 일들이 모두 사라지길..

Sabbe-dhanam sabbe-lābham bhavantu me, Rakkhantu surakkhantu.
삼베 다낭 삼베 라방 바완뚜 메, 락칸뚜 수락칸뚜.
 부와 번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잘 보호해주시길...

9. 상(上) In the Top

Paṭhavī-rasamim Phra-buddhagunam, Paṭhavī-rasamim Phra-dhammettam,
빠타위~라사밍 프라 붓다구낭, 빠타위~라사밍 프라 담멧땅
Paṭhavī-rasamim Phra-saṅghānam, Dukkha roga bhayaṃ vivañjayye,
빠타위~라사밍 프라 상가~낭, 독카 로가 바양 위완자이에,
 우리들 위쪽으로도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의 덕스러움이 있나니, 괴로움, 질병과 공포가 물러가길

Sabba-dukkh' sabba-sokh' sabba-roke' sabba-pai sabba-kroh' saniet-jañrai vivañjayye,
삼바дук 삼바속 삼바록 삼바빠이 삼바끄로 사니엣 잔라이 위완자이에,
 모든 고통, 슬픔, 위험, 불운, 불경스런 일들이 모두 사라지길..

Sabbe-dhanam sabbe-lābham bhavantu me, Rakkhantu surakkhantu.
삼베 다낭 삼베 라방 바완뚜 메, 락칸뚜 수락칸뚜.
 부와 번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잘 보호해주시길...

10. 하(下) In the Bottom

Ākāsa-rasamim Phra-buddhagunam, Ākāsa-rasamim Phra-dhammettam,
아~까~사라사밍 프라 붓다구낭, 아~까~사라사밍 프라 담멧땅,
Ākāsa-rasamim Phra-saṅghānam, Dukkha roga bhayaṃ vivañjayye,
아~까~사라사밍 프라 상가~낭, 독카 로가 바양 위완자이에
 우리들 아래쪽으로도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의 덕스러움이 있나니, 괴로움, 질병과 공포가 물러가길

Sabba-dukkh' sabba-sokh' sabba-roke' sabba-pai sabba-kroh' saniet-jañrai vivañjayye,
삼바дук 삼바속 삼바록 삼바빠이 삼바끄로 사니엣 잔라이 위완자이에,
 모든 고통, 슬픔, 위험, 불운, 불경스런 일들이 모두 사라지길..

Sabbe-dhanam sabbe-lābham bhavantu me, Rakkhantu surakkhantu.
삼베 다낭 삼베 라방 바완뚜 메, 락칸뚜 수락칸뚜.
 부와 번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잘 보호해주시길...



제7장 의식(Formal Requests)

1. 임시 수계 요청(Nekkhamma)

Esahaṃ bhante, sucira-parinibbutampi, taṃ Bhagavantam saraṇaṃ gacchāmi,
 ऐसाहं भन्ते, सुचिरा परिनिबुत्तम्पि, तं भगवान्तां सारानां गच्छामि,

존경하는 스님, 나는 완전한 열반에 이르신 부처님 그분과,

dhammañca bhikkhu-saṅghaṃ, dehi maṃ pabbajjaṃ bhante,
 담만짜 빅쿠 상간짜, 데히 망 뵘뵘짱 반떼,

담마와 상가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상가는 수계받고자 하는 점을 헤아려주시고,

saṅgho dhāretu, ajjatagge pāṇupetaṃ saraṇaṃ gataṃ.
 상고 다레뚜, 앓자딱게 빠누뵘뵘땅 사라나 갓따.

받아 주시기길... 나는 이 순간부터 삼보를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2. 환속(Relinquishing the Precepts)

Sikkhaṃ paccakkhami.

식캉 뵘뵘카미

환속하려고 합니다.

[태] Khor-phā-jao khor khrāp lā sikkhā.(×3)
 크어 파~ 짜오 크어 크~람 라~ 식카~

Upasikattaṃ maṃ saṅgho dhāretu.

우빠시갓따 망 상고 다레뚜.

내가 환속하려고 하니, 상가에서 받아주십시오.

[태] Kor Phā Song jong jum khāphajao wā pen upāsika. (×3)
 크어 파~ 송 쯡 쯡 카~파짜오 와~ 뵘 우빠~사까.

{*여성 : female:}

[태] Kor Phā Song jong jum khāphajao wā pen upāsaka. (×3)
 크어 파~ 송 쯡 쯡 카~파짜오 와~ 뵘 우빠~사까.



3. 5계 수계 요청(Requesting the 5 Precepts)

<요청자>

Mayaṃ bhante, visuṃ visuṃ rakkhanaṭṭhāya,
마양 반떼, 위승 위승 락카닛타야,
ti-saraṇena saha pañca sīlāni yācāma.
띠사라네나 사하 뽀짜 실라니 야짜마.*

존경하는 스님!, 우리(나)는 삼귀의와 동시에 오계를 청합니다.

* 단독일 때, 야차미(*yācāmi*, 1인칭 단수형), 야차마(*yācāma*, 1인칭 복수형 어미)

Dutiyampi 『 *Tatīyampi* 』 *mayāṃ bhante,* *visuṃ visuṃ rakkhanaṭṭhāya,*
두띠암삐 『 따띠암삐 』 마양 반떼, 위승 위승 락카닛타야,
*ti-saraṇena saha pañca sīlāni yācāma.**
띠사라네나 사하 뽀짜 실라니 야짜마.
 스님!. 두번째로 『 세번째 』로 ... 청합니다. ||| 2회 반복

* 먼저 스님이 다음의 문장을 세 번 암송한 후, 요청자는 (나모 따사~)를 암송합니다.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3번, 3 times)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닷사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 스님께서 다음 문장 한 문장씩 암송하면, 요청자는 따라서 암송합니다.

¹*Buddhaṃ* 『 ²*Dhammaṃ, Saṅghaṃ* 』 ~ *saraṇaṃ gacchāmi.* |||(3X)
뵓당 『 답망, 상강 』 사라낭 갓차~미.
 부처님을 『 담마를, 상가를 』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

Dutiyampi ¹*Buddhaṃ* 『 ²*Dhammaṃ, Saṅghaṃ* 』 ~ *saraṇaṃ gacchāmi.* |||(3X)
두띠암삐 뵓당 『 답망, 상강 』 사라낭 갓차~미.
 두 번째도 부처님을 『 담마를, 상가를 』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

Tatīyampi ¹*Buddhaṃ* 『 ²*Dhammaṃ, Saṅghaṃ* 』 ~ *saraṇaṃ gacchāmi.* |||(3X)
따띠암삐 뵓당 『 답망, 상강 』 사라낭 갓차~미.
 세 번째도 부처님을 『 담마를, 상가를 』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



*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i-saraṇa-gamanam niṭṭhitam.

띠 사라나 가마낭 닛티팡

이상이 세 가지 의지해야할 의지처입니다.

*요청자가 대답합니다.

Āma bhante.

아~마 반떼

예, 스님.

* 이상과 같이 동의한 후, 먼저 스님께서 계를 한 줄씩 암송하고 요청자는 한 항목씩 따라 암송합니다.

1. *Pāṇātipāt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빠~나~띠빠~따~ 웨라마니~ 식카~ 빠당 사마~디아~미.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2. *Adinnādān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식카~ 빠당 사마~디아~미.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는 것을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3. *Kāmesu micchācār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까~메수 밋차~짜~라~ 웨라마니~ 식카~ 빠당 사마~디아~미.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4. *Musāvād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무사~와~다~ 웨라마니~ 식카~ 빠당사마~디아~미.

잘못되게 말하는 것을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5. *Surā-meraya-majja-pamādatṭhān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수라~ 메라야 맛자 빠마~닷타~나~ 웨라마니~ 식카~ 빠당 사마~디아~미.

부주의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Imāni pañca sikkhāpadāni samādhīyāmi.

이마~니 뽀짜 식카~빠다~니 사마~디아~미.

5계를 지키겠습니다.



* 그 후, 스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율 수지의 이익을 말씀해주며, 마무리 합니다.

Imāṇi pañca sikkhā-padāni:

이마~니 뽀짜 식카~ 빠다~니

이것들이 지켜야 할 5계들 입니다.

Sīlena sugatim yanti.

실~레나 수가땡 얀띠

계행을 통해 행복함으로 가게 되고

Sīlena bhoga-sampadā.

실~레나 보가 삼빠다~

계행을 통해 부유해지며,

Sīlena nibbutim yanti.

실~레나 님부땡 얀띠

계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게 되니,

Tasmā sīlaṃ visodhaye.

따사마~ 실~랑 위소다예

이와 같은 계를 청정히 지키셔야 합니다. (삼배)

*요청자가 대답합니다.

Āma bhante.

아~마 반떼.

잘 알았습니다. 스님!

4. 8계 수계 요청(Requesting the 8 Precepts)

<요청자>

Mayaṃ bhante, ti-saraṇena saha aṭṭha sīlāni yācāma.

마양 반떼, 띠사라네나 사하 앗타 실~라~니 야~짜~마30)*

존경하는 스님!, 우리(나는) 삼귀의와 동시에 8계를 청합니다.

卐 *Dutiyampi*

두띠얌삐

『 *Tatīyampi* 』

『 **따띠얌삐** 』

mayāṃ bhante,

마양 반떼,

ti-saraṇena saha aṭṭha sīlāni yācāma.

띠 사라네나 사하 앗타 실~라~니 야~짜~마

스님!. 두번째로 『 세번째 』로 ...8계를 요청합니다.

卐 2회 반복

* 먼저 스님이 다음의 문장을 세 번 암송한 후, 요청자는 (나모 따사~)를 암송합니다.

卐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卍 (3번, 3 times)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닷사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30) * 혼자일 때엔, 야차미(*yācāmi*) , 두명 이상일 때 야차마(*yācāma*)



* 스님께서 다음 문장 한 문장씩 암송하면, 요청자는 따라서 암송합니다.

##	¹ Buddham 붓당 부처님을	『 ² Dhammam, 담망, 담마를,	』 ³ Saṅgham 상강 상가를	』 ~ saraṇam gacchāmi.』』(3X) 사라낭 갓차~미.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
##	¹ Dutiyampi Buddham 두띠얌삐 붓당 두 번째도 부처님을	『 ² Dhammam, 담망, 담마를,	』 ³ Saṅgham 상강 상가를	』 ~ saraṇam gacchāmi.』』(3X) 사라낭 갓차~미.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
##	¹ Tatiyampi Buddham 따띠얌삐 붓당 세 번째도 부처님을	『 ² Dhammam, 담망, 담마를,	』 ³ Saṅgham 상강 상가를	』 ~ saraṇam gacchāmi.』』(3X) 사라낭 갓차~미.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

*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i-saraṇa-gamanam niṭṭhitam.

띠 사라나 가마낭 닛티땅

이상이 세 가지 의지할 대상입니다.

* 요청자가 대답합니다.

Āma bhante.

아~마 반떼

잘 알았습니다. 스님!

* 요청자가 동의한 이후, 스님이 먼저 다음의 계목을 하나씩 암송하고 요청자는 한 계목을 따라 암송합니다.

1. *Pāṇātipāt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빠~나~띠빠~따~ 웨라마니~ 식카~ 빠당 사마~디아~미.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2. *Adinnādān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식카~ 빠당 사마~디아~미.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는 것을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3. *Abrahma-cariy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아바라마짜리아~ 웨라마니~ 식카~ 빠당 사마~디아~미.

모든 성적인 행위를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4. *Musāvād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무사~와~다~ 웨라마니~ 식카~ 빠당사마~디아~미.

잘못되게 말하는 것을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5. *Surā-meraya-majja-pamādatthān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수라~ 메라야 맛자 빠마~닷타~나~ 웨라마니~ 식카~ 빠당 사마~디아~미.

부주의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6. *Vikāla-bhojan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위꺄~라 보자나~ 웨라마니~ 식카~ 빠당 사마~디아~미.

때가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7. *Nacca-gīta-vādita-visūka-dassanā mālā-gandha-vilepana-dhāraṇa ~*
낫짜 기~따 와~디따 위수~까 닛사나 말~라~ 간다 율레빠나 다라나
maṇḍana-vibhūsanatthān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만다나 위부~사닛타~나~ 웨라마니~ 식카~ 빠당 사마~디아~미.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즐기는 장소에 가거나, 꽃이나 향수로 몸치장하는 것
을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8. *Uccāsayaṇa-mahāsayaṇ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웃짜~사야나 마하~사야나~ 웨라마니~ 식카~ 빠당 사마~디아~미.

넓고 높은 침상 위에서 잠자는 것을 삼가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Imāni attha sikkhā padāni samādiyāmi: (3X)
이마~니 앗타 식카~ 빠따~니 사마~디아~미.

8계를 지키겠습니다. (삼배)

* 그 후, 스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율 수지의 이익을 말씀해주며, 마무리 합니다.

Imāni attha sikkhā-padāni:

이마~니 앗타 식카~ 빠따~니 실~레나 수가땡 얀띠

이것들이 지켜야 할 8계들 입니다. 계행을 통해 행복함으로 가게 되고

Sīlena bhoga-sampadā.

실~레나 보가 삼빠다~

계행을 통해 부유해지며,

Sīlena sugatim yanti.

실~레나 수가땡 얀띠

Sīlena nibbutim yanti.

실~레나 님부땡 얀띠

계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게 되니,

Tasmā sīlam visodhaye.

따사마~ 실~랑 위소다예

이와 같은 계를 청정히 지키셔야 합니다. (삼배)

*요청자가 대답합니다.

Āma bhante.

아~마 반떼.

잘 알았습니다. 스님!



5. 청법 계송(*Ārādhanā Dhammadesanā*)

Brahmā ca lokādhipatī sahampati *Kat'añjalī andhivaram ayācatha*
 브라마~ 짜 로까~디빠띠~ 사함빠띠, 까탄잘리~ 안디와랑 아야~짜타,

이 우주의 주인인 범천왕 사함빠띠가 예경 드리고 정중하게 청하옵니다.

Santīdha sattāpparajakkha-jātikā *Desetu dhammaṃ anukampimaṃ pajam.*
 싯띠~다 샷따~빠라작카자~띠까~, 데세뚜 담망 아누감빔망 빠장.

내가 두루 살펴보니 이 세상 중생들 가운데 욕망이 적고 번뇌가 적은 이들이 있사
 오니, 그들을 연민하시어 진리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6. 보호주 또는 축원을 요청(*Ārādhanā Paritta*)

Vipatti-paṭibāhāya
 위빳띠빠띠바~하~야

불행을 쫓아내고

Sabba dukkha-vināsāya
 삽바 독카위나~사~야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 제거하여

Vipatti-paṭibāhāya
 위빳띠빠띠바~하~야

불행을 쫓아내고

Sabba bhaya-vināsāya
 삽바 바야위나~사~야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들 몰아내어

Vipatti-paṭibāhāya
 위빳띠빠띠바~하~야

불행을 쫓아내고

Sabba roga-vināsāya
 삽바 로가위나~사~야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질병 벗어나서

sabba-sampatti-siddhiyā,
 삽바 삼빳띠싯디야~,

모든 행운을 성취하도록

parittaṃ brūtha maṅgalaṃ.
 빠릿땅 브루~타 망갈랑.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sabba-sampatti-siddhiyā,
 삽바 삼빳띠싯디야~,

모든 행운을 성취하도록

parittaṃ brūtha maṅgalaṃ.
 빠릿땅 브루~타 망갈랑.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sabba sampatti-siddhiyā,
 삽바 삼빳띠싯디야~,

모든 행운을 성취하도록

parittaṃ brūtha maṅgalaṃ.
 빠릿당 브루~타 망갈랑.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7. 상가용품 헌공 요청(General *saṅgha dānā* offering)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ṃ bhante, saṅghadānāni, saparivārāni, sīlavantassa, oṇojayāma,

이마~니 마양 반떼, 상가다~나~니, 사빠리와~라~니, 실~라완땃사, 오노자야~마,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한 상가 보시물품들을 여법하게 공양 올리오니,

sādhū no bhante, sīlavanto, imāni, saṅghadānāni, saparivārāni,

사~두 노 반떼, 실~라완또, 이마~니, 상가다~나~니, 사빠리와~라~니,

우리들이 준비한 상가 보시물품들을 여법하게,

paṭiggaṇhātu, amhāk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빠딕간하~뚜,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받아주시어, 우리들의 이익과 행복이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8. 음식 공양 요청(Food offering)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ṃ bhante, bhattāni, saparivārāni, sīlavantassa,

이마~니, 마양 반떼, 밧따~니, 사빠리와~라~니, 실~라완땃사,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한 음식과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여법하게 공양 올리오니,

oṇojayāma, sādhū no bhante, sīlavanto, imāni, bhattāni, saparivārāni,

오노자야~마, 사~두 노 반떼, 실~라완또, 이마~니, 밧따~니, 사빠리와~라~니,

우리들이 준비한 공양과 필요한 물품들을 여법하게 받아주시어,

paṭiggaṇhātu, amhāk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빠딕간하~뚜,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받아주시어, 우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행복하며 향상됨이 있어 다음 생에도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9.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음식 공양(*Matakabhatta Pūjā*)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ṃ bhante, matakabhattāni, saparivārāni,

이마~니, 마양 반떼, 마따까뵤따~니, 사빠리와~라~니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한 영가(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음식과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sīlavantassa, oṇojayāma, sādhu no bhante,

실~라완땃사, 오노자야~마, 사~두 노 반떼.

여법하게 공양 올리오니,

sīlavanto, imāni, matakabhattāni, saparivārāni,

실~라완또, 이마~니, 마따까뵤따~니, 사빠리와~라~니,

우리들이 준비한 음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여법하게,

paṭiggaṇhātu, amhāk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빠딕간하~뚜,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받아주시어, 우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행복하며 향상됨이 있어 다음 생에도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10. 목욕가사 보시(*Vāsikacīvara Pūjā*)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ṃ bhante, vassāvāsikāni, saparivārāni,

이마~니, 마양 반떼, 왓사~와~시까니, 사빠리와~라~니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한 목욕가사와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bhikkhu-saṅghassa, oṇojayāma, sādhu no bhante, bhikkhu-saṅgho,

빅쿠상갓사, 오노자야~마, 사~두 노 반떼, 빅쿠상고,

상가에 공양 올리오니,

imāni, vassīkasātāni,

이마~니, 왓시~까사~타~니,

우리들이 준비한 안거 목욕 가사와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존경하는 상가에서

paṭiggaṇhātu, amhāk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빠딕간하~뚜,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받아주시어, 우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행복하며 향상됨이 있어 다음 생에도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11. 목욕가사와 가사보시(*Vassikasāṭika*–*Ticīvarāṇi* Offreing)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m bhante, vassivasāṭika, cīvarāni, saparivārāni,
이마~니, 마양 반떼, 왓시와사~띠까, 꺾~와라~니, 사빠리와라니,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된 목욕가사와 가사와 필요물품을

bhikkhus-aṅghassa, oṇojayāma, Sādhu no bhante, bhikkhusaṅgho,

빅쿠상갓사, 오노자야마, 사~두 노 반떼, 빅쿠상고

상가에 공양 올리오니,

Imāni, vassivasāṭika, cīvarāni, saparivārāni, paṭiggaṇhātu.
이마~니, 왓시와사띠까, 꺾~와라~니, 사빠리와라니, 빠딕간하~뚜.

우리들이 준비한 목욕 가사와 가사와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존경하는 상가에서 받아들이시어,

amhāk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우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행복하며 향상됨이 있어 다음 생에도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12. 까티나 데이 가사 공양(*Kaṭhina cīvara Pūjā*)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aṃ bhante, saparivāraṃ kaṭhina-dussaṃ, saṅghassa, oṇojayāma,
이망 반떼, 사빠리와~랑 까티나뒗상, 상갓사, 오노자야~마,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한 안거 해제후 까티나 가사와 함께 상가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양 올리오니,

sādhu no bhante, saṅgho, imaṃ, saparivāraṃ, kaṭhina-dussaṃ, paṭiggaṇhātu
사두 노 반떼, 상고, 이망, 사빠리와~랑, 까티나뒗상, 빠딕간하~뚜

존경하는 상가의 스님들께서 우리들이 준비한 해제 후 까티나 가사와 함께 상가에 필요한 물품들을 존경하는 상가에서 받아들이시어,

paṭiggahetvā ca, iminā dussena, kaṭhinaṃ attharatu.
빠딕가헤따와~ 꺾, 이미나~ 뒗세나, 까티낭 앗타라뚜

이를 받아들이시고, 이 가사를 입고 유행하시어



amhāk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우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행복하며 향상됨이 있어 다음 생에도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13. 헌 옷 공양(Forest Cloth offering)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ṃ bhante, paṇṣūkula-cīvarāni, saparivārāni, sīlavantassa,
이마~니, 마양 반떼, 빵수~꼴라쎌~와라~니, 사빠리와라니, 실~라완땃사,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한 헌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여법하게

oṇojayāma, sādhu no bhante, sīlavanto, imāni, paṇṣūkula-cīvarāni,
오노자야~마, 사~두 노 반떼, 실~라완또, 이마~니, 빵수~꼴라쎌~와라~니,

보시하오니, 우리들이 준비한 헌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여법하게,

saparivārāni, paṭiggaṇhātu, amhāk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사빠리와~라~니, 빠딕간하~뚜,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받아주시어, 우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행복하며 향상됨이 있어 다음 생에도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14. 초 공양(Rain Retreat Candles offering)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ṃ bhante, vassikadīpāni, saparivārāni, bhikkhusaṅghassa,
이마~니, 마양 반떼, 왓시까디빠~니, 사빠리와~라~니, 빅쿠상갓사,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한 우안거용 양초들과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상가에 공양 올리오니,

oṇojayāma, sādhu no bhante, bhikkhusaṅgho, imāni, vassikadīpāni,
오노자야~마, 사~두 노 반떼, 빅쿠상고, 이마~니, 왓시까디~빠~니,

존경하는 스님들께서 우리들이 준비한 우안거용 양초들과 필요한 물품들을

saparivārāni, paṭiggaṇhātu, amhāk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사빠리와~라~니, 빠딕간하~뚜,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받아주시어, 우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행복하며 향상됨이 있어 다음 생에도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15. 초, 향, 꽃 공양(Candle-Incense and Flowers offering)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뵤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m bhante, dipa-dhūpa-puppha-varāni, (saparivārāni),

이마~니, 마양 반떼, 디빠 두~빠 뽀파 와라~니, (사빠리와~라~니)

존경하는 스님, 여기 좋은 양초, 향, 꽃들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ratanattayasessa, abhipūjayāma, Amhākaṃ, ratanattayassa pūjā,

라따나따얏세와, 아비뿌자야~마, 암하~강, 라따나따얏사 뿌자,

삼보 전에 올립니다. 삼보 전에 올린 공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평온하고

dīgha-rattam, hitā-sukhāvahā hotu. āsvakkhayap-pattiyā.

디~가랏땅, 히따~수카~와하~ 호뚜, 아~사왓카얌 뽏띠야~.

행복하며, 번뇌의 소멸로 이끌어 주길...

16. 거처 헌공(Lodging offering)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뵤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m bhante, seānasanāni, āgatānāgatassa,

이마~니, 마양 반떼, 세나~사나~니, 아~가따~나~가땃사,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한 거처를 이곳에 머무시거나 앞으로 오실 분을 포함하여

사방의 상가에 헌공하오니

cātuddisassa, bhikkhu-saṅghassa, niyyādemā, Sādhū no bhante, bhikkhusaṅgho,

짜똥디삿사, 빅쿠상갓사, 니이야데마, 사~두 노 반떼, 빅쿠상고,

imāni, seānasanāni, patiggaṇhātu.

이마~니, 세나~사나~니, 빠딕간하~뚜.

존경하는 스님들께서 우리들이 헌공하는 거처를 받아들이시어

amhākañceva, mātāpitu-ādīnañca, ñatakātaṃ, dīgharattam, hitāya, sukhāya.

암하~간제와, 마~따~삐뚜 아~디~난짜, 나따까~땅,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이와 같은 인연으로 우리들 부모님과 친척들이 오랫동안 풍요롭게 행복하길 바랍니다.



17. 책 보시(Books offering)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ṃ bhante, paṇṇāni, saparivārāni, sīlavantassa, oṇojayāma,
이마~니, 마양 반떼, 뽀나~니, 사빠리와~라~니, 실~라완땃사, 오노자야~마,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한 책들과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여법하게 올리오니

sādhū no bhante, sīlavanto, imāni, paṇṇāni, saparivārāni, paṭiggaṇhātu.
사~두 노 반떼. 실~라완또, 이마~니, 뽀나~니, 사빠리와~라~니, 빠딕간하~뚜,
 우리들이 준비한 책들과 필요한 물품들을 존경하는 상가에서 받아주시어,

amhākañceva, mātāpitu ādīnañca, ñatakāt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암하~관제와, 마~따~삐뚜 아~디~난짜, 야따까~땅,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이와 같은 인연으로 우리들 부모님과 친척들이 오랫동안 풍요롭게 행복하길 바랍니다.

18. 의약품 보시(Medicine(*bhesajja*) – offering)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ṃ bhante, gilānabhesajjāni, saparivārāni, sīlavantassa, oṇojayāma,
이마~니, 마양 반떼, 길라~나베삿자~니, 사빠리와~라~니, 실~라완땃사, 오노자야~마,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한 의약품들과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여법하게 올리오니

sādhū no bhante, sīlavanto, imāni, gilānabhesajjāni, saparivārāni, paṭiggaṇhātu.
사~두 노 반떼, 실~라완또, 이마~니, 길라~나베삿자~니, 사빠리와~라~니, 빠딕간하~뚜,
 우리들이 준비한 의약품들과 필요한 물품들을 존경하는 상가에서 받아들이시어,

amhākañceva, mātāpitu ādīnañca, ñatakāt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암하~관제와, 마~따~삐뚜 아~디~난짜, 야따까~땅,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이와 같은 인연으로 우리들 부모님과 친척들이 오랫동안 풍요롭게 행복하길 바랍니다.



19. 쌀 헌공(Rice offering)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māni, mayaṃ bhante, taṇḍulāni, saparivārāni, sīlavantassa, oṇojayāma,
이마니, 마양 반떼, 땅둘라니, 사빠리와라니, 실~라완땃사, 오노자야~마,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한 쌀들과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여법하게 올리오니

sādhū no bhante, sīlavanto, imāni, taṇḍulāni, saparivārāni, paṭiggaṇhātu.
사~두 노 반떼. 실~라완또, 이마니, 땅둘라니, 사빠리와라니, 빠딕간하~뚜,

우리들이 준비한 쌀들과 필요한 물품들을 존경하는 상가에서 받아들이시어,

amhākañceva, mātāpitu ādīnañca, ñatakāt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암하~간제와, 마~따~삐뚜 아~디~난짜, 야따까~땅,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이와 같은 인연으로 우리들 부모님과 친척들이 오랫동안 풍요롭게 행복하길 바랍니다.

20. 부처님께 헌공하면서(Offering Buddha -dana)

Imaṃ, sapabayañjana-sampannaṃ, sīlīnaṃ, bhojanaṃ, udakaṃ varam,

이망, 사빠바얀자나 삼판낭, 실~리~낭, 보자낭, 우다깁 와랑,

Buddhassa pūjemi.

뵓닷사 부~제미

이 음식과 물을 헌공하면서 부처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1. 공덕의 회향(Transference of Merits)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Idaṃ me mātāpitūnaṃ hotu,

이당 메 마~따~삐뚜~낭 호뚜,

이 공덕이 부모님에게 회향되기를.

sukhitā hontu mātāpitāro.

수키타~ 혼뚜 마~따~삐따로

그분들이 행복하시길..

Idaṃ me ñatīnaṃ hotu,

이당 메 야띠~낭 호뚜,

이 공덕이 나의 친지들에게 이룩기를.

sukhitā hontu ñatayo.

수키타~ 혼뚜 야따요.

그분들이 행복하시길..

Idaṃ me gurūpajjhāyācariyānaṃ hotu,

이당 메 구루~뵓자~야~짜리야~낭 호뚜,

이 공덕이 나의 스승들과 계사스님에게 이룩기를. 그분들이 행복하시길..

sukhitā hontu gurūpajjhāyācariyā.

수키타~ 혼뚜 구루~뵓자~야~짜리야~.

Idaṃ sabba devānaṃ hotu,

이당 삽바 데와~낭 호뚜,

이 공덕이 모든 신들에게 이룩기를.

sukhitā hontu sabbe devā.

수키타~ 혼뚜 삽베 데와~

그분들이 행복하시길..

Idaṃ sabba petānaṃ hotu,

이당 삽바 삐따~낭 호뚜,

이 공덕이 모든 아귀들에게 이룩기를.

sukhitā hontu sabbe petā.

수키타~ 혼뚜 삽베 삐따~.

그분들이 행복하시길..

Idaṃ sabba verīnaṃ hotu,

이당 삽바 웨리~낭 호뚜,

이 공덕이 모든 적들에게 이룩기를.

sukhitā hontu sabbe verī.

수키타~ 혼뚜 삽베 웨리~.

그분들이 행복하시길..

Idaṃ sabba sattānaṃ hotu,

이당 삽바 삿따~낭 호뚜,

이 공덕이 모든 존재들에게 이룩기를.

sukhitā hontu sabbe sattā.

수키타~ 혼뚜 삽베 삿따~.

그분들이 행복하시길..



22. 용서를 구함(Requesting Forgiveness)

1. 삼보 전에 :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Ratanattaye pamādena, dvārattayena katam,

라타닛따예 빠마~데나, 다와~랏따예나 까땅

우리들이 부주의하여 신, 구, 의로 저지른

Sabbam aparādham khamatu no bhante.

삽방 아빠라~당 카마뚜 노 반떼. (×3)

모든 잘못들을 삼보 전에 용서를 구합니다.

2. 큰 스님 앞에서 :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Mahathere³¹⁾*³²⁾] pamādena, dvārattayena katam,*

[마하테레] 빠마~데나, 다와~랏따예나 까땅,

Sabbam aparādham khamatu no bhante.

삽방 아빠라~당 카마뚜 노 반떼. (×3)

우리들이 부주의하여 신, 구, 의로 저지른 잘못들을 큰 스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심 >

Aham khamāmi, tumhehi pi me khamitabbam.

아함 카마~미, 툼헤히 뵀 메 카미따방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응답 :>

Khamāma bhante.

카마~마 반떼.

우리들은 용서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큰 스님께서 말씀하심>

Sādhu bhante.

사두, 반떼

장하십니다. 스님들...

31) 마하테레(Mahāthere)는 범람이 아주 높으신 경우이고, 테레는 높은 경우, 우빠자예(Upajjhāye)는 자신의 계사스님에게, 아짜리예(Ācariye)는 자신의 스승, 그리고 일반적인 스님은 아야사만떼(Āyasmante)로 대체하여 사용합니다.

32) 마하테레 대신에 '마~따~빠따레(mātāpitare)를 대입하면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절자로 변함



23. 상가의 날 법회의식(Māgha Pūjā)

[Handa mayam buddhassa Bhagavato pubba bhaga namakāram karoma se]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Ajjāyam māgha-puṇṇamī sampattā, māgha nakkhattena puṇṇa cando yutto,
앗자~양 마~가 뽀나미~ 삼뽃따~, **마~가 낙캇떼나 뽀나 찬도 윗또,**
 오늘 정월 보름 상서로운 상가의 날, 마가달의 보름달이 완전하게 된 날에,

yattha Tathāgato araham sammā-sambuddho, cāturaṅgike sāvaka-sannipāte,
얏타 따타~가또 아라함 삼마~ 삼붓도, **짜~뚜랑기께 사~와까 산니빠~떼**
 모든 번뇌 떠나신 분이여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인 부처님께서 계신 곳
 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간 성스러운 제자들이 모여,

ovāda-pāṭimokkham uddisi.
오와~다 빠~띠목캉 윗디시.

오와다 빠띠목카(戒目 送出)을 행하였습니다.

Tadā hi aḍḍha terasāni bhikkhu-satāni, sabbe saṃyeva khīṇāsavānaṃ,
따다~ 히 앗다 테라사~니 빅꾸 사따~니, **삽베 상예와 키~나~사와~낭,**
 그때 그날, 1250명의 비구들, 모든 번뇌 제거하고 생사윤회를 부수어버린 분들,

sabbe te ehi-bhikkhukā, sabbepi te anāmantitāva, Bhagavato santikaṃ āgatā,
삽베 떼 에히빅꾸까~, 삽베삐 떼 아나~만띠따~와, **바가와또 산띠깡 아~가따~,**
 ‘이리 오너라. 비구들이여!’ 라는 출가의식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Veḷuvane kalandaka-nivāpe, māgha puṇṇamiyaṃ vadḍhamāna kacchāyāya,
웰루와네 갈란다까니와~삐, **마~가 뽀나미양 왓다마~나 갓차~야~야,**

어떤 만날 약속도 없이, 마가달의 보름날 저녁에, 죽림정사 안의 동산가운데 세존
 앞에 이르러서, 마주 둘러앉았습니다.

Tasmiṃca sannipāte, Bhagavā visuddh'uttam'uposatham akāsi,
따사민짜 산니빠떼, **바가와~ 위숫똥따무보사탕 아까~시,**
 그 모임에서, 세존께서 위없이 청정한 포살을 이끄셨고,

ovāda-pāṭimokkham uddisi.
오와~다 빠~띠목캉 윗디시.

오와다 빠띠목카를 행하셨습니다.

Ayaṃ amhākaṃ Bhagavato, ekoyeva sāvaka-sannipāto, ahosi cāturaṅgiko,
아양 암하~깡 바가와또, **에꼬예와 사~와까 산니빠~또,** **아호시 짜~뚜랑기꼬,**
 이와 같이 이것은 세존께서, 사방으로 퍼져나간, 모든 번뇌 제거하고



aḍḍha terasāni bhikkhu-satāni, sabbesaṃ yeva Khīṇāsavānaṃ,
 앓다 떤라사~니 빅꾸 사따~니, 삽베상 예와 키~나~사와~낭,
 생사윤회를 부수어버린, 1250명의 비구들에게, 한 차례 행한 것이었습니다.

Mayandāni, imaṃ māgha punṇamī nakkhatta-samayam,
 마안다~니, 이망 마~가 뽀나미~ 낙캇따 사마양,
 이제 우리들은, 마가다 보름날 상가의 날에 모여, 그 때를 기념합니다.

takkālasadisam sampattā, sucira pari-nibbutampi, taṃ Bhagavantam,
 딱갈~라사디상 삼빳따~, 수찌라 빠리닙부담삐, 땀 바가완따,
 부처님께서는 비록 완전한 열반에 드셨지만 그분을 회상하면서,

samanussaramāna, imasmim tassa Bhagavato, sakkhi-bhūto cetiye,
 사마눗사라마~나, 이마사밍 땃사 바가와또, 삭키 부~또 찼띠예,
 우리들은 그분 세존께 공경의 예를 올립니다.

Ime danḍa-dīpa-dhūpādi-sakkāre gahetvā, attano kāyam,
 이메 단다 디~빠 두~빠디 삭까~레 가헤따와~, 앓따노 까~양,
 이 성스러운 날에 우리들은 몸과 마음 다하여 예경 드리고 향과 꽃, 초들을 공양 올립니다.

sakkār'ūpadhānaṃ karitvā, Tassa Bhagavato, yathā-bhucce guṇe anussarantā,
 삭까~루~빠다~낭 가리따와~, 땃사 바가와또, 야타~ 붓찌 구나 아눗사란따~,
 무릎 꿇고 그 세존의 크신 덕을 회상하며

*imaṃ paṭimā-gharam [*thūpaṃ], tikkhattuṃ padakkhiṇaṃ karissāma,*
 이망 빠띠마~ 가람[*투~땡], 락캇투ṃ 빠닥키낭 까릿사~마,
 불상[*불탑] 앞에 삼배 드리고

yathā-gahitehi sakkārehi pūjaṃ kurumānā.
 야타~ 가히떼히 삭까~레히 뿌~장 까루마~나~,
 우리들이 가지고 마련한 공양물을 올립니다.

Sādhū no bhante Bhagavā, sasāvaka-saṅgho, sucira-parinibbutopi,
 사~두 노 반떼 바가와~, 사사~와까 상고, 수찌라 빠리닙부또삐,
 세존과 그 성스러운 제자들은 비록 완전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guṇehi dharamāno, Ime amhehi gahite, sakkāre paṭiggaṇhātu,
 구네히 다라마~노, 이메 암헤히 가히떼, 삭까~레 빠락간하~뚜,
 우리들은 그분들의 크신 덕을 기억하며 되새기겠습니다. 참된 지혜와 자비, 청정함
 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amhāk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암하~깡, 디~가랏따, 히따~야, 수카~야.

우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금생에서 행복하며 향상됨이 있도록 이 공양을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한글해석출처 : 테라와다 불교의범, 한국테라와다불교의범)



24. 부처님의 날 법회의식(Visākha Pūjā)

[Handa mayam buddhassa Bhagavato pubba bhaga namakāram karoma se:]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땃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Yam amha kho mayam, Bhagavantam saraṇam gatā, yo no Bhagavā satthā,
야 맘하 코 마양, 바가완땅 사라낭 가따~, 요 노 바가와~ 샷타~,

yassa ca mayam Bhagavato dhammam rocema:

얏사 짜 마양 바가와또 담망 로쩌마:

우리는 세존을 스승과 의지처로 믿고 따릅니다. 세존의 담마는 우리들을 기쁘게 합니다.

Ahosi kho so Bhagavā, majjhimesu janapadesu, ariyakesu manussesu uppanno,
아호시 코 소 바가와~, 맛지메수 자나빠데수, 아리야께수 마눗세수 움반노,

khattiyo jātiyā, gotamo gottena;

캣피요 자~피아~, 고타모 곱떼나;

세존은 인도 북부 지방 성스러운 가문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나셨으며, 성은 고타마 이시고, 이름은 싯닷타였습니다.

Sakya putto Sakya kulā pabbajito, sadevake loke samārake sabrahmake,
사까 뵓또 사까 굴라~ 뵓바지또, 사데와께 로께 사마~라께 사바라마께,

그분은 석가종족의 가문과 왕족이라는 세속의 부귀영화를 포기하시고 출가 사문의 길을 택하시어, 신들과 마라,

sassamaṇa brāhmaṇiya, pajāya sadeva manussāya,
삿사마나 브라~마니야, 빠자~야 사데와 마눗사~야,

범천, 범행수행자, 종교지도자, 왕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 중에서

anuttaram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

아눗따랑 삼마~ 삼보딩 아비삼뵓도.

으뜸가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Nissamsayaṃ kho so Bhagavā, araham sammā-sambuddho,

닛상사양 코 소 바가와~, 아라함 삼마~ 삼뵓도,

그 진리를 가르치는데 의심할 바 없이 능숙하신 세존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vijjā-carāṇa-sampanno sugato loka-vidū,

윗자~ 짜라나 삼반노 수가또 로까위두~,

지혜와 덕행을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일을 모두 현히 아시는 분,



anuttaro purisa-damma-sārathi saṭṭhā deva-manussānam buddho Bhagavā.
아~늦따로 부리사 담마 사~라티 샛타~ 데와 마~늦사~낭 붓도 바가와~.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Svākkhāto kho pana, tena Bhagavatā dhammo,
사왁~카~또 코 빠나, 떤나 바가와따~ 담모,

그 진리는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

sandiṭṭhiko akāliko ehi-passiko, opanayiko 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i.
산딤티고 아갈~리고 에히 빠시고, 오빠나이고 뽳짚땅 웨디답보 윈뉴~히.

즉시 볼 수 있고, 시간과 관계없이, 와서 보라 청하며,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볼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Supaṭipanno kho panassa, Bhagavato sāvaka-saṅgho,
수빠띠판노 코 빠낏사,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그 제자들인 상가는 훌륭하게 수행하고,

uju-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ñāya-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우주 빠띠판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냐~야 빠띠판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sāmīci-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사~미~찌 빠띠판노 바가와또 사~와까 상고,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노련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yadidaṃ cattāri purisa-yugāni aṭṭha purisa-puggalā
야디당 찛따~리 부리사 유가~니 앗타 부리사 뽅갈라~.

이분들은 네 쌍과 여덟 유형의 성자(聖子)들이며.

*Ayaṃ kho pana paṭimā, [*thūpo]*
아양 코 빠나 빠띠마~, [투~뽀 *탑 일때]

그러므로 이곳 불상[*불탑]을 조성하여 모신 것은

*taṃ Bhagavantam uddissa, katā patitṭhāpitā, [*kato patitṭhāpito³³)]*
땅 바가와땅 웃딤사, 까따~ 빠딤타~삐따~ [까또 빠딤타~삐또],

yāvadeva dassanena, taṃ Bhagavantam anussaritvā, pasāda-samvega-paṭilābhāya.
야~와데와 닛사네나, 땅 바가와땅 아~늦사리따와~, 빠사~다 상웨가 빠틸라~바~야.

그 존귀하신 분,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 생로병사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과 마음의 평안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Mayaṃ kho etarahi, imaṃ visākha-puṇṇamī-kālaṃ, tassa Bhagavato,
마양 코 에따라히, 이망 위사~카 뽀나미~ 갈~랑, 팃사 바가와또,

jāti-sambodhi-nibbāna-kāla-sammataṃ patvā, imaṃ thānaṃ sampattā.
자~띠 삼보디 님바~나 갈~라삼마땅 빠따와~, 이망 타~낭 삼뽳따~.

이제 우리들은 세존께서 태어나시고 깨달으시고 완전 열반에 드신 4월 보름에 이곳에 함께 모여 부처님을 회상합니다.

33) *탑 일 때



Ime danḍa -dīpa -dhūpādi -sakkāre gahetvā, attano kāyaṃ, sakkār'ūpadhānaṃ karitvā
 이메 단다 디빠 두빠디 삭까레 가헨따와~, 잇따노 까양, 삭까루빠다낭 까리따와~,
 이 성스러운 날에 우리들은 몸과 마음 다하여 예경 드리고 향과 꽃, 초들을 공양
 올립니다.

Tassa Bhagavato, yathā -bhucce guṇe anussarantā,
 탓사 바가와또, 야타~ 붓제 구네 아눗사란따~,
 무릎 꿇고 그 존귀하신 분의 크신 덕을 회상하며

*imam paṭimāgharam, [*thūpaṃ³⁴)]*
 이망 빠띠마~가랑, [투~뽕]
 불상[*불탑] 앞에

tikkhattuṃ padakkhiṇaṃ karissāma, yathā gahitehi sakkārehi, pūjaṃ kurumānā.
 띠캇뚜 빠닥키낭 까릿사~마, 야타~ 가히떼히 삭까레히, 부~장 꾸루마~나~.
 삼배 드리고 우리들이 마련한 공양물을 올립니다.

Sādhu no bhante Bhagavā, sucira -parinibbutopi, ñātabbehi guṇehi,
 사~두 노 반떼 바가와~, 수찌라 빠리닙부또삐, 냐~빠베히 구네히,
 세존께서는 비록 완전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atīt'ārammaṇatāya paññāyamāno, Ime amhehi gahite sakkāre, paṭiggaṇhātu,
 아띠~따~람마나따~야 뽕냐~야마~노, 이메 암헤히 가히떼 삭까~레, 빠띠간하~뚜,
 우리들은 그 부처님의 크신 덕을 기억하며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자비, 청
 정함을 이루신 부처님께서는 이 공양을 기꺼이 받아주시어

amhākaṃ, dīgha -rattaṃ, hitāya, sukhāya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우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금생에서 행복하며 향상되기를...

(한글해석출처 : 테라와다 불교의범, 한국테라와다불교의범)

34) *탑 앞:



25. 담마의 날 법회의식(*Āsālha Pūjā*)

[*Handa mayaṃ buddhassa Bhagavato pubba bhaga namakāraṃ karoma se.*]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뵓닷사. (3번)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을 숭배합니다.

Yam -amha kho mayaṃ, Bhagavantam saraṇam gatā, yo no Bhagavā satthā,
야 맘하 코 마양, 바가와땃 사라낭가따~, 요 노 바가와~ 샷타~,
yassa ca mayaṃ Bhagavato, dhammaṃ rocema:
얏사 짜 마양 바가와또, 담망 로췌마:

우리는 세존을 스승과 의지처로 믿고 따릅니다. 세존의 담마는 우리들을 기쁘게 합니다.

Ahosi kho so Bhagavā, araham sammā -sambuddho, sattesu kāruṇṇaṃ paṭicca,
아호시 코 소 바가와~, 아라함 삼마~ 삼뵓도, 샷떼수 까~툼냥 빠땃짜,
세존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여, 모든 존재를 향한,

karuṇāyako hitesī, anukampaṃ upādāya, āsālha -punṇamiyaṃ,
까루나~야꼬 히떼시~, 아누감뵓 우빠~다~야, 아~살~라 뽀나미양,
연민과 동정어린 마음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바라시어, 아살라 달의 보름날

Bārāṇasiyaṃ Isipatane Migadāye, pañca -vaggiyānaṃ bhikkūnaṃ,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뽀짜왁기야~낭 빅꾸~낭,
바라나시의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서, 다섯 명의 비구들에게,

anuttaraṃ dhamma -cakkam, paṭhamam pavattetvā, cattāri ariya -saccāni pakāsesi.
아눗따랑 담마 짝강, 빠타망 빠왓떼따와~, 짖따~리 아리야샷짜~니 빠까~세시.
위없는 담마를 처음으로 설하시어, 사성제의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Tasmiṃca kho samaye, pañca -vaggiyānaṃ bhikkhūnaṃ pāmukho,
따사민짜 코 사마예, 뽀짜왁기야~낭 빅꾸~낭 빠~무코,
그 때, 다섯 명의 비구들 중 연장자인,

āyasmā añña -koṇḍañño, Bhagavato dhammaṃ sutvā, virajaṃ vītamalaṃ,
아~야사마~ 안냐꼐단뇨, 바가와땃 담망 수따와~, 위라장 위~따말랑,
안냐꼐단냐 장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더러운 오염이 제거된

dhamma -cakkhum paṭilabhitvā,
담마짝쿹 빠필라비따와~,
법의 눈이 생겨나서,

"Yaṃkiñci samudaya -dhammaṃ sabban -taṃ nirodha -dhammanti."
"양깁끼 사무다야담망 삽반땃 니로다담만띠."

"생겨난 모든 현상은 어떤 것이든 반드시 사라지는 성품이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Bhagavantam upasampadam yācivā, Bhagavatoyeva santike,
 바가완땅 우빠삼빠당 야~찌따와~, 바가와또예와 산띠께,

꼰당냐는 세존을 의지해 출가하고자 간청하여, 세존 앞에서,

ehi -bhikkhu -upasampadam paṭilabhitvā, Bhagavato dhamma -vinaye,
 에히 빅꾸 우빠삼빠당 빠틸라비따와~, 바가와또 담마위나예,

‘이리 오너라. 비구들이여!’ 라는 출가의식을 받게 되고, 세존의 담마와 위나야(律)를

ariya -sāvaka -saṅgho, loke paṭhamam uppanno ahosi.
 아리야 사~와까 상고, 로께 빠타망 읍반노 아호시.

따르는 성스러운 제자인 상가가 되어, 이 세상의 첫 번째 출가자가 되었습니다.

Tasmiñcāpi kho samaye, saṅgha -ratanam loke, paṭhamam uppannam ahosi.
 따사민짜~삐 코 사마예, 상가라타낭 로께, 빠타망 읍반낭 아호시.

그래서 그 때에, 상가라는 보배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어,

Buddha -ratanam, dhamma -ratanam, saṅgha -ratanam, tiratanam sampunnam ahosi.
 붓다라타낭, 담마라타낭, 상가라타낭, 피라타낭 삼뽀낭 아호시.

부처님이라는 보배, 담마라는 보배, 상가라는 보배, 이 세 가지 보배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습니다.

Mayam kho etarahi, imam āsālha -puṇṇamī -kālam, tassa Bhagavato,
 마양 코 에타라히, 이망 아~살~라 뽀나미~ 깔~랑, 팻사 바가와또,

이제 우리들은, 그분 세존께서 처음으로

dhamma -cakkappavattana -kāla sammatañca,
 담마 짹깍빠왓따나 깔~라 삼마판짜,

담마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ariya -sāvaka -saṅgha -uppatti -kāla -sammatañca,
 아리야 사~와까 상가 읍빳띠 깔~라 삼마판짜,

성스러운 제자들인 상가가 탄생한 때이며,

ratanattaya -sampu -raṇa -kāla -sammatañca patvā, imam ṭhānam sampattā,
 라타나타야 삼부 라나 깔~라 삼마판짜 빠따와~, 이망 타~낭 삼빳따~,

삼보가 완전하게 확립된 날인, 아살라 달 보름날에, 이곳 (***) 천원에 함께 모였습니다.

Ime danḍa -dīpa -dhūpādi -sakkāre gahetvā, attano kāyaṃ sakkār'ūpadhānam karitvā,
 이메 단다 디~빠 두~빠~디 삭까~레 가헤뜨와~, 앳따노 까~양 삭까~루~빠다~낭 까리따와~,

이 성스러운 날에 우리들은 몸과 마음 다하여 예경 드리고 향과 꽃, 초들을 공양 올립니다.



Tassa Bhagavato, yathā-bhucce guṇe anussarantā,
 탓사 바가와또, 야타~ 붓째 구네 아눗사란따~,

무릎 꿇고 그 존귀하신 분의 크신 덕을 회상하며

*imaṃ paṭimā-gharaṃ [*thūpaṃ],*
 이망 빠띠마~ 가랑 [*투~빵]

불상[*불탑] 앞에

tikkhattuṃ padakkhiṇaṃ karissāma, yathā-gahitehi sakkārehi, pūjaṃ kurumānā.
 락캇똥 빠닥키낭 까릿사~마, 야타~ 가히떼히 삭까~레히, 부~장 꾸루마~나.

삼배 드리고 우리들이 마련한 공양물을 올립니다.

Sādhu no bhante Bhagavā, sucira-parinibbutopi, ñātabbehi guṇehi,
 사~두 노 반떼 바가와~, 수찌라빠리닙부또삐, 나~팍베히 구네히,

세존께서는 비록 완전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atīt'ārammaṇatāya paññāyamāno, Ime amhehi gahite sakkāre, paṭiggaṇhātu,
 아띠~따~람마나따~야 뽀냐~야마~노, 이메 암헤히 가히떼 삭까~레, 빠띠간하~뚜,

우리들은 그 부처님의 크신 덕을 기억하며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자비, 청정함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이 공양을 기꺼이 받아주시어

amhākaṃ, dīgha-rattaṃ, hitāya, sukhāya.
 암하~깡, 디~가랏땅, 히따~야, 수카~야.

우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금생에서 행복하며 향상되어지길...

Sādhu, Sādhu, Sādhu.
 (사~두, 사~두, 사~두.)

(한글해석출처 : 테라와다 불교의범, 한국테라와다불교의범)

법보시용

빨리어 예불, 의례집

편역자 : 빅쿠 까따담모 gatadhammo@naver.com

펴낸 날 : 불기(서기) 2564(2021)년 8월 일(2판)

2025년 수정본

펴낸 곳 : 승 법 사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2147번길 36

카페주소 : <https://cafe.naver.com/dhammo>

붓다의 고귀한 제자들